

개정판

김만덕 자료총서Ⅱ

개정판

김만덕 자료총서Ⅱ



일러두기

- ▷ 이 책은 크게 김만덕 관련 관련 관찬 역사기록, 당대 문신들의 만덕전과 시, 제주도 근대 김만덕 관련 자료, 김만덕 관련 유적으로 구성하였다.
- ▷ ‘당대 문신들의 만덕전과 시’부분은 초판(2008. 김만덕기념사업회)을 사용하였다.
- ▷ 사료 부분은 역문(譯文)·주석(註釋)·원문(原文)·원문이미지·지은이·해제(解題) 항목으로 꾸몄다. 사료의 배열은 관찬자료·전기·묘비문·전설 등의 순서로 하였다.
- ▷ 이 책에 나오는 관찬 역사기록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인용문의 출전은 국사편찬위원회(sillok.history.go.kr)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 ▷ 이 책에 나오는 인물·용어·주석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을 참고하였다.
- ▷ 역문은 주로 의역을 취하였으나, 특히 원전의 진의에 충실히 하려고 하였다.
- ▷ 역문 중 고사(故事), 난어(難語)에는 그 곁에 한자를 붙였다.
- ▷ 해제 및 지은이는 해당 글의 뒤에 간단하게 붙였다.
- ▷ 주석은 가급적 모든 작품별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중복된 주석이 있다.
- ▷ 이 책에 실린 사료의 출처는 목차와 해당 본문에서 밝혀 놓았다.
- ▷ 이 책의 초판인 『김만덕 자료총서Ⅱ』(2008. 김만덕기념사업회)을 출간하는데 역할은 아래와 같이 분담하였다.
 - 총괄기획, 관련유적, 유품 소개: 김은석(제주대 교육대학 교수)
 - 전기, 한시, 전설의 번역 및 해제: 윤치부(제주대 교육대학 교수)
 - 관찬사료의 번역 및 해제: 박찬식(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 『개정판 김만덕 자료총서Ⅱ』(2021. 김만덕재단)의 ‘김만덕유적’에서 김만덕의 가계·묘비문은 『김만덕 출생지 관련 조사 연구』(2020.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기념관)의 자료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 ▷ 표지에 사용된 초정 박제가의 「제주로 돌아가는 만덕을 전송하며 지은 시」 이미지는 국사편찬위원회의 朴齊家筆蹟(2) 朝鮮史編修會 유리건판 자료이다.

발간사

김만덕(1739-1812)은 조선의 르네상스기라고 하는 영조-정조 때 제주에서 나고 활동한 여성경제인이고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자선사업가이다.

당대의 관료와 유학자들은 김만덕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급히 달려가는 높은 의기(義氣)를 높이 평가하고, 동양고금의 여인 중에서 으뜸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다.

이런 김만덕의 행적과 김만덕의 정신을 다룬 전기와 소설, 시 등 많은 문학작품과 역사, 사회, 문화, 경제분야의 학술연구, 김만덕의 쌀 나눔 등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1부 「김만덕 관련 관찬 역사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이며, 제주목사의 장계, 정조와 대신들의 대치, 구휼물자의 수송과 배분, 김만덕의 선행에 대한 인용문을 통해서 제주도의 인문·사회·경제에 대해 파악하고 김만덕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사료이다.

제2부 「당대 문신들의 만덕전과 시」에서는 관찬사료에 더해서 김만덕의 모습과 행적, 정신 등을 기록하였다.

제3부 「제주도 근대 김만덕 관련 자료」, 제4부 「김만덕 관련 유적 및 현양」에서는 제주도에서 발간한 김만덕의 전기를 수록하고 김만덕 묘비문과 ‘김만덕 출생지 관련 조사연구’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당대의 사료는 모두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번역문과 한문 원문, 해제 순으로 편집하였고 김만덕에 관련된 내용은 원문 이미지를 이어서 배치하여 보다 정확하고 쉽게 사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발간한 『김만덕자료총서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개정판을 제작하였으며 당시 초판을 집필한 김은석·윤치부·박찬식 교수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은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의 목적과 사업 및 그 성과를 계승하여 '김만덕기념관(1종 공립박물관)' 운영사업과 김만덕 정신을 현양하기 위한 쌀 모금 및 기부, 김만덕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출판 등 학술 활동, 김만덕 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교류 활동, 국내외

빈곤 퇴치 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김만덕을 연구하고 현양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사료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서 김만덕의 삶과 정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김만덕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재반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1. 1. 30

(재)김만덕재단 이사장 양 원 찬

목차

발간사	5
-----------	---

제1부 김만덕 관련 관찬 역사기록(官纂史料)

1. 『영조실록』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 8월 25일 제주·경기·함경 등에 역질	17
영조실록 91권, 영조 34년 3월 6일 제주 백성을 불러 진정의 득실을 묻다	17

2. 『정조실록』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3월 2일 심낙수를 특별히 제주 목사로	19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3일 전운선 5척이 파선	34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2월 14일 정리소의 돈 1만 냥	37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5월 11일 제주에서의 진흙을 끝마치다	38
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 10월 2일 탐라의 진흙에 관한 일로 하교	42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3일 내탕전 1만 민(緡)	44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3일 섬 안에서 분진한 내용	46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15일 1만 명 이상의 호구가 감축	49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2월 3일 곡식 운반 배가 도착	50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2월 16일 돈과 목면 등을 보내다	51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4월 3일 전라 관찰사 서정수 상소	52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6월 6일 제주에 기민 진휼을 마친 논상	58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11월 25일 만덕이 굶주리는 백성을 구했다는 보고	58

3.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11월 24일 금강산 구경, 양곡과 돈을 지급 명하다	61
정조 20년 11월 25일 진휼청, 만덕에게 월 쌀 1석과 금전 5냥을 지급	63
정조 20년 11월 28일 서준보의 만덕전이 삼상을 맞아 수석	66

목차

4.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3월 8일(기미) 전라 감사 이서구 장계	73
정조 19년 을묘(1795) 3월 10일(신유) 제주 목사 이우현 장계	76
정조 19년 을묘(1795) 4월 1일(신사) 제주 목사 이우현 조용(調用)	79
정조 19년 을묘(1795) 4월 28일(무신) 전라 감사 이서구 장계	83
정조 19년 을묘(1795) 5월 11일(신유) 고한록, 홍삼필, 양성범 시상	84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3일(경술) 내탕전(內帑錢) 1만 민(緡)	96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9일(병진) 전라 감사 서정수 장계	103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12일(기미) 제주 목사 이우현 장계	104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12일(기미) 제주에 사창(社倉) 설치	106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12일(기미) 탐라 도민 출륙(耽羅島民出陸)	109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15일(임술) 제주 목사 이우현에게 유배형	111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19일(병인) 탐라의 호구(戶口)와 백성 수	113
정조 20년 병진(1796) 6월 6일(경진) 제주 목사 유사모 장계	113
정조 20년 병진(1796) 7월 28일(신미) 만덕을 육지로 내보냈다는 장계	124
정조 20년 병진(1796) 11월 24일(을축)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라	126
정조 20년 병진(1796) 11월 25일(병인) 만덕을 행수 의녀로 충원	128
정조 20년 병진(1796) 11월 28일(기사) 초계 문신에게 친시(親試)	130

제2부 당대 문인들의 만덕전(傳)과 시(詩)

채제공 「설날 흑한에 출유하다」	135
『번암집(樊巖集)』 권19 / 詩○稀年錄[下]	
채제공 「만덕전」	138
『번암집(樊巖集)』 권55	
이가환 「탐라로 돌아가는 만덕을 보내며」	150
『금대시문초(錦帶詩文抄)』	

목차

박제가 「제주로 돌아가는 만덕을 전송하며 지은 시」 『정유각집(貞莚閣集)』 권4	155
정약용 「중동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2	161
정약용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4	164
이재채 「만덕전」 『오원집(五園集)』	170
심노승 「계섬전」 『효전산고(孝田散稿)』 권7	175
조수삼 「만덕」 『추재집(秋齋集)』 권7	179
이희발 「만덕전」 『운곡선생문집(雲谷先生文集)』 권8	184
김희락 「교지를 받들어 만덕전을 지어 올리다」 『고식(故寔)』	193
이면승 「만덕전」 『감은편(感恩編)』 권3	200
유재건 「만덕」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	209
이원조 「의기만덕」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권2	219

미상 「의기만덕」	223
『탐라지(耽羅誌)』(日本東京大學所藏本) 권1	

제3부 제주도 근대 김만덕 관련 자료

김석익 「행수 김만덕」	229
『탐라기년(耽羅紀年)』 권3	
김두봉 「女子中 特異한 人物」	232
『제주도실기(濟州島實記)』	
담수계 「김만덕」	239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진성기 「만덕할망」	245
『남국의전설』, 『제주도전설』	

제4부 김만덕 관련 유적 및 현양

김응열 묘비문	249
김만석 묘비문	252
김만덕 묘비문	254
족보로 본 김만덕 가계도	257
김만덕 객주터	264
의녀반수 김만덕 의인묘	266
(구)만덕관	270
김만덕기념관	271
김만덕일대기 그림	271
김만덕 국가표준영정	276

제1부

김만덕 관련

관찬 역사기록(官纂史料)

(1757 - 1797)

英宗大王實錄

正宗大王實錄

天啓三年
承政院上
癸亥
五月
日記合

天啓三年
辛丑改粧

圖書集成
卷一百一十五
一冊
頁數 2047
元 鄭大澤校

日省錄序

1. 『영조실록』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 8월 25일 갑신 4번째기사 1757년

제주·경기·함경 등에 역질이 치성하여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제주(濟州)의 세 고을에 역질(疫疾)이 크게 번져 사망한 자가 5백여 명에 이르렀고, 경기(京畿)·함경(咸鏡) 양도(兩道)에 더욱 치성(熾盛)하여 죽은 자가 수없이 많았다.

○濟州三邑大疫, 死亡至五百餘人, 京畿、咸鏡兩道尤熾, 死者無數。

영조실록 91권, 영조 34년 3월 6일 임진 3번째기사 1758년

송문당에 나가 공물을 바치러 온 제주 백성을 불러 진정의 득실을 묻다

임금이 송문당¹⁾에 나아가서, 제주(濟州) 백성들을 불러 보았다. 이때 제주 백성이 공물(貢物)을 바치는 일로 서울에 올라온 자가 있었는데, 임금이 특별히 불러들여서 그 곳의 연사(年事)와 작년 진정(賑政)의 득실(得失)을 물었다. 이보다 먼저 섬 백성이 굶주림을 고하였는데, 임금이 근심하기를 마지 아니하여 특별히 독운 어사(督運御史)²⁾를 보내어 곡식 만여 석을

1) 송문당(崇文堂) : 창경궁의 편전이다. 편전은 평상시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나랏일과 경연을 하던 곳.

2) 독운 어사(督運御史) : 왕의 명령으로 세곡의 수납을 관장하는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임시관직.

옮겨서 구호하니, 일도(一島)의 백성이 힘입어서 온전히 살아났다.

○上御崇文堂, 召見濟州民人等。時濟民以貢獻有上京者, 上特命召入, 問其年事及前歲賑政得失。先是島民告饑, 上軫念不已, 特遣督運御史, 移粟萬餘石而賑之, 一島之民賴而全活。

【해제】

조선의 대표적인 관찬사료인 『조선왕조실록』에는 당시 제주도 구휼에 대한 기사가 다수 기록되어 있다. 앞서 소개한 기사는 김만덕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기사들 중 일부이다.

김만덕의 아버지 김응열(1721 - 1758), 어머니 전주강씨(1717 - 1751)는 김만덕이 12세에 모친을 19세에 각각 부모를 여의게 된다.

2. 『정조실록』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3월 2일 기축 2번째기사 1794년

제주 위유 순무 시재 어사 심낙수를 특별히 제주 목사로 삼다

제주 위유 안핵 순무 시재 어사(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 심낙수(沈樂洙)¹⁾를 특별히 제주 목사로 삼았다. 낙수가 장계를 올려 아뢰기를,

“신이 세 고을을 순무(巡撫)²⁾하는 임무를 띠고 1월 7일 제주에서 떠나 바닷가를 따라 돌면서 세 고을과 아홉 진보(鎭堡)³⁾를 두루 돌아보고 14일에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순행하는 길에 5리나 10리마다 남녀노소들이 연달아 떼를 지어 제가 탄 말 앞에 빙들러서서 앞을 다투어 말하기를 ‘윤음(綸音)⁴⁾ 책자를 모두 듣거나 읽었습니다. 전하께서 섬사람들을 이토록 극진히 생각하시어, 흉년을 당한 저희들의 어려운 목숨이 지금까지 살아

1) 심낙수(沈樂洙) : 조선후기 고부재자관, 희천군수, 제주목사 등을 역임한 문신.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경문(景文), 호는 일환재(一丸齋)·은파(恩坡). 1786년(정조 10) 문효세자(文孝世子)가 즉자 고부재자관(告訃齋咨官)으로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90년 이후에는 희천군수·제주목사 등 외직을 역임했다. 이는 심낙수의 언론이 과격하여 심낙수를 아끼는 친구 서유린(徐有隣)의 뜻이었다고 한다. 1795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고 고향인 파산(坡山)에서 은거하다가 죽었다. 계림전에 만덕전을 남긴 심노승의 부친이다.

2) 순무(巡撫) : “천하를 순행하며 군민을 위로하고 다스린다(巡行天下, 撫治軍民)”는 의미이다.

3) 진보(鎭堡) : 방어를 위해 쌓은 진지로 군사시설로서의 진(鎭)과 보(堡). 조선조 때의 진은 각 병영·수영·감영 밑에 둔 지방의 진영(鎭營). 보는 흙으로 축대를 쌓아 만든 작은 성이다.

4) 윤음(綸音) : 국왕이 관리나 백성에게 교훈과 경계를 주고자 내린 글을 묶은 책. 이 책은 정조 임금의 제주도에 가뭄이 들자 흉년에 지역 주민에게 시행할 구제대책과 관세를 탕감하는 등의 내용을 적어서 내린 것.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작년에 육지의 곡식을 옮겨서 보내준 전하의 은택 덕분입니다.’라고 하면서 목이 메어 흐느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신이 두루 마을을 다니면서 형편들을 자세히 살펴 보았더니 작년의 농사는 큰 흉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의(旌義)의 오른쪽 방면, 대정(大靜)의 왼쪽 방면, 제주의 오른쪽 방면 등 세 방면은 풍재(風災)⁵⁾를 가장 많이 입어 거의 참혹한 흉년을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가을과 겨울에 환곡(還穀)⁶⁾을 받으면서 그 친족에게 물린[徵族]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살림이 조금 실박한 집도 저축했던 곡식이 다 비게 되어 현재 봄철의 곤궁함을 당하는 정도가 다른 곳에 비하여 더욱 심합니다. 말 앞에 빙둘러서서 호소하는 백성들이 아직 부황난 사람은 없었으나, 식구의 수를 따져서 나누어 주는 환곡이 언제나 열흘도 넘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신에게 계문(啓聞)⁷⁾하여 곡식을 옮겨다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이 처음 섬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백성들이 곡식을 옮겨다 주는 것을 이롭게 여겨 큰 흉년이 들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요행수를 바란다는 것을 대충 알았기 때문에 곡식을 옮겨다 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일체 타일러서 거절하였습

5) 풍재(風災) : 제주도에는 풍재(風災), 한재(旱災), 수재(水災)라는 삼재(三災)의 피해가 자주 발생.

6) 환곡(還穀) : 삼정(三政)의 하나. 국가가 비축했던 곡식을 춘궁기에 백성에게 꾸어 주었다 추수 후 돌려받던 곡식 및 그 제도. 후기에는 많은 이자를 붙여 갚게 함으로써 수취(收取) 제도로 변질됨. 환곡제. 환상(還上). 환자(還子). 환정(還政).

7) 계문(啓聞) : 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문서로 할 때에는 계본이나 계목·초기(草記)·단자(單子) 등 다양한 양식을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모두 ‘계(啓)’로 바뀌면서 계문이라는 용어 역시 공식 용어가 되었다. 계문은 왕에 대한 보고이므로 문서의 양식과 절차가 법제화되어 공식적인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었다.

니다. 그래서 이런 호소는 거의 중지되었습니다만 더욱 심하게 피해를 입은 세 지방의 요청은 갈수록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신이 거듭 매번 곡식을 옮겨오자면 섬이나 육지가 모두 폐단이 있으므로 경솔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말로 타이르고 시험삼아 묻기를 ‘너희들이 만일 곤은 뱃길로 항해하여 강진(康津)⁸⁾ 등의 고을에 배를 대고 곡식을 받아가지고 오고 미역을 운반해 가서 곡식값 대신 바치는 것을, 마치 육지에 사는 백성들이 형편에 따라 다른 고을에 가서 환곡을 받아오는 것처럼 한다면 의당 이런 내용으로 장계⁹⁾를 올려 요청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았으니 아직 형편이 다급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에 장계로 올린 보고에서 한 차례 배정할 곡식의 수량이 부족하다고 한데 대해서 다시 대략 마련하여 겨우 분배하였습니다만, 더욱 피해가 심한 마을은 매번 차례를 돌며 식구를 따져 지급할 적마다 언제나 부족하여 여러 날 양식이 떨어지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조금씩 등급을 올려 나누어 주었더니 원래의 곡식 수량이 또 축이 났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형편에 따라 고쳐나갈 수 있겠으나, 섬에 심는 보리는 모두 가을 보리라서 작년 가을에는 보리 종자가 아주 귀하여 온 섬에

8) 강진(康津) : 조선시대 배는 대개 대선과 중선, 소선으로 구분했다. 대선은 80여 명, 중선이 50여 명, 소선은 30여 명이 탑승했다. 돛단배들은 좋은 바람을 만나 아침에 제주를 출발하면 저녁 나절에 마량이나 강진을 남포에 도착했다. 그러나 좋은 바람을 만나는 것은 일년에 몇 차례 없는 기회였으며, 보통 육지에서 제주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는 이틀 정도를 잡았다. 행인들은 제주와 강진의 중간 지점에 있는 완도 보길도나 추자도, 소안도, 청산도 등에서 하루를 묵어갔다.

9) 장계(狀啓) : 조선시대 왕명을 받고 외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문서.

서 보리를 간 면적이 태반이나 보통 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설사 보리가 익은 뒤라 할지라도 가을 곡식이 익기 전까지 목숨을 잇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이것이 더욱 안타까운 일이므로 미리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곡식을 옮겨오고 미역을 옮겨가는 일로 섬과 육지에서 수송할 때 그 일을 이용하여 농간을 부리는 폐단은 우선 논하지 않고 그냥 두더라도 바닷가의 나주(羅州) 등 고을의 뱃길은 내해(內海)라고는 하지만 섬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때문에 한평생 배부리는 일에 익숙한 섬 안의 사공이나 격군(格軍)¹⁰⁾이라도 미역을 옮겨갈 때 배를 침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닷가 각 고을에서 겨우 연해안의 가까운 바다 정도나 왕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바다의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배를 침몰시키지 않은 경우는 다행히 임금의 복에 힘입은 것이나 종전에는 매번 침몰되는 수가 많았습니다.

육지에 사는 죄없는 백성들을 배가 쉽게 침몰되어 반드시 죽고야 마는 곳으로 가볍게 내보내고 운반하던 곡식도 침몰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필경에는 섬사람들도 미역을 바치는 일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전하께서 섬사람들을 돌보는 데 애쓰는 지극한 뜻에 비추어 실로 완전한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곡식을 옮겨다주는 한 가지 문

10) 격군(格軍) : 조선시대에 조운(漕運) 업무에 종사하던 조졸(漕卒)을 뜻하는 조군(漕軍)에는 선장에 해당하는 사공(沙工)과 선원에 해당하는 격군(格軍)이 있었다. 사공은 모든 승선원을 지휘·통솔하고, 선박과 선적 화물을 관리하며 안전한 항해를 도모해야 하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사람이어야 했다. 그리고 격군은 선장인 사공을 보좌하여 직접 선상(船上)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실무자로서 역시 주楫(舟楫)과 수로(水路)에 익숙해야 했다. 본래 격군은 양인(良人) 신분에 속하였으나 세습적으로 천역(賤役)에 종사하여 신랑역천(身良役賤)으로 취급되었다.

제는 결코 해마다 쉽게 시행하도록 허용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섬은 토질이 척박하고 재해가 많아 세 고을을 통틀어 수확한 곡식의 총수량이 2만 섬에도 차지 않기 때문에 흉년이 든 해에는 외지의 곡식이 아니면 온전히 살아나갈 방도가 없습니다.

제민창(濟民倉)¹¹⁾을 설치한 것은 진실로 성조(聖朝)가 먼 지방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신이 이를 설치한 규모(規模)를 모르는 터에 어떻게 감히 경솔히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현재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강진(康津)이나 해남(海南) 등지로 제민창을 옮겨서 섬사람들로 하여금 왕래하며 수납(受納)하게 하고 각각 그 고을로 하여금 주고받는 일을 주관하도록 하며, 또 도신(道臣)¹²⁾에게 총괄하여 살피도록 해서 편리한 대로 운반하여 혹은 미역을 먼저 바치고 곡식을 받기도 하고 혹은 곡식을 먼저 받고나서 미역을 바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간이나 폐단을 막는 것은 또한 절목을 얼마나 엄하게 만드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조천포(朝天浦)나 미북포(未北浦) 등에서부터 남당도(南塘島)나 고달도(古達島) 등의 포구까지는 큰 바다로 나가는 뱃길이 일직선으로 마주 대하고 있으므로 사공이나 뱃사람들이 저쪽이나 이쪽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물길에 익숙하여, 원근의 섬들과 아침 저녁의 날씨에 대해서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환히 알고 있습니다. 이익에 급급하여 함부로 떠

11) 제민창(濟民倉) : 조선시대 가뭄과 폭우 등으로 흉년을 맞게 되었을 때 기근에 허덕이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했던 창고. 경상도 지방에는 사천에 창고를 설치해 곡물 6만 석을 비축, 해마다 3분의 1을 분급하도록 하였다. 전라도 지방에는 순천에 좌창(左倉)을, 나주에 우창(右倉)을 설치해 각기 곡물 3만석씩을 비축하였다.

12) 도신(道臣) : 관찰사. 조선시대 외관직 문관(文官)의 종2품 관직.

나는 고깃배나 장삿배를 제외하면 전혀 침몰될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섬에서 먹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곡식이 도착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바닷가의 곡식을 운송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험한 바다를 건너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한때의 열은 소견을 함부로 논하는 것은 지극히 황송한 일이지만, 삼가 나름대로 편리 여부에 대해 생각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리가 익은 뒤의 일을 미리 조치하는 일은, 곡식의 수량을 많이 떼어줄 필요는 없으며 영술하여 운반하는 것도 이제 다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도신을 시켜 강진과 해남 두 고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곡식을 절반 정도인 2천섬 가량을 떼어 제주 등 세 고을에 현재의 완급을 헤아려 적당히 나누어 받아가게 하고 이어서 미역을 바치게 하면 편리할 듯합니다. 또한 창고를 옮기는 데 대한 편리 여부도 먼저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올린 장계를 묘당에게 품처하도록 하소서.

신이 순시하는 길에 백성들이 폐단을 호소하여 낸 정장(呈狀)¹³⁾이 1백여 통에 이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거두어들인 잘못된 관례와 지탱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폐단은 현재 낱알이 조사해서 개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행한 일의 형편과 순시할 때의 해변을 방비하는 상태, 군기(軍器)의 정비와 군사의 실상과 목장·요새 등의 일에 대해서는 신이 복명(復命)할 때 응당 조목별로 열거하여 서계하겠습니다.” 하였다.

13) 정장(呈狀) : 소장(訴狀)을 관청에 바치는 것. 정소(呈訴).

낙수가 또 전 목사 이철운(李喆運)¹⁴⁾의 죄를 논하여 아뢰기를,

“대체로 세 고을의 굶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6백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서 얼핏 보아도 극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봄과 여름 사이에 섬 전체에 전염병이 크게 성하였고 거둑 흉년이 들어서 병든 사람은 굶어서 죽고 굶은 사람은 병들어 죽었는데, 조건없이 지급하여 구제한 하룻치의 양식이 장정은 5홉에 불과했으니 굶주리고 병든 사람을 일일이 온전하게 살리는 데에 방도가 없습니다. 이른바 굶어죽었다는 것도 여러 날 곡식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황이 나서 죽은 사람들이고 보면, 상정(常情)으로 헤아려 볼 적에, 관장(官長)이 된 사람이 고의로 수수방관하여 그렇게 돌보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옮겨온 곡식과 환곡으로 이익을 취하여 마구 낭비하고 굶주리는 사람 수와 진흙한 곡식의 수량을 허위로 기록하여 숫자를 채운 따위의 일은, 설사 스스로 말하게 하더라도 오로지 한마음으로 굶주린 사람을 구제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면(面)과 리(里)에서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고를 처음에는 직접 하라고 했다가 곧바로 명령을 전하여, 다만 조건없이 곡식을 지급한 사람 중에서만 보고하게 하고 환곡을 먹은 사람[還民]은 논한 사실이 없

14) 이철운(李喆運) : 조선 후기 무신. 생졸년 미상. 1792년(정조 16) 2월에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임명되었으며, 제주목사로 재직 중에 진흙곡 6백석을 마련하여 진흙한 공으로 표리(表裏)를 하사받았다. 1794년(정조 18) 3월에 관아의 곡식을 횡령하고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제주위유안핵순무시재어사 심낙수(沈樂洙)로부터 탄핵을 받아 삭직되었고, 같은 해 4월에는 고금도(古今島)로 유배되었다. 1797년(정조 21) 8월에 우의정(右議政) 이병모(李秉模)에 의해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방면되었다. 1800년(정조 24) 3월에는 경상좌수사에 제차 임명되었다.

었음이 면임(面任)¹⁵⁾의 공초(供招)¹⁶⁾에서 나왔습니다.

진흙하는 일이 끝난 뒤 남은 곡식을 명목을 바꾼다는 핑계로 보리가 아직 익지 않아 백성들이 굶주리는 때에 나누어 주어 유용한 것이 벌써 형편없는 짓인데, 이른바 남은 곡식을 옮기다 배가 침몰하여 유실된 수량을 보충한 것은 번거롭게 보고하고 싶지 않은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고, 환곡의 남은 수량으로 아전들이 빼먹은[吏逋] 수량을 채워주고는 아전과 백성을 똑같이 대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곡식 한 알이 사람의 목숨과 관계되는 때에 굶주린 백성들의 입 안에 들어갈 물건을 서슴없이 문서를 만들어 지급하고 또 잡비로 돌려줬으니, 이른바 명목을 바꾼다는 핑계로 유용한 것은 곡식이 귀할 때 모리 행위를 했다는 지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고한록(高漢祿)¹⁷⁾이 바친 곡식의 수량을 더 보태어 기록한 것은 환산하는 법에 준하면 축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수량은 계문(啓聞)한 것과 다릅니다. 돈을 꾸어준 일에 관련되어 못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굶주린 사람의 숫자를 더 보태어 계문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작은 일입니다. 일마다 성실하지 못하고 문제마다 진실이 없으니 여러 가지 숫자가 대

15) 면임(面任) : 조선 후기 지방 통치에서 향소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면의 책임자인 면임(面任)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면임은 지방행정 사무 전반을 담당했으며 품관·출신(出身) 중에서 선임했다.

16) 공초(供招) : 죄인을 신문하는 것을 취초(取招), 자백을 받는 것을 봉초(捧招), 두 번 이상 신문하는 것을 갱초(更招), 죄상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직초(直招), 신문에 대해 구술로 답변한 내용을 공사(供辭) 또는 초사(招辭)라 하고, 죄인에 대한 신문·답변을 통틀어 공초라고 한다.

17) 고한록(高漢祿) : 1762(영조 38)-1822(순조 22) 조선조 무신. 제주 출신으로 고취선(高就善)의 아들로 당시 유명한 부호였다. 1789년(정조 13) 무과에 급제하여, 명월만호, 강화도 감영종군 등을 역임하였다. 아들 창빈과 손자 성규도 무과에 급제하고 대정현감을 지냈다

신(臺臣)이 상소에서 열거한 것에서 절반을 줄인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말썽과 백성들의 원망은 모두 여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말총을 가지고 쌀을 거둔 것과 큰 전복이라는 명칭을 지어낸 것은 비록 작은 문제이기는 하나 원망을 얻은 것은 역시 큼니다. 보리 종자를 다룬 것과 바꾸어 판 것과 녹비(鹿皮)와 백랍(白蠟)¹⁸⁾으로 다른 물건을 사들인 것은 모두 군관(軍官)이 스스로 담당해 한 것이고 이미 지나간 일임으로 역시 그 수효를 다 조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이 상소에서 이른바 양복(涼鰓)¹⁹⁾을 사고 팔았다는 한 조목에 많은 수입이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자취는 없지만 당해 목사(牧使)의 갖가지 범한 죄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네가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서 백성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었다. 대체로 말과 글이 오히려 이처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단 말인가. 여러 가지 폐단은 편리한 대로 바로잡아서 섬에 사는 백성들이 삶을 즐기고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도록 하라.

창고를 옮기는 문제는 묘당이 품처할 것이다. 배로 실어 나르는 곡식이 아니더라도 구제하여 살릴 수만 있다면 육지의 백성들이 그에 힘입어 짐

18) 녹비(鹿皮) 백랍(白蠟) : 사슴 가죽인 녹피(鹿皮)는 귀한 가죽으로, 왕이 활쏘기를 하게 하거나 공이 있는 신하들에게 녹피를 내려주었다. 백랍[白蠟]은 표백한 밀랍으로 그 용도는 연고 기초제로 쓰인다. 피고름이 섞여 나오는 이질 설사를 치료하고[下痢膿血], 상처를 잘 아물게 하며[療傷], 기운을 나게 하는[益氣] 등의 효능이 있다.

19) 양복(涼鰓) : 복(鰓)은 복어가 아니라 전복을 말한다. 왕실 진상품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말린 전복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통째로 말린 전복(全鰓), 두드려 펴가면서 말린 추복(鰓), 사과 깎듯 얇고 길게 저며 말린 인복(引鰓)이 있고, 조복(條鰓) 등이 있다.

을 덜 수 있을 것이니 아주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에 수령을 만일 서툰 사람에게 맡긴다면 어떻게 멀리 큰 바다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밤낮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풀어 주겠는가. 너를 승진시켜 목사로 임명할 것이니 조정에 와서 행하는 사은(謝恩)은 그만두고 직무를 살피라.

문과의 시권(試券)²⁰⁾은 올라오기를 기다려 성적 순위를 매겨서 내려보내겠다. 그리고 섬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전각(殿閣)을 지어서 어제(御題)를 봉안(奉安)하기를 원하고 네가 벌써 백성들의 힘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면서 집짓는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였으니, 합격한 시권 가운데 장원한 것은 외각(外閣)²¹⁾에 명하여 인쇄해 보내도록 하겠다. 이 뜻을 모두 잘 알도록 하라.

이번 경과(慶科)²²⁾에서는 경사를 널리 축하하는 의도에서 본 도에서 올라온 선비와 무사가 있는지를 물어서 별시(別試)를 보이려고 하였는데 단지 한량(閑良) 한 사람만 여러 차례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히 금군(禁軍)²³⁾으로 임명하여 돌려가며 전랑(殿廊)²⁴⁾을 수직하게 하고 적당히 요미(料米)²⁵⁾를 주며 내년의 경과를 다시 보게 하겠다. 무과에 응시한 사람으로서 급제를 받은 사람과 문과와 무과에 합격한 사람은 내

20) 시권(試券) : 과거응시자들이 제출한 답안지 혹은 채점지를 지칭하는 용어.

21) 외각(外閣) : 조선시대 서적 교정, 축문 작성, 인장(印章) 전각(篆刻) 등을 담당하던 관청. 운각(芸閣) 내서(內書) 외각(外閣)이라고도 불렸으며, 예문관 성균관과 함께 삼관(三館)으로 여기에 승문원을 포함하여 사관(四館)으로도 불렸다.

22) 경과(慶科) :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한 과거. 개설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보던 과거 시험으로, 별시(別試), 정시(庭試), 경사가 여러 번 겹쳤을 때 시행한 증광시(增廣試) 등이 있었다.

23) 금군(禁軍) : 고려·조선시대에 설치되었던 국왕의 친위군(親衛軍).

24) 전랑(殿廊) : 궁전이나 전당(殿堂)의 복도.

25) 요미(料米) : 하급 벼슬아치 및 군인들에게 급료로 지급하던 쌀.

년 봄에 시기를 맞추어 올려보내서 동시에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하라.

네가 이제 목사로 승진하여 임명되었으니 휴대하는 밀부(密符)²⁶⁾는 전 목사가 받았던 것을 그대로 휴대하여, 왕명을 받들고 왕래하는 사행(使行)²⁷⁾의 뒤치다꺼리에 의한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라. 전 목사의 죄상은 네가 열거하여 따진 것을 보고 알지 못했던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조정에서 수령을 임명해 보내서 백성들을 무마하게 하는 것은 임금의 백성들에 대한 걱정을 나누는 데에 뜻이 있는 것이거늘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이처럼 두려워하고 삼가지 않았는가. 기민을 먹이는 행정은 더더욱 형편 없기 짝이 없다. 네가 이른바 일마다 성실하지 못하고 문제마다 진실이 없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꼭맞는 죄목이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거나 아니거나 하는 논할 것 없이 굶어죽은 사람이 그다지도 많다는 내용을 보고는 내심 깜짝 놀랐으며, 더욱이 잘못된 관례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따질 것 없이 기민을 먹인 숫자를 허위로 기록한 일을 차마 할 수가 있는가. 더구나 섬의 백성들을 위하여 폐단을 제거하는 조항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은 바로 왕위에 오른 최초에 공물(貢物)²⁸⁾을 면제하는 일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전복을 영원히 면제하는 것이었다. 그때의 하교가 과연 어떠하였는가. 그런데 그가 감히 서울에서 요구하는 데 쓸 것이

26) 밀부(密符) : 조선 시대에 병란이 일어나면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유수·감사·병사·수사 등에게 내리던 병부(兵符). 모양은 둥글고 한 면에는 몇 번째 부라고 쓰고, 다른 한 면에는 왕의 수결이 있었다. 가운데를 나누어 오른쪽 한 조각은 관찰사 등에게 나누어 주고, 왼쪽 조각은 대궐 안에서 보관하다가 병란이 있는 등 병력 동원이 필요한 경우 선전관(宣傳官) 등이 가지고 내려가 관찰사 등이 가진 조각과 맞추어보고 부합하면 병력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27) 사행(使行) : 임금의 명을 받아 관리가 파견되는 것.

28) 공물(貢物) : 중앙 관서와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여러 군·현에 부과, 상납하게 했던 물품.

라고 핑계하고는 강제로 큰 것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내 구멍이 뚫리지 않은 전복까지도 요구하여, 이 호소할 데 없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니, 어찌 지극히 밋지 않겠는가. 이밖의 잡다한 범죄는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일에 속한다.

전 목사 이철운(李喆運)은 잡아오기를 기다려 해부(該府)²⁹⁾로 하여금 우선 일반적인 범죄는 내버려두고 엄하게 형벌하여 공초(供招)를 받아서 기필코 법을 따져 엄하게 처벌하겠다. 섬의 군교(軍校)³⁰⁾와 아전으로서 포악한 짓을 도와 백성들을 들볶은 무리들은 네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대소 백성들을 모이게 한 다음 군정(軍政)에 관련된 자는 엄하게 곤장을 쳐서 조리를 돌리고 민정(民情)에 관련된 자는 특별히 엄하게 형벌하여 모두 법을 따져 무겁게 다스리라. 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섬안에 선포하라. 양가(梁哥) 사인(士人)에 관한 일은 ‘억울함은 말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모함한 것은 아니므로 증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대신(臺臣)과 벌써 질문에 따라 억지로 대답한 일이 있으니 모두 헛말이 아니라고 하여 그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 네가 다시 엄한 형벌을 가하여 처리하라.

작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가 저리하다는 것을 이미 들었는데 만일 그 죄를 형편없는 목사에게만 넘긴다면 흉년만을 죄로 여기는 것보다 더 심한 부끄러움이 된다. 대체로 목사를 책임자로 뽑지 못한 것도 곧 조정의 책임이다. 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은 곳에 가서 고아와 과부들을 모아서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제문(祭文)을 읽으면서

29) 해부(該府) : 의금부(義禁府). 조선시대 특별사법 관청. 조옥(詔獄)·금부(禁府)·왕부(王府)·금오(金吾)라 부르기도 하였다. 포도(捕盜)·순작(巡緝)·금란(禁亂)의 임무를 관장하였다.

30) 군교(軍校) : 조선 시대, 지방 관아에 속하여 군사 및 치안 업무를 맡았던 아전.

위령제를 지낸 다음 그 사실의 전말을 장문(狀聞)하라.” 하였다.

○特陞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沈樂洙爲濟州牧使。樂洙狀啓曰：

臣以三邑巡撫事，今正月初七日，自濟州離發，遵海周回，遍行三邑九鎮堡，十四日還次濟州。巡路五里十里之間，老少男婦，連絡成群，環立馬前爭言：“綸音冊子，一皆聽讀。聖念之若是眷眷於島民，乃至此極。歉歲殘命，至今視息，莫非昨年移粟之天恩”，至有吞聲嗚咽，淚流被面者。臣遍歷閭里，審察物色，昨年穡事，不至大歉，而旌義右面、大靜左面、濟州右面等三面，最被風災，殆同慘凶。重以秋冬捧糶，徵族居多，稍實戶蓄儲盡空，目今春窮，比他尤甚。馬首擁訴之民，姑無鵠面浮黃之類，而皆言計口分等之還穀，每不及於旬前，請臣啓聞移粟。臣之始入島中，略知民情之利於移粟，不至大歉，必冀倖望之故，凡以移粟爲言者，一竝曉諭拒塞，此等之訴，幾皆寢息，而尤甚三面之請，去益切至。臣申諭以每當移粟，島陸俱弊，有難輕施之意，試問汝等如可直路船泊於康津等邑，受穀而來，運藿而納，如陸民之推移受糶於他邑，則當以此意狀請爲言，則或願或不願，可見其不至遑急。去十二月二十四日狀聞中，排巡穀數不足之數，更爲從略磨鍊，僅足分排，而尤甚面里，每巡計給者，每患不足，屢日絕糧，不得已略略加等分給，則元數又縮。此猶可以推移塗抹，而島中耕麥，皆是秋麥，昨年秋耕麥種絕貴，一島所耕，太半不及於常年。雖是麥登之後，亦難拖及連命於秋穀成熟之前，此尤可悶。不可不預慮，而大概移粟移藿，島陸轉輸時資緣作奸之弊，姑舍毋論，沿海羅州等邑船路，雖云內洋，亦非島人常時往來之地，故島中篙手沙格之一生慣手者，移藿之時，猶多致敗。況沿邊各邑之僅能沿海岸內洋而往來者，忽入於大洋盪漾之中？其能不敗者，幸賴王靈，而從前每多致敗。夫以陸地無辜之人命，輕試於易敗必死之地，運輸之穀，輒多沈失，畢竟島民又因納藿而殞命，則聖朝軫恤島民之至意，實無萬全之策。移粟一款，決非每年容易許施之事，而島中土薄災多，通三邑穀，摠不滿二萬，歉荒之歲，非外穀，則亦無以全活。濟民倉設施，寔出於聖朝懷遠恤饑

之策。臣未諳設施規模，何敢輕議，而卽今所見，如得移倉於康津、海南等地，使島民往來受納，使各其官主管與受，亦令道臣摠察，隨便隨運，或先納藿而受穀，或先受穀而納藿。防奸塞弊，亦在節目疎密，則自朝天、未北等浦，至南塘、古達島等浦，大洋船路，一直相對，往來之篙手船人，毋論彼此，皆爲慣熟，遠近島嶼之指點，朝暮雲風之占候，心與境會，手與心應，除非釣船販船之汲利妄發者，則萬無致敗之慮。島中望哺，有朝發夕至之喜；沿邊轉運，無乘危涉險之患。一時淺見之妄論，雖極惶悚，竊自附於便宜可否之義，而至於麥後預慮之事，穀數不必多劃，領運今難再舉。先令道臣，區劃康津、海南兩邑中留庫穀，折半限二千石，許令濟州等三邑，量其時緩急，而從多少分受以去，仍爲納藿，則似爲便當，亦可以先試移倉之便否。以臣狀辭，令廟堂稟處。巡路民訴之以弊癘呈狀者，多至百有餘度。就其中，流來徵斂之許多謬例、難支痼弊，今方一一查括，以爲除革之地。諸般舉行形止及巡審時海防形便、軍器利鈍、卒伍虛實、牧場要害等事，臣復命時，當爲條列書啓。

樂洙又論前牧使李喆運之罪曰：

大概三邑飢故，至於六百餘口之多者，驟見極爲驚心，而春夏間一島之中，瘠氣火熾，重以飢饉，病者因飢而死，飢者因病而死。白給賑恤，一日之糧，壯者不過五合，則飢病之一一全活，其勢末由。所謂飢故，亦非屢日絕粒，舉皆浮黃墳壑之類，則揆以常情，爲官長必無故爲越視，全然不恤之理，而惟其移轉穀、還穀取利之濫費，飢口與賑穀之虛錄充數等事，雖使自爲之言，不可謂專心救飢。況面里死亡之報，初則面飭，旋以傳令，只許白給中報來，而還民無論者，出於面任之供。畢賑後留穀之稱以換色，分授那移於麥未登民飢之時者，已爲無狀，所謂移轉剩穀之充補敗船失數，謂出於不欲煩聞之意，還穀剩數之充給吏逋，亦謂之一視吏民，而一粒關係人命之時，以飢民口吻中物，無難帖給，又歸之雜費，所謂換色那移，難免穀貴時牟利之目。高漢祿之納穀加錄，雖謂之準折無縮，數則異於啓聞。事有干於貨錢，以致衆疑，則比之於飢口加錄啓聞，猶爲小事。事事不誠，件件無實。諸般數爰，雖與臺疏臚列，過半有減，而人言民怨，皆由於此。馬尾之收

米、大鰻之創名，雖是小節，取怨亦大。麤種之換賣，鹿皮、白蠟之換買，皆以軍官之自當，事屬已過，亦難窮查其數爰。臺疏所謂買賣涼鰻一款，雖無大段入己之跡，該牧使種種所犯，如右所陳。

教曰：

爾行利涉民情，特以爲慰。大抵言語文字，猶能感人若是耶？諸般弊癘，便宜釐革，使島民得以樂生安業。設倉一款，廟堂稟處。雖非船粟足可濟活，則陸民之賴以息肩，亦甚幸也。然此時，字宰若付生手，何以弛宵旰遠顧重溟之念乎？以爾陞拜牧使，除朝辭察任。文試試券，待上來科次下送，而島中人士，咸願建閣妥奉御題，爾既不煩民力而營始云。入格試券魁作，令外閣印送。此意竝須知悉。今番慶科，以廣慶之意，問本島儒武上來者，欲爲別試矣。只有閑良一人，屢試未能入格，特付禁旅，輪直殿廊，量給料米，使之更觀來年慶科。武舉人賜第者，與文武入格人，趁明春上送，以爲同時唱名之地。爾今陞拜，所佩密符，以前牧使祇受者仍佩，俾除奉命使行往來廚傳之弊。前牧使罪狀，觀於爾之論列，益知其所不知。朝廷之差送牧守，撫摩民人，意在於分憂，則渠亦人耳，焉敢若是之不畏愼乎？調賑之政，無狀尤莫甚。爾所謂事事不誠、件件無實云者，誠着題。無論邂逅與否，捐瘠之夥然，看來驚心。又無論謬例有無，賑口之虛錄，是可忍乎？且況爲島民除弊條件中最是頒令者，卽御極初蠲貢事也。其中絕大全鰻之永除，其時下教果何如，而渠敢托以用於京中求請？不但勒徵大品，乃求無穴之鰻，致此無告之籲天無從者，寧不痛惡？外此雜犯，猶屬餘事。前牧使李喆運，待其拿來，令該府，爲先除尋常嚴刑取招，期於照法嚴繩。島中校吏之助虐剝民之類，爾其大張威儀，聚會大小民人，事關軍政者，回示嚴棍，事關民情者，別般嚴刑，竝卽照法重治，爾將此意，宣布島中。梁哥士人事，雖曰稱冤，不爲無理謀陷，不可證成云，而與臺臣既有隨問強答之舉，則不可以皆非虛言恕其罪。爾其更加嚴處。昨歲饑荒，殿屎如許。旣聞之，若諉罪於無狀之牧守，則其恥甚於罪歲。大抵牧守之不得其人，卽亦朝廷之責也。爾其就墳壑最多處，聚集孤兒寡妻，設壇操文以酹之，舉行後形止狀聞。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3일 을유 2번째기사 1795년

제주 목사 이우현이 곡식을 실은 전운선 5척이 파선된 일을 치계하다

제주 목사(濟州牧使)이우현(李禹鉉)³¹⁾이 옮겨 전운(轉運)해 주는 곡식을 실은 배 5척(隻)이 파선된 일을 치계(馳啓)하니,

하교하기를,

“탐라(耽羅)에 두 번째로 전운해 주는 곡물 1만 1천 석(石)이 또 일제히 그쪽 언덕에 닿게 되어서 먹여주기를 원하는 섬 백성들의 위급한 상황을 구제해 줄 수 있게 되리라고 여겼었는데, 밤에 장계가 올라온 것을 보고서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그러다가 5척의 배가 파손되어 수백 포(包)에 달하는 곡식이 못쓰게 되었다는 사실에 또 나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고, 다시 결론 부분의 말을 보다가 감관(監官) 1명이 익사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더욱 놀랍고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1백 명에 가까운 사격(沙格)³²⁾이 개별적으로 살아 돌아온 것만은 크나큰 다행이다. 익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백(道伯)³³⁾을 엄히 신칙하여 각별히 그 가족들을 위로하며 보살펴 주는 동시에 그 족속을 뽑아 천거하도록 하라.”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31) 이우현(李禹鉉) : 조선 후기의 무신, 정조 때의 제주목사. 1794년(정조 18) 10월, 심낙수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임하고 1796년(정조 20) 4월에 떠났는데 그 이유는 해마다 흉년이 겹쳐 도내의 호구가 감축되어 그 책임을 물어 경상도 의성(義城)에 좌적(座謫)되었다.

32) 사격(沙格) : 배를 운행할 때 노를 젓는 사공(沙工)과 그를 돕는 격군(格軍)을 아울러 이르는 말.

33) 도백(道伯) : 조선시대 각 도에 파견되어 지방 통치의 책임을 맡았던 최고의 지방 장관.

돌아온 사격들 가운데 신역(身役)³⁴⁾을 진 자가 있거든 일체 덜어 주도록 분부하라.

뒤떨어진 5척의 배가 침몰한 원인을 어찌 바람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영운(領運)하는 차원(差員)³⁵⁾이 부적격자였다면 전문하기 이전에 벌써 고려했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그 책임은 도백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무슨 낮으로 차원의 죄를 청하겠는가. 당해(當該) 도신(道臣)을 먼저 월봉(越俸)³⁶⁾토록 하고, 당해 차원에 대해서는 병사(兵使)로 하여금 해변가에 크게 위의(威儀)³⁷⁾를 펼쳐놓은 다음 그를 잡아들여 엄하게 곤장을 치도록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원통한 마음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일깨우도록 하라고 분부하라.

그저께 세 번째 조운해 주는 곡물이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를 모르겠기에 묘당으로 하여금 막 관문(關文)³⁸⁾을 띄워 목사에게 물어보도록 하였는데, 그 목사가 완백(完伯)³⁹⁾에게 먼저 보고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더구나 이번에 특별히 내려보내는 곡물의 양이 목사가 더 청한 숫자보다 많은데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34) 신역(身役) :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세금에는 전세(田稅)·대동(大同)·군포(軍布)·환곡(還穀)·잡세(雜稅)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군포는 신역(身役)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그것을 돈으로 걷는 것을 신역전(身役錢)이라고 하였다. 원칙적으로 군역은 포로 대납했지만, 특히 지방관청에서 자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많은 군보를 두고 그들에게 돈을 거두었다.

35) 영운(領運)하는 차원(差員) : 배에 물품을 운송하는 감독관으로 독운차사원을 두었고 운송 책임은 영운차사원이란 직책으로 지방의 군수나 감영의 관원 중에서 뽑아 임명하였다.

36) 월봉(越俸) : 관리에게 주는 급료를 깎는 징계.

37) 위 의(威儀) : 위엄이 있는 태도나 차림새. 엄의(嚴儀).

38) 관문(關文) : 조선 시대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보내던 공문서.

39) 완백(完伯) : 전라 감사.

그러나 뽑아낼 즈음에 균등하게 하지 못한 나머지 혹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걱정은 없겠는가.

세 번째 조운해 주는 1만 포의 곡식이 그 해안에 닿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조금도 놓이지 않는데, 이를 어찌 처음 조운할 때나 두 번째 조운할 때의 심경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향과 축문을 보내어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경건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자주 하면 번독(煩瀆)⁴⁰⁾스럽게 되기가 쉽고 번독스럽게 되면 소홀하게 대하기 십상이니, 지금은 내 마음속에 돌이켜 구함으로써 나의 심향(心香)이 멀리까지 이르기만을 바랄 뿐이다. 묘당으로 하여금 전교를 가지고 별도로 도백과 목사에게 관문을 띄워 엄히 신칙토록 하라.

날알 하나 기구 하나라도 섬 백성들에게는 천금(千金)과 맞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 만약 9백 포의 곡식을 못쓰게 만들었다하여 본 목사가 요청한 수량 이외의 다른 곡식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조정의 본의이겠는가. 완백으로 하여금 이 수량에 맞춰 차례로 들여보내 주도록 하라. 그리고 섬의 사정은 다 마찬가지인 것이다. 진도(珍島)의 대동미(大同米)를 이미 감해주도록 하였다마는, 이런 춘궁기(春窮期)를 당하여 형세상 독촉하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 추수 때까지 연기해 주어 조금이라도 백성의 힘을 펴 주도록 하라.” 하였다.

○濟州牧使李禹鉉以移轉穀所載船五隻致敗事馳啓, 教曰: "耽羅再運一萬一千石穀物之又能齊泊彼岸, 庶慰島氓望哺之急, 夜見狀本, 自不覺蹶然。然以五隻幾百包之臭載, 又不覺瞠然, 更看結語, 監官一名之渰死, 尤爲驚

40) 번독(煩瀆): 번거롭고 귀찮다.

惻, 惟以近百名沙格之箇箇生還爲大幸。 滄水人嚴飭道伯, 各別慰恤其家屬, 拔薦其族屬, 萬死生還沙格等之如有身役者, 一竝除減事分付。 落後五隻之沈沒, 豈諉之風力乎? 領運差員之不得其人, 未運時固已慮之。 然則其罪道伯當當之, 以何顏請罪差員乎? 當該道臣, 爲先越俸, 當該差員, 令兵使大張威儀於海邊, 拿入嚴棍, 一以慰冤, 一以警愾事分付。 再昨以三運穀物之未知其有裕與不足, 纔令廟堂關問該牧矣。 際見該牧先報完伯之說, 今則始可降心, 況今番特下之數, 過於該牧之加請之數者乎? 然抄拔之際, 能免不均, 而或至於填壑之患乎? 三運萬包未泊之前, 予所一念懸懸, 豈比於初運再運之時乎? 非不欲更送香祝, 虔禱利涉, 而數近於瀆, 瀆則易怠。 今方反求之方寸, 以祈心香之遠格, 令廟堂將此傳教, 別關嚴飭於道伯牧倅, 雖一粒一機之微, 在島民可敵千金, 則若以九百包穀之臭載本牧, 所請之數外, 不爲代送, 豈朝家本意? 令完伯準此數, 鱗次入送。 島則一也, 珍島大同, 雖已減斗, 當此春窮, 勢難督捧, 限秋成停退, 以紓一分民力。”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2월 14일 병인 2번째기사 1795년

탐라의 진휼을 돕도록 정리소의 돈 1만 냥을 전라도의 관찰사에게 떼어 주다

정리소(整理所)⁴¹⁾의 돈 1만 냥(兩)을 전라도 관찰사에게 떼어 준 뒤 편리한 대로 곡식으로 바꿔 탐라(耽羅)로 보내줌으로써 진휼(賑恤)하는 데

41) 정리소(整理所) : 정리소는 장차 1795년 을묘원행에서 펼쳐질 각종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1794년 12월에 설치한 임시 기관이었는데, 화성 성역이 끝난 후 외정리소라하여 정조를 비롯한 역대 임금이 행차할 때 화성 행궁에서의 행사 준비를 담당하는 관청이 되었다. 처음에 정리소는 장용내영에 설치하였는데, 1796년(정조 20) 화성 행궁이 완성되면서 유여택 앞에 외정리소를 세웠다. 외정리소는 호조판서가 겸임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화성의 경우는 화성 유수가 겸직하였다.

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이때 탐라에 큰 기근이 들자, 정의 현감(旌義縣監) 남숙(南湊)이 상소하여 섬 백성들이 잇달아 쓰러져 죽는 정상을 상세히 진달하고는 곡식을 배로 운송하여 진휼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상이 대신을 불러 물어본 뒤 정리소의 돈을 떼주어 섬 백성들 모두가 은덕을 입게 함으로써 이해를 경사스럽게 하려는 뜻을 보여 준 것이었다.

○劃付整理所錢一萬兩于湖南伯, 從便作穀裝送耽羅, 俾作賑資。 時, 耽羅大饑, 旌義縣監南湊上疏, 備陳島民顛連之狀, 仍請船粟賑。 上召問大臣, 仍以整理錢劃給, 俾令一島民庶, 咸被慈德, 以示是年節慶之意。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5월 11일 신유 1번째기사 1795년

제주에서의 진휼을 끝마치다

제주(濟州)에서 진휼(賑恤)을 행하였는데, 1월부터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끝마쳤다. 【제주·대정(大靜)·정의(旌義)의 기민(飢民) 72만 5천 3백 29명에게 2만 5천 9백 5석(石)의 곡식을 들여 진휼하였다.】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장계를 올리기를, “이번에 진휼하는 일로 1만 석을 원래 획급(劃給)해 주신 것만도 우례(優例)에 의거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또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어 5천 포(包)를 따로 내려 주셨고 게다가 기대 밖으로 정리소(整理所)의 돈으로 곡식을 바꿔 1만 석이나 특별히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구렁텅이에 뒹굴던 백성들이 집안에서 편히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임금의 위령(威靈)이 미치는 가운데 대대적인 진휼 사업이 완결을 고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移轉)해 준 곡식에 대해서는 미역으로 대신

바쳤던 전례(前例)가 본래 있는데, 현재의 민간 형편이 예전과는 크게 다르니, 내년 봄까지 기한을 물려주셨으면 합니다. 묘당⁴²⁾으로 하여금 품지(稟旨)⁴³⁾하여 분부토록 해 주소서.

본주(本州) 사람으로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은 곡식을 무역해 진홀에 보탠 것이 무려 3백 석이나 되고, 장교(將校) 홍삼필(洪三弼)과 유학(幼學) 양성범(梁聖範)은 자원해서 납부한 곡물이 각각 1백 석이나 되니, 가상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진홀청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 이우현이 진홀을 끝내고 올린 장계를 보건대, 진홀청의 환곡(還穀)을 받은 백성에게까지 똑같이 무상으로 지급하면서 한 때의 생색낼 밑천으로 삼았는데, 한 번 이런 예가 생겨나면 뒷 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해(該) 목사를 나문(拿問)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미역으로 대신 바칠 때 횡수를 끌어 정퇴(停退)시키는 것은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만, 지금은 이미 절기(節期)가 지났으니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계를 올린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굶어 죽은 자가 많다는 말을 어려워하지 않고 보고하였으니 일이 매우 놀랍기만 하다. 엄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마는, 사실대로 자수한 것이 그래도 숨기거나 속인 것보다는 나으니, 잡아와 처리하는 일은 우선 참작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의 공로가 죄과(罪過)를 덮

42) 묘당(廟堂) : 본래 ‘나라의 정치를 다스리는 조정(朝廷)’이란 의미로, 의정부를 가키는 말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비변사 설치 이후 의정부가 유명무실해지고 비변사가 정치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면서 비변사도 묘당이라 불렀다.

43) 품지(稟旨) :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왕에게 아뢴 뒤 왕의 결정을 받아 일을 시행하라는 뜻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는 품정(稟定), 품처(稟處) 등이 사용되었다.

어줄 만하다고 해서 벌써 승서(陞叙)한 것은 지나치다. 전에 내린 시상(施賞) 전지(傳旨) 및 승전(承傳)을 취소하여 시비를 분명히 드러내도록 하라.

전 현감 고한록이 매번 사재(私財)를 내놓곤 하는데 바다 밖의 풍속으로 볼 때 백성들을 사랑할 줄을 알고 있으니 정말 가상한 일이다. 특별히 대정 현감(大靜縣監)으로 임명했다가 이어 군수(郡守)의 경력을 쌓게 하라. 홍삼필과 양성범이 1백 석을 자원해서 납부한 것은 육지에서의 1천 포(包)와 맞먹는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모두를 병조로 하여금 순장(巡將)으로 승진시켜 임명토록 하라.

정리소(整理所)의 곡식을 1만 포나 특별히 획급(劃給)⁴⁴⁾한 것은 바로 자궁(慈宮)⁴⁵⁾의 은혜를 먼 지방에까지 미치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어찌 의례적으로만 생각하여 배로 운반해 준 곡식과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미역으로 대신 징수하는 한 조목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론하지 말라고 분부했었는데, 회보하는 사연 속에 어찌 감히 낱낱이 들어 거론치 않았단 말인가. 해(該) 목사를 추고(推考)⁴⁶⁾하라. 그리고 완전히 탕감해 준다는 사유를 대소 민인(民人)들에게 거듭 유사함으로써 이것 역시 자궁의 은혜를 확충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끔 하라.” 하였다.

○辛酉/濟州設賑自正月始設, 至是畢賑。【濟州、大靜、旌義飢民七十二萬五千三百二十九口, 賑穀二萬五千九百五石零。】 牧使李禹鉉狀啓曰:

44) 획급(劃給) : 갈라서 나누어주는 것. 획하.

45) 자궁(慈宮) : 현경왕후 홍씨(獻敬王后 洪氏, 1735년 8월 6일(음력 6월 18일) ~ 1816년 1월 13일(1815년 음력 12월 15일))는 조선시대 후기의 왕세자빈, 추존왕비로, 대한제국의 추존황후이기도 하다. 영조의 차남 장조(莊祖, 사도세자)의 비이자, 정조의 어머니이다.

46) 추고(推考) : 벼슬아치의 죄과를 추문(推問)하여 고찰하는 것.

今番賑事，一萬石元劃，既據優例，五千包別下，又推特恩，整理錢換作穀一萬石特下於所望之外。使彼溝壑之民，厝之衽席之上，王靈所暨，大賑告訖，而移轉穀涼藿代捧，自是已例。見今民間形勢，與前大異，待明春退捧。請令廟堂稟旨分付。本州人前縣監高漢祿貿穀補賑，至於三百石，將校洪三弼、幼學梁聖範願納穀物，各爲一百石，極爲可尙。

賑恤廳啓言：“濟州牧使李禹鉉畢賑狀啓，賑還民之同爲白給，一時徽譽之資，一番創例，後弊難遏，該牧使拿問處之。涼藿代捧之引年停退，事係無前，今已過節，則民情不可不念，依狀請許施。”教曰：“捐瘠夥然之說，無難登聞，事甚駭然。非不知嚴處，而首實猶勝於匿瞞，拿處姑爲參酌。勞可掩罪而已，陞敘過矣。向下施賞傳旨及承傳爻周，以別涇渭。前縣監高漢祿每每捐財，海外土俗之能知存愛，萬萬可尙。特差大靜縣監，仍用郡守履歷。洪三弼、梁聖範百石願納，可敵陸地之千包，竝令兵曹巡將陞差。整理穀萬包之特劃，卽欲遠暨慈恩也，豈比備禮船運之穀物乎？涼藿代微一款，切勿舉論事分付，報辭豈敢不爲枚舉乎？該牧使推考，以其蕩滌之由，申諭大小民人，俾知此亦出於慈恩所推。”

탐라의 진휼에 관한 일로 하교하다

하교하였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탐라(耽羅) 백성에 관한 일이다. 지난해 진휼(賑恤)하면서 있는 힘과 정성을 다했는데도 보고해 온 바에 따르면 굶어 죽은 사람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한다. 모두가 나의 죄이고 나의 탓이라 하겠지만 마음은 허탈해지고 슬퍼지기만 한다. 그런데 지금 수신(守臣)⁴⁷⁾의 장계를 보건대 농사가 또 흉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하니 섬 백성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다. 그들을 구제해 줄 방도를 서둘러 강구하고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겨울 제때에 구제해 주지 못한 교훈이야말로 어찌 오늘날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호남 연해(沿海) 고을의 농사가 지난해와 다름없이 흉년이 들었고 보면 저 섬 백성들만 위하고 이 연해 백성들은 소홀히 한다는 것도 정말 차마 못할 일이다. 그리고 섬 백성들 역시 이 육지의 백성들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도신과 수신이 제대로 마음을 다해 경영하면서 공사(公私)의 배들을 집결시키고 무역할 길을 열어주되 배를 띄웠다는 형식만 갖추지 말고 배를 띄운 실효가 있게 한다면 정말 다행이겠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손을 쓸 수 없는 형편이라면 먼저 호남으로 하여금 1만 포(包)의 곡식을 연해 고을에 비치하게 한 뒤 운반해오건 수송해가건 간에 일체 편리할 대로 방책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타 절목(節目)

47) 수신(守臣) : '수령(守令)'의 판 이름.

에 대한 일은 오직 도신과 수신이 어떻게 조치하느냐와 묘당이 또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아침에 우상의 말을 들어보니 좋았는데, 저녁에 이조 판서의 주장을 접하고 보니 조목조목 대답한 것이 더욱 상세하기 그지없었다. 즉시 유사당상(有司堂上) 중에 이조 판서가 참가해서 의논드린 둘째, 셋째, 넷째 조목을 가지고 도신과 수신에게 관문(關文)을 띄워 물어보도록 하라. 밤중에 촛불을 밝히고 이렇게 거듭 유시하는데도 도신과 수신이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 나머지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나라에 조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조정에 기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뜻도 아울러 엄히 밝혀 분부하도록 하라.”

○敎曰: “關心者, 耽羅民事也。 昨年賑濟, (彈) 竭誠力, 而及其入聞, 填壑難計其數云。 罪已貶躬, 若關若恫。 今見守臣狀本, 年事又未免失稔, 言念島民, 寧欲無言。 其所賑救之方, 宜急不可緩。 昨冬後時之前鑑, 豈不爲今日之凜然懲羹處乎? 然而湖南沿邑之未登, 無異於昨年, 則爲彼島民, 忽此沿氓, 誠亦有所不忍, 而島民無此陸民, 何以活出乎? 道臣守臣, 若能悉心經紀, 步集公私之船, 船開貿遷之路, 無泛舟之名, 而有泛舟之實, 則固萬幸, 而此猶不可下手, 則先令湖南, 備置萬包穀於沿邑, 運致與輸去間, 一從便宜之策, 而其他節目間事, 惟在道臣、守臣之措處之如何, 廟堂指揮之又如何。 朝以右相言爲可, 而晚見吏判說, 其所條對, 尤爲詳盡。 卽令有司堂上中吏判添載收議第二三四件, 關問道、守臣。 夜中呼燭, 如是申諭, 而有道、守臣不能濟活, 若使一夫不獲, 則其可曰域中有朝廷, 朝廷有紀綱乎? 并以此意, 嚴明分付。”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3일 경술 4번째기사 1796년

내탕전 1만 민을 제주에 내려 진자로 삼고, 곡식을 내려 보내게 하다

내탕전(內帑錢)⁴⁸⁾ 1만 민(緡)⁴⁹⁾을 제주(濟州)에 내려 진자(賑資)⁵⁰⁾로 삼고, 명하기를 호남에서 금년에 응당 납부해야 할 상부(常賦) 가운데서 덜어내 남겨 두어 그 곡식을 사서 보내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나는 오직 한결같이 백성들의 식량을 생각하여 자나깨나 걱정이 되어 몸소 방사(方社)⁵¹⁾에 가서 새벽에 풍년을 빌고자 한다. 마침 호남의 방백이 제주 목사가 보고한 것을 낱알이 들어 등문(登聞)⁵²⁾한 것을 보니 바로 곡물을 더 조치해 달라는 청이었다. 배로 곡식을 실어 나르는 일에는 수부(水夫)들이 거둬 고통을 받고, 축난 곡식을 보충하는 데는 육지 백성들이 다 폐해를 받는다. 그러나 먹여주기를 바라는 섬 백성들을 어찌 차마 모른 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만일 묘당의 서찰만 앉아서 기다린다면 아무리 많은 곡식이 있어도 곤란한 형편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 겨울에는 한 지아비가 굶어 죽을 경우에는 하룻동안 밥을 먹지 않겠다는 뜻으로 도백에게 칙유하고, 그 후부터는 장선(掌膳)·상의(尙衣)⁵³⁾의 물품에서부터 일상 쓰는 경비에 이르기까지 각별히 절약하여 별도로

48) 내탕전(內帑錢) : 왕실의 자금

49) 민(緡) : 꿰미. 냥. 화폐 단위로서는 10푼分=1전, 10전錢=1냥, 10냥=1관이었다. 다섯 냥이면 쌀 한 섬을 구입할 수 있는 큰 돈이었다. 현대 화폐 단위로 비교하면 1냥은 약 7만 원 정도라고 한다.

50) 진자(賑資) : 진휼할 때 가난한 백성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물품.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상평창·진휼청 환곡을 운영하여 필요한 곡물을 확보하였다

51) 방사(方社) : 사방의 신과 토지의 신.

52) 등문(登聞) :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임금에게 알리는 것.

53) 장선(掌膳)·상의(尙衣) : 궁중 음식과 의복류

한 창고에 저축하였으니, 그것은 정히 백성들에게 신의를 보이고 겸하여 오늘날의 용도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특별히 1만 민의 돈을 내리니, 도백으로 하여금 숫자에 맞추어 곡식을 사서 계속 발송하여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몇 만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도 환곡과 진곡이 부족하면 해당 목사가 조치하고 즉시 치계하라. 재계하는 밤에 촛불을 밝히고 십행(十行)의 교서를 불러 쓰게 하노니, 하나는 도민(島民)을 위해서이고, 하나는 연민(沿民)을 위해서이다. 회남(淮南)의 점(占)에 의하면 동지(冬至)에서 원조(元朝)까지가 50일이 될 경우 곡식이 잘 되어 백성들의 식량이 족하다고 하였는데, 금년의 원조는 동지로부터 계산하면 50일이 꼭 되고 초 4일에 또 신일(辛日)을 만났으니, 풍년을 얻을 징조이다. 내가 이로써 팔방(八方)에 빌어 섬 백성들의 기쁨을 배로 늘릴 것이다.” 하였다.

○下內帑錢一萬緡于濟州，以作賑資，命就湖南今年當納常賦中除留，貿送穀物。教曰：“惟予一念民天，憧憧於寤寐，躬詣方社，曉將祈年。際接湖南伯枚舉耽羅牧守報牒而登聞者，卽穀物加劃之請也。船粟之役，水夫荐苦，補縮之費，陸民俱病，而亦豈忍怆然於島中生靈望哺之想乎？今若坐待廟堂之往復，則西江之決，不足以救涸轍。況於昨冬，以一夫填壑，當停一日之膳，飭諭道伯，伊後自掌膳、尚衣之需，至于日供常度，各加撙節，別貯一庫，正欲示信於民，而兼爲今日之用。特下萬緡錢，令道伯稱數貿粟，陸續裝發，以慰幾萬黔黎喁喁情。如是而又有不贍於還賑之資，該牧劃卽馳啓。齋宵剪燭，呼寫十行，一則爲島民也，一則爲沿民也。淮南之占，南至至元朝，爲五十日，則禾熟民食足。今年元朝，計南至，恰爲五十日，日至四而又得辛，千箱萬庾，降康其徵。予以是爲八方祝，倍爲島民喜也。”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3일 경술 5번째기사 1796년

제주 목사 이우현이 섬 안에서 분진한 내용을 비변사가 아뢰다

비변사에서 전라 감사 서정수(徐鼎修)⁵⁴⁾가 제주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섬 안에 분진(分賑)⁵⁵⁾한 일을 낱낱이 들어 장계한 내용을 가지고 아뢰기를, “세전에 자체로 곡식을 마련하여 4천 명을 진구한 일 이외에, 정월부터 4월까지 12번에 걸쳐 장정과 약자를 통틀어 4만 7백 35명에 들어간 쌀이 1만 4천 석입니다. 그런데 도신(道臣)이 이미 들여보낸 각종 곡식이 1만 1천 1백 14석이고 이미 마련하여 놓고 들여보내지 못한 것이 5천 석이니, 거기다 절미(折米)⁵⁶⁾ 7천 2백 60여 석을 더 조치한 다음에야 해당 목사가 청한 수효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호남 연해가 막 대진(大賑)⁵⁷⁾을 겪어 민력(民力)이 거둬 곤궁한데, 이제 또 1만 포(包)에 가까운 곡식을 더 보내게 된다면 장차 관민(官民)이 모두 곤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처 들여보내지 못한 5천 석은 비록 해당 목의 총계(總計) 가운데 들었지만 이것은 세 고을 수령들이 스스로 마련한 것이고, 가령 5백여 석과 세전에 사사로이 무역해 옮긴 것 수천

54) 서정수(徐鼎修) : 1749년(영조 25)-1804년(순조 4). 조선 후기 문신, 자는 여성(汝成), 호는 이현(彝軒). 본관은 대구(大丘). 증조부는 서문택(徐文澤)이고 조부는 서종엽(徐宗燁)이고 부는 유학 서명전(徐命全)이다. 외조부는 한덕전(韓德全)이고 처부는 이흥종(李興宗)이다. 1774년(영조 50) 갑오(甲午)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3등 57위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775년(영조 51) 을미(乙未) 별시2(別試) 병과(丙科) 6위 합격하였다. 성품이 조심스럽고 위엄이 있었으며 말 또한 신중하여 직각(直閣)으로 있을 때 자주 의견이 수렴되었다. 후에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 상호군(上護軍)까지 올랐다.

55) 분진(分賑) : 굶주린 사람에게 물품을 나누어주어 구휼함

56) 절미(折米) : 조선 시대에, 공물을 쌀로 환산하여 받던 일.

57) 대진(大賑) : 큰 흉년

석은 총계 이외의 것이라 치더라도 또 봄이 되어 물이 따뜻해서 상선(商船)이 몰려들게 되면 사사로이 무역한 수천 석이 세후에는 의당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도민(島民)들은 타 지역으로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여 편리할대로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게 하라는 뜻을 전에 이미 행회(行會)⁵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기르는 암말을 만일 육지로 내다 팔도록 허락한다면 역시 곡식을 마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목사가 청한 가운데 7천 2백 석이 부족한 것은 의당 몇 천 석의 숫자를 감한 것이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해도에 왕복해서 다시 실제 숫자를 헤아려 장문(狀聞)하게 한 다음에 품처하겠습니다.”

하니, 윤휴하였다. 인하여 전교하기를, “만약 한 백성이 굶어 죽더라도 1년 동안 하루에 한 끼씩의 식사를 줄이겠다고 이미 말을 했는데, 어떻게 차마 제주도의 백성들을 속이겠는가. 경들은 해당 목사에게 특별히 유시한 것을 보았으면 알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내린 1만 5천 냥으로 설혹 보리와 벼 1만 포를 무역한다 하더라도 역시 차마 강해(江海) 백성들의 힘을 거둬 번거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잉축조(剩縮條)를 내려 백성들의 부모로서 열 손가락을 다 아끼는 뜻을 보인 것이다. 모름지기 이런 뜻을 알아서 도신 및 해당 목사에게 행회하여 미처 운반하지 못한 5천 석과 지금 내려보낸 1만 석을 먼저 들여보내고, 그 외에 만일 부족함이 있으면 목사로 하여금 다시 장문하게 하라.

그리고 통상(通商)·행고(行賈)⁵⁹⁾는 본디 급한 일인데, 대저 해산(海產)의

58) 행회(行會) : 왕의 하교(下敎)나 조정(朝廷)의 결정 사항을 하달하는 것.

59) 행고(行賈) : 고정된 점포가 아닌, 각지를 돌아다니며 상거래를 하는 상인.

이익은 양대(涼臺)⁶⁰⁾와 달라서 봄날씨가 따뜻해진 후에도 전복과 미역 등 속이 많이 채워되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도신 및 연읍의 수령에게 엄히 신칙하여 자기의 일처럼 여기고 마음을 써서 권면하게 하라. 인하여 제주목으로 하여금 민간에 효유하여 값을 넉넉하게 주고 무역하게 한다면 풍문을 듣고 몰려들어 반드시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암말을 내보내는 일은 전에도 행하여 우마(牛馬)가 작년 봄에 거의 바닥이 났으므로 절제 없이 그대로 맡겨 두는 것은 자못 앞으로 번식시키려는 방도가 아니니, 역시 목사에게 엄히 신칙하여 각별히 몸소 검칙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이익이 있게 하라. 두 해 동안 흉년이 들어 전야(田野)가 개척되지 않고 있음을 알겠다. 세 고을의 수령들은 고을을 순행하면서 농사를 권장하는 일을 전일보다 1백 배나 힘을 쓴 다음에야 금년 가을에 풍년이 들 것을 기약할 수 있으니, 별도로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備邊司以全羅監司徐鼎修, 枚擧濟州牧使李禹鉉島中分賑事, 啓言: “歲前自備賑救四千口之外, 自正月至四月十二巡, 壯弱爲四萬七百三十五口, 容入米爲一萬四千石零。道臣之已入送各穀, 爲一萬一千一百十四石, 已措備未入送, 爲五千石, 則又有折米七千二百六十餘石, 加劃然後, 可以準該牧所請, 而見今湖南沿海, 纔經大賑, 民力積困。今又加以近萬包, 則將致官民俱困, 而未入送五千石, 雖入該牧穀物摠計之中, 而三邑守令自備, 假令五百餘石, 及歲前私貿遷數千石, 似在摠計之外。且春開水暖, 商舶輻輳, 則數千石私貿者, 歲後則當有加而無減。島民貧不農作之類, 許其出送, 從便就

60) 양대(涼臺) : 갯의 쉼에 해당하는 등근 테 부분. 양대는 주로 제주도에서 생산되었으며 개성·안성 등지에서도 생산되었다. 양대로 만드는 갯은 조선시대 남성의 생활 필수품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이었다.

食之意, 前已行會。私畜牝馬, 若許斥賣出陸, 則亦可爲生穀之大助。該牧所請中七千二百石之不足, 自當有幾千石之減數。分付道臣, 往復該島, 更爲酌量實數, 狀聞後稟處。”允之。仍教曰: “若使一民填壑, 限一年省却一日一時之膳, 既設言, 寧忍欺耽羅之民乎? 卿等觀於別諭該牧者, 可以知矣。然特下之萬五千兩, 設或貿牟租萬包, 亦不忍重煩江海民力, 此所以別下剩縮條, 以示爲民父母十指皆愛之意。須悉此意, 行會於道臣及該牧使處, 而未運五千石, 今下萬石, 先爲入送。其外若有不足, 許令牧使, 更爲狀聞。通商行賈, 固是急務, 而大抵海利, 異於涼臺, 春和後鰈藿之屬, 安知不多採? 嚴飭道臣及沿邑守令, 看作已事, 着意勸之, 仍令耽羅牧, 曉諭民間, 優直貿遷, 則聞風而集, 必有其效。牝馬出送, 前亦行之, 而牛馬殆盡於昨春, 則任他無節, 殊非來頭孳養之道。亦爲嚴飭牧使, 各別躬檢, 俾有竝行不悖之益。兩年歉荒, 田野之不闢可知, 三邑守宰, 巡行勸課, 比前日百倍用功, 然後今秋可期大有。另加嚴飭。”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15일 임술 1번째기사 1796년

1만 명 이상의 호구가 감축된 제주 목사 이우현에게 행건의 법을 시행하다

차대⁶¹⁾하였다. 우의정 윤시동⁶²⁾이 아뢰기를,

“제주의 삼읍(三邑)은 재작년 겨울에 초록(抄錄)⁶³⁾한 굶주린 인구가 6

61) 차대(次對) : 조선시대에 매월 여섯 차례씩 의정·대간·옥당들이 입시하여 중요한 정무를 상주하던 일.

62) 윤시동(尹蓍東) : (1729~1797년)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영조, 정조 재위기간 동안 수차례 유배를 당한 것으로 유명하다. 자는 백상(伯常), 호는 방한(方閑)이며 시호는 문익(文翼),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정조의 신임을 받았고 우의정에 재임 중인 1797년에 사망하였다.

63) 초록(抄錄) : 조사하여 기록한 장부.

만 2천 6백 98구(口)이었는데, 작년 겨울에 초록한 굶주린 인구는 4만 7천 7백 35구였으니, 1년 사이에 1만 7천 9백 63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굶주렸거나 병든 것을 막론하고 이는 다 죽은 숫자입니다. 조정에서 도민(島民)들을 염려한 것이 전후로 어떠하였습니까. 심지어 ‘한 지아비가 살 길을 잃으면 하룻동안 음식을 정지하겠다.’는 하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수령들이 잘 대양(對揚)⁶⁴⁾하지 못하여 호구의 감축이 이처럼 많게 되었으니 해당 목사 이우현(李禹鉉)에게 속히 행견(行遣)⁶⁵⁾의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따랐다.

○壬戌/次對。右議政尹蓍東啓言：“濟州三邑，再昨冬所抄飢口，爲六萬二千六百九十八口，而昨冬所抄饑口，爲四萬七千七百三十五口，則一年之內，所減縮，爲一萬七千九百六十三口。無論饑與病，皆是捐瘠者也。朝家恤念島民，前後何如？至下一夫失所，一日停膳之教，則守土之臣，不善對揚，戶口之減，至於此多，請該牧使李禹鉉，亟施行遣之典。”從之。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2월 3일 기묘 1번째기사 1796년

제주 목사 이우현이 곡식을 운반하는 배가 도착했다고 치계하다

제주 목사 이우현이 곡식을 운반하는 배가 모두 도착했다고 치계하니,
전교하기를,

64) 대양(對揚) : 대양휴명(對揚休命)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그 뜻을 널리 알려 드높임.

65) 행견(行遣) : 추방함. 유배 보냄. (伏輩不測風波如此 只.行遣耳)

“1만 냥의 돈을 구획해서 무역한 곡식이 제석일(除夕日)⁶⁶⁾에 다 도착되었으니, 어찌 그 다행함을 이루 감당하겠는가. 연초에 특별히 내린 어용조(御用條)로 무역하여 보낸 곡물 역시 과연 차례로 도착했는가? 일찍이 매일 밥 한 끼씩을 거르는 것으로 근심을 조금 풀다고 말했었는데, 어찌 차마 섬 백성들을 속이겠는가. 이것은 절약하여 떼어 준 것이니, 경은 이 한 말 한 되의 알알의 곡식이 모두 어공(御供)에서 나온 것임을 명심하여 두루 나누어 주어서 조금도 속이지 않는 보람이 있게 하라.” 하였다.

○己卯/濟州牧使李禹鉉, 以移轉穀畢到泊馳啓, 教曰: “區劃萬兩錢貿穀之除夕日畢泊, 豈勝奇幸? 歲初特下之御用條所劃, 貿送穀物, 亦果次第到泊乎? 曾以每日闕一時飯, 少紓此心, 既設言, 豈忍欺島民乎? 此所以節省劃給者, 卿以升斗粒粒, 皆出於御供之餘, 遍分而周施, 俾有一分不欺之效。”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2월 16일 임진 2번째기사 1796년

돈과 목면 등을 제주목에 보내 진자에 보태게 하다

목면(木綿) 5백 필, 돈 4천 냥, 호초(胡椒)⁶⁷⁾ 1백 두(斗), 단목(丹木)⁶⁸⁾ 3백 근을 제주목에 내려 진자(賑資)에 보태게 하였다.

○下木綿五百疋、錢四千兩、胡椒一百斗、丹木三百斤于濟州牧, 添補賑資。

66) 제석일(除夕日) :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설달그믐. 제야.

67) 호초(胡椒) : 후추의 껍질. 설사·구토·곽란 등에 약으로 쓰임.

68) 단목(丹木) : 잎이 둥글고 줄기에 노란 꽃이 피며 붉은 열매를 맺는데 그 맛은 엇과 비슷해서 먹으면 배가 부른다.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4월 3일 무인 1번째기사 1796년

서정수가 탐라의 기근으로 곡식을 운반하고 나눠주는 문제에 대해 아뢰다

전라도 관찰사 서정수(徐鼎修)가 상소하기를,

“탐라(耽羅)에 몇 해 동안 계속 기근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매우 곤궁하게 되었으므로, 전하께 밤낮으로 걱정하는 근심을 끼쳤고, 이에 누차 가서 구제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겨울과 봄에 걸쳐 천리에 잇닿을 정도의 운반선을 띄워 물자를 보내 구제하였으므로 온 섬의 생령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게 되고, 도탄에 빠졌다가 살아나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곡식을 보내 구제하는 일은 일정한 법식이 있고 백성들은 일정한 숫자가 있기에 전후로 이미 운반한 곡식을 가지고 응당 구제받을 인구 숫자와 비교하고 통상적으로 행하는 법식에 준거하니, 둘러가며 안배하고 차례대로 계속 이어주었기에 결코 궁핍한 정도에 이르는 앓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방관이 더 보내주기를 요청하였으니, 이 일은 전혀 신이 애당초 요량할 수 없었던 바입니다. 1만에 가까운 궁내의 곡식을 보내는 일이 두 차례나 격식을 벗어나서 나왔고, 이어서 연읍(沿邑)의 창고에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적정 수량을 나누어 보내주도록 하였으며, 또 바다에 빠져 유실된 곡식에 대하여 다시 보내주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신은 이 점에 대하여 허둥지둥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탐라는 비록 바다 건너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또한 관내의 속읍(屬邑)이어서 그곳을 구제하는 것은 신의 책임이니, 어찌 섬과 육지에 차이를

두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피차의 사정을 헤아려보면, 육지의 백성들도 계속 궁핍한 생활에 시달리는 것이 애당초 섬의 백성들이 연이어 기근에 시달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매번 한 차례의 곡물 수송이 있고 나면 곧바로 한층 더 민폐가 심화되는 바, 해마다 계속 해운(海運)을 하는 과정에서 온갖 폐단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의 창고에도 현재 축적된 것이 거의 없는데 지금 탐라의 요청을 그대로 따라 다 수송하기로 한다면 아마 공사(公私)의 곡물이 모두 바닥나서 육지와 섬이 모두 피해를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계책은, 바다에 빠져 유실된 만큼 다시 보내라고 한 명을 우선 중지시켜 백성들의 힘겨움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또 창고에 축적된 것을 융통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반의 수량은 이미 각읍에 신칙하여 섬수에 기준해서 내도록 했으나, 그 나머지 절반은 육지의 고을에 무역하여 수송하게 한다면 그 폐단이 연해의 창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작년 겨울 곡식을 사들였던 사례에 의거하여 해당 고을에 분부해서 휘하의 장교들을 나누어 보낸다면 방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곡식을 사들여서 배로 운송하는 일은 더욱이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의 폐단이 있습니다. 당해 목사가 현재 영암 도회소(靈巖都會所)에 머물러 있고 본 고을의 선박도 많이 와서 정박하고 있으니, 곡식을 낸 해읍이 당해 제주 목사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 교부하게만 한다면 바다를 건널 때 섬의 배가 육지의 배보다 훨씬 더 편리한 점이 있게 되고 또한 순조롭게 부쳐 폐단을 없애는 방법이라 할 만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봄 이후로 궁궐 내의 물자로서 2만 냥의 돈에 해당하는 금전·명주·후추 등을 특별히 지급한 것은 규례(規例)에 없는 사례임

을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대개 연해지역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섬의 백성들이 기근을 당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것이 바로 규례가 없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은전이 지나친 것도 구매하지 않고 상용(常用)의 물자를 덜어내어 두 차례나 궁핍의 물자를 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침수되어 유실된 부분에 대하여 대신 보내주고 창고에 남아 있는 곡물을 환급(換給)토록 한 것은 모두 마지못하여 나온 계책이었다. 상소문에서 민간의 폐단을 진술한 것이 이와 같으니, 연해지역의 백성들이 원망할 것을 생각하건대 그 소리가 곧 귀에 들리는 듯하다.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계품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하니, 비변사⁶⁹⁾가 복주(覆奏)⁷⁰⁾하기를,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주에 준비하여 보낸 각 명목의 곡물은 도합 5만 3천 5백 석이나 되니, 배로 곡물을 수송하여 구제한 은혜는 섬의 백성들 쪽에서는 참으로 하해와 같이 큰 것이고, 연해지역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 곡물을 수송하느라 누적된 곤궁도 섬의 백성들이 기근을 겪고 있는 것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주 목사가 장계를 올려 백성들의 실정이 시급한 형편이라고 요

69) 비변사(備邊司) : 조선 중기 이후의 행정 관청이다. 비국(備局)·주사(籌司)라고도 한다.

비변사는 왜란과 호란 이후 조선 말기에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런 이유로 묘당(廟堂)이라 불리기도 했다. 오늘날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 국회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었다.

70) 복주(覆奏) : 다시 심사하여 왕에게 상주(上奏)함. 조정에서 왕을 중심으로 국사를 처리하는 행정 절차 중 하나이다. 주로 사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왕이 관료가 아뢰는 일을 다시 조사하여 아뢰게 하는 것은 오류를 줄이고 그 사이에 혹은 있을지 모를 원통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때문에 복주(覆奏)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뢰었고, 왕 또한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특히 사형 죄수를 심리 판결할 때는 삼복주(三覆奏) 즉 세 번 거듭 심리하고 왕에게 아뢰는 뒤 처벌 여부의 회보를 기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복주대보(覆奏待報)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할 경우 유(流) 2,000리에 처해졌다.

청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요청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로 운송하는 일의 고생스러움에 대하여 전하께서 주야로 염려하여, 제주 군교(軍校)가 형편에 따라 사들여서 제주의 배가 나오는 대로 실어가도록 하며 차송하는 관원은 배를 타지 않게 하고 축이 난 곡물에 대하여는 특별히 보충해주고 배로 운송하는 비용은 궁내의 물자로 특별히 지급하도록 한 것 등은 모두 섬과 육지 양편 백성들의 실정을 모두 염려하여 피차가 동시에 편리하도록 한 정사였습니다. 그러나 관찰사가 상소하여 수량을 헤아려 돌려가며 안배하는 일의 일정한 법식에 대하여 진술하고, 곡물을 사들이는 일의 타당성에 대하여 차례차례 진술하였으며, 또 침수되어 유실한 부분을 다시 보내주도록 한 일을 당분간 취소시키고 새로 부임하는 목사로 하여금 담당하여 거행하게 하도록 청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이 사안의 편부(便否)에 대하여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섬의 농사 형편이 모맥(牟麥)의 파종이 잘 되어 대단한 풍년이 기대된다고 하니, 모두 요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윤허하소서.

다만 작년에 제주도의 호구가 다수 감소된 것은 오로지 요청한 곡물이 풍부하지 못하고 구제할 때 적당한 시기를 놓친 데에서 연유되었습니다. 지난 일의 잘못을 징계하고 앞날을 경계하기 위하여 전후에 걸쳐 측은하게 여기는 전교를 내리기에 이르렀고, 두 차례 궁내의 물자를 내주는 은전이 있었으며, 연해지역의 백성들에 대하여 긍휼하는 뜻도 동시에 그 속에서 행해졌습니다.

편리한 형편에 따라 사들이고 곡식을 낸 해읍(該邑)이 도회소(都會所)에 교부하는 등의 일을, 다만 아직 부임하지도 않은 신임 목사에게 거행하게

하고 감사가 관장하는 일이 없게 된다면, 시기를 놓쳐 일을 그르치는 사고가 형세상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감사가 사안에 따라 지휘하여 기필코 보리가 익기 전에 모두 운송하여 가게 하고, 또 신임 목사가 부임하는 즉시 직무를 교체시킨다면 실로 사리에 합당합니다. 이러한 일로 도신(道臣)과 수신(守臣)에게 엄하게 경계하소서.”

하니, 윤희하였다. 전교하기를, “침수되어 유실된 곡물은 작년과 금년에 운송한 5만여 섬에 비교하면 넓은 바다 가운데 한 톨의 좁쌀이나 다름없으니 그대로 두고 논하지 말라. 앞서 들인 공력이 아깝다. 모든 백성을 똑같이 보아 사랑하는 뜻에서는 연해지역의 백성들을 위하여서라도 침수된 곡물 대신으로 새로이 징발하여 보내는 일을 할 수 없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어찌 온통 방치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여 일을 그르치게 되는 한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명령이란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 법이니 보리농사가 유망하다고 소홀하게 처리할 수 없다. 제주에서 궁중음식용으로 바치는 물품을 2개월을 더 늦추도록 하라는 일로 도신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戊寅/全羅道觀察使徐鼎修上疏曰:

耽羅荐歲告飢, 民事孔棘, 仰貽宵旰之憂, 屢勤往哺之命。 冬春泛舟, 千里相銜, 環島生靈, 舉將既飽既煖, 出溝壑而奠衽席。 第念賑糴有常式, 民口有定摠, 以前後已運之穀, 較諸應受口摠, 準以常行規式, 則排巡繼等, 決知其不至窘乏, 而該守臣加請之舉, 大非臣始料所及。 近萬捐帑, 再出格外, 而仍令就沿邑留庫, 分數劃付, 且有沈失穀代送之命。 臣於是, 愴惓罔措, 不知何以爲計。 羅雖隔海, 亦管內屬邑, 其所救拯, 卽臣職分, 豈以島陸有間, 而酌量彼此事情, 陸民之積受困瘁, 未始不若島民之荐罹饑荒, 每有

一番轉輸，輒加一層民弊，而連年海運，百弊俱滋。且沿浦倉儲，見皆枵然，今若一遵島請，畢輸乃已，則誠恐公私竝竭，主客俱弊而止。爲今之計，沈失代送，姑許還寢，以紓一分民力。至於留庫推移，折半區劃之數，雖已飭各邑，準斛出給，其餘折半，若使陸邑，換貿輸送，其弊便一移轉。依昨冬貿穀例，付之該牧，分送裨校，得以方便貿入。船運一事，尤係難言之弊。該牧使方住靈巖都會所，本州船舶，且多來泊，使穀出該邑，只爲交付於該牧使所住處，則涉海之便，島船勝於陸船，而亦可謂順付除弊矣。

批曰：“春後之特給帑錢、綿椒準二萬金之數者，豈不知無於例之例乎？大抵沿民之受困，無異島氓之阻飢，此所以不顧無例，不拘恩竭，抑損常供，再發帑需者也。然而沈失條代送與留庫穀物之換給，俱出不得已。疏陳民弊既若此，言念沿民之怨咨，如聞其聲。卽令廟堂稟處。”備邊司覆奏曰：“昨今三年濟州區劃各穀，合爲五萬三千五百餘石，則船粟往哺之恩，在島民，固洵海如也，而沿民之運輸駕海，積受困瘁，殆無異於島中之荐罹飢荒，而只緣守臣狀請，民情渴急，不得不隨請許施。然宵旰之念，每軫於船運艱苦，濟校之從便換貿，耽船之隨出許載，差員之不令騎船，穀縮之別下充補，船費之帑錢另給，皆所以兼軫島陸民情彼此俱便之政，而道臣陳疏較量，排巡恒式，歷陳貿取事宜，且請沈失條代送事，姑許還寢，令新牧使擔當舉行，必有的見便否，而且聞島中農形，牟麥立苗，大有可望云。竝依所請許施，而但昨年島民戶口之多數減縮，專由於請穀之不敷，接濟之失時。懲前毖後，乃至有前後惻怛之教，再次發帑之恩，而沿民懋恤之意，未嘗不竝行于其中也。其方便貿入，與穀出該邑之交付都會等事，只令未赴任之新牧舉行，不有道臣句管，則過時誤事之患，勢所必至。此則該道臣，隨事指揮，必於麥熟前盡爲運入，亦令新牧，趁卽交龜，實合事宜。請以此，更爲嚴飭於道守臣處。”允之。教曰：“沈失穀物，比之昨今年五萬餘包，無異滄海一粟，仍爲勿論，前功可惜。其在一視之意，爲沿民雖不得徵給其代，亦豈可全然置之，不念虧實之歎乎？況命令當信，則不可以麥事之有望而忽之。濟州所封朔膳物膳，加退二朔勿封事，分付道臣。”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6월 6일 경진 1번째기사 1796년

제주에 기민 진휼을 마친 판관·현감 등을 논상하다

제주에 기민 진휼을 실시하였다. 을묘년 10월에 진휼을 시작하여 이 해 4월에 끝마쳤다.【세 고을의 기민 5만 1천 3백 3명에, 소요된 곡식은 3만 5천 1백 23석이었다.】이 일을 목사 유사모(柳師模)가 계문하니, 제주 판관 조경일(趙敬日)은 논상(論賞)하고, 대정 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은 승품하여 서용하고, 정의 현감(旌義縣監) 홍상오(洪相五)에게는 아마(兒馬)를 하사하고, 진휼을 보조한 전 순장(巡將) 홍삼필(洪三弼)은 도중의 두 고을 수령 중에서 한 곳에 차송하라고 명하였다.

○庚辰/濟州設賑。乙卯十月始賑，是年四月畢賑。【三邑飢民五萬一千三百三口，賑穀三萬五千五百二十三石零。】牧使柳師模以聞，命論賞濟州判官趙敬日，大靜縣監高漢祿陞敘，旌義縣監洪相五兒馬賜給，補賑人前巡將洪三弼，島中兩邑守令中差送。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11월 25일 병인 1번째기사 1796년

제주의 기생 만덕이 굶주리는 백성을 구했다는 보고를 받다

제주(濟州)의 기생 만덕(萬德)이 재물을 팔아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사양하면서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을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

서 연로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

○丙寅/濟州妓萬德, 散施貨財, 賑活饑民, 牧使啓聞。 將施賞, 萬德辭, 願涉海上京, 轉見金剛山, 許之, 使沿邑給糧。

○乙丑召見時原任大臣諸臣方以冊儲事仰陳 上曰昨昨年亞歲卿等之陳請也予以明年好再明年亦好愈久愈好為言予意蓋以遲遲又久為祈永之本矣時元子侍坐左議政蔡濟恭曰上下酬酢已移數時而元子端坐如植不一遊目小學之工已成矣 上曰三更後始寢未明已盥梳拜跪應對便已成習非予教之也即我朝家法也夫為學入德之門莫先於小學而近聞士夫家規小無讀小學者洋庠小學講亦廢閣不行云此亦足以觀世道也 先朝校正本即活印故未及廣布予欲重刊而未果矣又曰天下事莫不有規模予之規模已定矣領相老矣只當卧閣左相亦因中書故事不欲如例赴朝予不強之而大臣與庶僚所貴大體何責細務領敦寧雖未必有言語文字之長而所守之確予嘗歎尚判府事之文學政事靡適不可而兩大臣則今適不在時任子所委毗而責成者即右相也從古入臣之不得行其志蓋或有牽掣顧畏之患而顧今威晚之干政權奸之竊柄皆無可言朝政時務予方一以委之於卿等卿等顧何憚而不為入侍承宣亦近臣而予於十數年來積被所謂近臣輩所欺蔽世道至此靜思初心中夜髮豎今者之教子則以為今日第一義卿等毋負予意也○丙寅濟州妓萬德散施貨財賑活饑民牧使啓聞將施賞萬德辭願涉海上京轉見金剛山許之使沿邑給糧

德辭願涉海上京轉見金剛山許之使沿邑給糧○丁卯○戊辰命兩銓申明久任之規有聲績守令準丞陞用相換守令依初拜劄計仕營將虞侯未準朔者俾勿遷轉○述大司成李晚秀以南公轍代之○已巳大司憲宋煥箕上疏辭職批曰問因承宣言知卿必手寫疏本每對心畫無異面談且况從李禮舉斯文增光如卿等者翺然彙征此其時也卿須即起登途貴有鳳儀鴻漸之美○行抄啓文臣親試教曰經言之如是善對不有宿工那能到此曾聞論誦經書作為課業果叶所知且其每文各體典雅謹嚴不溺於鄙俚之俗白抄啓文臣申絢貂皮額掩一部賜給發揮已發未發之性奇哉奇哉始信嶠南學子之實地着力抄啓文臣抑台佐風耳掩一部賜給又命更試時文臣試券之不中格者書下問文臣使之條對內閣以其供辭論啓命下私文館議處○庚午○辛未○十二月壬申朔教曰大臣諸臣求對請舉封冊之禮國本定而名號正庚戌以後神人有托臣民叶願至於封冊之舉猶屬外面儀節 祖宗朝已創與聖意今予所欲仰述之本旨對諸臣言之而明年既訖傳之年也先以明年開講之意亦有言之者領相筵奏當出舉條令吏禮曹知悉○擢大司憲宋煥箕秩資憲為元子師傅領議政洪樂性啓言謹考事例三歲以前差出輔養官

正宗文王實錄卷之四十五 四十七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11월 25일 1796년> 김만덕 기사

【해제】

조선의 대표적인 관찬사료인 『조선왕조실록』에는 1796년(정조 20) 11월 25일조에 김만덕 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김만덕의 행적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로서, 크게 세 가지 화소로 되어 있다.

첫째는 김만덕이 굶주리는 제주 백성들을 구휼한 일, 둘째는 상을 주려 하자 사양하고 금강산 구경하기를 소원한 일, 셋째는 각 고을로 하여 김만덕의 금강산 구경을 돕도록 한 일 등이 그것이다. 특히 만덕을 기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김만덕이 여성경제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시기에 불어닥친 제주도의 3년 간의 대기근[1792년(정조 16)~1795년(정조 19)] 때에 제주도의 피해를 보고한 장계와 구휼에 대한 기사를 『정조대왕실록』에서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제주도의 인구는 62,698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17,963명이 굶주림과 병으로 사망했다. 1795년 윤2월 3일 전운해 주는 곡물 1만 1천 석(石)을 실은 전운선이 침몰하는 사태로 조정이 난감해 할 때 김만덕이 육지로 배를 보내 곡식을 사와서 구휼하였다.

이에 정조가 김만덕에게 의녀반수의 직을 주고 역마까지 내어주는 근밀(近密)한 예대(禮待)를 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3. 『승정원일기』

- 정조 20년 11월 24일조, 25일조, 28일조

정조 20년 11월 24일

○채제공이 말하길, “탐라의 기녀(김만덕)가 재산을 내놓아 백성을 진휼하였는데, 상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면천(免賤)¹⁾하기도 원하지 않고 오로지 왕성을 보고 금강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 그 원함에 따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겨우 서울에 올라왔는데, 마침 심한 추위²⁾를 만나 이 집저 집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만덕이 신을 찾아와서 울며 호소하는데, 그녀가 비록 천류이지만 그 의가 매우 높고 그 정이 매우 측은하므로, 유사(有司)³⁾에 분부하여 별도로 돌보아 주게 함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탐라사람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가엾게 여기는 것이 타도보다 더욱 각별하다. 그녀는 한 천한 기생으로서 의롭게 재물을 내놓아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데 힘을 썼으니 매우 가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원 또한 녹록하지 않아 이미 서울에 올라온 후에 어찌 도로에서 지내며 굶주리게 할 수 있겠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그녀에게 물어, 바라는 대로 서울에 머물렀다가 봄이 온 후에 금강산으로 내려 보내 구경할 수 있게 한 다음 양곡과 돈을 지급하여 뱃길로 본향(제주도)에 떠나보냄으로써, (조정에서) 아무런 일도 함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짐의 뜻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하라.”

1) 면천(免賤) : 천민의 신분을 면하여 평민이 됨.

2) 심한 추위 : 김만덕이 상경한 때 가벼운 죄수를 풀어줄 정로로 심한 추위의 기사는 정조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정조 20년 11월 22일 계해 2번째기사 1796년)

3) 유사(有司) :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 여기서는 진휼청.

○濟恭曰, 耽羅妓, 捐財賑民, 不願受賞, 不願免賤, 願一觀王城, 仍入金剛山, 有從願之命, 纔上來而適值劇寒, 彷徨旅邸, 來見臣泣訴, 渠雖賤類, 其義可尚, 其情可憫, 分付有司, 另加顧恤, 似好矣。

上曰, 耽羅人之朝家軫恤, 視他道尤別。渠以一賤妓, 出義捐財, 助賑窮民, 已極可嘉, 而其所願, 亦不碌碌, 既已上來之後, 何可使呼饑道? 自備局更問于渠, 如欲留, 開春後下送金剛山, 使得觀玩後給糧資, 津送本鄉, 以示無物不遂之意, 可也

嘉慶元年丙辰十一月二十四日乙丑晴
濟恭曰耽羅妓捐財
賑民不願受賞不願免賤願一觀王城仍入金剛
山有從願之命纔上來而適值劇寒彷徨旅邸來
見臣泣訴渠雖賤類其義可尚其情可憫分付有
司另加顧恤似好矣上曰耽羅人之朝家軫恤視他
道尤別渠以一賤妓出義捐財助賑窮民已極可
嘉而其所願亦不碌碌既已上來之後何可使呼
飢道自備局更問于渠如欲留開春後下送金
剛山使得觀玩後給糧資津送本鄉以示無物不
遂之意可也秉樸曰臣於備堂現告事不勝惶悚
矣上曰本事不過微細大臣之以卿宰時事八現
告勿論前後何限勉其安心可也仍命退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11월 24일 김만덕 관련 기사

정조 20년 11월 25일

○김계락⁴⁾이 진흥청의 말로 아뢰어 말하길, “하교하심에 따라 제주 기생 만덕의 거처에 오늘 한 달간 먹을 양식과 비용으로 쌀 1석과 금전 5냥을 제급(題給)⁵⁾하는 뜻을 감히 아뢰옵니다.”

임금께서 전교하기를, “알았다. 쌓인 재산을 널리 베풀어 굶주린 사람들을 구휼하고 살린 일이 조정에 알려져, 그녀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물으니, 상을 받기도 원하지 않고 면천하기고 원하지 않고, 소원은 단지 바다를 건너 서울로 올라가 금강산을 두루 보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심한 추위를 만나 금강산으로 향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비록 천한 신분이나, 의기는 옛날의 열협(烈俠)⁶⁾에 비해 부끄러움이 없다. 봄이 올 때까지 양식을 지급하여라. 곧바로 내의원에 충원시켜 행수의녀로 임명하여 수의에 속하게 하여 각별히 돌보아주고, 금강산을 보고 돌아올 때 연로의 지방관들에게 분부하여 양식과 비용을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라.”

○이정규가 내의원 도제조와 제조의 뜻을 아뢰어 말하길, “진흥청에서 제주 기생 만덕에게 지금 한 달간 먹을 양식과 비용으로 쌀과 돈을 제급한 일을 초기한 비지(批旨)⁷⁾ 내에 ‘알았다. 쌓인 재산을 널리 베풀어 굶주린 사람들을 구휼하고 살린 일이 조정에 알려져, 그녀의 바라는 바가 무

4) 김계락(金啓洛) : 조선후기 형조판서, 예조판서, 우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 변려문에 능했고 경사백가(經史百家)에 통달하였으며, 사부(詞賦)·시율(詩律)·표전(表箋)·송(頌)·조(詔)·책(策) 등의 문장에 뛰어났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5) 제급(題給) :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이나 원서(願書)에 쓰던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에 따라 지급함.

6) 열협(烈俠) :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강함.

7) 비지(批旨) : 상소에 대하여 임금이 내리는 하답.

엇인지 몰으니, 상을 받기도 원하지 않고 면천하기고 원하지 않고, 소원은 단지 바다를 건너 서울로 올라가 금강산을 두루 보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심한 추위를 만나 금강산으로 향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비록 천한 신분이나, 의기는 옛날의 열협에 비해 부끄러움이 없다. 봄이 오면 양식을 지급하여라. 곧바로 내의원 차비대령 행수의녀에 충원시켜 수의에 속하게 하여 각별히 돌보아 주고, 금강산을 보고 돌아올 때 연로의 지방관들에게 분부하여 양식과 비용을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하교에 의하여 제주의 김만덕을 차비대령 행수의녀를 가설하여 충원 차임케 할 뜻을 감히 아웁니다.” 임금께서 전교하시기를, “알았다.”고 하였다.

○ 金啓洛,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敎, 濟州妓生萬德處, 今朔糧資米一石·錢五兩, 題給之意, 敢啓。傳曰, 知道。散施貲累, 賑活飢口, 事聞朝廷, 問渠所望, 則不願受賞, 亦不願免賤, 所願只在於涉海上京, 轉見金剛云, 而仍值劇寒, 不得發向。渠雖賤物, 義氣不愧古之烈俠, 開春間給糧料, 直充內醫院差備待令行首醫女, 屬之首醫, 各別顧見, 見金剛還送時, 分付沿路道臣, 優給糧資, 可也

○ 李鼎揆, 以內醫院都提調·提調意啓曰, 賑恤廳濟州妓生萬德今朔糧資米錢題給事, 草記批旨內知道。散施貲累, 賑活飢口, 事聞朝廷, 問渠所望, 則不願受賞, 亦不願免賤, 所願只在於涉海上京, 轉見金剛云, 而仍值劇寒, 不得發向。渠雖賤物, 義氣不愧古之烈俠, 開春間給糧料, 直充內醫院差備待令行首醫女, 屬之首醫, 各別顧見, 見金剛還送時, 分付沿路道臣, 優給糧資可也事, 命下矣。依下敎, 濟州婢萬德, 差備待令行首醫女, 加設充差之意, 敢啓。傳曰, 知道

嘉慶元年丙辰十一月二十五日丙寅晴

○金啓洛以賑恤廳言

啓曰、依下教、濟州校生萬德虞、今朔糧資米一石、錢五兩、題給之意、數啓傳曰、知道、截施費累、賑活飢口、事聞朝廷、問渠所望、則不願受賞、亦不願免賤、所願只在於涉海上京、轉見金剛云、而仍值劇寒、不得發向、渠雖賤物、義氣不愧古之烈俠、聞春問給糧料、直充內醫院差、備待令行首醫文、屬之首醫、各別願見、見金剛還送時、分付沿路道臣、優給糧資可也、○李淵揆以內醫院都提調、提調憲啓曰、賑恤廳濟州校生萬德、今朔糧資米錢題給事、草記批首內知道、截施費累、賑活飢口、事聞朝廷、問渠所望、則不願受賞、亦不願免賤、所願只在於涉海上京、轉見金剛云、而仍值劇寒、不得發向、渠雖賤物、義氣不愧古之烈俠、聞春問給糧料、直充內醫院差、備待令行首醫文、屬之首醫、各別願見、見金剛還送時、分付沿路道臣、優給糧資可也、事命下矣、依下教、濟州校生萬德、差備待令行首醫文、加設充差之意、數啓傳曰、知道、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11월 25일 김만덕 관련 기사

정조 20년 11월 28일

만덕전 셋을 임금께 올렸는데, 그 가운데 권지승문원 부정자 서준보(徐俊輔)⁸⁾의 것이다.

정조 19년 갑인년에 탐라에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음을 보고하여 왔다. 임금께서 명을 내려 창고를 열고 제주에 가서 백성들을 먹이라고 하였다. 이에 국고에서 돈을 내고 연해안 지역에서 곡식을 내니 그 수가 모두 수만이 되었고 구휼선이 바다에 떴다. 향을 내리어 바다에 제사를 지내니 바다의 파도가 일지 아니하여 많은 배들이 평온하게 바다를 건너 오고갔다. 아! 다음해인 을묘년에 또 굶주림을 보고하니, 또 한 번 갑인년의 예보다 더하여 자해를 베풀었다. 그런데도 섬의 백성들은 모두 복讎을 바라보며 (구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계수(稽首)⁹⁾하며, 나라가 흉년이든 고통을 알지 못하였다. 당시 만덕이란 자가 있었는데, 제주의 관비였다. 어려서부터 척당(倜儻)¹⁰⁾하여 장부의 뜻이 있었다.

비록 노닐며 천하게 몸을 파는 여자라고하나 몸가짐과 일처리를 함에 왕왕 출입하는 뜻이 있어(명분을 가지고 처신하여) 제주의 관리들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였다. 재산이 넉넉하고 의로움에 돈독하여 사람이 급한 상황에 있으면 천금을 티끌같이 내어놓았다. 항상 작은 섬에 갇혀 있어 그 뛰어남을 펼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겼다.

8) 서준보(徐俊輔) : 1770년(영조 46)~1856년(철종 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치수(樞秀), 호는 죽파(竹坡). 1790년(정조 14) 진사시에 장원하였고, 1794년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조선 순조·헌종·철종 때의 문신.

9) 계수(稽首) : 구배(九拜)의 하나. 머리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굽혀 하는 절이다.

10) 척당(倜儻) : 뜻이 크고 기개가 있음.

당시 제주목사가 관아에 나아가 임금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만덕은 곁에서 언문으로 읽는 것을 듣고는 한숨을 쉬며 말하길, “바다로 멀리 떨어져 있고 구중(九重)¹¹⁾은 깊숙한데, 우리 제주도민을 먹이는 것은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죽을 자를 구하는 것과 같이 시급하다. 우리 소인들이 감히 자신의 재물에 애착을 가져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할 것인가.” 드디어 재물을 내어 가난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구휼하니, 전후로 살아난 사람이 수천 명이 되었다.

이 일이 조정에 보고되니 임금님께서 가상히 여겨 제주목사에게 명하여 그녀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게 하였다. 만덕은 사양하며 말하길, “이웃마을 사람들을 구휼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감히 상을 바라겠습니까.” 제주목사가 천역을 면하길 바라는지 묻자, 또한 사양하며 말하길, “천인이 천한 것은 지당할 따름인데 면한들 또한 어찌하겠습니까.”

제주목사가 다시금 소원을 물으므로, 이에 말하길, “계속 말하라 하시면 하나가 있을 따름입니다. 제가 수천 리 떨어진 남쪽바다 바깥에 살고 있으면서 한번 서울의 궁궐에 머물며 서울사람과 선비·여인들과 더불어 우모(羽旄)¹²⁾를 함께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나라 동쪽에 개골산(皆骨山)¹³⁾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도 한 번 보는 게 지극한 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탐라는 비록 변방이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시 조선에 속한 지방인지라, 한번 눈여겨 볼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일이 저의 지극

11) 구중(九重) : 궁궐을 말함.

12) 우모(羽旄) : 임금의 가마에 끄는 새의 깃으로 꾸며 기(旗).

13) 개골산(皆骨山) : 겨울의 금강산.

한 소원입니다.”

제주목사는 그 실상을 보고하니, 임금님께서는 열협하다고 하여 칭찬하여 말을 지급하고 양식을 갖추어 주었다. (만덕이) 서울에 당도하자 태의 원에 명하여 그녀를 여의 가운데 으뜸으로 속하게 하고, 선혜청으로 하여금 한 달간 돈과 쌀을 지급케 하였다.

(만덕이 서울에 왔을 때에) 큰 눈이 와서 봄을 기다려 금강산에 갈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함으로써, 그 소원을 풀게 하였다. 이에 만덕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모여 구경하며 그녀를 칭찬하며 말하였다. 진신대부(鎭紳大夫)¹⁴⁾들이 그 일을 기록하고 기이함을 전하니 만덕의 이름이 나라 안에 퍼져나갔다.

아! 재물을 쌓아놓고도 내어놓는 것은 남자라도 하기 힘든 것이고, 공을 세워서 상을 사양함은 사대부들도 판별하지 못하는 일이다. 만덕은 섬 속의 한 여자로서 몸은 관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천하다고들 하여도 이러한 일을 능히 하였으니, 이 어찌 훌륭하다고 하지 않을 것인가. 또한 하물며 한 번 서울 궁궐을 구경하겠다는 소원은 진실로 병이(秉彝)¹⁵⁾함에서 나온 것이며, 하늘이 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섬과 육지를 가리지 않고, 귀천의 경계 없이 금강산 유람은 또한 기이하고 장대하다고 할 것이다. 탐라는 세상 사람들이 영주라고들 칭한다. 만물 중에 빼어난 것으로서, 기린¹⁶⁾, 죽전¹⁷⁾, 굴과 유자 등의 특산물이 있어 왕의 조정에 진상되는데, 만덕 또한 이러한 빼어난 종류의 인물이 아

14) 진신대부(鎭紳大夫) : 벼슬아치를 말함.

15) 병이(秉彝) : 타고난 천성을 그대로 지킴. 타고난 성품.

16) 기린(麒麟) :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상상의 말.

17) 죽전(竹箭) : 대나무로 만든 화살.

니겠는가.

일찍이 파촉(巴蜀)의 청(淸)¹⁸⁾이라는 여인을 들은 바 있는데, 그는 단혈(丹穴)¹⁹⁾로써 자신의 부를 세대에 걸쳐 전승하여 진시황이 그를 위해 누대를 축조²⁰⁾해 칭송했다. 오늘 날 만덕은 파촉의 청과 같은 재물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가²¹⁾의 의리²²⁾를 겸하였다.

섬 속에서 일어나 이름을 사방에 알렸으니, 태사공²³⁾으로 하여금 쓰게 한다면, 만덕의 내용은 장차 화식(貨殖)의 열전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열협(烈俠)의 열전에 넣을 것이겠는가.

○ 萬德傳三上, 權知承文院副正字徐俊輔, 上之十有九年甲寅, 耽羅告饑。

18) 파촉(巴蜀)의 청(淸) : 파(巴). 江州(지금의 重慶市 북 쪽 嘉陵江 북쪽)가 관할 지역이었음. 땅에는 청(淸)이라는 이름의 과부가 있었다. 그녀의 조상이 단사(丹砂, 금광)를 캐내는 동굴을 발견하여 여러 대에 걸쳐 이익을 독점해 왔으므로, 가산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청은 과부였으나 가업을 잘 지키고, 재물을 이용하여 자신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침범 당하지 않았다. 진시황은 그녀를 정조가 굳은 부인이라고 여기어 손님으로 대우해 주고, 그녀를 위해서 여회청대(女懷淸臺 ; 지금의 四川省 長壽縣 남쪽에 있음. ‘懷’자는 과부의 성씨라는 설도 있음)를 지어주었다. “巴蜀寡婦淸 其先得丹穴 而擅其利數世家亦不訾 淸寡婦也 能守其業 用財自衛 不見侵犯 秦皇帝以爲貞婦 而客之 爲築女懷淸臺”(司馬遷, 『史記』 卷 129, 貨殖 列傳).

19) 단혈(丹穴) : 단사(丹砂, 금광)가 채굴되는 굴.

20) 여회청대(女懷淸臺)

21) 노가(魯家) : 태산(太山), 또는 공자(孔子)를 가리킨다. 『맹자(孟子)』 「진심(盡心)」 上에 “공자께서 동산(東山)에 올라서는 노나라를 적다고 여기시고 태산에 올라서는 천하를 적다고 여기셨다[孔子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라고 하였다.

22) 노가지의(魯家之義) : 인간의 본래 모습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위는 남을 나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자는 인을 ‘애인(愛人)’이라고 하여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본래 모습인 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의(인간의 본래 모습인 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의(義))로 정의된다.

23) 태사공(太史公) : 사마천. 중국 전한 시대의 역사가.

上命發倉往哺之，於是錢出於帑，粟出於沿，厥數皆萬萬，方舟之汎也，降香祭海，海波不揚，千櫓穩涉，如往而復，粵翌年乙卯又告饑，一甲寅之例而加之以慈恩，一島黎庶，咸北望稽首，不知荒年之苦也。時有萬德者，州之婢也，少倜儻有丈夫志，雖賤娼乎遊，持身處事，往往出入意，官于州者，亦未嘗蔑之，饒於財而篤於義，見人急，芥捐千金，常恨局於彈丸，莫之展其奇。當牧伯之詣館舍宣布恩綸，萬德從傍聽諺讀，喟然歎曰，重溟遠矣，九重邃矣，粒我島民，如救焚溺，吾儕小人，其敢愛其財而利其己乎？遂散貲累賙貧乏，前後所活，爲數千人，事聞于朝，上嘉之，命牧伯詢其所欲爲，萬德辭曰，周恤鄰里常也，敢望償乎？牧伯欲免其役，又辭曰，賤人賤固當爾，免亦奚爲？牧伯固問之，乃曰，無已則有一焉，婢之生在數千里南溟之外，不得一至京闕，與都人士女，同瞻羽旄，且聞國之東，有皆骨山，華人至願一見，耽羅雖僻遠，亦朝鮮之屬州也，可無一寓目乎？遂此兩事至願矣。牧伯以其宗聞，上獎之以烈侯，給馬備輶，既抵洛，命太醫院，屬之女醫之首，惠履月支錢米，時值大雪，使之待春往金剛，俾酬其願，於是萬德之所往，人皆聚觀而稱道之，播紳大夫記其事而傳奇，萬德之名，乃播於國中，噫，積而能散，男子之所難能，功而辭償，士夫之所難辨也，萬德以島中一女子，身不離婢使之賤，而乃能之，豈不偉也哉！又况一見京闕之願，實出秉義信乎天之降衷，不限於島陸，不界於貴賤，金剛之遊，又何奇耶。

亦矣。烏牧伯固問之，乃曰：無已則有一焉。婢之生在數千里南溟之外，不得一至京闕，與都人士女同瞻羽旄，且聞國之東有皆骨山，華人至願一見。耽羅雖僻遠，亦朝鮮之屬州也，可無一寓目乎？遂此兩事至願矣。牧伯以其宗聞，上獎之以烈侯，給馬備輶，既抵洛，命太醫院屬之女醫之首，惠履月支錢米，時值大雪，使之待春往金剛，俾酬其願。於是萬德之所往，人皆聚觀而稱道之，播紳大夫記其事而傳奇。萬德之名，乃播於國中。噫，積而能散，男子之所難能，功而辭償，士夫之所難辨也。萬德以島中一女子，身不離婢使之賤，而乃能之，豈不偉也哉！又况一見京闕之願，實出秉義信乎天之降衷，不限於島陸，不界於貴賤，金剛之遊，又何奇耶。

上獎之以烈俠, 給馬備糧, 既抵洛, 命太醫院, 屬之女醫之首, 惠廳月支錢米, 時值大雪, 使之待春往金剛, 俾酬其願。於是萬德之所往, 人皆聚觀而稱道之, 縉紳大夫, 記其事而傳奇, 萬德之名, 乃播於國中。噫, 積而能散, 男子之所難能, 功而辭賞, 士夫之所難辦也, 萬德以島中之一女子, 身不離婢使之賤而乃能之, 豈不偉也哉? 又況一見京闕之願, 宣出秉彝, 信乎天之降衷, 不限於島陸, 不界於貴賤。金剛之遊, 又何奇且壯也? 耽羅, 世所稱瀛洲也, 鍾於物, 有騏驎竹箭橘柚之屬, 供于王庭, 萬德亦此類也歟。嘗聞西蜀清, 以丹穴世其富, 秦皇爲之築臺而美之, 今萬德, 有蜀清之財, 而兼魯家之義, 起於島中, 名聞四方, 若使太史公在者, 其將編於貨殖之傳耶, 烈俠之傳耶?

嘉慶元年丙辰十一月二十八日己巳雪
 ○萬德傳三上 權知承文院副正字徐俊輔
 上之十有九年甲寅耽羅告飢上命發倉往哺之
 於是錢出於帑粟出於沿販數皆萬萬方舟之汎
 也降香祭海海波不揚千櫓穩淡如往而復粵翌
 年乙卯又告飢一甲寅之例而加之以慈恩一鬻
 穀庶成北望稽首不知荒年之苦也時有萬德者
 卅之婢也少憫懷有丈夫志雖賤福乎遊持舟處
 事往往出人意官于卅者亦未嘗蔑之觀於財而
 駕於義見人急亦捐千金常恨局於彈丸莫之展
 其奇當收伯之詣館舍宣布恩綸萬德從僑聽謫
 讀喟然歎曰重溟遠矣九重遙矣粒我島民如救
 焚溺吾儕小人其敢愛其財而利其己乎遂散資
 果賙貧乏前後所活爲數千人事聞于朝上嘉之
 命收伯詢其所欲爲萬德辭曰困恤隣里常也敢
 望償乎收伯欲免其役又辭曰賤人賤國當爾免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11월 28일 기사

【해제】

조선 후기 대표적인 관찬사료인 『승정원일기』에는 김만덕이 상경한 1796년(정조 20) 11월 24일, 25일, 28일 등 3일에 걸쳐 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11월 24일조 기사는 정조가 채제공·김이소·이병모·윤시동 등 시·원 임대신을 편전에 부른 자리에서 채제공의 건의를 받아들여 상경한 김만덕에게 금강산 구경으로부터 귀향 때까지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비변사에 왕명을 내린 내용이다.

11월 25일조 기사는 정조의 명에 따라 김만덕에게 진흥청에서 서울 체재 기간의 양식과 비용을 지급하고, 내의원에서 행수의녀로 임명한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다.

11월 28일조 기사는 정조에게 올린 만덕전 가운데 하나인 서준보가 쓴 전기를 수록한 내용이다. 특히 서준보의 만덕전에서는 만덕을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나오는 진시황 때 파촉의 청이란 여인에 견주며 칭송하고 있다.

4.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3월 8일(기미)

전라 감사 이서구(李書九)가 제주목(濟州牧)에 특별히 내려 준 곡식 1만 섬을 배로 운반하여 무사히 정박한 형지(形止)를 급히 장계한 데 대해, 영운 차사원(領運差使員)¹⁾ 진덕리(陳德履)에게 가자(加資)²⁾하는 상전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 전라 감사의 장계에,

“제주목에 특별히 내려 준 곡식 1만 섬을 실은 배를 연달아 들여보낸 형지는 이미 급히 장계를 올려 보고하였거니와,

점검 차사원(點檢差使員)인 가리포 첨사(加里浦僉使) 진덕리가 보고한 첩정(牒呈)³⁾에 ‘제주에 들여보낼 영광(靈光)의 피모(皮牟)⁴⁾ 1,000섬 중에서 499섬 9말을 실은 배 1척은 전에 이미 들여보냈고, 선가(船價)까지 합친 500섬 6말을 실은 배 1척과 남평(南平)의 이전(移轉)한 피모 1,000섬 중에서 원래 납부한 200섬을 실은 배 1척이 소안도(所安島)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는데, 곡물도 정실(精實)하고 배도 튼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2월 24일에 제주로 들여보냈습니다.’라고 하였고, 제주

1) 영운 차사원(領運差使員) : 조운을 책임지는 관리.

2) 가자(加資) : 조선시대 근무 성적·공로·왕명 등에 근거하여 관품을 올려 주거나 수여하는 제도.

3) 첩정(牒呈) : 조선시대 하급관아에서 상급관아로 올리는 문서.

4) 피모(皮牟) : 겉보리. 일반적으로 가을에 심어 다음해 봄에 수확한다.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보고한 첩정에 ‘나주(羅州)의 피모 2,000섬을 실은 배 3척과 보성군(寶城郡)의 조(租 벼) 800섬을 실은 배 2척과 무안현(務安縣)의 조 300섬을 실은 배 1척과 흥덕현(興德縣)의 조 250섬을 실은 배 1척과 광양현(光陽縣)의 조 500섬을 실은 배 1척과 낙안군(樂安郡)의 조 1,200섬을 실은 배 2척과 좌수영(左水營)의 조 300섬, 피모 200섬을 실은 배 1척과 남평현(南平縣)의 피모 200섬을 실은 배 1척과 영광군의 피모 1,000섬을 실은 배 2척을 모두 합하여 각 곡물 6,750섬을 실은 배 14척이 윤2월 17일부터 25일까지 차례로 화북포(禾北浦)와 조천포(朝天浦)에 당도하여 정박하였습니다.

금번에 특별히 내려 준 1만 섬과 추가로 떼어 준 987섬의 곡물을 사람 수효에 비교하면 보리농사를 수확하기 전에 나누어 주고도 조금 남는 것이 있을 듯하니 윤월 중순(中巡) 이후부터 식구를 계산하여 함께 나누어 주되 규정보다 더 넉넉하게 먹여 주면 거의 전부 살아날 가망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민사가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5척의 배에 실은 곡물 3,250섬은 아마 그사이에 이미 점검하여 보냈을 것인데, 아직은 해당 차사원이 형지를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몹시 서둘러 탐문(探問)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보고할 생각입니다. 추가로 떼어 준 곡물 987섬을 실은 배 4척도 연달아 재촉하여 뒤를 이어 잇달아 당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추가로 떼어 준 곡물을 실은 배를 이처럼 차례대로 무사히 운반하였고 제주 목사가 첩정으로 보고한 글에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였으니 섬에 사는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다행스럽다. 영운

차사원 진덕리는 수령(守令) 차사원의 규례에 따라 가자하는 상전을 시행하고, 해당 조로 하여금 구전 정사로 하비(下批)⁵⁾하여 교지(教旨)를 오늘 안에 만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全羅監司 李書九以濟州牧特下穀一萬石船運利泊形止馳啓命領運差使員 陳德履施以賞加之典

該監司狀啓以爲濟州牧特下穀一萬石所載船連續入送形止已爲馳啓而點檢差使員 加里浦僉使 陳德履牒呈內濟州入送靈光皮牟一千石內四百九十九石九斗所載船一隻前已入送并船價五百石六斗所載船一隻南平移轉皮牟一千石內元納二百石所載船一隻到泊於所安島而穀物精實船隻完固故今閏二月二十四日入送云濟州牧使 李禹鉉牒呈內羅州牧皮牟二千石所載船三隻寶城郡租八百石所載船二隻務安縣租三百石所載船一隻興德縣租二百五十石所載船一隻光陽縣租五百石所載船一隻樂安郡租一千二百石所載船二隻左水營租三百石皮牟二百石所載船一隻南平縣皮牟二百石所載船一隻靈光郡皮牟一千石所載船二隻合各穀六千七百五十石所載船十四隻自閏二月十七日至二十五日次第到泊於未北浦及朝天浦今此特下一萬石及追劃九百八十七石穀物較人口則麥前排比略有餘裕自閏月中巡以後計口竝付加式優饋舉有全活之望云民事誠爲萬幸而未到五隻船所載穀三千二百五十石想於其間已爲點送而始無該差員形止之報故今方星火探問陸續登聞計料追劃穀九百八十七石所載船四隻連加催促使之鱗次到泊教以追劃穀物所載船隻如是次第利運而該收牒語亦以優餘爲說言念島民事情極爲多幸領運差使員 陳德履依守令差使員例施以賞加之典令該曹口傳下批教旨今日內成送

5) 하비(下批) : 인사 임용(人事任用)에 관한 임금의 재가(裁可). 곧 관원의 임용에는 3인의 후보자를 천거하여 그 중 한 사람의 낙점(落點)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단일 추천으로 임명하거나 혹은 특명으로 제수하는 경우에 내린 비지(批旨).

정조 19년 을묘(1795) 3월 10일(신유)

제주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나주(羅州) 등 읍에서 배로 운송해 온 곡물이 제주에 도착하였다고 급히 장계⁶⁾한 데 대해, 백성들을 구호하는 정사에 힘쓰라고 신칙하였다.

○ 제주 목사의 장계에,

“이에 앞서 처음 운송해 온 곡물을 분급 대상으로 뽑힌 사람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 재차 곡물을 운송해 온 뒤에도 규정보다 줄여서 나눠 주는 걱정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형세가 나날이 위축되는데도 구제할 수가 없었는데, 금번에 이렇게 1만 섬을 더 떼어 주라는 명을 특별히 섬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 때에 내리셨습니다. 그 유지(有旨)를 선유(宣諭)⁷⁾하던 날부터 해진 옷을 입고 굶주려 여윈 사람들이 다들 기뻐서 춤을 추었고 신도 이에 힘입어 믿을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편으로는 운송을 독려하고 한편으로는 남은 곡물을 이리저리 계획하고 헤아리어 배순(排巡)⁸⁾ 기한에 맞춰 나누어 마련해 보니 세 번째 운송한 곡물이 제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먹여 줄 수가 있을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中巡) 때부터 이전에 주지 못한 자들에게도 식구를 계산하여 함께 주었고 전에 규정보다 줄여서 준 자들에게도 넉넉하게 규정보다 늘려 주었으므로 백성들의 형편이 지난날에 비하면 그야

6) 장계(狀啓) : 조선시대 왕명을 받고 외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문서. 장계는 그 시대·지방의 중요한 사건을 보고 또는 청원한 것이므로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7) 선유(宣諭) : 임금의 훈유(訓諭)를 널리 백성에게 알리는 것.

8) 배순(排巡) : 진곡이나 환곡의 분급을 위해 순차적으로 안배하다.

말로 뚜렷하게 나아졌습니다. 나주목(羅州牧)의 피모(皮牟)⁹⁾ 2,000섬과 무안현(務安縣)의 조(租)¹⁰⁾ 300섬과 보성군(寶城郡)의 조 800섬과 흥덕현(興德縣)의 조 250섬과 광양현(光陽縣)의 조 500섬과 낙안군(樂安郡)의 조 900섬을 실은 배가 차례대로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하고, 또 장계에,

“좌수영(左水營)의 조 300섬과 피모 200섬, 영광군(靈光郡)의 피모 500섬, 낙안군의 조 300섬을 실은 배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고, 또 장계에,

“남평현(南平縣)의 피모 200섬과 영광군의 피모 500섬이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내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 것이 제주에 대한 일이었다. 한꺼번에 보고한 이 장본(狀本)을 보고 차례대로 열어 보니 볼수록 가상하고 기쁘다. 무엇보다도 정리곡(整理穀)을 특별히 내려 준다는 유지를 선유한 연유를 적어 봉함해서 보낸 날짜가 교묘하게도 화성(華城)에서 진찬(進饌)¹¹⁾한 날과 들어맞았으니, 이는 어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마치 귀신이 거들어 준 듯하여 더할 나위 없이 기이하고 기쁘다. 더구나 2만 5,000포(包)의 곡물을 거의 모두 무사히 운송하였으니, 이제는 나누어 줄 것이 넉넉하고 여유 있게 구제하여 살려 낼 수가 있어서 규정보다 줄여서 나눠 준 자들에게도 규정에 맞춰 나누어 주고 전에 주지 못한 자들에게

9) 피모(皮牟) : 결보리.

10) 조(租) : 벼

11) 진찬(進饌) : 진연(進宴)보다 규모가 작고 진작(進爵)보다는 성대한 조선시대 궁중 연향.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도 추가로 줄 수 있게 되었다. 온 섬 백성들이 모두 자궁(慈宮)의 은혜를 입고 함께 자궁의 덕을 받으니 내 마음도 반갑고 기쁘며 더불어 다행스럽다. 그러하니 어찌 운음에 그 만분의 일이나마 형언할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안주하도록 구제해 주는 일은 오직 목사와 수령에게 달려 있으니 더욱 성의를 다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 주고 병든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 주어 섬 안의 온 백성들이 집집마다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는 기쁜 일이 있도록 하라고 다시 정리의궐청 총리 대신¹²⁾으로 하여금 별도로 제주 목사에게 엄히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濟州牧使 李禹鉉以羅州等邑船運穀到泊馳啓飭接濟之改

該牧使狀啓以爲前比初運之穀偏及於抄付之類雖於再運之後猶未免減式之患故民勢日蹙莫可救藥今此一萬石加劃之命特下於島民絕望之際自夫有旨宣諭之日鵲衣鵲形舉皆歡欣蹈舞臣亦籍手有恃一邊督運一邊籌量餘穀排此巡限而磨鍊則三運穀入來之前似可繼饋故自今月中巡前之未付者計口竝付前之減式者從優加式民情比之向來可謂顯勝羅州牧皮甿二千石務安縣租三百石寶城郡租八百石興德縣租二百五十石光陽縣租五百石樂安郡租九百石所載船次第穩泊又狀啓以爲左水營租三百石皮甿二百石靈光郡皮甿五百石樂安郡租三百石所載船穩泊又狀啓以爲南平縣皮甿二百石靈光郡皮甿五百石穩泊教以一念縣縣者至今往來於耽羅矣觀此狀本之一時登聞者次第開緘看着時喜最是整理穀特給有旨宣諭緣由封發之巧湊於華城進饌之日者是豈人力之所可容爲有若神助然者尤爲萬萬奇喜況二萬五千包穀物幾皆利

12) 정리의궐청 총리 대신(整理儀軌廳 總理大臣) : 1795년(정조19)에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릉원(顯隆園)을 참배하고 화성 행궁에 행차하여 어머니 회갑 잔치를 관장하는 정리소는 을묘년(1795) 원행을 준비하면서 설치한 기구이다. 총리대신은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이었다.

運今則排比優優濟綽綽減式者準式未付者加付一島生靈咸被慈恩共沐慈德予心之歡欣慶忭與有辛焉者其可以絲綸容諭其萬一平此後接濟之勤慢惟係於牧守益加彈誠使飢者飽病者蘇環海一區家家有鼓腹之喜事更令整理儀軌廳總理大臣別加嚴飭該牧

정조 19년 을묘(1795) 4월 1일(신사)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이 추가로 떼어 준 곡식 1만 1,000섬을 운반하는 배가 모두 도착하였다고 급히 장계한 데 대해, 제주 목사는 임기가 차거든 직위를 올려 조용(調用)¹³⁾하라고 명하였다.

○ 제주 목사의 장계에,

“구례현(求禮縣)의 조(租) 500섬을 실은 배가 화북포(禾北浦)에 안전하게 정박하였고 1만 1,000섬의 곡물과 근 300명을 실은 배도 차례로 와 정박하여 모두 순조롭게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정박하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측량해서 거두어 지금 수령을 마쳤습니다.

나주목(羅州牧)의 피모(皮麤 겉보리) 2,000섬 중에서 선가(船價) 333섬 5말을 계산해서 제하고 나니 실제로 1,666섬 10말을 거두었습니다. 보성군(寶城郡)의 조 800섬 중에서 선가 133섬 5말을 계산해서 제하고 나니 실제로 666섬 10말을 거두었습니다. 무안현(務安縣)의 조 300섬 중에서 선가 50섬을 계산해서 제하고 나니 실제로 250섬을 거두었습니다. 광양현(光陽縣)의 조 500섬 중에서 선가 83섬 5말을 계산해서 제하고 나니 실

13) 조용(調用) : 관리를 골라서 등용하는 것.

제로 416섬 10말을 거두었습니다. 흥덕현(興德縣)의 조 300섬 중에서 선가 50섬을 계산해서 제하고 나니 실제로 250섬을 거두었습니다. 낙안군(樂安郡)의 조 1,200섬 중에서 선가 200섬을 계산해서 제하고 나니 실제로 1,000섬을 거두었습니다. 영광군(靈光郡)의 피모 1,000섬 중에서 선가 166섬 10말을 계산해서 제하고 나니 실제로 833섬 5말을 거두었습니다. 김제군(金堤郡)의 조 800섬 중에서 선가 133섬 5말을 계산해서 제하고 나니 실제로 666섬 10말을 거두었습니다. 임피현(臨陂縣)의 조 800섬 중에서 선가 133섬 5말을 계산해서 제하고 나니 실제로 666섬 10말을 거두었습니다.

만경현(萬頃縣)의 조 800섬 중에서 선가 133섬 5말을 계산해서 제하고 나니 실제로 666섬 10말을 거두었습니다. 좌수영(左水營)의 조 300섬 중에서 선가 50섬을 계산해서 제하고 나니 실제로 250섬을 거두었고 피모 200섬 중에서 선가 33섬 5말을 계산해서 제하고 나니 실제로 166섬 10말을 거두었습니다. 남평현(南平縣)의 피모 1000섬 중에서 선가 166섬 10말을 계산해서 제하고 나니 실제로 833섬 5말을 거두었습니다.

이상의 수량을 합하면 피모는 4,200섬이고 조는 5,800섬인데 모(麩)와 조¹⁴⁾를 합한 1만 섬 중에서 선가 1,666섬 10말을 계산해서 제하고 나니 실제로 피모 3,500섬, 조 4,833섬 5말을 거두었습니다. 남평현의 조 487섬과 구례현의 조 500섬 도합 987섬은 배가 침몰되어 물에 잠긴 곡식 대신으로 원래의 수량 중에서 선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응분(應分)할 것은 이달 종순(終巡)과 4월 초순(初巡)에 불과한데 현재 남아 있는 곡식을 두 번의 순차(巡次)에서 나누어 줄 양과 비교해 보니, 진실로 부족

14) 모(麩)와 조(租) : 보리와 벼

할 염려는 없습니다. 이 곡식을 진분(盡分)하고 난 뒤에는 백성들은 오로지 다른 지방의 보리가 풍년이 들기만을 바랄 텐데 2월 이후 비가 알맞게 내려 조맥(早麥 올보리)과 만맥(晩麥 늦보리)을 막론하고 점점 쑥쑥 자라고 있으니, 민사(民事)가 매우 다행입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지난달 19일에 낸 장본(狀本)을 열흘 안에 보고하였으니 누가 아주 멀리 떨어진 섬이라고 하겠는가. 사람들이 모두 안전하게 건너갔고 배도 순조롭게 운행되었으며 민정(民情)과 보리농사에 관한 것도 장계 내용을 보니 밤낮으로 근심하는 것을 조금은 풀 수 있을 것이다. 천만다행이다. 기뻐 잠들지 못하겠다. 제주 목사가 성심으로 곡식을 모은 상황에 대해서는 일찍이 들었고 그 밖의 거행도 매우 부지런하고 성실하니, 어찌 진흙을 마친 뒤에 장계로 보고하기를 기다리겠는가. 임기가 차거든 병조로 하여금 별도로 직위를 올려 조용하도록 회유(回諭)하라. 선척이 돌아가 정박한 뒤의 상황도 속히 장계로 보고하도록 또한 묘당으로 하여금 호남 도신에게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濟州牧使 李禹鉉以追割穀一萬一千石畢到泊馳啓命該牧使待準瓜陸職調用

該牧使狀啓以爲求禮縣租五百石所載船穩泊於禾北浦萬一千穀物近三百人命鱗次米泊俱得利涉隨其到泊次次量捧今已畢領受羅州牧 皮甓二千石內計除船價三百三十三石五斗實捧一千六百六十六石十斗寶城郡租八百石內計除船價一百三十三石五斗實捧六百六十六石十斗務安縣租三百石內計除船價五十石實捧二百五十石光陽縣租五百石內計除船價八十三石五斗實捧四百十六石十斗興德縣租三百石內計除船價五十石實捧二百五十

石樂安郡租一千二百石內計除船價二百石實捧一千石靈光郡 皮甦一千石內計除船價一百六十六石十斗實捧八百三十三石五斗金堤郡租八百石內計除船價一百三十三石五斗實捧六百六十六石十斗臨陂縣租八百石內計除船價一百三十三石五斗實捧六百六十六石十斗萬頃縣租八百石內計除船價一百三十三石五斗實捧六百六十六石十斗左水營租三百石內計除船價五十石實捧二百五十石皮甦二百石內計除船價三十三石五斗實捧一百六十六石十斗南平縣 皮甦一千石內計除船價一百六十六石十斗實捧八百三十三石五斗合皮甦四千二百石租五千八百石并甦租一萬石內計除船價一千六百六十六石十斗實捧皮甦三千五百石租四千八百三十三石五斗南平縣租四百八十七石求禮縣租五百石合九百八十七石以沈失之代元數之內不論船價來頭應分不過今月終巡及四月初巡而見今餘在之穀較諸兩巡之分則實無不足之慮此穀盡分之後民之顓望專在外麥登而自二月以後雨澤適中毋論早晚漸就茁茂民事萬幸教以去月念前一日所出狀本登聞於匝旬之內孰謂重溟之絕遠乎人皆穩涉船則利運而民情與麥事觀於狀辭庶可以少弛胄吁之念千幸萬幸喜而不寐該牧使誠心鳩穀之狀曾已聞之而其他舉行亦甚勒幹何待畢賑狀聞乎待其準瓜令兵曹別爲陞職調用事回諭船隻還泊後形止星火狀聞事亦令廟堂分付湖南道臣

정조 19년 을묘(1795) 4월 28일(무신)

전라 감사 이서구가, 이전곡(移轉穀)을 싣고 제주로 갔던 배들이 돌아왔다고 급히 장계하였다.

○ 전라 감사의 장계에,

“제주로 들여보낸 각 읍의 이전곡을 싣은 배들이 차례로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뒤떨어진 3척은 곧바로 난바다를 따라 다른 곳으로 각자 장사하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수만 포의 이전곡이 바다를 순조롭게 건너고 수십 척의 빈 배가 모두 온전하게 돌아와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미 도착한 선격(船格)¹⁵⁾과 감관(監官)¹⁶⁾과 색리(色吏)¹⁷⁾는 별도로 더 위무하고, 장사하러 간 배는 돌아오거든 또한 위로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각 해당 관리에게 신칙하였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수만 포의 곡식을 순조롭게 운반한 것만도 실로 기쁘고 다행스러운데, 이제는 실어 보낸 배들까지 모두 무사히 돌아왔더니 그 기이함을 무어라 비유하기 어렵다. 감사가 선격과 감관과 색리들을 각별히 위무하겠다고 했는데, 위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말이 분명치 못한 문제가 있으니, 묘당¹⁸⁾으로 하여금 관문(關文)¹⁹⁾을 보내 신칙²⁰⁾하게 해서 공연한 말

15) 선격(船格) : 배를 부리는 걸꾼. 격군(格軍).

16) 감관(監官) : 조선 시대에 각 관아나 궁가(宮家)에서 회계를 맡아보던 관리.

17) 색리(色吏) : 감영(監營)이나 군아(郡衙)에서 돈과 곡물의 출납·관리를 맡아보던 아전.

18) 묘당(廟堂) :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 의정부를 다르게 이르던 말.

19) 관문(關文) : 조선시대 동등한 관서 상호간이나 상급관서에서 하급관서로 보내는 문서.

20) 신칙(申飭) :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

을 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全羅監司 李書九以濟州移轉穀載去船隻回泊馳啓

該監司狀啓以爲濟州入送各邑移轉船次第回泊而其中落後三船直從外洋轉向他處各自興販云屢萬包移粟之利涉重溟數十隻空船之俱爲穩旋誠爲多幸已到船格監色別加撫摩興販船隻待其還泊亦爲慰恤之意另飭各該官教以屢萬包利運固已喜幸而今則并與所載船隻一齊無事還泊其爲奇異難以容喻道伯以船格監色各別撫摩爲辭撫摩云者何謂也語欠別白令廟堂關飭俾無徒言而無當之弊

정조 19년 을묘(1795) 5월 11일(신유)

제주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본도 3개 읍(邑)의 진휼을 마치고 급히 장계한 데 대해, 모환(漕還)²¹⁾ 대신으로 거두는 양태(涼臺 갓양태)와 해곽(海藿 미역)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정퇴(停退)²²⁾해 주고, 전에 내린 제주 목사를 시상하라는 전지는 삭제하며, 원납인(願納人)인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은 대정 현감(大靜縣監)으로 특별히 차임하고 이어 군수의 이력(履歷)을 쓰게 하며, 홍삼필(洪三弼)과 양성범(梁聖範)은 순장(巡將)으로 올려 차출하라고 명하고, 이어 정리곡(整理穀)을 양태와 해곽으로 대신 징수하는

21) 모환(漕還) : 환곡으로 사용하는 곡물은 쌀 외에도 다양하였다. 그중에 모환은 대맥과 소맥을 이용하여 구휼 시에 진휼곡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22) 정퇴(停退) : 환곡은 봄에 분급받고 가을에 갚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흉년으로 수확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환곡의 징수를 미루어 주었다.

것은 일절 거론하지 말아서 모든 백성에게 자궁(慈宮)의 은혜가 널리 미친 바를 알게 하라고 명하였다.

○ 제주 목사의 장계에,

“작년의 작황은 실로 고금에 없이 심한 흉작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전 목사 심낙수(沈樂洙)가 진휼을 설행하여 금년 4월 14일에 마쳤습니다. 작년 겨울 이후 극도로 궁핍한 사정은 가난한 백성과 부유한 백성이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만 초운(初運)해 온 곡물을 구휼에 붙여야 할 기민의 수와 비교해 보니 실로 배분할 길이 없었으므로 신이 취임 초에 억지로 6등(等)으로 나누어, 의지할 데가 없고 토지도 없어 가장 불쌍한 자들은 백급(白給)하는 대상에 붙이고, 그 나머지 기민은 형편에 따라 차례대로 환곡을 분급하는 대상에 붙였습니다.

차례대로 뽑아서 붙인 토지가 없는 기민이, 본 고을에는 어른과 아이를 합쳐서 모두 3,443구이고, 대정현에는 어른과 아이를 합쳐서 모두 419구이며, 정의현(旌義縣)에는 어른과 아이를 합쳐서 모두 1,036구로, 세 고을을 합쳐서 어른과 아이가 모두 4,898구였습니다. 이들에 대해 진휼할 재원으로 특별히 내려 주신 피모(皮牟 겉보리) 1,827섬 남짓, 본영의 장부에 기록된 모미(牟米) 232섬 남짓과 염(鹽) 30섬, 본영에서 마련한 피모 93섬 남짓과 조(租) 134섬 남짓 및 염과 장(醬) 87섬 남짓, 대정 현감 정운제(鄭運躋)가 마련한 염과 장 11섬 남짓, 정의현의 장부에 기록된 염 10섬, 본주의 원납인들이 바친 조 276섬 남짓을 가지고 성인에게는 1구당 하루에 절미(折米)하여 5홉씩, 아이에게는 1구당 하루에 절미하여 3홉씩을 규례대로 10일마다 백급하였습니다. 특별히 내려 주신 진휼 재원이

들어온 이후에 원순(元巡) 외에 별순(別巡)을 1차 시행하여, 성인에게는 1구에 피모 1말 2되, 아이에게는 1구에 피모 8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달의 초순(初巡)을 분급한 뒤에 올보리가 비록 거의 익었다고는 하지만 수확할 때는 아직 되지 않았으므로 1순(巡)을 더 설행하였습니다.

차례로 뽑아서 붙인 토지가 있는 기민이, 본 고을에는 어른과 아이를 합쳐서 모두 3만 5,056구이고, 대정현에는 어른과 아이를 합쳐서 모두 8,636구이고, 정의현에는 어른과 아이를 합쳐서 모두 1만 1,920구로, 세 고을을 합쳐서 어른과 아이가 모두 5만 5,612구였습니다. 이들에 대해 이전(移轉)해 온 백미(白米) 1806섬과 피모 5,448섬, 조 4,746섬, 본토에 비축해 놓았던 미 2,175섬 남짓을 가지고 이틀마다 환곡을 분급하였습니다. 또 진여곡(賑餘穀)에서 특별히 내려 주신 피모 3,172섬 남짓과 정리청(整理廳)에서 특별히 내려 준 조 4,833섬 남짓 및 피모 3,500섬 남짓을 백급하여 순차를 잇대어 분급하였습니다. 저들은 비록 지극히 우매한 자들이지만 또한 자궁(慈宮)의 은택이 고루 미친 것을 알고는 모두가 북쪽을 향해 배를 두드리고 손 모아 축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진휼에 보태고 남은, 원납한 피모 173섬 남짓과 조 50섬은 순차에 따라 분급하는 재원으로 채웠습니다. 이전곡을 받아들인 데 대한 성책(成冊)²³⁾ 및 토지가 없는 기민에게 진휼곡을 분급한 데 대한 성책, 토지가 있는 기민의 인구와 곡물의 총수에 대한 성책은 각각 해당 관사에 올려보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번의 진휼에서 처음 백성들의 사정으로 말하면 한 가닥 살길이라고는 오로지 이전해 오는 곡물에 기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23) 성책(成冊) : 책으로 만드는 것. 여기서는 보고서.

러나 전국에 똑같이 흉년이 들어 연해의 곡식도 바닥이 난 시기였으니 비록 그들에게 직접 도모하게 했더라도 바라는 대로 곡식을 옮겨 줄 수 있으리라고는 보장하기 어려운 형세였습니다. 그러나 성상의 은혜가 하늘같이 커서, 원래 떼어 준 1만 섬도 이미 넉넉하게 하는 예를 따른 것이었는데 5,000포(包)를 별도로 내려 주신 것은 더욱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으니, 섬의 백성들까지 고루 보살피시는 성대한 덕이 여기에서 지극하였습니다. 게다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터에 정리청의 전(錢)으로 바꾼 곡물 1만 섬을 특별히 내려 주시어 성대한 은택을 끼쳐 주셨고, 하늘이 돕고 사람이 순응하여 많은 선척이 차례차례 무사히 정박하여 저 구렁텅이에 빠진 백성들을 편안한 자리에 올려놓으셨으니 왕의 돌보심에 힘입어 대대적인 진흥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신이 외람되이 지방관의 자리를 차지하여 성상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퍼지 못한 탓에 많은 사람을 굶어 죽게 하였으니 황공하여 대죄합니다. 세 고을의 모맥(糜麥)은 흉년을 면할 것이 분명하지만 작년 가을 이래 응당 거두었어야 할 환자와 제반 신역(身役)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리를 수확한 뒤에 한꺼번에 모두 독촉한다면 실로 안정시켜 위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환자는 7, 8월 사이 백성들을 먹일 재원이므로 하는 수 없이 정해진 수량대로 거둘 계획입니다만 번미(番米)²⁴⁾와 신역미(身役米)²⁵⁾를 제해 주면 여름에 거두어야 할 것 중 절반을 정퇴하여 조금이나마 부세를 견감하고 홀전을 베푸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이전해 온 곡물에 대해서는 양태와 해곽으로 대신 거두는 것이 본래부터의 전례인

24) 번미(番米) : 번을 서는 군사에게 급료로 주던 쌀.

25) 신역미(身役米) : 몸으로 부역하는 대신 바치는 쌀.

데, 현재 백성들의 사정이 전과는 매우 다르고 이른바 양태와 해곽이라는 것은 자라는 대로 채취해서 이미 다 팔아서 먹었으므로 억지로 납부하도록 독촉할 수는 없을 듯하니 내년 봄까지 물려서 거두게 해 주소서. 이전해 온 피모는 전부나 절반을 남겨서 토환(土還)으로 만드는 것이 이미 전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잇따라 흉년이 들어서 본토의 환총(還摠)²⁶⁾을 해마다 정감(停減)하였기 때문에 세 고을에 남아 있는 환곡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의 피모는 모두 남겨서 토환으로 만드는 것도 아울러 묘당에서 상의 뜻을 여쭙어 분부하게 해 주소서.

진휼의 재원을 원납한 본 고을의 전 현감 고한록은 여러 번 원납하여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번 봄에도 가산을 기울여 육지로 나가서 곡식을 사다 진휼에 보탠 수량이 300섬이나 됩니다. 또 장교 홍삼필이 원납한 곡물이 100섬이고, 대정현의 유학 양성범이 원납한 곡물도 100섬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궁벽한 바닷가에 사는 어리석은 무리이지만 능히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의리를 아는 자들이니 지극히 가상합니다.” 하였다.

○ 진휼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목 - 원진(元賑)을 22차 시행하였다. 기민이 도합 38만 2,024구이고, 진휼곡으로 분급한 각종 곡물이 1만 3,641섬 8말이다. 그중에 진휼 재원으로 특별히 내려 준 피모가 1,647섬 3말 남짓이다. 정리청에서 특별히 내려 준 조가 2,482섬 1말 남짓이고, 피모가 2045섬 11말 남짓이다. 이전해 온 백미가 934섬 남짓이고, 조가 3,073섬 13말 남짓이고, 피모가 2,387섬 10말 남짓이다. 진휼청의 모みが 584섬 12말 남짓

26) 환총(還摠) : 조선후기 일정량의 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촌락의 토지 결수에 비례하여 환곡의 액수를 정한 뒤, 이를 촌락 단위로 공동납부하게 한 제도.

이고, 목관(牧官)의 사창미(司倉米)가 279섬 남짓이다. 원납한 조가 20섬이고, 피모가 103섬 6말 남짓이다. ○토지가 없는 기민에게 백급을 23차 시행하였다. 기민이 도합 3만 1,655구이고, 분급한 각종 곡물과 염과 장을 합쳐 모두 2,090섬 5말 남짓이다. 그중에 진홀 재원으로 특별히 내려 준 피모가 1,655섬 남짓이다. 본영의 장부에 기록된 모미가 143섬 11말 남짓이다. 본영에서 마련한 피모가 93섬 9말 남짓이고, 조가 126섬 2말 남짓이다. 원납한 조가 276섬 8말 남짓이다. 본영의 장부에 기록된 염이 30섬이다. 본영에서 마련한 염이 68섬 13말 남짓이고, 감장(甘醬 단간장)이 6섬 4말 남짓이다. -

대정현 - 원진을 22차 시행하였다. 기민이 도합 13만 9516구이고, 진홀곡으로 분급한 각종 곡물이 4657섬 11말이다. 그중에 정리청에서 특별히 내려 준 피모가 619섬이고, 조가 812섬이다. 진홀 재원으로 특별히 내려 준 피모가 519섬 남짓이다. 이전해 온 피모가 1,014섬 8말이고, 조가 800섬 6말이고, 백미가 197섬 13말이다. 영진청(營賑廳)²⁷⁾의 모미(牟米)가 565섬 13말 남짓이고, 전미(田米)가 29섬 1말이다. 원납한 피모가 70섬이고, 조가 30섬이다. ○토지가 없는 기민에게 백급을 23차 시행하였다. 기민이 도합 3441구이고, 분급한 각종 곡물과 염, 장을 합쳐 모두 203섬 남짓이다. 그중에 진홀 재원으로 특별히 내려 준 피모가 154섬 13말 남짓이다. 영문의 장부에 기재된 모미(粳米)가 35섬 14말 남짓이다. 감영에서 마련한 정조(正租)가 1섬 14말이다. 현감이 마련한 장이 5말 남짓이고, 염이 11섬 남짓이다. -

정의현 - 원진을 22차 시행하였다. 기민이 도합 20만 3,789구이고, 진홀곡으로 분급한 각종 곡물이 7605섬 12말 남짓이다. 그중에 진홀 재원으로 특별히 내려 준 피모가 1,006섬 9말 남짓이다. 정리청에서 특별히 내려 준 피모가 835섬 3말 남짓이

27) 영진청(營賑廳) : 진홀곡은 진홀창(賑恤倉)·영진창(營賑倉)·영진청(營賑廳)·영진고(營賑庫)라고도 불렀는데, 제주에서는 제주목 내 주창(州倉)·동창(東倉)·서창(西倉), 그리고 대정창(大靜倉)·정의창(旌義倉)으로 환곡이 나뉘어졌다. 이와 더불어 제주목의 주보창(州補倉)·동창·서창, 그리고 대정창·정의창에 기부되었던 보민고(補民庫) 환곡은 보민창·영보고(營補庫)라고도 불렸다. 이는 1766년(영조 42) 목사 윤기동(尹耆東)에 의해 설치되었다. 제주민의 진상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성에서 설치된 이 환곡은 그 후 견역고(鑄役庫)·담은고(覃恩庫)의 환곡이 옮겨져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고, 조가 1539섬 3말 남짓이다. 이전해 온 백미가 674섬 남짓이고, 피모가 2,045섬 11말 남짓이고, 조가 871섬 10말 남짓이다. 영진청의 모미가 633섬 4말 남짓이다.

○토지가 없는 기민에게 백급을 23차 시행하였다. 기민이 도합 6,739구이고, 분급한 각종 곡물과 염이 도합 409섬 3말 남짓이다. 진홀 재원으로 특별히 내려 준 피모가 327섬 2말 남짓이다. 영문의 장부에 기재된 모미가 53섬 남짓이다. 감영에서 마련한 정조가 6섬 8말 남짓이고, 염이 12섬 6말 남짓이다. 본현의 장부에 기재된 염이 10섬이다.

○ 진홀청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 이우현이 진홀을 마치고 올린 장계를 보니, 굶어 죽은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하였는데, 제대로 받들어 선양하지 못한 책임²⁸⁾에 대해 어찌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환곡을 나누어 줄 백성과 진홀할 백성에게 똑같이 백급한 것은 여러 도에 전례가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생색을 낼 거리로 삼은 데 불과하고, 또 본도는 토지가 척박하여 흉년이 드는 때가 많은데 한번 선례를 만들면 뒷날의 폐단을 막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주 목사를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세 고을 수령의 경우 굶어 죽게 한 죄를 저지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노고가 있었으니 특별히 참작하더라도 추고하여 경책(警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납과 사진은 이미 금령을 내렸으니 영남의 예에 따라 도로 내주게 해야 하겠지만 바다 가운데 섬사람들은 육지 백성과는 다른데, 진정으로 의리에서 행한 부류들이 그 때문에 실망하는 탄식이 있게 된다

28) 제대로 …… 책임 : 원문은 ‘其不善對揚之飭’인데, 앞뒤 문맥이 통하지 않아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飭’을 ‘責’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면 격려하고 권장하는 도리에 매우 어긋날 것입니다. 호조에서 전례를 살펴 상께 여쭙어 처리하게 하소서.

진흙을 하고 남은 피모를 남겨서 토환으로 만드는 것은 비록 전례가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대신 거두는 양태와 해곽을 다음 해까지 정퇴하는 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기가 지나서 농사에 방해가 될 것이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되 내년 봄에는 신칙하여 규정대로 거두어서 즉시 보내어 중간에 사라지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굶어 죽은 사람이 매우 많다는 말을 어려워하지도 않고 보고하였으니 과연 매우 놀랍다. 어제 장본(狀本)을 보면서 엄히 처분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대로 말한 것이 그래도 숨기거나 속인 것보다는 나으므로 우선 전례에 따라 진흙청에 계하(啓下)²⁹⁾했던 것인데, 경이 붙인 말이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바다 멀리 동떨어진 지역은 내지와는 달라서 선박으로 수송해 오는 곡식이 아니면 구제해 살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지난겨울 굶주린 백성들이 구렁텅이에 나뒹굴게 된 것은 재운(再運)이 늦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백성들이 굶어 쓰러지는 데 대해 흉년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볼 때 전적으로 지방관이 일을 일답게 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만은 없다.

29) 계하(啓下) : 왕이 백성이나 신하·관서에 지시·명령·훈유(訓諭)하는 문서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에 각 관청이나 신하의 보고를 계본(啓本)·계목(啓目)·초기(草記)·단자(單子)의 형태로 왕에게 아뢰면, 왕은 그 문서에 비답이나 하비(下批)·계하(啓下)·비망기(備忘記) 등의 형태로 지시를 내렸다.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는 것은 우선 참작하라. 그러나 노고가 죄과를 덮을 수는 있지만 승진시켜 서용하는 것은 지나치다. 전에 내린 시상전과 승진³⁰⁾은 병방(兵房)과 병조에 취소하도록 지시하여 시비를 구분하게 하라.

300섬을 원납한 전 현감 고한록은 매번 사재를 덜고 번번이 가산을 기울였다. 바다 밖의 풍속으로 능히 백성을 사랑할 줄을 알고 있으니 매우 가상하다. 특별히 대정 현감으로 차임하고 군수의 이력을 그대로 적용하며 이조에 분부하여 하직 인사를 하지 말고 부임하게 하라. 시임 현감은 체차하여 군함(軍銜)³¹⁾에 붙이도록 해당 조에 지시하라. 다른 도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에 엄히 금하였는데 섬사람들의 의기로 어찌 혹시라도 구애 받았겠는가. 더구나 엄히 금한다는 하교가 제주목에는 미치지 않았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원납인 홍삼필과 양성범 등이 100섬을 바친 것은 육지의 1,000포(包)에 맞먹는다고 할 수 있다. 병조에 지시하여 이들을 모두 순장으로 특별히 올려서 차임하게 한 뒤 가자하는 관교(官敎)는 구전으로 하비(下批)받아 오늘 안으로 유지(有旨)를 작성하여 보내도록 해당 방에 통지하라.

정리청의 곡물 1만 포를 특별히 떼어 준 것은 자궁의 은혜를 먼 지방에 까지 미치게 하고자 해서였으니 어찌 의례적으로 배로 운반해 주는 곡물

30) 전에 …… 승전 : 1795년(정조 19) 4월 1일 추가로 떼어 준 곡물 1만 1,000섬과 300명의 사람을 실은 배가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를 받고, 제주 목사가 성심을 다해 진휼할 곡물을 모았을 뿐 아니라 다른 일들도 부지런히 수행하는 점을 가상히 여겨 임기가 차면 승진시켜 조용(調用)하도록 병조에 지시한 일이 있었다. 《承政院日記 正祖 19年 4月 1日》

31) 군함(軍銜) : 군함체아직(軍銜遞兒職)의 줄임말로, 임시로 증원(增員)되거나 체직되어 다음의 인사를 기다리는 관리들에게 내리는 임시의 군직.

과 비교하겠는가. 양태와 해곽으로 값을 징수하는 한 가지는 일절 거론하지 말도록 분부하였는데, 회보한 내용 중에 어찌 낱낱이 거론하지 않았단 말인가. 제주 목사를 추고하고, 탕척하는 사유를 백성들에게 거듭 유시하여 이 또한 자궁의 은혜를 널리 미치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라.” 하였다.

濟州牧使 李禹鉉以本島三邑畢賑馳啓命廻還代捧涼藿依狀請停退該牧
向下施賞傳旨交周願納人前縣監 高漢祿特差大靜縣監仍用郡守履歷洪三
弼 梁聖範 巡將陞差仍命整理穀³²⁾涼藿代徵切勿舉論俾大小民人咸知慈恩
所推

該牧使狀啓以爲昨年穡事實是振古所未有之酷歉去十月初四日前牧
使 沈樂洙設賑今四月十四日畢賑而昨冬以後民間赤立之勢殊無貧富之別
第以初運之穀較諸應付之口實無排比之路故臣於莅任初強爲分六等以無
依無土最可矜者付之曰給其餘飢口則隨其緩急鱗次付還而無土飢民之次
次抄付者本州壯弱并三千四百四十三口大靜縣壯弱并四百十九口旌義縣
壯弱并一千三十六口通三邑壯弱合爲四千八百九十八口而以別下賑需皮牟
一千八百二十七石零臣營記付牟米二百三十二石零鹽三十石拮據皮牟九十三
石零租一百三十四石零鹽醬八十七石零大靜縣監 鄭運躋拮據鹽醬十一石零
旌義縣記付鹽十石本州願納人租二百七十六石零內壯一口一日折米五合弱
一口一日折米三合依例間十日白給別下賑需入來之後元巡外別設一巡壯一

32) 정리곡(整理穀) : 정조는 1795년(정조19) 윤2월 13일 모후(母后)인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를 모시고 화성(華城)에 거둥하여 현릉원(顯陵園)에 참배하고 봉수당(奉壽堂)에서 혜경궁 홍씨를 위한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 행사를 위해 임시 관청인 정리소(整理所)를 설치하고 10만 께미의 돈을 내려 주어 행사의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다. 행사를 마친 후 남은 돈으로 곡물을 사서 ‘을묘년 정리곡(乙卯年整理穀)’이라 이름하고 전국 300개 고을에 나누어 유치하고 이자를 취하여 구휼에 보태게 하였다. 《正祖實錄 19年 閏2月 13日》

口皮牟一斗二升弱一口皮牟八升分饋今月初巡分給之後早麥雖已就熟登場
尚未及期故加設一巡而有土飢民之次次抄付者本州壯弱并三萬五千五十六
口大靜縣壯弱并八千六百三十六口旌義縣壯弱并一萬一千九百二十口
通三邑壯弱合爲五萬五千六百十二口而以移轉白米一千八百六石皮牟
五千四百四十八石租四千七百四十六石本土留儲米二千一百七十五石零間
日還分賑餘別下皮牟三千一百七十二石零及整理廳特下租四千八百三十三
石零皮牟三千五百石零則以白給繼巡分饋雖彼至愚之類亦知 慈宮恩澤之均
被舉皆北望鼓腹攢祝感泣願納皮牟一百七十三石零租五十石以補賑之餘克
補巡分之資移轉穀捧上成冊及無土飢民分賑成冊有土飢民人口穀總成冊上
送于各該司仍伏念今番賑事以初頭民情言之則一條生路惟靠移轉而又當八
路同歉沿穀枵然之時雖使渠輩自爲之謀如願移粟勢所難必而聖恩天大一萬
石元劃既據優例五千包別下又推特恩其所以偏恤島民之盛德於斯至矣而整
理錢換作穀一萬石特下於所望之外需澤旁流天人助順許多船隻次第穩泊使
彼溝壑之民厝之衽席之上王靈所暨大賑告訖而臣職忝分憂不善對揚以致捐
瘠之夥然惶恐待罪而三邑粳麥快得免歉但昨秋以來當捧還上諸般身役一無
所納今於麥登之後一時竝督則實非奠安慰撫之道還上則係是七八月民食之
資故不可不準捧計料除番身役米則夏捧中折半停退以爲一分蠲恤之道移轉
穀涼藿代捧自是已例而見今民間形勢與前大異所謂涼藿隨織隨採已盡賣食
強令督納恐是行不得之政待明春退捧移轉皮牟則或全數或折半留作土還已
成前例近以荐歉本土還總年年停減三邑還穀所餘無多今番皮牟一并留作土
還請竝令廟堂稟旨分付賑資願納本州人前縣監 高漢祿以屢次願納受國厚
恩之人又於今春傾其家貲出陸貿穀補賑之數至於三百石將校洪三弼願納穀
物爲一百石大靜幼學梁聖範願納穀亦爲一百石諸人俱以窮海癡瘡之類能識
輕財好施之義者極爲可尙

○濟州牧 元賑二十二巡合飢口三十八萬二千二十四分賑各穀一萬三千六百四十一
石八斗內別下賑需皮牟一千六百四十七石三斗零整理廳特下租二千四百八十二石
一斗零皮牟二千四十五石十一斗零移轉白米九百三十四石零租三千七十三石十三
斗零皮牟二千三百八十七石十斗零賑廳牟米五百八十四石十二斗零牧官司倉米

二百七十九石零願納租二十石皮牟一百三石六斗零○無土白給二十三巡合飢口三萬一千六百五十五分給各穀鹽醬并二千九十石五斗零內別下賑需皮牟一千六百五十五石零本營記付牟米一百四十三石十一斗零拮據皮牟九十三石九斗零租一百二十六石二斗零願納租二百七十六石八斗零本營記付鹽三十石拮據鹽六十八石十三斗零甘醬六石四斗零大靜縣 元賑二十二巡合飢口十三萬九千五百十六分賑各穀四千六百五十七石十一斗內整理廳特下皮牟六百十九石租八百十二石別下賑需皮牟五百十九石零移轉皮牟一千十四石八斗租八百石六斗白米一百九十七石十三斗營賑廳牟米五百六十五石十三斗零田米二十九石一斗願納皮牟七十石租三十石○無土白給二十三巡合飢口三千四百四十一分給各穀鹽醬并二百三十石零內別下賑需皮牟一百五十四石十三斗零營門記付粳米三十五石十四斗零拮據正租一石十四斗縣監拮據醬五斗零鹽十一石零旌義縣 元賑二十二巡合飢口二十萬三千七百八十九分賑各穀七千六百五十二斗零內別下賑需皮牟一千六石九斗零整理廳特下皮牟八百三十五石三斗零租一千五百三十九石三斗零移轉白米六百七十四石零皮牟二千四十五石十一斗零租八百七十一石十斗零營賑廳牟米六百三十三石四斗零○無土白給二十三巡合飢口六千七百三十九分給各穀鹽并四百九石三斗零別下賑需皮牟三百二十七石二斗零營門記付牟米五十三石零拮據正租六石八斗零鹽十二石六斗零本縣記付鹽十石○賑恤廳啓言觀此濟州牧使 李禹鉉畢賑狀啓中以捐瘠夥然爲辭其不善對揚之飭烏可置而不論而賑還民之同爲白給不但諸道所無之例不過一時徽譽之資且本道土地瘠薄告歉頻仍而番創例後弊難遏該牧使令該府拿問處之三邑守令則捐瘠之罪厥犯惟均勞則有之別加參酌推考警責所不可已願納私賑既有禁令則當依嶺南例還給而海島之人異於陸民若其真箇出義之類則以致負心缺望之歎殊非激勸之道令該曹考例稟處賑餘皮牟之留作土還雖有已例涼藿代捧之引牟停退事係無前今已過節妨農則民情不可不念并依狀請許施而待明春申飭準捧卽爲出送俾無消融之弊事請分付從之教以捐瘠夥然之說無難登聞果甚駭然昨見狀本非不知嚴處而首實猶勝於匿瞞姑此循例啓下於卿廳卿之粘語深得體段而絕海異於內地非船粟莫可濟活去冬願領之填溝安知不由於再運之後時乎其在無罪歲之意不可專責牧伯之不事事拿處姑爲參酌勞可掩罪而已陞敘過矣向下施賞傳旨及承傳令該房該曹爰周以別涇渭三百石願納人前縣監 高漢祿則每每捐財番番傾貲海外土俗之能知存愛萬萬可尙特差大靜縣監仍用郡守履歷事分付吏曹使之除朝辭赴任時縣監令該

曹口傳遞付軍衛他道則昨秋雖嚴禁島民之義氣豈或泥之況嚴禁之教不及於該牧者乎百石願納人洪三弼 梁聖範等可敵陸地之千包并令兵曹 巡將陞差後加資官教口傳下批今日內成送有旨事令該房知悉整理穀萬包之特劃卽欲遠暨慈恩也豈比備例船運之穀物乎涼藿代徵一款 切勿舉論事分付而報辭豈敢不爲枚舉乎該牧使推考以其蕩滌之由申諭大小民人俾知此亦出於 慈恩所推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3일(경술)

내탕전(內帑錢) 1만 민(緡)을 탐라(耽羅)에 별도로 내려 주어 진흥의 재원으로 삼게 하고, 이어 도신과 수신(守臣)³³⁾ 및 연읍(沿邑)의 수령을 신칙하여 해산물의 이익으로 무역하는 일을 착심(着心)하여 권장하게 하고 빈마(牝馬)를 육지에 헐값으로 내다 파는 일에 대해서도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하여금 직접 단속하게 하였다. 3개 읍의 권농(勸農)하는 정사에 대해 별도로 더 엄하게 신칙하게 하고, 이어 대내에서 내린 돈으로 호남에서 올해 바쳐야 할 상부(常賦)와 응공(應貢)³⁴⁾ 중에서 형편에 따라 제해 두었다가 곡물로 바꾸어 보내라고 명하였다.

○ 전교하기를,

“나는 오직 한결같이 백성들의 식량을 생각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나 깨나 걱정이 되어 몸소 방사(方社)에 나가 새벽이 되면 풍년이 들

33) 수신(守臣) : 일반적으로 유수(留守)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제주 목사(濟州牧使)를 가리킨다.

34) 상부(常賦)와 응공(應貢) : 상부는 일반적인 부세(賦稅)를 말한다.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로 공물은 보통 쌀이나 포목, 돈으로 바쳤지만 조정에 꼭 필요한 물건은 특산물로 바치게 했는데, 이를 응공이라 한다.

기를 빌려고 할 때에 호남 도백이 탐라 목사의 첩보를 일일이 거론하여 보고한 것을 받아 보니 바로 곡물을 더 떼어 달라는 청이었다.

곡식을 배로 실어 나르는 일로 수부(水夫)들이 자주 고생하였고 축난 것을 보충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육지 백성들도 모두 괴로워하지만 그래도 먹여 주기를 바라는 섬사람들을 어찌 차마 모른 채할 수 있겠는가. 지금 만약 묘당(廟堂)에서 상의하기를 앉아서 기다린다면 ‘서강(西江)의 물을 트더라도 수레바퀴 자국 물 고인 곳에 있는 붕어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격일 것이다.

더구나 작년 겨울에 한 지아비라도 굶어 죽을 경우에는 하루 동안 밥을 먹지 않겠다고 도백들에게 신칙하는 유시를 하고 그 뒤로 장찬(掌饌)과 상의(尙衣)의 물품에서부터 매일 바치는 상도(常度)에 이르기까지 각각 더 절약하여 별도로 한 창고에 저축한 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신의를 보이고 겸하여 오늘날과 같은 때에 쓰기 위해서였다.

특별히 1만 민의 돈을 내리는데, 잉보조(剩補條)는 이 가운데 들어 있지 않다. 도백으로 하여금 숫자에 맞추어 곡식을 사서 계속해서 실어 보내 먹여 주기를 기다리는 수만의 백성들 마음을 위로하라. 이와 같이 했는데도 환곡과 진휼의 재원에 부족함이 있으면 제주 목사로 하여금 즉시 급히 장계하게 하라. 재계하는 밤에 촛불을 밝히고 교서를 불러 주어 쓰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섬사람들을 위해서이고 한편으로는 연해 백성들을 위해서이다. 회남(淮南)의 점(占)에 의하면 동지에서 원조(元朝)까지 50일이 되면 곡식이 잘되어 백성들의 식량이 풍족하다고 하였다. 올해 원조는 동지로부터 계산하면 꼭 50일이 되고 4일이 되면 또 신일(辛日)이니, 천 개의 곳집과 만 개의 창고가 모두 찰 만큼 풍년이 들 조짐이다. 내가

이 때문에 팔방(八方)을 위하여 축원하고 섬사람들을 위하여 갑절이나 기
뻐한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이 전교를 묘당에서 전라 감사와 제주 목사에게 공문으로 알리게 하
라.” 하였다.

○ 비국이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 서정수(徐鼎修)의 장계를 보니, 제주 목사 이우현(李禹
鉉)의 첩보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여 섬에서 진휼곡을 분급한 상황과 곡
물의 수효를 마련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세전(歲前)에 자비곡(自備穀)으
로 진휼한 4,000구(口) 외에 1월 초순(初巡)부터 4월 종순(終巡)까지 12
차에 걸쳐 어른과 아이 4만 735구에 들어갈 곡물이 절미(折米)하여 1만
4,000섬 남짓인데, 도신이 조정의 명령으로 인하여 우선 들여보낸 것이
각종 곡물 1만 1,114섬이고 이미 마련해 두었으나 아직 들여보내지 않은
것이 5,000섬이니, 또 절미하여 7,260여 섬을 더 떼어 주어야 제주 목사
가 청한 수량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호남의 연해 지방은
얼마 전에 대규모 진휼을 거쳤기 때문에 작년에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
지만 민력이 고통에 시달려 여유가 없습니다. 이미 들여보낸 곡물로도 크
게 폐를 끼쳤는데 지금 또 절미하여 1만 포(包)에 가까운 곡물을 더한다
면 곡물을 떼어 내는 고을은 운수(運輸)하는 일로 관민(官民)이 모두 곤란
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형편을 생각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는 도신의 말은 참으
로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직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5,000
섬은 제주목의 곡물 총계에 포함되었지만 3개 읍 수령이 자비한 약 500

여 섬 정도와 세전에 사사로이 무역한 수천 섬은 총계에 들어가지 않은 듯하며, 게다가 봄이 되어 물이 따뜻해지면 양태(涼臺 갯양태)를 묶거나 미역을 채취하는 상선이 몰려들 것이니, 세전에 사사로이 사 둔 수천 섬이 세후(歲後)에는 늘어나고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섬사람 중에 가난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빌어먹는 부류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지 말고 육지로 내보내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얻게 했다가 풍년이 들면 다시 들어오게 하라는 뜻으로 전에 이미 공문으로 알렸는데, 이대로 거행한다면 환곡이나 진홀로 살아가는 인구 중에 줄어드는 수효가 또한 틀림없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기르는 빈마(牝馬)를 육지에 내다 팔게 한다면 이 또한 곡식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나저러나 제주목에서 부족하다고 요청한 7,200섬 중에 몇천 섬은 자연 수효가 줄어 들 것입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이러한 사의(事宜)로 제주 섬과 상의해서 다시 소상하게 헤아려 실수(實數)를 확정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에 상께 여쭙어 처리하되, 대체로 예상 수치를 헤아려 본다면 절미하여 2, 3천 섬은 더 비축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니, 역시 도신으로 하여금 잘 알아서 거행하게 하고 섬사람들과 상의한 후에 즉시 조처하게 하여 먹여 주기를 바라는 섬사람들의 소망을 채워 주고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는 조정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빈마를 육지로 내보내게 해 달라는 청은, 법금(法禁)이 비록 엄하지만 이러한 해에는 변통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 모두 도살(屠殺)하기보다는 차라리 좋은 값을 받아서 궁한 처지에 있는 목숨을 살리는 것이 나을 것이니, 이것은 도신의 장계 내용대로 보릿가을까지만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빌어먹는 자들을 섬 밖으로 나가게 해

주는 일은 백성을 이주시켜 구제하는 것이므로 이해(利害)에 크게 관계되는데, 본목의 첩보 내용에서 빠뜨리고 거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소홀하였으니, 제주 목사 이우현을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희하고 전교하기를,

“만약 한 사람의 백성이 굶어 죽더라도 1년 동안 하루 한 끼의 음식을 들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으니 신의를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차마 탐라의 백성들을 속이겠는가. 경들은 내가 제주 목사에게 별도로 유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내린 1만 5,000냥으로 설혹 보리와 벼 1만 포를 산다고 하더라도 차마 연해의 민력을 거둬 번거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잉축조(剩縮條)를 내려 백성의 부모로서 열 손가락을 다 아낀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모름지기 이 뜻을 잘 알아서 소상하게 일일이 거론하여 도신과 제주 목사에게 공문으로 알리라. 그리고 지금 다시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은 늦어서 기일에 미치지 못할까 어찌 매우 걱정스럽지 않겠는가. 아직 운송하지 않은 5,000섬과 지금 내리는 1만 섬을 우선 들여보내고 그 밖에 만약 부족하면 목사로 하여금 다시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그리고 통상(通商)과 행고(行賈)는 본래 급한 일이나 섬 안의 민력이 이미 고갈되어 이것도 억지로 하도록 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보아 해산물의 이익은 양태와 달라서 봄 날씨가 따뜻해진 후에는 전복과 미역 등속을 많이 채취하게 될지도 모르니, 도신과 연읍의 수령들을 엄히 신칙하여 자기 일처럼 여기고 착심하여 권장하게 하고, 이어 탐라 목사로 하여금 민간에 알아듣도록 타일러 값을 넉넉하게 주고 무역하게 한다면 소문을 듣고 사람이 모일 것이니,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빈마를 내보내는 일은 전에도 시행하여 우마(牛馬)가 작년 봄에 거의 바닥났으니,

내버려 두고 절제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우마를 번식시켜 기르는 도리가 결코 아니다. 이것도 목사에게 엄히 신칙하여 각별히 직접 단속하게 하여 빈마를 팔아 양식을 구하는 일과 말을 번식시키는 일을 한꺼번에 행하더라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 이로움이 있도록 하라. 두 해 동안 흉년이 들어 전야가 개간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 만하다. 3개 읍의 수령들이 순행하면서 권장하는 일에 전보다 백배나 공력을 들인 뒤에야 올가을에 풍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한 가지 일은 별도로 더 엄하게 신칙하라. 대내에서 내린 돈으로 산 곡물을 운반할 때 연읍에 폐를 끼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올해 바쳐야 할 상부(常賦)와 응공(應貢) 중에서 형편에 따라 제해 두었다가 곡물로 바꾸어 보내라고 도신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別下內帑錢一萬緡于耽羅以作賑資仍飭道臣守 臣及沿邑守令以海利貿遷事著意勸課北馬出陸斥賣事亦令該牧躬檢三邑勸農之政另加嚴飭仍命內下錢就湖南今年當納常賦應貢中從便除留貿送穀物

敎曰惟予一念民天憧憧於寤寐夙宵躬詣方社曉將祈年際接湖南伯枚舉耽羅牧倅報牒而登聞者卽穀物加劃之請也船粟之役水夫荐苦補縮之費陸民俱病而亦豈忍恣然於島中生靈望哺之想乎今若坐待廟堂之往復則西江之決不足以救涸轍況於昨冬以一夫填壑當停一日之膳飭諭道伯伊後自掌饌尙衣之需至于日供常度各加樽節別貯一庫正欲示信於民而兼爲今日之用特下萬文錢剩補條不在此中令道伯稱數貿粟陸續裝發以慰幾萬黔黎喁喁之情如是而又有不贍於還賑之資令該牧劃郎馳啓齋宵剪燭呼寫十行一則爲島民也一則爲沿民也淮南之占南至元朝爲五十日則禾熟民食足今年元朝計南至恰爲五十日日至四而又得辛千箱萬庾降康其徵予以是爲八方祝倍爲島

民喜也仍教曰此傳教令廟堂行會于全羅監司濟州牧使○備局啓言卽見全羅監司 徐鼎修狀啓則枚舉濟州牧使 李禹鉉牒辭島中分賑形止及穀物數爻磨鍊以報矣歲前自備賑掾四千口之外自正月初巡至四月終巡十二巡壯弱四萬七百三十五口容入折米爲一萬四千石零而道臣之因朝令先已入送者各穀爲一萬一千一百十四石已措備未入送者爲五千石則又有折米七千二百六十餘石加劃然後可以準該牧所請而見今湖南沿海纔經大賑昨年雖稍登而民力則積困無餘地矣已入送穀物大爲貽弊今又以近萬包折米加之則劃出之邑運輸之役將致官民俱困念其事勢道臣罔措之言誠爲實際而所陳未入送五千石雖入於該牧穀物總計之中而三邑守令自備假令五百餘石及歲前私貿還數千石似在總計之外且春開水暖結源採藿商舶輻湊則歲前數千石私貿者歲後則當有加而無減島民貧不農作乞丐資生之類勿爲懸保許其出送以爲從便就食待年豐還入之意前已行會依此舉行則減得還賑之口亦必不少私畜北馬若許斥賣出陸則亦可爲生穀之大助以此以彼該牧所請中七千二百石之不足自當有幾千石之減數分付道臣以此事宜往復該島更爲酌量消詳定執實數狀聞後稟處而大抵假令商量則數三千折米恐不可不加數備貯亦令道臣知悉舉行以待島中往復劃卽措處以塞島民待哺之望以宣朝家若恫之恩北馬許出之請法禁雖嚴如此之歲宜有闕狹且與其盡歸屠宰無寧獲善價活窮命此則依道臣狀辭限麥秋許施乞丐許出事係是移民拯濟大關利害者而本牧牒辭闕而不爲舉論事甚疏忽請該牧使 李禹鉉推考允之教以若使一民填壑限一年省却一日一時之膳旣設言不可不信寧忍欺耽羅之民乎卿等觀於別諭該牧者可以知矣然特下之萬五千兩設或買牟租萬包亦不忍重煩江海民力此所以別下剩縮條以示爲民父母十指皆愛之意須悉此意消詳枚舉行會於道臣及該牧使處而今更往復停當緩不及期豈不切悶乎未運五千石及今下萬石先爲入送其外若有不足許令牧使更爲狀聞通商行賈固是急務而島中民力已竭此亦難於勒令爲之大抵海利異於涼臺春和後鰯藿之屬安知不多採嚴飭道臣及治邑守令看作已事著勸諭之仍令耽牧曉諭民間優直貿還則聞風而集必有其效牝馬出送前亦行之而牛馬殆盡於昨春則任他無節殊非來頭孳養之道亦爲嚴飭牧使各別躬檢俾有竝行不悖之益兩年歉荒田野之不闕可知三邑守宰巡行勸課比前百倍用

功然後今秋可期大有此一款另加嚴飭內下錢物之運致治邑貽弊亦不可不念
就今年當納常賑應貢中從便除留貿送穀物事分付道臣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9일(병진)

전라 감사 서정수(徐鼎修)가 제주(濟州)의 이전곡(移轉穀)과 무곡(貿穀)
을 점검을 마치고 들여보냈다고 급히 장계하였다.

○ 전라 감사의 장계에,

“방금 제주에 보내는 곡물을 영운(領運)하는 차사원(差使員)인 광양 현
감(光陽縣監) 한사진(韓師鎭)의 첩정(牒呈)을 보니, ‘제주에 들여보내는 나
주(羅州)의 이전선(移轉船) 1척과 무곡선(貿穀船) 2척이 12월 27일에 떠났
는데, 제주의 비장(裨將)과 장교 6인도 영솔하기 위하여 타고 들어갔습니
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주에 이전하는 각종 곡물 5,000섬과 선가(船價)까
지 아울러 사들인 각종 곡물 4,525섬 12말 4되를 이미 점검을 마치고 들
여보냈습니다.” 하였다.

全羅監司 徐鼎修以濟州移轉及貿穀畢點檢入送馳啓

該監司狀啓以爲卽接濟州穀領運差使員 光陽縣監 韓師鎭牒呈以爲濟州入
送羅州移轉船一隻及貿穀船二隻十二月二十七日離發而濟州裨校六人亦爲
領騎入往云本州移轉各穀五千石及貿取各穀竝船價四千五百二十五石十二
斗四升已爲畢點檢入送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12일(기미)

제주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곡식을 실은 배가 무사히 정박했다고 급히 장계하였다.

○ 제주 목사의 장계에,

“순영(巡營)에서 떼어 준 돈으로 산 곡식 중에 본주 사공 양진택(梁進宅)의 배로 실어 온 백미 283섬 5말을 받아들인 연유는 이미 급히 장계했습니다. 그리고 순영의 별비곡(別備穀)을 실은 강진현(康津縣)의 사공 김원철(金元哲), 박꽃담(朴耄淡), 김성운(金成云) 등의 배 3척은 본주 장교 박사원(朴師源)과 강진현 장교 김이택(金利澤)이 영운 차사원(領運差使員)으로 타고 지난달 25일 술시(戌時)쯤에 화북(禾北) 포구에 무사히 정박하고, 떼어 준 돈으로 산 곡식을 실은 본주 사공 백태영(白太永)과 강진현 사공 김익삼(金益三) 등의 배 2척은 본주 장교 이세택(李世澤)과 박필태(朴弼太) 등이 영운 차사원으로 타고, 별비곡을 실은 본주 사공 김선귀(金善貴)와 서산군(瑞山郡) 사공 김삼돌(金三玆) 등의 배 2척은 본주 장교 김성집(金聖集)과 나주(羅州) 장교 김봉화(金鳳華)가 영운 차사원으로 타고 지난달 27일 유시(酉時)쯤에 역시 화북 포구에 무사히 정박했으며 배가 도착하여 정박하는 대로 곡식을 헤아려 받아들였습니다.

순영에서 별비곡 중에서 들여보낸, 김원철의 배에 실은 피모(皮牟 겉보리) 400섬, 박꽃담의 배에 실은 피모 200섬, 김성운의 배에 실은 피모 400섬, 김선귀의 배에 실은 피모 600섬, 김삼돌의 배에 실은 피모 400섬 등, 도합 피모 2,000섬은 순영에서 곧바로 선가(船價)를 제했기 때문에 정

해진 수량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백태영의 배에 실은 곡식 중에서 사 온 백미 381섬 9말은 선가 34섬 9말을 계산하여 제하니 실제로 받은 곡식은 347섬이고, 조(租) 100섬은 선가 9섬을 계산하여 제하니 실제로 받은 곡식은 91섬입니다. 또한 김익삼의 배에 실은 곡식 중에서 사 온 백미 412섬 14말 4되를 선가 37섬 7말 4되를 계산하여 제하니 실제로 받은 곡식은 375섬 7말이고, 조 337섬 5말은 선가 30섬 5말을 계산하여 제하니 실제로 받은 곡식은 307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후로 사 온 곡식 중에서 실제로 받은 것은 백미가 1,005섬 12말이고 조가 398섬이기에 연유를 급히 아웁니다.” 하였다.

濟州牧使 李禹鉉以船粟穩泊馳啓

該牧使狀啓以爲巡營劃貸錢所貿穀中本州沙工梁進宅船載來白米二百八十三石五斗捧上緣由已爲馳啓而巡營別備穀所載康津縣沙工 金元哲 朴沍淡 金成云等三隻船則本州將校朴師源及該縣將校金利澤領騎去月二十五日戌時量穩泊於禾北浦劃貸錢貿穀所載本州沙工白太永康津縣沙工 金益三等兩隻船則本州將校李世澤 朴弼太等領騎別備穀所載本州沙工金善貴 瑞山郡沙工金三芑等兩隻船則本州將校金星集及羅州將校金鳳華領騎去月二十七日酉時量亦爲穩泊於禾北浦隨其到泊量捧自巡營別備入送金元哲船所載皮牟四百石朴沍淡船所載皮年二百石金成云船所載皮牟四百石金善貴船所載皮牟六百石金三芑船所載皮牟四百石合皮牟二千石自巡營直除船價依數準捧而白太永船所載貿來白米三百八十一石九斗內計除船價三十四石九斗實捧爲三百四十七石租一百石內計除船價九石實捧爲九十一石金蓋三船所載貿來白米四百十二石十四斗四升內計除船價三十七石七斗四升實捧爲三百七十五石七斗租三百三十七石五斗內計除船價三十石五斗

實捧爲三百七石前後貿來穀實捧白米爲一千五石十二斗租爲三百九十八石
緣由馳啓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12일(기미)

제주 목사 이우현에게 풍년이 들거든 사창(社倉)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라고 회유(回諭)하였다.

○ 제주 목사의 장계에,

“사창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편리할지 여부에 대해 추후에 보고하겠다는 연유를 유지(有旨)를 수령하였다고 보고하는 장계에서 이미 진달했습니다. 그런데 본도(本島)는 본래 토지가 척박하여 백성들이 빈궁하고 재해가 자주 겹쳐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로 곡식을 빈번하게 실어 와야 하고 오래 쌓인 폐단은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환곡은 해마다 정퇴(停退)하거나 감면하기 때문에 남아서 비축해 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일을 교훈 삼아 앞일을 염려하는 도리로 보아 특별히 경영하는 바가 있어야 하겠기에 신도 여러모로 강구하여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방법을 세워 보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대신(臺臣)이 논의한 것은 곡식을 비축하는 방법을 자세히 진달하여 기근을 구제하는 계책으로 삼으려는 것인데, 의견을 내고 이치를 따져 장계하라고 까지 명하셨습니다.

신이 십분 헤아리고 세 고을의 여론을 널리 묻고 각종 절목을 참고하

니, 세 고을의 마장세(馬場稅)³⁵⁾가 평년에 거두는 것으로 말하면 500여 섬은 되고 산비탈의 가경세(加耕稅)³⁶⁾도 100여 섬은 되므로 해마다 거두어 모아 그것으로 창고를 설치하여 풍흉에 따른 염산(斂散)의 절차를 한결같이 대신의 상소에서 전달한 바와 같이 한다면 아마도 한재(旱災)나 수재(水災)를 막는 방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목사 심낙수(沈樂洙)의 이정 절목(釐正節目) 중에 마장세는 각 목장 마감(馬監)과 목자(牧子)들의 요조(料條)로 마련하고 가경세는 공용(公用)에 보태는 재원이나 사객(使客)의 지공(支供)에 쓰는 것으로 마련하여 절목을 만들어 비국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두 가지 세(稅)를 가져다가 창고의 비축으로 만든다면 목장의 폐단을 바로잡는 데는 조치할 방책이 없으며 공비(公費)의 귀속에도 폐단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해마다 크게 기근을 겪은 끝에 백성들의 형편이 점차 움츠러들어 농사와 양잠을 널리 짓지 못합니다. 작년과 올해 두 해 동안 겪어 보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오히려 자력으로 경작하지 못하여 묵혀 두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가령 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들어 민력(民力)이 조금 여유롭더라도 산비탈 목장이나 숲이 우거진 곳은 갑자기 더 개간할 가망이 없습니다. 곡식을 모아

35) 마장세(馬場稅) : 조선 후기 제주 지역에서 시행된 목장내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마감, 목자, 장교, 그리고 군인 등의 녹료(祿料)를 지급하기 위해 목마장 안의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양곡에 대해 세금으로 쌀을 걷었다. 목장세(牧場稅), 장세(場稅) 또는 장전세(場田稅)라고도 한다.

36) 가경세(加耕稅) : 가경전은 조선시대 한번도 경작되지 않은 무주한광지(無主閑曠地)를 농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간한 토지. 크게 평지가경전(平地加耕田)과 해택가경전(海澤加耕田)이 있었다. 한광지로 있을 때는 토지 대장에 등재되지 않다가 개간이 완료되면 등록되었으므로 양외가경전(量外加耕田)이라고도 불렀다. 가경세는 3년간 가경세가 면제된다.

창고를 설치하자는 논의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신이 지금 본 바 말씀드리면 몇 해를 끈 뒤에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납(願納)할 백성을 모집하여 자급(資級)을 주어 차임(差任)하는 일로 말씀드리면 두 해 동안 진휼을 설행하면서 섬 안 백성들의 재산을 분명히 헤아릴 수 있었는데, 비록 여러해 동안 풍년이 들더라도 모집에 응하여 곡식을 바치는 수효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나저러나 창고를 설치하는 문제는 아직 쉽사리 논의할 수 없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사세(事勢)가 그와 같다면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민력이 조금 여유로워 공적이나 사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면 다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 하라는 뜻으로 회유하라.” 하였다.

諭濟州牧使 李禹鉉待年豐更以社倉設始當否論理狀聞

該牧使狀啓以爲因奉常寺副奉事 邊景鵬所懷許令島民出陸事有令有司堂上行會該牧從便措處之命矣島民之許通陸路寔出我聖上軫恤窮命母或阻飢之至意敢不量度便宜思所以一分利民之方而第伏念時當隆冬路隔重溟其所舉行亦必十分審慎然後可無後悔而見今老弱疲癯貧丐難保之類皆已付賑賴以延活且職在芻牧既不能使斯民安堵無飢又從以涉險海散而之四實所矜憫而假使出陸之後得免飢寒勝於在島許多鶉鵲之徒遠塗栖遑之際必多凍餒之患未見就食之效或至顛溝之境則實非所以仰體如傷之德意此輩則決不當許出若其年少壯健可以傭賃者姑令弛禁開其生路似無所不可而當此船路阻絕之時徒致繹騷利涉無期則毋寧稍待春暖徐徐許出之爲穩便今方以此意曉諭坊曲使之隨所願次次出送而出陸形止修成冊報于備邊司計料教以事勢似然依狀辭施行而深軫兩便之方莫致後悔之歎事回諭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12일(기미)

탐라(耽羅)의 도민(島民)을 육지로 내보내는 일은 제주 목사의 장계 내 용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 제주 목사의 장계에,

“봉상시 부봉사 변경봉(邊景鵬)³⁷⁾의 소회(所懷)로 인하여 도민이 육지로 나오게 허락하는 일을 유사 당상으로 하여금 제주 목사에게 알리게 하여 편리한 대로 조치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도민에게 육지로 통하는 길을 허락한 것은 우리 성상께서 실로 궁박한 생명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겨 혹시라도 막아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려는 지극한 뜻에서 나왔는데, 감히 편의를 잘 헤아려서 조금이라도 백성들을 이롭게 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삼가 생각건대, 때가 몹시 추운 겨울이고 길이 큰 바

37) 변경봉(邊景鵬) : 1756년(영조 32)-1823년(순조 23). 조선 후기 문신. 자는 만리(萬里)이고, 호는 일제(一齊)이다. 본관은 원주(原州)이고, 서귀포시(西歸浦市) 중문동(中文洞)에서 태어났다. 후에 제주도 대정읍(大靜邑) 신도리(新挑里)로 옮겨 살았다. 증조부는 변희련(邊希蓮), 조부는 변시해(邊是海)이고, 부친은 변성휴(邊聖休)이다. 외조부는 오계희(吳繼姬)이다. 문장에 뛰어났으며, 복술(卜術)에도 능했다. 정조 18년(1794) 제주어사(濟州御使) 심낙수(沈樂洙)가 시취(試取)한 시권(試券)을 정조가 과차(科次)를 매겼다. 이때 그는 논(論)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1795년(정조 19)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급제하였고 대정현감(大靜縣監)·만경현령(萬頃縣令)·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등을 거쳐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지냈다. 1795년(정조 19)에 제주에 연이어 흉년이 들자 정조는 변경봉(邊景鵬)을 친히 불러 제주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의 실상을 물어보고 구휼곡의 운반과 제주도민의 출륙금지령을 해제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1811년(순조 11) 2월부터 1813년(순조 13) 8월까지 대정현감(大靜縣監)을 지냈다. 당시 그는 주자(朱子)의 글씨를 집자(集字)하여 ‘명륜당(明倫堂)’이라는 현판을 새겨서 대정향교에 게시(揭示)함으로써, 후학들의 교육을 권면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다로 가로 막혀 있기 때문에 거행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심분 조심하고 삼간 뒤에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약자, 병약자, 거지들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부류들 모두 이미 진휼(賑恤)에 붙인 덕분에 연명하여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목사의 직임에 있으면서 이미 백성들을 굶주림 없이 편안히 살게 하지 못하는데다가 험한 바다를 건너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였으니, 실로 가여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령 육지로 나간 뒤에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는 것이 섬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험하고 굶주린 허다한 무리들이 먼 길에 목숨을 붙이고 살 곳이 없어 필시 대부분 얼고 굶주릴까 걱정되며 먹을 것을 얻지는 못하고 혹시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른다면 실로 백성의 고통을 안쓰럽게 여기시는 성상의 훌륭한 뜻을 우러러 본받는 것이 아니니, 이러한 무리들은 결코 나가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나이가 젊고 건강하여 품팔이를 할 수 있는 자는 우선 금령(禁令)을 늦추어 살길을 열어 주어도 불가할 것이 없을듯하지만 이렇게 뱃길이 막히고 끊어졌을 때 무사히 건널 기약도 없이 소란만 일으키기보다는 차라리 봄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거든 서서히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온편하겠기에 지금 곧 이러한 뜻으로 마을에 타일러 원하는 바에 따라 차차로 내보내고 육지로 나가는 상황을 성책을 작성하여 비변사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사세가 그러하다면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되, 양쪽이 모두 편한 방법을 깊이 진념해서 후회하여 탄식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회유하라.” 하였다.

諭濟州牧使 李禹鉉待年豐更以社倉設始當否論理狀聞

該牧使狀啓以爲因奉常寺副奉事 邊景鵬所懷許令島民出陸事有令有司堂上行會該牧從便措處之命矣島民之許通陸路寔出我聖上軫恤窮命母或阻飢之至意敢不量度便宜思所以一分利民之方而第伏念時當隆冬路隔重溟其所舉行亦必十分審慎然後可無後悔而見今老弱疲癯貧丐難保之類皆已付賑賴以延活且職在芻牧既不能使斯民安堵無飢又從以涉險海散而之四實所矜憫而假使出陸之後得免飢寒勝於在島許多鶻鵠之徒遠塗栖遑之際必多凍餒之患未見就食之效或至顛溝之境則實非所以仰體如傷之德意此輩則決不當許出若其年少壯健可以傭賃者姑令弛禁開其生路似無所不可而當此船路阻絕之時徒致繹騷利涉無期則毋寧稍待春暖徐徐許出之爲穩便今方以此意曉諭坊曲使之隨所願次次出送而出陸形止修成冊報于備邊司計料教以事勢似然依狀辭施行而深軫兩便之方莫致後悔之歎事回諭命耽羅島民出陸事依該牧狀辭施行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15일(임술)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에게 유배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연소한 문관으로서 전도유망한 자를 그 후임으로 차출하고 이어 백성들의 사정이 완전히 소생될 때까지 해면(解免)을 요구하지 못하게 신칙하라고 명하였다.

○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 이우현이 진흙 정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섬과 육지가 멀리 떨어져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가 보고한 장계에서 논열한 것으

로 보건대, 재작년 겨울 세 고을에서 뽑은 기구(飢口)가 6만 2,698구(口)였는데 작년 겨울에 뽑은 세 고을의 기구는 4만 7,735구이니, 1년 동안에 감축된 기구가 1만 7,963구입니다. 굶주렸든 병들었든 따질 것 없이 이들은 모두 굶주려 죽은 자들입니다. 조정에서 그동안 섬 백성을 얼마나 돌보아 주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 곳을 잃으면 하루 동안 수라를 들지 않겠다고 하교하기까지 하셨으니 입은 은혜는 미물도 감동하였을 텐데 수령 된 몸으로 성상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선양하지 못하여 감축된 호구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덮어 두고 거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주 목사 이우현에게 속히 유배하는 법을 시행하고 그 후임으로 문관 중에서 연소하고 전도유망한 자를 각별히 가려 차임하여 민사(民事)에 전념하게 하되 완전히 소생할 때까지는 해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미리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施濟州牧使 李禹鉉行遣之典命以年少文官有前程者差其代仍飭民事蘇完間毋得求解

右議政 尹蓍東啓言濟州牧使 李禹鉉治績賑政島陸遠隔雖無以詳知而以其狀聞所論列觀之再昨冬所抄三邑飢口爲六萬二千六百九十八口而昨冬所抄三邑飢口爲四萬七千七百三十五口則一年之內所減縮爲一萬七千九百六十三口無論飢與病皆是捐瘠者也朝家之恤念島民前後何如至下一夫失所一日停膳之教則仁恩所被可以感動豚魚而身爲守土之臣不善對揚戶口之減至於此多則豈可掩置不論請濟州 牧使 李禹鉉亟施行遣之典其代文官中年少有前程者各別擇差使之一意民事蘇完間毋得求解事預爲嚴飭從之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19일(병인)

한성부가 탐라(耽羅)의 호구(戶口)와 백성 숫자를 올렸다.

○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濟州) - 원호(元戶)가 6,710호, 남자가 1만 5,376구(口), 여자가 2만 1,953구이다.

대정(大靜) - 원호가 1,733호, 남자가 3,073구, 여자가 4,453구이다.

정의(旌義) - 원호가 1,523호, 남자가 3,576구, 여자가 5,068구이다.

3개 읍의 도합은 원호가 9,966호, 남자가 2만 2,025구, 여자가 3만 1,474구이다.

정조 20년 병진(1796) 6월 6일(경진)

제주 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가 진휼을 마친 것에 대해 급히 장계한 데 대해, 녹봉을 덜어 진휼에 보탬 수령과 원납(願納)한 섬사람들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 제주 목사의 장계에,

“신이 부임한 것이 4월 중순(中巡)으로 분급할 때였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진휼을 개시한 뒤로부터 올해 4월 중순 전까지 진곡(賑穀)을 분배하고 기민(饑民)을 뽑는 규칙은 전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인계한 진안(賑案)과 곡부(穀簿)를 가지고 일일이 대조하였고, 4월 중순과 종순(終巡)은 신

이 영운(領運)해 온 곡물을 가지고 이전의 식례(式例)에 따라 분수(分數)에 맞추어 마감(磨勘)하였습니다.

별도로 지급한 돈으로 사서 운반해 온 백미(白米) 467섬 13말 남짓, 정조(正租) 9,525섬 8말 5되 남짓, 피모(皮牟) 1,698섬 2말 6되 등이 절미(折米)하여 도합 5,127섬 2말 7되인데, 또한 환민(還民)에게 식례에 따라 순차(巡次)를 이어서 분급하였습니다.

환민과 진민(賑民)을 막론하고 매 순차 중에 5되나 3되로 지탱할 수 없는 부류는 하나하나 찾아내어 별도로 뽑아서 한두 되를 더 지급해 주거나 환곡 장부와 진휼 장부에 바꾸어 올렸습니다.

등급을 나눌 때 유리(流離)하는 바람에 누락되어 미처 장부에 포함되지 못한 부류는 또한 일일이 찾아내어 올리고 다방면으로 구제하여 굶주려 죽는 것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도로 지급한 곡물 중에 신이 영운해 온 절미 1,325섬 4말 8되 남짓은, 4월 중순에 이어서 분급한 뒤로 보리가 이미 익어서 간혹 베어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민과 진민 가운데 보리가 없어 살기 어려운 자들로 성인 8,880구(口)와 어린아이 3,088구를 뽑아서 마지막 순차에 분급하였습니다.

사궁(四窮)³⁸⁾의 백성과 폐질(廢疾)에 걸린 부류로 말하면, 비록 보리가 익은 뒤라도 굶주릴 우환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 성인과 어린아이 3,126구를 별도로 뽑아서 식례대로 순차를 더해 분급하였습니다.

38) 사궁(四窮) : 인생의 곤궁한 처지를 가리키는 말. 늙어서 아내가 없는 남자(鰥:홀아비환), 젊어서 남편없는 여자(寡:적을과, 과부과), 어려서 부모없는 아이(孤:외로울고), 늙어서 자식없는 부모(獨:홀로독) 환과고독(鰥寡孤獨)이라고도 한다.

다만 이제 조만간 보리가 다행히 차례로 익더라도, 당초 농사지를 때 쓸 공사(公私) 간의 곡식 종자가 대부분 입에 풀칠하는 데 쓰여서 세 고을 사이에 빈 땅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환곡과 누적된 포흠(逋欠)을 일시에 아울러 거두어들인다면 결단코 행해질 수 없는 정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역청(平役廳)의 신미(身米)로 갑인년(1794, 정조 18) 가을 이전까지 전해 내려오는 거두지 못한 조(條)는 모두 탕감(蕩減)해 주고, 작년 여름과 가을에 정봉(停捧)한 조는 추수까지 그대로 정지해 주며,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로 여름에 거두어들이는 조는 2개월을 더 정지해 주며, 물선(物膳)의 가미(價米) 91섬 4말 5되³⁹⁾는 세 고을에 말을 잘 만들어 관문(關文)을 보내어 효유(曉諭)하여 방납(防納)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환곡은 가을까지 백성들의 양식에 쓰일 재원에 관계되기 때문에 올해의 환곡 및 남겨 놓은 조(條)와 정퇴(停退)한 조는 부득이하게 수효대로 거두어들일 계획입니다.

양태(涼臺)와 해곽(海藿)³⁹⁾으로 대신 거두는 조는, 섬에서 해곽이 생산되는 것이 근래 갈수록 희귀해져서 예전에 채취한 약간의 수효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축한 것이 없어 전례대로 납부하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양태와 총모(驄帽)는, 세 고을에서 양태와 총모를 만드는 것으로 생업을 삼는 곳은 단지 본주(本州)에서 우량면(右兩面)의 40여 동리(洞里) 및 좌면(左面)의 네다섯 동리인데, 막 큰 기근을 겪은 뒤라 만드는 대로 팔

39) 양태(涼臺)와 해곽(海藿) : 양태는 갯양태를, 해곽은 미역을 가리킨다. 《정조실록》 10년 10월 5일 기사에 “양은 대를 짜서 만든 것인데, 곧 절풍건(折風巾)의 본질(本質)로 시속에서는 양태라 이르고, 곱은 해곽을 이른다. 두 물종은 모두 제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좋다.[涼者 織竹爲之 卽折風巾之本質 俗謂之涼臺 藿 謂海藿 兩物并以濟産爲佳]”라고 하였다.

아서 현재 비축한 것이 없습니다. 대정현(大靜縣)과 정의현(旌義縣)은 본디 양태와 충모를 만드는 것으로 생업을 삼지 않아서 으레 곡물과 포(布)로 양태와 충모를 사서 본주에 납부해 왔습니다. 본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납부하는 것도 지금 할 수가 없으니, 두 현(縣)에서 사서 납부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한창 농사를 짓는 중이라 남녀가 모두 들에 나가 일하고 있으므로 양태와 충모 따위를 만들 겨를이 없으니, 추수하여 여력이 있기를 조금 기다린 뒤에 잘 헤아려 거두어들이겠습니다.

여름철에 들어선 이후로 비가 알맞게 오고 파종을 때맞춰 하였으니, 앞으로 날씨가 한결같이 순조롭고 사람이 부지런히 애쓴다면 풍년이 드는 것을 또한 거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납(願納)한 주민(州民)으로 말하면, 전 순장(巡將) 홍삼필(洪三弼)은 몇 해에 걸쳐 진흥에 보탠 곡물의 수효가 많습니다. 그 뜻을 내어 출연(出捐)한 성의가 대단히 가상합니다. 노기(老妓) 만덕(萬德)은 사리상 진실로 구할 것이 없는데도 재물을 가볍게 여길 줄 아니, 비천한 무리가 더욱 능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진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목(濟州牧) - 원진(元賑)을 19차 시행하였는데, 토지를 소유한 기민(飢民)이 2만 8,375구(口)입니다. 각 곡물이 1만 9,359섬 2말 3되 남짓인데, 그중에 백미(白米)는 948섬 7말 1되 남짓이고, 전미(田米)는 99섬 4되이고, 정조(正租)는 7,732섬 10말 7되 남짓이고, 피모(皮牟)는 5,372섬 11말 3되 남짓이고, 모미(牟米)는 4,075섬 4말 6되 남짓이고, 태(太)는 354섬 13말 7되이고, 진맥(眞麥)은 16섬 3말 8되이고, 적두(赤豆)는 98섬 6말 1되이고, 속(粟)은 106섬 7말 6되이고, 직(稷)은 105섬 2말 3되이고, 산도(山稻)는 156섬 11말 7되이고, 피당(皮唐)은 292섬 12말 8되입니다. 백미 267섬 12말 6되, 정조 6,761섬 12말 4되 남짓, 피모 912섬 8말 4되 남짓은 별도로 지급한 돈으로 사서 운송해 온 것입니다. 백미 213섬 6말 1되, 정조 225섬 1말 1되

남짓, 태 331섬 12말 2되, 피모 4,363섬 3말 7되 남짓은 이전(移轉)한 것입니다. 백미 4,67섬 3말 4되 남짓, 정조 745섬 12말 1되, 피모 96섬 14말 2되 남짓은 순영(巡營)의 돈으로 산 것입니다. 모(牟) 2,781섬 10말 7되 남짓, 진맥 16섬 3말 8되, 전미 19섬 1말은 진흥청의 곡물입니다. 모미 642섬 9말 5되, 전미 79섬 14말 4되 는 보민고(補民庫)의 곡물입니다. 모미 589섬 13말 3되 는 본목(本牧)의 사창(司倉) 곡물입니다. 모미 61섬 2말 2되 는 만호창(萬戶倉)의 곡물입니다. 적두 98섬 6말 1되, 속 106섬 7말 6되, 직(稭) 105섬 2말 3되, 산도 156섬 11말 7되, 피당 292섬 12말 8되, 태 23섬 1말 5되 는 종자(種子)로 남겨 둔 조(條)입니다. ○ 백급(白給)을 19차 시행하였는데 토지가 없는 기민이 3,635구이고, 별진(別賑)을 1차 시행하였는데 사궁(四窮)의 백성과 폐질(廢疾)에 걸린 백성이 2352구입니다. 각 곡물이 3,244섬 6말 6되 남짓인데, 그중에 백미는 463섬 3말 4되 남짓이고, 정조는 986섬 5말 8되 남짓이고, 피모는 1,794섬 12말 2되 남짓입니다. 백미 146섬 7말 7되 남짓, 정조 148섬 4말 2되 남짓, 피모 122섬 2말 3되 는 별도로 지급한 돈으로 사서 운송해 온 것입니다. 피모 1,356섬 11말 1되 는 감사 서정수(徐鼎修)가 별비(別備)한 것입니다. 백미 256섬 10말 6되 남짓, 정조 38섬 1말 6되, 피모 315섬 13말 8되 남짓은 전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자비(自備)한 것입니다. 정조 500섬은 전 판관 조경일(趙敬日)이 자비한 것입니다. 백미 60섬은 노기 만덕이 원납한 것입니다. 정조 300섬은 전 순장 홍삼필이 원납한 것입니다. 염(鹽) 126섬 10말 1되 는 전 목사 이우현이 자비한 것입니다. -

대정현(大靜縣) - 원진을 18차 시행하였는데, 토지를 소유한 기민이 6,367구입니다. 각 곡물이 4766섬 5말 2되인데, 그중에 백미는 232섬 10말 9되 남짓이고, 정조는 1,559섬 6되이고, 피모는 1,509섬 11말 1되 남짓이고, 모미는 1,304섬 12말 5되이고, 태는 64섬이고, 산도는 2섬이고, 속은 8섬이고, 피당은 82섬이고, 목맥(木麥)은 3섬이고, 직은 1섬입니다. 백미 87섬 8말 7되 남짓, 정조 1275섬 9말 남짓, 피모 305섬 12말 7되 는 별도로 지급한 돈으로 사서 운송해 온 것입니다. 백미 94섬 12말 3되, 정조 39섬 2되 남짓, 피모 1,079섬 4말 7되 남짓, 태 64섬은 이전한 것입니다. 백미 50섬 4말 9되 남짓, 정조 244섬 6말 3되, 피모 30섬은 순영의 돈으로 산 것입니다. 모미 1,268섬 2말 4되, 피모 94섬 8말 7되 는 본영(本營) 진흥청의 곡물입니다. 산도 2섬, 속 8섬, 피당 82섬, 목맥 3섬, 직 1섬은 남겨서 토환(土還)으로 만든 것입니다. 모미 36섬 10말 1되 는 사창의 곡물입니다. ○백급을 19차 시행하였는데 토지가 없는 기민이 935구이고, 별진을 1차 시행하였는데 사궁의 백성과 폐질에 걸린 백성이 354구입니다. 각 곡물이 871섬 3말 5되 남짓인데, 그중에 백미는 117섬 5말 7되 남짓이

고, 정조는 38섬 5말 9되이고, 모미는 3섬이고, 피모는 412섬 6말 9되입니다. 백미 17섬 5말 7되 남짓, 정조 21섬 10말 2되, 피모 47섬 4말 2되 는 별도로 지급한 돈으로 사서 운송해 온 것입니다. 피모 165섬 2말 7되 는 감사 서정수가 별비한 것입니다. 정조 16섬 10말 7되 는 전 목사 이우현이 자비한 것입니다. 백미 100섬, 정조 300섬, 피모 200섬, 모미 3섬, 염 40섬 3말 8되 는 현감 고한록(高漢祿)이 자비한 것입니다.

정의현(旌義縣) - 원진을 18차 시행하였는데, 토지를 소유한 기민이 6,919구입니다. 각 곡물이 5,808섬 3말 남짓인데, 그중에 백미는 281섬 3말 6되이고, 정조는 3,129섬 3말 6되이고, 피모는 1,543섬 1말 8되 남짓이고, 모미는 1,760섬 6말 1되 남짓이고, 태는 94섬 2말 8되입니다. 백미 47섬 6말 4되, 정조 1,457섬 5말 남짓, 피모 459섬 6말 6되 는 별도로 지급한 돈으로 사서 운송해 온 것입니다. 백미 173섬 11말 6되, 태 94섬 2말 8되, 피모 1041섬 6말 5되 남짓, 정조 351섬 13말 5되 남짓은 이전한 것입니다. 백미 60섬 6되, 정조 320섬, 피모 36섬 5말 7되 남짓은 순영의 돈으로 산 것입니다. 모미 1704섬 13말 6되 남짓은 본영 진흥청의 곡물입니다. 모미 3섬 1말 8되, 피모 5섬 13말은 사창의 곡물입니다. 모미 52섬 5말 7되 는 보민고의 곡물입니다. ○백급을 19차 시행하였는데 토지가 없는 기민이 1,846구이고, 별진을 1차 시행하였는데 사궁의 백성과 폐질에 걸린 백성이 420구입니다. 각 곡물은 1474섬 7말 8되 남짓이고, 염은 62섬 7말 4되 남짓인데, 그중에 백미는 2,54섬 13말 2되 남짓이고, 정조는 498섬 1말 9되이고, 모미는 20섬이고, 피모는 751섬 7말 7되 남짓입니다. 백미 33섬 14말 8되, 정조 42섬 10말 8되, 피모 76섬 4되 는 별도로 지급한 돈으로 사서 운송해 온 것입니다. 피모 478섬 1말 2되 는 감사 서정수가 별비한 것입니다. 백미 220섬 13말 3되 남짓, 피모 147섬 6말 1되 남짓, 정조 255섬 6말 1되 는 전 목사 이우현이 자비하고, 전 현감 남숙(南溍)이 자비한 것입니다. 모미 20섬은 현감 홍상오(洪相五)가 자비한 것입니다. 정조 200섬과 염 58섬 12말 1되 는 전 목사 이우현이 자비한 것입니다. 3섬 10말 3되 남짓은 현감 홍상오가 자비한 것입니다.

이상 기민은 5만 1,203구이고, 각 곡물은 3만 5,523섬 13말 4되이고, 염은 229섬 6말 3되입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날씨가 순조롭고 각종 곡물을 제때에 경작하여 거의 성취할 가망이 있다고 하니, 진흥을 행한 뒤의 민정(民情)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천만다행이다. 경은 특별히 농사에 관한 정사를 더욱 권면하여 인력(人力)이 두

루 미칠 수 있게 함으로써 풍년이 들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실효가 있도록 하라. 전 순장 홍삼필은 누차 뜻을 내어 출연하여 진휼에 보탬이니, 그 성의가 가상하고 그 노고에 보상해야 한다. 섬의 두 고을 수령 중에서 만약 임기가 차거나 임기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이조로 하여금 후일 정사(政事)에서 홍삼필을 차출하여 보내게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즉시 의망하라. 노기 만덕은 그가 무엇을 구하기에 이렇게 100포(包)에 가까운 백대미(白大米)를 마련하여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면천(免賤)을 해 주든지 별도로 보상해 주든지 간에 경은 그가 원하는 대로 시행해 준 뒤에 거행 상황을 장계로 보고하라.’라는 내용으로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 진휼청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 유사모의 장계를 보건대, 한 섬의 생민(生民)들이 한 명도 굶주려 죽지 않았고, 지금은 보리가 이미 익었으며 진휼 정사도 끝마쳤습니다. 섬의 백성 가운데 뜻을 내어 출연한 자들은 이미 특교로 포상해 주시는 은전을 입었으니 이제 더 논할 것이 없습니다.

본주(本州)의 전 목사 이우현은 각 곡물 1,251섬을 자비하였는데, 작년에 굶어 죽은 백성의 수가 많았으니 혹 이전의 허물을 조금이나마 덮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정배(定配) 중에 있어 감히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

본주의 전 판관 조정일은 정조 500섬을 자비하였고, 대정 현감(大靜縣監) 고한록은 각 곡물 603섬을 자비하였고, 정의 현감(旌義縣監) 홍상오는 정조 200섬을 자비하였습니다. 섬 고을 수령의 녹봉은 육지 수령보다 박한데 각각 스스로 녹봉을 덜어 진휼에 보탬이니, 모두 가상합니다. 모두 이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한 뒤 상에게 여쭙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양태, 해곽, 총모를 가을을 기다려 올려보내도록 해 달라는 것은, 백성의 형편이 그럴 듯하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휼을 마친 뒤에는 곡물에 대해 반드시 회감(會減)하거나 회록(會錄)하게 해 달라고 청하는 법인데, 지금 이 장계에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곡물이 남아 있는 상황을 다시 보고하게 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이조가 아뢰기를,

“제주 판관 조경일, 대정 현감 고한록, 정의 현감 홍상오 등은 박한 녹봉을 덜어서 성심으로 기민들을 구제하였으니 대단히 가상합니다.

조경일과 고한록에게는 승진시켜 서용(敍用)하는 법을 시행해야 할 듯 하고, 홍상오에게는 아마(兒馬)를 사급(賜給)해 주는 법을 시행해야 할 듯 한데, 은상(恩賞)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濟州牧使 柳師模以畢賑馳啓命捐廩守令願納島人施賞有差

該牧使狀啓以爲臣之到任在於四月中巡分給之時故自昨年十月開賑後至今年四月中巡前分排抄付之式以前牧使 李禹鉉所傳掌賑案穀簿一一較準四月中終巡以臣領運穀依前式例準分磨勘而別下賈運白米四百六十七石十三斗零正租九千五百二十五石八斗五升零皮年一千六百九十八石二斗六升合折米五千一百二十七石二斗七升則亦於還民處依式例繼巡毋論還賑民每巡之內不可以五升三升支過之類則這這搜訪別抄或加給一二升或換付還賑案分等時流離見漏未及入籍之類亦皆一一搜付多方接濟俾免顛連別下穀中臣所領

運折米一千三百二十五石四斗八升零四月中巡繼饋之後麥已就熟間多刈食故還賑民中抄出無麥難聊者壯八千八百八十口弱三千八十八口畢巡分給若其四窮之民廢疾之類雖於麥登之後不無阻飢之患別抄其壯弱三千一百二十六口依式加巡分給顧今早晚年麥雖幸次第登場當初耕墾之時公私穀種多歸糊口三邑之間曠土居多而若以舊還積逋一時竝徵則決是行不得之政故平役身米甲寅秋以前流來未捧條一竝蕩減昨年夏秋停捧條限秋成仍停男丁大同米夏捧條以兩朔加停物膳價米九十一石四斗五升三邑中措辭發關曉諭防給還穀則係是秋間民食之資故當年新還及留作停退條則不得不準捧計料涼藿代捧條則島中藿產近益絕貴如干舊採殆無餘儲有難如例責納涼臺驄帽則三邑之內結造爲業者只是本州中右兩面四十餘洞里及左面四五洞里而纔經大饑隨結隨賣今無見儲大靜旌義則本不以涼帽爲業例用穀布貿納本州而州民自納今既末由則兩縣貿納尤無其路目今農作方張男女載野涼帽等屬無暇結造稍俟秋成力舒之後酌量收捧入夏以來雨澤適宜播種及時嗣後天時人功一向調動則有秋之望亦庶可待願納州民前巡將 洪三弼比年補賑穀數夥然其出義捐財之誠極爲嘉尚老妓萬德理固無求亦知輕財卑賤之中尤所難能

○濟州牧 元賑十九巡有土飢民二萬八千三百七十五口各穀一萬九千三百五十九石二斗三升零內白米九百四十八石七斗一升零田米九十九石四升正租七千七百三十二石十斗七升零皮牟五千三百七十二石十一斗三升零年米四千七十五石四斗六升零太三百五十四石十三斗七升真麥十六石三斗八升赤豆九十八石六斗一升粟一百六十六石七斗六升稷一百五十二斗三升山稻一百五十六石十一斗七升皮唐二百九十二石十二斗八升白米二百六十七石十二斗六升正租六千七百六十一石十二斗四升零皮牟九百十二石八斗四升零別下貿運白米二百十三石六斗一升正租二百二十五石一斗一升零太三百三十一石十二斗二升牟四千三百六十三石三斗七升零移轉白米四百六十七石三斗四升零正租七百四十五石十二斗一升皮牟九十六石十四斗二升零巡營錢所貿牟二千七百八十一石十斗七升零真麥十六石三斗八升田米十九石一斗賑廳牟米六百四十二石九斗五升田米七十九石十四斗四升補民庫牟米五百八十九石十三斗三升牧官司倉牟米六十一石二斗二升萬戶倉赤豆九十八石六斗一升粟一百六十六石七斗六升稷一百五十二斗三升山稻一百五十六石十一斗七升皮唐二百九十二石十二斗八升太二十三石一斗五升留作種子條○白給十九巡無土飢民三千六百三十五

口別賑一巡四窮廢疾民二千三百五十二口各穀三千二百四十四石六斗六升零內
 白米四百六十三石三斗四升零正租九百八十六石五斗八升零皮牟一千七百九十四
 石十二斗二升零白米一百四十六石七斗七升零正租一百四十八石四斗二升零皮牟
 一百二十二石二斗三升別下賃運皮牟一斗三百五十六石十一斗一升監司 徐鼎修別
 備白米二百五十六石十斗六升零正租三十八石一斗六升皮牟三百十五石十三斗八
 升零前牧使 李禹鉉自備正租五百石前判官 趙敬日自備白米六十石老妓萬德願納
 正租三百石前巡將 洪三弼願納鹽一百二十六石十斗一升前牧使 李禹鉉自備大靜
 縣 元賑十八巡有土飢民六千三百六十七口各穀四千七百六十六石五斗二升內白米
 二百三十二石十斗九升零正租一千五百五十九石六升皮牟一千五百九石十一斗一升
 零牟米一千三百四石十二斗五升太六十四石山稻二石粟八石皮唐八十二石木麥三
 石稷一石白米八十七石八斗七升零正租一千二百百七十五石九斗零皮牟三百五石
 十二斗七升別下賃運白米九十四石十二斗三升正租三十九石二升零皮牟一千七十九
 石四斗七升零太六十四石移轉白米五十石四斗九升零正租二百四十四石六斗三升
 皮牟三十石巡營錢所賃牟米一千二百六十八石二斗四升皮牟九十四石八斗七升營
 賑廳山稻二石粟八石皮唐八十二石木麥三石稷一石留作土還牟米三十六石十斗一
 升司倉○白給十九巡無土飢民九百三十五口別賑一巡四窮廢疾民三百五十四口各
 穀八百七十一石三斗五升零內白米一百十七石五斗七升零正租三十八石五斗九升
 年米三石皮牟四百十二石六斗九升白米十七石五斗七升零正租二十一石十斗二升
 皮牟四十七石四斗二升別下賃運皮牟一百六十五石二斗七升監司 徐鼎修別備正租
 十六石十斗七升前牧使 李禹鉉自備白米一百石正租三百石皮牟二百石牟米三石鹽
 四十石三斗八升縣監 高漢祿自備旌義縣 元賑十八巡有土飢民六千九百十九口各穀
 五千八百八石三斗零內白米二百八十一石三斗六升正租三千一百二十九石三斗六升
 皮牟一千五百四十三石一斗八升零牟米一千七百六十石六斗一升零太九十四石二斗
 八升白米四十七石六斗四升正租一千四百五十七石五斗零皮牟四百五十九石六斗
 六升別下賃運白米一百七十三石十一斗六升太九十四石二斗八升皮牟一千四十一石
 六斗五升零正租三百五十一石十三斗五升零移轉白米六十石六升正租三百二十石皮
 牟三十六石五斗七升零巡營錢所賃牟米一千七百四石十三斗六升零營賑牟米三石
 一斗八升皮牟五石十三斗司倉牟米五十二石五斗七升補民庫○白給十九巡無土飢民
 一千八百四十六口別賑一巡四窮廢疾民四百二千口各穀一千四百七十四石七斗八升
 零鹽六十二石七斗四升零白米二百五十四石十三斗二升零正租四百九十八石一斗九
 升牟米二十石皮年七百五十一石七斗七升零白米三十三石十四斗八升正租四十二石

十斗八升皮牟七十六石四升別下賈運皮牟四百七十八石一斗二升監司 徐鼎修別備白米二百二十石十三斗三升零皮牟一百四十七石六斗一升零正租二百五十五石六斗一升前牧使 李禹鉉自備前縣監 南涑自備牟米二十石縣監 洪相五自備正租二百石鹽五十八石十二斗一升前牧使 李禹鉉自備三石十斗三升零縣監 洪相五自備以上飢民五萬一千二百三口各穀三萬五千五百二十三石十三斗四升鹽二百二十九石六斗三升○教曰日候調順各穀以時耕耘庶有成就之望云言念賑餘民情千辛萬辛卿其另加勸課於南畝之政人力得以周及俾有有秋食實之效前巡將 洪三弼屢遭出義補賑其誠可嘉其勞當酬島中兩邑守令中如有準瓜或瓜近人令該曹後日政差送否則待窠卽爲擬望老妓萬德渠何所求辦此近百包白大米賑飢濟乏乎免賤與別般酬勞間卿其從願施行後形止狀聞事回諭○賑廳啓言觀此濟州牧使 柳師模狀啓則一島生靈無一捐瘠令則麥事已登賑政吉訖而島民之出義捐財者已蒙特教褒賞今無可論本州前牧使 李禹鉉自備各穀一千二百五十一石昨年捐瘠之數多或可以少補前愆而方在定配中不敢舉論本州前判官 趙敬日自備正租五百石大靜縣監 高漢祿自備各穀六百三石旌義縣監 洪相五自備正租二百石島邑俸廩薄於陸地而各自捐廩俱爲可嘉竝令該曹考例稟處涼藿驄帽之待秋出送民勢似然依狀請許施畢賑後穀物必有會減會錄之請而今此狀聞中全不舉論請以存留形止與令陳聞之意分付允之○吏曹啓言濟州判官 趙敬日 大靜縣監 高漢祿 旌義縣監 洪相五等捐出薄廩誠心拯救殊甚可嘉趙敬日 高漢祿似當施以陞敘之典洪相五則似當施以兒馬賜給之典而係千恩賞請上裁從之

정조 20년 병진(1796) 7월 28일(신미)

제주 목사 유사모(柳師模)가 노기(老妓) 만덕(萬德)을 본인이 바라는 바에 따라 육지로 내보내 주었다고 급히 장계하였다.

○ 제주 목사의 장계에,

“전 순장(巡將) 홍삼필(洪三弼)은 의기(義氣)를 발휘하여 진휼을 도왔으므로 두 고을의 수령 중에 빈자리가 나면 의망(擬望)하고, 노기 만덕은 기민(饑民)을 진휼하고 부족한 것을 구제하는 데 특별히 수고하였으니 바라는 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이 삼가 유지(有旨)⁴⁰⁾의 내용을 홍삼필과 만덕에게 반시(頒示)⁴¹⁾하니 만덕의 소고(所告)에 “저는 늙고 자식도 없으니 면천(免賤)할 마음은 없고 육지로 나가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그가 바라는 바에 따라 육지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에 연유를 급히 장계합니다.” 하였다.

濟州牧使 柳師模以老妓萬德依願出陸馳啓

該牧使狀啓以爲前巡將 洪三弼出義補賑兩邑守令中待窠擬望老妓萬德 賙饑濟乏別般酬勞依願施行事命下矣臣謹將有旨內辭意頒示洪三弼及萬德 處則萬德所告內渠年老無子果無免賤之心只有出陸之願依其願許令出陸緣 由馳啓

40) 유지(有旨) : 교서는 대개 문신이 제진(製進)하여 왕의 열람 또는 청문을 거쳐 하자가 없으면 이를 서사(書寫)하고 보인(寶印)을 찍은 다음 송부(送付)한다. 하지만 유지는 담당 승지가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직접 써서 수결(手決)한 다음 명령을 받는 이에게 송부하여 주는 중요한 왕명서이다.

41) 반시(頒示) : 법령 등을 세상에 널리 퍼서 알림. 여기서는 유지를 자세하게 설명.

二十八日^{辛未}

召見諸承旨于誠正閣
持公事入侍也

命 景慕宮動駕時以摠戎使領軍

承旨金熙朝啓言再明日 景慕宮舉動時御營
廳為隨駕當次而該營大將李漢豐方有實故勢
難舉行教以摠戎使領軍

命昌原府使趙蒙錫改差以趙宅鎮代之^{口傳}

吏曹啓言慶尚監司李泰永狀啓以為昌原府使
趙蒙錫與金海府使李身敬為四寸甥妹之間雖

丙辰七月



曰兼鎮自在應避金海既是兼營將而昌原為其
管下邑法當相避云矣請昌原府使依法典改差
允之教以本邑素稱難治口傳各別擇差待下批
一兩日內下送後草記

黃海監司徐邁修疏陳病狀乞遞藩任賜批不許

疏畧曰臣之冒據重寄已過暮歲一無猷為徒費
厚廩且臣之所患崇在痰癖海隅風土病根益痼
以此情病雖欲勉勵其勢未由伏乞亟命鑄遞批
以秋務方殷決非道伯言私之時卿其勿辭察任
吏曹參議蔡弘遠疏陳父病乞遞本職賜批仍命牌

招

疏畧曰臣之蒙朕愚魯我殿下漸拂假借闔門感
祝益知驚惶懼過者天官佐貳特授之命忽降於夢
想之外驚惶震懼不知所措躬且臣父浹月患痢氣
息綿綴左右扶持不可暫捨伏乞聖慈亟命改正
臣所叨之職批以爾其勿辭先出肅浚救護又教
以吏曹參議疏批已下即為牌招

濟州牧使柳師模以老妓萬德依願出陸馳啓

該牧使狀啓以為前巡將洪三弼出義補賑兩邑
守令中待窠擬望老妓萬德賙饑濟之別般酬勞

丙辰七月



依願施行事命下矣臣謹將有旨內辭意頒示洪
三弼及萬德處則萬德所告內渠年老無子果無
免賤之心只有出陸之願依其願許令出陸緣由
馳啓

入直提學李晚秀檢書官鄭世

정조 20년 병진(1796) 11월 24일(을축)

편전(便殿)에서 시원임 대신들을 소견하였다.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영돈녕부사 김이소(金履素), 판중추부사 이병모(李秉模),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이다.

(전략) 채제공이 아뢰기를,

“탐라(耽羅)의 기녀가 재물을 내어 백성을 구휼하였는데 상을 받는 것도, 면천(免賤)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왕성(王城)을 한번 구경한 다음 금강산(金剛山)에 들어가기를 원한 데 대해, 소원대로 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기녀가 막 올라왔는데 마침 한겨울이라 여관에서 방황하다 신에게 와서 울며 하소연하였습니다. 그가 천한 부류이기는 하지만 의리가 가상하고 정상이 불쌍하니 유사(有司)에게 분부하여 별도로 돌보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탐라 사람들에게 대해 조정에서 염려하는 것이 다른 도에 비해 더욱 특별하다. 그가 천한 기생으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내어 가난한 백성을 도와준 일만도 아주 가상하였고 소원을 들으니 역시 평범하지 않았는데, 이미 올라온 뒤에 어찌 길거리에서 굶주림을 호소하게 할 수 있겠는가. 비변사에서 그에게 다시 물어 만일 내년 봄까지 머무른 뒤 금강산에 내려가고 싶어 하면 구경하며 즐길 수 있게 한 뒤 양식을 주고 배를 태워 본향에 보내도록 해서 만물을 제 뜻대로 이루어 주지 않음이 없음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二十四日丑

召見時原任大臣于便殿左議政蔡濟恭判敦寧金履素判府事李秉模右議

政尹著東

予曰昨夜以卿等勿入來之意使承旨詳報卿等想領會予意此事果是何等至重至大吉慶歡欣之事君臣上下從容相議可陳請時陳請可行禮時行禮下宜有強請上宜或相持他事猶不可作外面人事況此莫重之事乎姑待來初之教予意有在昨年亞歲卿等之陳請也予以明年固好再明年亦好愈久愈好為言予意蓋以遲之又久為

丙辰十一月



祈天永命之本且此後慈宮寶壽日隆歲慶運以予喜懼之心隨事不欲張大徐待諸慶歲湊之年合行而兼舉豈不尤好耶左議政蔡濟恭曰聖教之下不敢更煩仰請謹當更俟來初矣予曰來初雖未必準許當有亞於此之道今日則更勿張皇為說可也濟恭曰上下酬酢已移數時而元子端坐如植不一遊目小學之工已成矣臣不勝欽仰予曰三更後始就寢未明已盥梳拜跪應對便已成習非予教之也即我朝家法也夫為學入德之門莫先於小學而近聞士夫家小兒無讀小

丙辰十一月



言身後將何有謚狀行錄乎非為對卿等而言也年位高者最勝矣予曰韓用龜處分卿等以為如何著東曰用龜事誠極駁然而以今番所犯論之臣誠惶恐處分似或過中矣予曰卿尚未知用龜本末乎傳教既曰不索諭今何更諭而蓋其自初罪犯專在心跡之間年前詎惠之教欲使渠少知懲艾而難化者質易綖者心予所深惡而嚴處豈但為今番事而發也予則以為罪一用龜可以革一世之污習如踈濶之吏判亦為用龜所賣將不免無限狼狽故以招降納反黨同伐異四字欲書於處分傳教中而還置之使承旨報于吏判矣問其地處則近臣切姻者為數三人必多稱冤者而在予之前則聲討不遺餘力此果誠心乎卿則以處分過中為言予實感歎矣濟恭曰耽羅妓捐財賑民不願受賞不願免賤願一觀王城仍入金剛山有從願之命纔上來而適值極寒彷徨旅邸來見臣泣訴渠雖賤類其義可尚其情可憫今付有司另加顧恤似好矣予曰耽羅人之朝家軫恤視他道尤別渠以一賤妓出義捐財助賑窮民已極可嘉聞其所願亦不碌々既已上來之後何可使

召見時原任大臣于便殿 左議政 蔡濟恭 判敦寧 金履素 判府事 李兼模 右議政 尹蕃東

(전략) 濟恭曰耽羅妓捐財賑民不願受賞不願免賤願一觀王城仍入金剛山有從願之命纔上來而適值極寒彷徨旅邸來見臣泣訴渠雖賤類其義可尙其情可憫分付有司另加顧恤似好矣予曰耽羅人之朝家軫恤視他道尤別渠以一賤妓出義捐財助賑窮民已極可嘉聞其所願亦不碌碌既已上來之後何可使呼饑道路自備局更問于渠如欲留待開春後下送金剛山使得觀玩後給糧資津送本鄉以示無物不遂之意可也

정조 20년 병진(1796) 11월 25일(병인)

제주(濟州)의 기녀(妓女) 만덕(萬德)을 내의원의 차비 대령(差備待令)인 행수 의녀(行首醫女)로 충원하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나서 되돌아갈 때 연로(沿路)에 분부하여 양식과 경비를 넉넉히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 진흥청이 제주의 기녀 만덕에게 이달의 양식과 경비로 쓸 쌀과 돈을 제급(題給)해 주는 것으로 아뢰어, 전교하기를,

“많은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해 살렸는데 그 일이 조정
에 보고되었다. 그에게 소원을 물으니 상을 받는 것도, 면천(免賤)되는 것
도 원하지 않고 다만 바다를 건너 서울에 올라와 보고 그 길에 금강산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하였는데 마침 한겨울이라 출발할 수 없었다.
그가 비록 천인(賤人)이기는 하지만 의로운 기상은 옛날의 정의로운 협객
에 부끄럽지 않다. 봄이 올 때까지 양식을 주고 곧바로 내의원의 차비 대
령인 행수 의녀로 충원하고 수의(首醫)에게 소속시켜 각별히 돌봐 주도록

하라. 그리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나서 되돌아갈 때 연로의 도신에게 분부하여 양식과 경비를 넉넉히 주게 하라.” 하였다.

命濟州妓萬德充內醫院差備待令行首醫女見金剛還送時分付沿路優給糧資

賑廳以濟州妓萬德今朔糧資米錢題給啓敎曰散施賫累賑活飢口事聞朝廷問渠所望則不願受賞亦不願免賤所願只在於涉海上京轉見金剛云而仍值劇寒不得發向渠雖賤物義氣不愧古之烈俠開春間給糧料直充內醫院差備待令行首醫女屬之首醫各別顧見見金剛還送時分付沿路道臣優給糧資

二十五日^寅
通承旨李晚秀
違台也
命 崇陵冬至 祭享賫者柳相文拿處分揀 陵
屬今該曹科治
因該府拿處傳旨敎以聞其事實非渠罪分揀
陵屬今該曹照律科治
命濟州妓萬德充內醫院差備待令行首醫女見金
剛還送時分付沿路優給糧資
賑廳以濟州妓萬德今朔糧資米錢題給啓敎曰散施
兩辰十月
賫累賑活飢口事聞朝廷問渠所望則不願受賞亦不
願免賤所願只在於涉海上京轉見金剛云而仍值劇
寒不得發向渠雖賤物義氣不愧古之烈俠開春間給
糧料直充內醫院差備待令行首醫女屬之首醫各
別顧見見金剛還送時分付沿路道臣優給糧資
勸放金吾時因洪景厚
義禁府啓言觀此金羅監司徐鼎修查啓則以為
金文在微事初覆檢報在於昨年五月而前道臣
李書九在任時已為論理題送臣於到營之後屢
次行查仍為決處而致死人周福金被縛於四月

『일성록』 정조 20년 병진(1796) 11월 25일(을축) 일기

정조 20년 병진(1796) 11월 28일(기사)

초계 문신에게 친시(親試)의 갱시(更試)를 보이고 그 시권을 채점하여 내렸다.

○ 1월에 치렀어야 할 친시는 ‘대설(大雪)’로 십운배율제(十韻排律題)를 삼았는데 황기천(黃基天)이 삼중(三中)을 맞아 수석을 차지하였다.

2월에 치렀어야 할 친시는 ‘명덕(明德)’으로 의제(疑題)를 삼았는데 신현(申絢)이 이하(二下)를 맞아 수석을 차지하였다.

3월에 치렀어야 할 친시는 ‘기꺼이 비단을 파는 낭비가 되려고 하겠는가. [肯作賣絹郎婢乎]’로 부제(賦題)를 삼았는데 권준(權駿)이 삼상(三上)을 맞아 수석을 차지하였다.

4월에 치렀어야 할 친시는 ‘만덕(萬德)’으로 전제(傳題)를 삼았는데 서준보(徐俊輔)⁴²⁾가 삼상을 맞아 수석을 차지하였다.

5월에 치렀어야 할 친시는 “추고 함사(推考緘辭)”로 조대제(條對題)를 삼았는데 홍석주(洪奭周)가 이하를 맞아 수석을 차지하였다.

考下抄啓文臣親試更試試券

正月朔親試大雪十韻排律黃基天三中居首二月朔親試明德疑申絢二下居首三月朔親試以肯作賣絹郎婢乎爲賦題權駿三上居首四月朔親試以萬德爲傳題徐俊輔三上居首五月朔親試以推考緘辭條對洪奭周二下居首

42) 서준보(徐俊輔)의 만덕전 : 『승정원일기』정조 20년 11월 28일조에 수록되어있다.

【해제】

『일성록』은 1760년(영조 36) 1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151년간의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로, 필사본이며, 총 2,329책이다. 『일성록』은 왕의 입장에서 편찬한 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기록이다.

이 책은 조선 후기에 문화 사업을 크게 일으켰던 정조에 의하여 기록되기 시작하여 그 뒤 정부의 업무로서 계속 편찬되었다. 정조는 각종 기록을 집대성하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여 국가의 의례에 이용된 문장, 과거의 답안, 신하들의 상소문 등을 종류별로 모아 책으로 엮게 하였고, 그 뒤로도 계속 증보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전라 감사, 제주 목사의 장계와 그에 따른 정조의 전교가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대흉년으로 인한 피해와 구휼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당시 제주도의 호구와 물류 및 조세제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12일 조에서는 제주출신 변경봉이 제안한 ‘제주도민출륙금지령의 해제’를 제주목사 이우현이 불가의 뜻을 장계로 올렸다. 이어 같은 해 1월 15일 조에 이우현을 도민 1만 7,963명이 아사(餓死)한 책임을 물어 유배형을 내렸다.

정조 20년 병진(1796) 7월 28일 조에서는 제주 목사 유사모가 김만덕을 육지로 내보내 주었다고 장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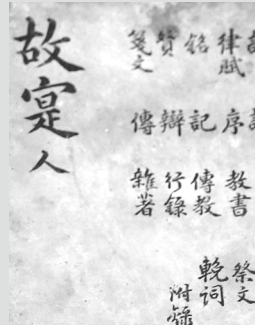
정조 20년 병진(1796) 11월 24일 - 28일 조에서는 채제공이 김만덕이 서울에 도착하여 마침 강추위를 만나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음을 보고하자 정조는 비변사에 김만덕에게 머물 장소와 식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행수 의녀에 충원하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제주도로 되돌아갈 때 양식과 경비를 주게 하라고 했다.

정조 20년 병진(1796) 11월 28일 조에서는 4월에 치렸어야 할 초계 문신에게 시행한 친시는 ‘만덕(萬德)’으로 전제(傳題)를 삼았는데 서준보(徐俊輔)가 삼상을 맞아 수석을 차지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를 계기로 김만덕에 대한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고 당대 문신들의 전과 시가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

제2부

당대 문신들의 만덕전(傳)과 시(詩)





채제공(蔡濟恭) 「설날 혹한에 출유하다(元春苦寒行)」

『번암집(樊巖集)』 권19 / 詩○稀年錄[下]

설날 혹한에 출유하다(元春苦寒行)

(전략) 상원(上元)¹⁾일은 구름이 끼고 달이 보이지 않아서 문을 닫고 쓸쓸하고 적막하였고, 16일 밤에는 구름이 다 걷히어 월색(月色)은 심히 밝았다.

시랑(侍郞) 공회(公會), 권승선(權承宣) 동야(東野), 최승선(崔承宣) 치회(稚晦), 이검토(李檢討) 사흥(士興) 등이 혜연(惠然)²⁾히 찾아왔다. 서로 더불어 십자(十字) 거리에 나가서 걸으면서 소요(逍遙)³⁾하니 닭이 몇 번 울었다. 이에 돌아와 여주목사(驢州牧使) 황사술(黃士述)을 생각하였다.

당당한 가절(佳節)⁴⁾이 봄과 같이 돌아오니
달 위 다리 머리엔 재촉하는 발걸음들.
삼경(三更)⁵⁾의 서울거리 하늘과 함께 넓은데
만 리 먼 은하엔 처음으로 눈 열어놓았네.

1) 상원(上元) : 음력 정월 대보름날.

2) 혜연(惠然) : 따르는 모양. 순한 모양. 호의를 표시하는 모양. (馬瑞辰通釋) 此詩惠而猶惠然也 惠亦當爲順 惠然謂順貌也

3) 소요(逍遙) : 한가롭게 거닐.

4) 가절(佳節) : 경사스러운 날. 좋은 명절.

5) 삼경(三更) :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사이.

탐라 여협(女俠)⁶⁾ 가벼운 몸으로 나왔고
 기사(耆社)⁷⁾의 원신(元臣)⁸⁾ 지팡이 짚고 왔다네.
 홀로 청심루(淸心樓)⁹⁾ 오른 객(客) 있으니
 이곳에서 배회함 꿈에라도 가능한 일인가.

탐라의 기생 만덕(萬德)이 천금(千金)을 내놓아 주린 백성을 진휼(賑恤)¹⁰⁾ 하였다. 성상께서 듣고 가상하게 여겨 수신(守臣)¹¹⁾에게 명하여 원하는 것을 물어 시행하게 하니, 기생이 대답하기를, “다른 것은 원하는 것이 없고 다만 상도(上都)¹²⁾를 보고 곧바로 금강산(金剛山)을 보는 것이 원입니다.”

라고 하였다. 수신이 이를 듣고 특별히 허락하였다. 이에 기생은 바다를 건너 경사(京師)¹³⁾에 들어왔다. 이로써 밤에 다리를 밟았고, 또한 들으니 수상(首相)도 또한 십자거리에 외출하였는데 금년에 80이 된다고 해서 아울러 그것을 기록하여 승평(昇平)¹⁴⁾의 사실을 보충하려 한다.

6) 여협(女俠) : 의협심이 있는 걸출한 여자.

7) 기사(耆社) : 기로소(耆老所). 조선 때 연로(年老)한 임금이나 실직(實職)에서 물러난 70세가 넘은 정2품 이상의 문관(文官)을 예우하기 위하여 마련한 곳. 이곳 '영수각(靈壽閣)'에는 그들의 초상을 걸어 두었음.

8) 원신(元臣) : 대신. 중신(重臣).

9) 청심루(淸心樓) : 경기도 여주(驪州)의 객관(客館) 북쪽에 있던 누각. 고려 때 세운 것으로 주변의 경관이 아름다워 주열(朱悅)·이곡(李穀)·이색(李穡)·한수(韓脩)·정몽주(鄭夢周)·이승인(李崇仁) 등 고려시대 문신과 조선시대의 서거정(徐居正)·최숙정(崔淑精)·김종직(金宗直)·신용개(申用溉) 등 수많은 문인 학사들이 시를 지어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였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7 驪州牧). 1945년 소실되었다.

10) 진휼(賑恤) : 재물을 베풀어 가난하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함.

11) 수신(守臣) : 지방을 맡아 다스리는 신하. 수령(守令).

12) 상도(上都) : 서울.

13) 경사(京師) : 서울.

14) 승평(昇平) : 해가 오르는 것과 같이 번영하는 태평 세대의 뜻.

元春苦寒行

(전략) 上元 陰暄無月 閉戶涔寂 十六夜 雲陰盡捲 月色明甚 李侍郎公會, 權承宣東野, 崔承宣稚晦, 李檢討士興 惠然來訪 相與出十字街 步履逍遙 鷄幾鳴乃還 懷黃驢使君士述 堂堂佳節與春回 月上橋頭履舄催 紫陌三更天共潤 銀河萬里雪初開 耽羅女俠輕身出 耆社元臣杖策來 獨有清心樓上客 可能於此夢徘徊 耽羅妓萬德 捐千金賑活飢民 上聞而嘉之 命守臣詢所願欲以施 妓對以無他願 只願觀上都 仍見金剛山 守臣以聞 特許之 妓越海入京師 以是夜踏橋 又聞首相亦出街路 今年爲八十 並記之 以備昇平事實

黃驢別夢轉依依。水遠山長對夕暉。君去難逢開口笑。吾衰那得奉身歸。迎春物態如相競。步月橋虹自在飛。倘憶往年街上路。美人携酒暗香霏。

元春苦寒行

去年月正寒。隨指今年月正寒。無比四山雲雪壓。嶙峋龜縮千人與萬人。老夫重衾未敢開。三日五日苦吟呻。玄冥青帝各有主。氣候何乃太錯誤。龍樓不安中宵枕。來汝京兆與五部。呼寒呼飢老男女。宣惠廳開入。偃僂綿絮如雲采。如瓊一跪受。仍起舞。提出康衢歌。且謠斯頌。太和排凝沍。

樊巖集 卷十九 詩 十五

上元陰暄無月。閉戶涔寂。十六夜雲陰盡捲。月色明甚。李侍郎公會。權承宣東野。崔承宣稚晦。李檢討士興。惠然來訪。相與出十字街。步履逍遙。鷄幾鳴乃還。懷黃驢使君士述。堂堂佳節與春回。月上橋頭。履舄催。紫陌三更天共潤。銀河萬里雪初開。耽羅女俠輕身出。耆社元臣杖策來。獨有清心樓上客。可能於此夢徘徊。耽羅妓萬德。捐千金賑活飢民。上聞而嘉之。命守臣詢所願欲以施。妓對以無他願。只願觀上都。仍見金剛山。守臣以聞。特許之。妓越海入京師。以是夜踏橋。又聞首相亦出街路。今年爲八十。並記之。以備昇平事實。

李公會兄弟率歌妓。上夜來會。妓有自關東來。

채제공(蔡濟恭) 「만덕전(萬德傳)」

『번암집(樊巖集)』 권55

만덕전

만덕의 성은 김씨이니 탐라(耽羅)¹⁵⁾에 사는 양가집 딸이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돌아가서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생의 집에 의탁하여 살았다. 조금 자라나자 관가에서 만덕의 이름을 기안(妓案)¹⁶⁾에 올렸다. 만덕이 비록 머리를 숙이고 기생 노릇을 하였으나 그 자신은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

나이 이십여 세 되었을 때 그 사정을 울며 관가에 하소연하니 관가에서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기안에서 그의 이름을 없애고 다시금 양민으로 되돌려 주었다. 만덕은 비록 집에 거하면서 탐라의 사내들을 머슴으로 거느리기는 했으나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재화를 늘리는 데에 재능이 있어서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어 팔거나 쌓아 놓거나 했다. 그런지 몇 십 년 만에 제법 부자로 이름이 드높았다. 우리 임금 19년 을묘년(乙卯年)¹⁷⁾에 탐라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의 죽은 시신이 더미로 쌓였다. 임금이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구제하기를 명령했다. 바닷길 팔백 리에 바람 편에 오가는 돛대가 북¹⁸⁾처럼 재빨랐으나 오히려 미치지 못했다.

15) 탐라(耽羅) : 제주의 옛 이름.

16) 기안(妓案) : 관아(官衙)에서 기생의 이름을 기록하여 둔 책.

17)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18) 북 : 피륙을 짤 때 씨실의 꾸리를 넣는, 베틀 부속품의 하나.

이에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육지에서 사들였다. 모든 고을의 사공들이 때맞춰 이르면 만덕은 그 중 십분의 일을 취하여 그의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어 날랐다. 그리하여 부황(浮黃)¹⁹⁾난 자가 그 소문을 듣고 관청마당에 모여 들기를 마치 구름 같았다. 관가에서는 그 완급(緩急)²⁰⁾을 조정하여 나누어 주었다. 그들 남녀는 모두 만덕의 은혜를 찬송하여, “우리를 살린 이는 만덕이네.”라고 했다.

진흥이 끝난 뒤에 목사가 그 일을 조정에 올리니 임금이 기이하게 여겨서, “만덕이 만일 소원이 있다면 쉽고 어려움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돌보아 주겠다.” 하고 회유(回諭)²¹⁾했다.

목사는 그제야 만덕을 불러서 임금의 말씀대로, “너는 무슨 소원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만덕은, “별다른 소원은 없습니다만 다만 한 번 서울에 가서 임금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이내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 이천 봉을 구경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다. 대개 탐라의 여인들은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오르지 못하게 함이 나라의 법이었다. 목사가 또 그의 소원을 올리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그의 소원대로 하라’ 하여 관가에서 노수(路需)²²⁾와 역마(驛馬)²³⁾를 주고, 음식을 번갈아서 제공케 했다.

만덕은 드디어 배를 타고 만경의 푸른 바다를 건너서 병진년(丙辰年)²⁴⁾

19) 부황(浮黃) : 오랫동안 굶주려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20) 완급(緩急) : 위급함의 느낌과 빠름.

21) 회유(回諭) : 회답하는 임금의 유지(諭旨)

22) 노수(路需) : 노자(路資). 여비.

23) 역마(驛馬) : 포마(鋪馬). 역참에 준비되어 있는 말. 정조실록(정조 20년 11월 25일)에서는 김만덕이 상경한 후 금강산 갈 때 제공하라고 명함.

24) 병진년(丙辰年) : 1796년(정조 20).

가을에 서울에 들어와서 채상국(蔡相國)²⁵⁾을 한두 번 만났다. 상국은 그 사실을 임금께 여쭙어서 선혜청(宣惠廳)²⁶⁾에 명령하여 달마다 식량을 대주었다. 그런지 며칠 만에 그로써 내의원(內醫院)²⁷⁾ 의녀(醫女)²⁸⁾를 삼아서 모든 의녀의 반수(班首)²⁹⁾에 두었다. 만덕은 이전에 있던 사례에 의하여 궁궐 안에 있는 문 안에 들어가 문안을 드렸다. 왕비와 궁에서 각기 여시(女侍)³⁰⁾로 하여금 말씀을 내렸다. “네, 한 개 여자로서 의기(義氣)³¹⁾를 내어서 주린 백성 천여 명을 구제했으니 가룩한 일이다.”

그리고 상사(賞賜)³²⁾한 것이 많았다. 그런지 반 년 만인 정사년(丁巳年)³³⁾ 삼월에 금강산에 들어가 만폭동(萬瀑洞)³⁴⁾·중향성(衆香城)³⁵⁾의 기이한 경치를 다 구경하였다. 금불(金佛)을 만나서는 반드시 절하고 공양 드려 그 정성을 극진히 했다. 이는 대체로 불법이 탐라국에는 들어오지 않은 까닭에 만덕이 나이가 스물여덟이었으나 이제 처음 절과 부처를 구경했던 것이다.

25) 채상국(蔡相國) :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상국’은 영의정 및 좌·우의정의 총칭.

26) 선혜청(宣惠廳) : 조선 때 대동법(大同法)이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 처음 시행되면서 이의 관리를 위하여 두었던 관청.

27) 내의원(內醫院) : 조선 때 삼의사(三醫司)의 하나. 대궐에서 소요되는 의약(醫藥)을 맡아보던 관청.

28) 의녀(醫女) : 조선 때 부인들의 질병을 구호, 진료하던 여자 의원(醫員)

29) 반수(班首) : 우두머리.

30) 여시(女侍) : 궁궐 안에서 대전(大殿)·내전(內殿)을 가까이 모시는 내명부의 총칭.

31) 의기(義氣) : 의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기개.

32) 상사(賞賜) : 공로·선행(善行)을 기려서 금품을 내려 줌

33) 정사년(丁巳年) : 1797년(정조 21).

34) 만폭동(萬瀑洞) : 금강대 아래 원통골에서 내륙 깊숙이 마하연이 있는 백운동 입구로부터 약 17km에 이르는 구간. 수많은 담소와 폭포 그리고 기암괴석이 즐비하게 늘어서 금강산의 계곡미를 대표하는 곳으로 유명함.

35) 중향성(衆香城) : 내금강(內金剛)의 영랑봉(永郎峰) 동남쪽을 병풍처럼 둘러싼 하얀 바위섬.

그는 마침내 안문령(雁門嶺)³⁶⁾를 넘어서 유점사(楡岾寺)³⁷⁾를 거쳐 고성(高城)³⁸⁾으로 내려가 삼일포(三日浦)³⁹⁾에서 배를 타고 통천(通川) 총석정(叢石亭)⁴⁰⁾에 올라 천하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구경을 한 뒤로 서울로 다시금 돌아와서 며칠을 머무르고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내원(內院)⁴¹⁾에 들어가서 물러감을 고했다. 왕비와 궁에서 각기 앞서와 같이 상을 내렸다.

이때엔 만덕의 이름이 서울 안에 가득하여 공경대부(公卿大夫)⁴²⁾와 사(士)⁴³⁾ 모두 한번 만덕의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 없었다.

만덕이 떠날 때에 채상국을 보고 목메인 소리로, “이승에선 다시금 대감의 얼굴을 뵈을 수 없겠습니다.” 하고 이내 산연(潸然)⁴⁴⁾히 눈물을 흘

36) 안문령(雁門嶺) : 내금강에서 외금강으로 넘어오는 고개.

37) 유점사(楡岾寺) : 외금강의 구룡연(九龍淵)을 지나 청룡산과 남산 사이에 있음. 임진왜란 때에는 서산대사(西山大師)와 사명당(四溟堂), 그리고 처영대사(處英大師)가 승병을 일으켰던 근거지이기도 하며, 유명한 금강 53불이 봉안되어 있기도 함.

38) 고성(高城) : 강원도 동북부에 위치한 지금의 고성군. 북은 통천군, 동은 동해, 남은 양양, 서는 회양, 서북부는 태백산맥이 뻗어 험준한 산지, 동남부는 완경사를 이룸. 이 지역에 외금강, 신금강, 해금강 등의 경승지 및 온정리 온천과 명승고적이 많음.

39) 삼일포(三日浦) :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호수. 둘레는 8km, 물 깊이는 9~13m에 이룸. 사선정(四仙亭)·단서암(丹書巖) 등이 있고, 호수 풍경으로는 전국적으로 으뜸가는 곳으로 꼽힘.

40) 통천(通川) 총석정(叢石亭) : 강원도 동북부에 위치한 통천의 관동 8경의 하나이며, 약 1천 미터 구간에 6각(혹은 8각, 4각, 5각) 모가 반듯하고 곧게 선 돌기둥의 무리임. 바위에 구멍이 뚫린 천도를 비롯하여 입총(立叢, 서 있는 것)·좌총(坐叢, 앉은 것)·와총(臥叢, 누운 것) 등의 기암괴석이 무수함. 입총 가운데 큰 것은 높이가 12~20m에 이룸.

41) 내원(內院) : 비빈(妃嬪)들이 거처하는 궁궐 안의 궁실(宮室).

42) 공경대부(公卿大夫) : 벼슬이 높은 사람들.

43) 사(士) : 문벌이 높은 사람.

44) 산연(潸然) : 눈물을 흘리는 모양.

렸다.

채상국은, “옛날 진시황(秦始皇)⁴⁵⁾과 한무제(漢武帝)⁴⁶⁾는 모두들 ‘해외에 삼신산(三神山)⁴⁷⁾이 있다’하였고, 또 세상에서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한라산은 곧 그들이 이른바 영주산(瀛洲山)⁴⁸⁾이요, 금강산은 곧 그들이 이른바 봉래산⁴⁹⁾이 아닌가. 넌 이미 탐라에 자라나서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白鹿潭)⁵⁰⁾의 물을 떠내고, 이제 또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였으니, 이는 삼신산 중에서 그 둘은 벌써 너에게 점령되었지 않은가. 온 천하 수많은 사내 중에서 이런 복을 누린 자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직을 당해서 도리어 아녀자의 가련한 태도를 짓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하고 위안해주었다.

그리고 그 일을 서술하여 만덕전(萬德傳)을 써서 한 번 웃으며 그에게 주었다. 이때는 우리 임금 21년 정사년(丁巳年)⁵¹⁾ 하지(夏至)⁵²⁾였다. 번암(樊

45) 진시황(秦始皇) : 진(秦)의 시황제(始皇帝). 함양(咸陽)으로 도읍을 옮기고 봉건제(封建制)를 폐지, 처음으로 군현제(郡縣制)를 실시하였으며, 화폐·도량형(度量衡)·문자·물품의 규격을 통일함. 이사(李斯)의 의견을 듣고 분서갱유(焚書坑儒)를 하고 장성(長城)을 쌓았음.

46) 한무제(漢武帝) : 한 경제(漢景帝)의 아들로 이름은 철(徹). 재위 54년 동안 유학(儒學)을 숭상하였으며, 군사를 일으켜 판도(版圖)를 크게 넓혔음.

47) 삼신산(三神山) : 신선이 살고 있다는 세 산. 봉래산(蓬萊山)·방장산(方丈山)·영주산(瀛洲山)으로 각각 금강산(金剛山)·지리산(智異山)·한라산(漢拏山)을 가리킴.

48) 영주산(瀛洲山) : 원래 동해 가운데 있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의 하나. 여기서는 한라산을 가리킴.

49) 봉래산(蓬萊山) : 신선이 산다고 하는 신령한 산. 여름철의 금강산의 딴 이름.

50) 백록담(白鹿潭) : 한라산의 산정에 있는 직경 약 500m, 둘레 1.5km 내외의 대분화구.

51) 정사년(丁巳年) : 1797년(정조 21).

52) 하지(夏至) : 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의 하나로 1년 중 가장 낮이 긴 날로 음력 6월 21·22일경.

巖)⁵³⁾ 채상국의 나이가 일흔 여덟에 이 글을 충간의담헌(忠肝義膽軒)⁵⁴⁾에서 쓰다.

萬德傳

萬德者 姓金 耽羅良家女也 幼失母無所歸依 托妓女爲生 稍長 官府籍萬德名妓案 萬德雖屈首妓於役 其自待不以妓也 年二十餘 以其情泣訴於官 官矜之除妓案 復歸之良 萬德雖家居乎庸奴 耽羅丈夫不迎夫 其才長於殖貨 能時物之貴賤 以廢以居 至數十年 頗以積著名 聖上十九年乙卯 耽羅大饑 民相枕死 上命船粟往哺 鯨海八百里 風檣來往如梭 猶有未及時者 於是萬德捐千金買米 陸地諸郡縣棹夫以時至 萬德取十之一以活親族 其餘盡輸之官 浮黃者聞之 集官庭如雲 官劑其緩急 分與之有差 男若女出而頌萬德之恩 咸以爲活我者萬德 賑訖 牧臣上其事于朝 上大奇之 回諭曰 萬德如有願 無問難與易 特施之 牧臣招萬德以上諭諭之曰 若有何願 萬德對曰 無所願 願一入京都 瞻望聖人在處 仍入金剛山觀萬二千峯 死無恨矣 盖耽羅女人之禁不得越海而陸 國法也 牧臣又以其願上 上命如其願 官給舖馬遞供饋 萬德一帆蹕雲海萬頃 以丙辰秋入京師 一再見蔡相國 相國以其狀白 上命宣惠廳月給糧 居數日 命爲內醫院醫女 俾居諸醫女班首 萬德依例詣內閣門 問安殿宮 各以女侍 傳教曰 爾以一女子 出義氣救饑餓千百名 奇哉 賞賜甚厚 居半載 用丁巳暮春 入

53) 번암(樊巖) : 채제공의 호

54) 충간의담헌(忠肝義膽軒) : 채제공의 서재 이름.

金剛山 歷探萬瀑, 衆香奇勝 遇金佛輒頂禮 供養盡其誠 盖佛法不入耽
羅國 萬德時年五十八 始見有梵宇佛像也 卒乃踰鴈門嶺 由楡岾下高城
泛舟三日浦 登通川之叢石亭 以盡天下瑰觀 然後還入京 留若干日 將歸
故國 詣內院告以歸 殿宮皆賞賜如前 當是時 萬德名滿王城 公卿大夫士
無不願一見萬德面 萬德臨行 辭蔡相國哽咽曰 此生不可復瞻相公顏貌
仍潸然泣下 相國曰 秦皇漢武皆稱海外有三神山 世言我國之漢拏 卽所
謂瀛洲 金剛卽所謂蓬萊 若生長耽羅登漢拏 輒白鹿潭水 今又踏遍金剛
三神之中 其二皆爲若所包攬 天下之億兆男子 有能是者否 今臨別 乃反
有兒女子刺刺態何也 於是敘其事 爲萬德傳 笑而與之
聖上二十一年丁巳夏至日 樊巖蔡相國七十八 書于忠肝義膽軒
(蔡濟恭, 『樊巖集』 권55, 傳)

萬德者。姓金耽羅良家女也。幼失母。無所歸依。托妓女爲生。稍長。官府籍萬德名。妓案萬德雖居首妓。於役其自待不以妓也。年二十餘。以其情泣訴於官。官矜之。除妓案。復歸之良。萬德雖家居。乎庸奴耽羅丈夫不迎夫。其才長於殖貨。能時物之貴賤。以廢以居。至數十年。頗以積著名。聖上十九年乙卯。耽羅大饑。民相枕死。上命船粟往哺。鯨海八百里。風檣來往。如梭。猶有未及時者。於是萬德捐千金。買米。陸地諸郡縣。禱夫以時至。萬德取十之一。以活親族。其餘盡輸之官。浮音者聞之。集官庭如雲。官制其緩急。分

樊巖集

卷五十五

傳

二十四

門問安。殿宮各以女侍。傳教曰。爾以一女子。出義氣。救饑餓千百名。奇哉。賞賜甚厚。居半載。用丁巳暮春。入金剛山。歷揆萬瀑泉。香奇勝。遇金佛。輒頂禮。供養盡其誠。蓋佛法不入耽羅國。萬德時年五十八。始見有梵宇佛像也。卒乃踰鴈門嶺。由榆岾下。高城泛舟三日。浦登通川之叢石亭。以盡天下瑰觀。然後還入京。留若干日。將歸。故國諸內院。告以歸。殿宮皆賞賜如前。當是時。萬德名滿王城。公卿大夫士無不願一見萬德。面萬德臨行。辭蔡相國。啜咽曰。此生不可復瞻。相公顏貌。仍潛然泣下。相國曰。秦皇漢武。樊巖集

卷五十五

傳

二十五

皆稱海外有三神山。世言我國之漢寧。卽所謂瀛洲。金剛卽所謂蓬萊。若生長耽羅。登漢寧。白鹿潭水。今又踏遍金剛三神之中。其二皆爲若所包攬。天下之億兆男子。有能是者否。今臨別。乃及有兒女子刺刺態何也。於是敘其事。爲萬德傳。笑而與之。聖上二十一年丁巳夏至日。樊巖蔡相國七十八書于忠肝義膽軒。

樊巖先生集卷之五十五

【지은이】

채제공(蔡濟恭). 1720(숙종 46)~1799년(정조 23).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로 본관은 평강(平康)이며,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 시호는 문숙공(文肅公)이다. 그는 1720년(숙종 46년)에 태어나서 1799년(정조 23년)에 돌아갔으니 향년 80세의 수를 누렸다.

그가 태어난 곳은 홍주(洪州) 구봉산(九峯山) 아래 어자동(漁子洞)으로 지금의 청양군(靑陽郡)이다. 그 선대는 죽주(竹州)에 살았고 관직으로 출사할 때는 서울에 있는 청파동(靑坡洞)에 살았다. 그 의 부친 응일(應一)은 늦게 진사가 되고 음사(蔭士)로서 두 고을을 살았으나 수부(壽扶)로서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과 동지부사(同知府事)를 지냈고, 특히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제수되고 자귀(子貴)로서 증영의정(贈領議政)으로 추서되었다.

그는 오광운(吳光運)과 강박(姜樸)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채팽윤(蔡彭胤)과 이덕주(李德胄)에게 시를 배웠다. 친우로는 정범조(丁範祖)·신광수(申光洙)·안정복(安鼎福) 등이 있다.

번암은 이러한 숨은 선비의 아들로서 자라 15세에 이미 향시(鄉試)에 급제하였고, 24세(영조 19년)에 정시(庭試) 문과에 급제하여 처음으로 승문원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에 임명되어 관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후로 벼슬이 성균관 전적(典籍), 예조좌랑, 사헌부 지평, 이조좌랑, 사간원정언, 홍문관교리, 호서 암행어사, 도승지, 평안감사, 예조판서, 형조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이르렀다. 특히 1787년(정조 12)에 특명으로 우의정에 임명된 뒤 11년 동안 정승으로 있으면서 영의정 없이 우의정도 지내고 좌의정도 지냈으며, 우의정이나 좌의정 없이 영의정 자리에 있기도 하며 십년독상(十年獨相)이란 말을 들을 만큼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다.

그는 금대(錦帶) 이가환(李家煥),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등과 함께 가장 정조의 사랑을 받아서 서학(西學)으로써 새로운 건설을 도모하였다.

저서로는 『번암집(樊巖集)』 30책이 있는데 권(卷) 55에 14편의 전(傳)이 수록되어 있다.

【해제】

「설날 혹한에 출유하다(元春苦寒行)」에 수록된 만덕 이야기는 크게 만덕을 노래하고 있는 칠언율시의 전반부와 만덕의 행적을 간략하게 서술한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특히 칠언율시의 “탐라 여협(女俠) 가벼운 몸으로 나왔고 기사(耆社)의 원신(元臣) 지팡이 짚고 왔다네.”라는 구절은 나이 많은 대신들이 만덕을 만났음을 노래한 대목이어서 당시의 상황을 대략적이거나 파악하게 한다.

『번암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채제공(蔡濟恭)의 시문집으로 60권 27책이다. 권1부터 19까지는 모두 시이며, 권17부터 19까지는 「희년록(稀年錄)」·「임단록(臨湍錄)」으로 역시 시이며, 권20부터 27까지는 소차(疏筵), 권28에는 서계(書啓), 권29에는 헌의(獻議), 권34·35에는 기(記), 권36에는 서(書), 권37·38에는 제문, 권39·40에는 행장, 권41부터 43까지는 시장(謚狀), 권44부터 48까지는 신도비명, 권49부터 53까지는 묘갈명, 권54에는 묘지명, 권55에는 유사·전(傳), 권56에는 발·송(頌)·찬(贊)·반교문(頒敎文)·전(箋)·장(狀)·상량문·설, 권59에는 잡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만덕전」은 《번암집(樊巖集)》 권55 전(傳)에 실려 전한다. 이 전에는

「만덕전」을 포함해서 모두 14편의 전 작품이 수록되었다. 즉 순서대로 「충장공박영서전(忠壯公朴永緒傳)」·「이절도전(李節度傳)」·「계암김선생전(溪巖金先生傳)」·「백의사전(白義士傳)」·「이진사전(李進士傳)」·「임효자전(林孝子傳)」·「청풍의부전(淸風義婦傳)」·「박진사전(朴進士傳)」·「이충백전(李忠伯傳)」·「신기금전(辛起金傳)」·「백사량전(白士良傳)」·「애남전(愛南傳)」·「칠분전(七分傳)」 등이다.

이 「만덕전」은 지은이가 정조 임금 때 좌의정으로 있으면서 김만덕을 직접 서울에서 만나보고 지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 김만덕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수 있다. 김만덕이 제주로 돌아오기 전 다시 채제공과 이별하는 장면에서 김만덕 역시 이승에서는 다시 못 만날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하고 있는데, 김만덕이 채제공을 낯선 인물로서가 아니라 반가운 인물로서 대하는 의식구조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부분은 만덕이 기생이었다가 양민으로 회복되어 큰 재물을 모으고, 천금을 내어 굶주리는 제주민을 구휼한다는 내용이다. 만덕은 원래 양가의 딸이었으나 어렸을 적 부모를 여의어 의탁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기생이 된다. 그러나 그녀는 자라면서 기생이 된 것을 후회하고 관가에 하소연하고 기안(妓案)에서 그의 이름을 지운다. 양기로 되돌아온 그녀는 사내들을 머슴으로 부리면서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헤아리고 장사를 하여 큰 부자가 된다. 1795년(정조 19) 제주에 큰 흉년이 들자 천금을 내어놓아 육지의 여러 고을에서 쌀을 사들이고 그중 십분의 일로서는 친족들을 구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내놓아 기아에 허덕이는 제주민들에게 나눠 주도록 한다.

둘째 부분은 이 사실이 임금께 보고되어 그 상급으로 대궐과 금강산

구경을 하고 싶다는 만덕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만덕의 선행이 제주목사를 통해 조정에 알려지자 정조 임금께서는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다. 이에 만덕은 한 번 서울에 올라가서 임금님이 사시는 대궐을 보고,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 이천 봉을 보고 싶다고 함으로써 그 소원이 받아들여진다.

셋째 부분은 이에 따라 만덕이 서울에 상경하여 내의원(內醫院) 반수(班首)가 되어 대궐을 둘러보게 되며, 이후 금강산의 만폭동(萬瀑洞)·중향성(衆香城)·안문령(雁門嶺)·유점사(楡岾寺)·총석정(叢石亭) 등을 둘러보고 서울로 되돌아온다는 내용이다. 특히 만덕이 금강산을 다녀 올 때에는 관가에 명을 내려 노자돈과 역마를 주고, 음식을 번갈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만덕이 서울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공경대부와 사(士)들이 만덕의 얼굴 한 번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없을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 넷째 부분은 만덕이 제주로 되돌아오기 전 채제공과 이별하면서 아쉬워하는 내용이다. 이에 채제공은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그 둘인 한라산과 금강산을 각각 올랐으니 이는 남자들도 하기 힘든 영광이었다고 하면서 만덕을 위로하면서, 「만덕전」을 써 준다는 내용이다.

이가환(李家煥)

「탐라로 돌아가는 만덕을 보내며(送萬德還耽羅)」

『금대시문초(錦帶詩文抄)』

탐라로 돌아가는 만덕을 보내며

만덕(萬德)은 탐라(耽羅)의 과부니, 을묘년(乙卯年)¹⁾ 큰 기근에 쌀을 사들여서 주린 사람들을 진휼(賑恤)²⁾하였다. 주목(州牧)³⁾이 아뢰니 지존(至尊)⁴⁾께서 얼굴빛을 변화시키고 만덕의 원하는 바를 물어 보라 하였다. 이에 만덕은 하고 싶은 것은 없으나 금강산을 보고 싶다고 하니, 드디어 여의(女醫)⁵⁾에 녹명(錄名)⁶⁾하고 역체(驛遞)⁷⁾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 그의 소원을 이루게 하였고, 진귀한 것을 성대히 나누어 주니 도로에 빛을 발하면서 그 향리(鄉里)⁸⁾로 돌아갔다.

아, 탐라의 외로운 섬은 생식에 힘씀이 있어서 축산의 암컷도 또한 바다 건너는 것을 금하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이라. 밝은 눈동자와 흰이의 아름다운 사람이 천도 아니고 만도 아닌데 운해(雲海)⁹⁾에 매몰되었

1)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2) 진휼(賑恤) : 재물을 베풀어 가난하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함.

3) 주목(州牧) : 주(州)의 장관. 여기서는 제주목사(濟州牧使)를 말함.

4) 지존(至尊) : 제왕의 지위. 여기서는 임금을 말함.

5) 여의(女醫) : 조선시대 여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두었던 혜민서(惠民署) 소속의 여자 의원. 『(經國大典) 禮典, 選上』 女醫七十人 每三年並以諸邑婢年少者選上)

6) 녹명(錄名) : 이름을 기재함.

7) 역체(驛遞) : 역참(驛站)에서 공문(公文)을 넘겨 주고받는 일. 또는 공무(公務)를 띤 사람을 역에서 역으로 말을 갈아 보내는 일.

8) 향리(鄉里) : 고향.

9) 운해(雲海) : 끝없이 광활한 바다.

도다.

몸은 상도(上都)¹⁰⁾에서 유람하고 발은 명산을 밟은 사람 이제 만덕이
있도다. 축적된 지령(地靈)¹¹⁾이 한 번 발설(發泄)¹²⁾됨이 있으니, 또한 소간(宵
肝)¹³⁾의 일념이 해외까지 적신 은혜는 필부(匹婦)¹⁴⁾도 진실로 알
아 북이 북채에 응하는 것 같도다. 애오라지 말을 써서 주나니 뜻은 언사
에 나타났다네.

만덕은 뛰어난 제주 여인
예순 나이 마흔쯤으로 보이네.

귀한 돈 내어 쌀 사서 백성을 구제하고
한 번 바다를 건너 궁궐에 조회하였네.
오직 소원은 금강산 유람
산은 동북쪽 연무에 싸여있네.

임금께서 빠른 역마 내리시니
천 리 넘어 빛 광채 관동(關東)¹⁵⁾에 진동했네.

10) 상도(上都) : 서울.

11) 지령(地靈) : 땅의 영묘한 기운. 즉, 좋은 지세(地勢)를 말함.

12) 발설(發泄) : 퍼져 흩어짐.

13) 소간(宵肝) : 소간은 소의간식(宵衣旰食)의 준말. 임금이 정사에 부지런하여 미명에 일
어나 정복을 입고 해가 진후에 저녁밥을 한다는 뜻에서 온 말.

14) 필부(匹婦) : 한 사람의 여자. 부녀(婦女).

15) 관동(關東) : 관동 지방(關東地方)은 강원도 일대. 관동 지방은 태백산맥을 경계로 서쪽
을 영서 지방, 동쪽을 영동 지방으로 구분한다.

높이 올라 굽어보며 마음 눈 크게 열고

표현히 손을 저으며 바다로 돌아가네.

탐라는 고부량(高夫良)¹⁶⁾ 삼성(三聖)¹⁷⁾이래

제주 여인으로 처음 서울 구경했네.

우레 같이 왔다 고니처럼 날아가니

높은 기풍 오래 머물러 세상을 맑게 하리.

인생살이 이처럼 이름을 드날리니

옛 여회청대(女懷淸臺)¹⁸⁾를 어찌 부러워하리.

送萬德還耽羅

萬德 耽羅寡婦 乙卯大饑 糴米賑飢 州牧以聞 至尊動色 問萬德所欲 萬德無所欲 欲見金剛山 遂錄名女醫 賜以驛遞 俾成其願 珍頒便蕃 道路輝光 以還其鄉 嗟耽羅孤島 務在生殖 畜產之雌 亦禁渡海 況在于人 明眸皓齒 無千無萬 埋沒雲海 身遊上都 足踐名山 今有萬德 將地靈久蓄

16) 고부량(高夫良) : 제주민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삼을나(三乙那). 즉, 고을나(高乙那)·부을나(夫乙那)·양을나(良乙那).

17) 삼성(三聖) : 제주도의 시조 고부량. 우리나라 상고 시대의 세 성인, 곧 환인, 환웅, 환검.

18) 여회청대(女懷淸臺) : 여회청대의 고사(故事). 지금의 사천성 장수현(四川省長壽縣) 남쪽에 있는 대(臺)의 이름. 『史記』 「貨殖傳」에 “파(巴)의 과부(寡婦) 청(淸)은, 선조가 단혈(丹穴)을 얻어, 그 이익을 여러 세대에 걸쳐 독점하였으며 집이 또한 어렵할 수 없이 부유하였다. 청(淸)은 과부인데도, 잘 그 가업을 지키고, 용재(用財)를 자위(自衛)하여 침범을 보지 못하였다. 진시황이 정부(貞婦)라고 하여 객(客)으로 대접하고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지어 주었다.”고 한다. 『漢書』 「貨殖, 巴寡婦淸傳」巴寡婦淸 其先得丹穴 而擅其利數世 家亦不訾 淸寡婦也 能守其業 用財自衛 不見侵犯 秦始皇帝以爲貞婦而客之 爲築女懷淸臺

日重來。匹馬繫垂楊。人遠天涯境。過夢場紅壁。舊題
靈斷香。眼前景多少。悠揚浮生。只是水流忙。

送萬德還耽羅

萬德耽羅寡婦。乙卯大饑。糴米賑飢。州牧以
聞。至尊動色。問萬德所欲。萬德無所欲。欲
見金剛山。遂錄名女醫。賜以驛遞。俾成其願。
珍頒優蕃。道路輝光。以還其鄉。嗟耽羅孤島。
務在生殖。畜產之雌。亦禁渡海。況在人。明
眸皓齒。無千無萬。埋沒雲海。身遊上都。足踐
名山。今有萬德。將地靈久蓄。一有發泄。亦宵

三

旰一念。滲漉海外。匹婦與知。如鼓應桴。聊贈
以言。義形于辭。

萬德瀛洲之奇女。六十顏如四十許。千金糴米救黔
首。一航浮海朝紫禦。但願一見金剛山。山在東北烟
霧間。至尊啣肯賜飛驛。千里光輝動江關。登高望遠
壯心目。飄然揮手還海曲。耽羅遠自高夫良。女子今
始觀上國。來如雷喧逝鵲舉。長留高風灑寰宇。人生
立名有如此。女懷清臺安足數。

印童子書識後

姓者維印名也。汲古綬自下字號合。遠哉華胄歸來

이가환 『금대시문초(錦帶詩文)』 탐라로 돌아가는 만덕을 보내며

一有發泄 亦宵一念 滲漉海外 匹婦與知 如鼓應桴 聊贈以言 義形于辭。
萬德瀛洲之奇女 六十顏如四十許 千金糴米救黔首 一航浮海朝紫禦 但
願一見金剛山 山在東北烟霧間 至尊啣肯賜飛驛 千里光輝動江關 登高
望遠壯心目 飄然揮手還海曲 耽羅遠自高夫良 女子今始觀上國 來如雷
喧逝鵲舉 長留古風灑寰宇 人生立名有如此 女懷清臺安足數

【지은이】

이가환(李家煥). 1742(영조 18)~1801년(순조 1).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
자로 본관은 여흥(驪興)으로, 자는 정조(廷藻)이고 호는 금대(錦帶)·정헌

(貞軒)이다. 익(瀝)의 존손으로 용휴(用休)의 아들이며, 천주교인 이승훈(李承薰)의 외숙이다. 학문적 교우로는 정약용(丁若鏞)·이벽(李穡)·권철신(權哲身) 등 천주교 신자가 많다.

1771년(영조 47)에 진사가 되고, 1777년(정조 1) 증광문과 을과로 급제하여, 1780년에 비인현감이 되었다. 1784년에 생질인 이승훈이 북경에서 돌아오고, 동료학자들이 서학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는 천주교에 대한 학문상의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이벽과 논쟁을 벌이다가 도리어 설득되어 천주교인이 되었다. 그 뒤 광주부윤(廣州府尹)·대사성·개성유수·형조판서·충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천주교를 연구하다 1801년 이승훈·권철신 등과 함께 옥사로 순교하였다.

정조로부터 ‘정학사(貞學士)’라 호칭될 만큼 대학자였으며, 특히 천문학과 수학에 정통하였다. 저서로는 『금대유고』가 있다.

【해제】

『금대시문초』는 조선 후기 학가 이가환(李家煥)의 시문집이다. 크게 상하로 나누어지는데, 상에는 고시(古詩)·근체시(近體詩)·육언(六言), 하에는 소(疏)·서(序)·기(記)·묘지(墓誌)·갈명(碣銘)·행장(行狀)·전(傳)·찬(贊)·명(銘)·제발(題跋)·제문(祭文)이 수록되었다.

이중 만덕에 대한 이야기는 『금대시문초』 상권의 ‘고시’에 「송만덕환탐라(送萬德還耽羅)」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이 글은 크게 만덕의 행적을 기술한 전반부와 칠언고시로 노래한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박제가(朴齊家) 「제주로 돌아가는 만덕을 전송하며 지은 시(送萬德歸濟州詩)」

『정유각집(貞蕤閣集)』 권4

제주로 돌아가는 만덕을 전송하며 지은 시 [짧은 서문이 있다]

을묘년(乙卯年)¹⁾에 탐라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여인 만덕은 곡식을 내
서 백성을 진휼(賑恤)²⁾하였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산이 강원도 회양부(淮陽府)³⁾에 있어 제주
목과 거리가 수륙으로 이천여 리나 되는데다, 섬에 사는 여자는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관례가 있었다. 임금께서 그 뜻을 기특히 여기시어 여의
(女醫)⁴⁾로 불러 약원(藥院)⁵⁾에 예속하게 하고 역마(驛馬)를 주게 하여 체송
(遞送)⁶⁾하도록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어 주셨다. 성인께서 아랫사람의 뜻
을 굽어 살피시어 평범한 아낙⁷⁾조차 있을 곳을 얻게 한 것은 옛날에도 이
에 견줄만한 것이 없다. 만덕이 이로 말미암아 높은 벼슬아치들⁸⁾ 사이에

1)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2) 진휼(賑恤) : 재물을 베풀어 가난하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함.

3) 회양부(淮陽府) : 강원도의 북동부에 위치한 금강산이 있는 지역으로 현재 동서로 나누어
동쪽은 휴전선 이북에 따른 인제군, 양구군 일부를 합하여 금강군이 되고 서
쪽은 일부 땅을 세포군으로 내어주고, 나머지 땅으로 회양군을 이루고 있음

4) 여의(女醫) : 조선시대 여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두었던 혜민서(惠民署) 소속의 여자
의원.

5) 약원(藥院) : 조선시대 내의원(內醫院)을 달리 이르는 말. 내국(內局). 『(六典條例2)』 「吏
典, 承政院, 啓稟」 藥院副提調一員例兼 而推考房則微稟換房

6) 체송(遞送) : 여러 곳을 차례로 거쳐서 전하여 보냄

7) 필부(匹婦) : 한 사람의 여자. 부녀(婦女).

8) 진신(摠紳) : 선비나 사대부를 이룸.

이름이 크게 알려졌다. 아아! 만덕이 남자였더라면 임시로 3품의 관복(三品服)을 입고 만호(萬戶)⁹⁾의 인끈(印授)을 차게하는 데 그쳤을 뿐이니, 어찌 능히 세상에 전해졌을 것인가? 다만 눈썹먹을 내던지고 수많은 목숨을 살리고, 연지분을 내치고서 푸른 바다¹⁰⁾를 건너, 서울의 궁궐에 조회하고 이름난 산을 찾았으니, 세상에 들건 나건 넉넉히 풍치가 있음을 귀하게 여길 만하다. 만덕은 겹눈동자¹¹⁾를 지녔으니, 대개 특이한 상을 지녔다. 어찌 전생에 부처의 마음¹²⁾과 신선의 풍골이 깃들이 아니겠는가? 그녀가 돌아가므로 시를 지어서 준다.

바다 밖 큰 세계에 머리조차 못 내미니
 자식 혼사 마친대도 오악 구경 뉘 하리오.
 탁라(吒羅)¹³⁾는 섬으로서 부상(搏桑)¹⁴⁾과 경계 되니
 성주(星主)¹⁵⁾는 천 년토록 조공으로 굴 바쳤네.
 굴나무 숲 깊은 곳 여인네의 몸이건만
 의기로서 남극에서 주린 백성 없게 했지.
 벼슬은 줄 수 없어 소원을 물었더니

-
- 9) 만호(萬戶) : 조선 때 각 도(道)의 여러 진(鎭)에 두었던 종4품 무관직.
 10) 창명(滄溟) : 큰 바다.
 11) 겹눈동자 : 중동(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 또는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 순(舜)임금이나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 함. 『(史記)「項羽本紀論」 吾聞之周生曰舜目蓋重瞳子 又聞項羽亦重瞳子』
 12) 불심선골(佛心仙骨) : 부처처럼 착한 마음과 신선의 기질.
 13) 탁라(吒羅) : 제주의 옛이름
 14) 부상(搏桑) : 중국 고대 신화에서 동해(東海)에 있다는 신목(神木)으로, 여기에서 해가 뜬다고 함
 15) 성주(星主) : 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 초까지 제주 지방의 대표적 토호(土豪)에게 준 작호(爵號).

금강산 만 이천 봉 보기를 원했다네.
 푸른 소매 귀밑머리 돛단배에 올라서는
 남극성 비추는 곳¹⁶⁾ 하늘 보며 웃었겠지.
 서둘러 말 갈아타 금강산을 향해 가니
 불일 폭포 신선 풍골 패옥이 반짝인다.
 신라와 일념으로 통합을 깨달으니
 귀한 관상 여인네는 겹눈동자 부합했네.
 물결 헤쳐 바람 타고 먼 곳을 찾는 뜻이
 대장부¹⁷⁾만 누릴 일이 아님을 알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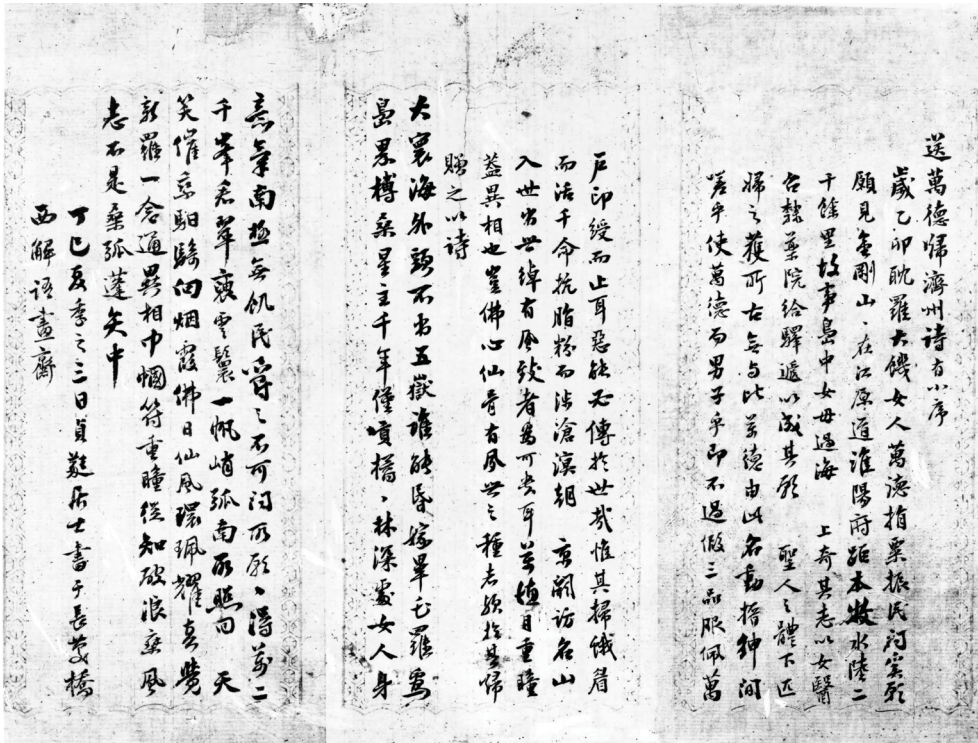
送萬德歸濟州詩 有小序

歲乙卯耽羅大饑 女人萬德捐粟賑民 間奚願 願見金剛山 在江原道淮陽
 府距本牧水陸二千餘里故事島中女毋過海 上奇其志以女醫召隸藥院給
 驛遞以成其志 聖人之體下匹婦之獲所古無與比 萬德由此名動搢紳間
 嗟乎 使萬德男子乎 卽不過假 三品服佩万户印授而止耳 惡能必傳於世
 哉 惟其掃蛾眉而活千命 抗脂粉而涉滄溟 朝京闕訪名山 入世出世 綽有
 風致者 爲可貴耳 萬德目重瞳 蓋異相也 豈佛心仙骨 有夙世之種者歟 於
 其歸贈之以詩

16) 남극성 비추는 곳 : 원문은 호남소조(弧南所照). 호남(弧南)은 남극성이고, 남극성이 비추는 곳은 곧 제주를 가리킨다.

17) 대장부 : 원문은 상호봉시(桑弧蓬矢). 뿔나무 활과 쑥 화살이다. 옛날에 사내아이를 낳으면 이 활 여섯 개로 여섯 개의 쑥 화살을 천지 사방에 쏘았다. 남자를 가리키는 말로 쓴다.

大寰海外頭不出 五嶽誰能昏嫁畢 毛羅爲島界博桑 星主千季僅貢橘 橘
林深處女人身 意氣南極無饑民 爵之不可問所願 願得万二千峰看 翠袖
雲鬟一帆峭 弧南所照回天笑 催乘駟騎向煙霞 佛日仙風環佩耀 眞覺新
羅一念通 異相巾幗符重瞳 從知破浪乘風志 不是桑弧蓬矢中



박제가의 친필 '送萬德歸濟州詩 有小序' 유리건판(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지은이】

박제가(朴齊家). 1750(영조 26)~1805년(순조 5).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자는 차수(次修)·재선(在先)·수기(修其), 호는 초정(楚亭)·정유(貞莚)·위향도인(葦杭道人)이다. 울(栗)의 6대손자이며 승지 평(坪)의 서자이다.

소년시절부터 시·서·화에 뛰어나 문명을 떨쳐 19세를 전후하여 박지원(朴趾源)을 비롯한 이덕무(李德懋)·유득공(柳得恭) 등 서울에 사는 북학파들과 교유하였다. 1776년(정조 원년)에는 이덕무·유득공·이서구(李書九) 등과 함께 『건연집(巾衍集)』이라는 사가시집(四家詩集)을 내어 문명을 청나라에까지 떨쳤다. 1778년에는 사은사 채제공(蔡濟恭)을 따라 이덕무와 함께 청나라에 가서 이조원(李調元)·반정균(潘庭筠) 등의 청나라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돌아온 뒤 청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하여 『북학의(北學議)』 내·외편을 저술하였다.

1779년 3월에는 이덕무·유득공·서이수(徐理修) 등의 서얼 출신 학자들과 더불어 규장각 검서관(檢書官)이 되었다. 이로부터 13년간 규장각 내·외직에 근무하면서 여기에 비장된 서적들을 마음껏 읽고, 정조를 비롯한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과 깊이 사귀면서 왕명을 받아 많은 책을 교정·간행하였다.

1801년(순조 1)에는 사은사 윤행임(尹行愐)을 따라 이덕무와 함께 네 번째 연행길에 올랐으나 돌아오자마자 동남성문의 홍서사건 주모자인 윤가기(尹可基)와 사돈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혐의가 있다하여 종성에 유배되었다가 1805년 풀려났으나 곧 죽었다.

저서로는 『북학의』·『정유집(貞莚集)』·『정유시고(貞莚詩稿)』 등이 있다.

【해제】

『정유각집』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제가(朴齊家)의 시문집이다. 정유(貞蕪)는 박제가의 장년 이후에 사용한 호이다. 이는 정조가 박제가의 집에 들러 그 집에 있는 반송(盤松)에 ‘어애송(御愛松)’이라는 이름을 지어 준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세상풍진 속에서도 지조를 견지하려는 지향과 소망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의 권1에는 서(序)·기(記)·발(跋)·설(說)·논(論)·명(銘)·잠(箴)·찬(贊)·송(頌)·정문(呈文)·상량문(上樑文), 권2에는 부(賦)·잡저(雜著), 권3에는 제문(祭文)·묘명(墓銘)·행장(行狀)·전(傳), 권4에는 서(書)로 국내외의 친구 및 아들과 주고받은 서신이 수록되었다.

이 중 만덕 이야기는 권4에 「만덕이 제주로 돌아갈 때 송별한 시(送萬德歸濟州詩)」란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이 글에서도 전반부는 만덕의 행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후반부는 칠언고시로 만덕을 노래하고 있다.

정약용(丁若鏞) 「중동변(重瞳辨)」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2

중동변(重瞳辨)

제주 기생 만덕(萬德)이 재물을 내어놓아 가난한 사람을 진휼(賑恤)¹⁾했는데 금강산(金剛山) 보기를 청하므로 역마(驛馬)²⁾를 불러와서 한양(漢陽)에 이르게 했다. 만덕이 제가 말하기를 “그 눈이 겹눈동자³⁾입니다.”고 하니 공경(公卿)⁴⁾이 서로 전하여 떠들썩하였다. 내가 그를 불러오게 하고는 묻기를, “네 눈이 겹눈동자라고 하니, 이것이 있는가.” 하니, “그렇습니다.” 했다.

“무릇 궁실(宮室)⁵⁾·누대(樓臺)⁶⁾·초목(草木)·인물(人物)을 네가 보기는 한 개가 모두 두 개로 보이는가?” 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 했다.

“그렇다면 너는 겹눈동자가 아니다.” 하고는 가까이 가서 보니 그 겹고 흰 동자가 조금도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런데도 겹눈동자라는 말이 마침내 유행하고 그치지 않으니 사람들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스스로 바보짓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1) 진휼(賑恤) : 재물을 베풀어 가난하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함.

2) 역마(驛馬) : 역참에 대기시켜 두고 관용(官用)에 쓰던 말. 역말.

3) 겹눈동자 : 중동(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 또는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 순(舜)임금이나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함. 『(史記)』 「項羽本紀論」 吾聞之周生曰舜目蓋重瞳子 又聞項羽亦重瞳子

4) 공경(公卿) : 고관(高官)의 범칭.

5) 궁실(宮室) : 제왕의 궁전. 또는 사람이 사는 집

6) 누대(樓臺) : 높고 큰 건축물의 범칭.

무릇 동자가 겹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로써 이를 비쳐본다면 누대는 비쳐서 소누대(小樓臺)가 되고 초목은 비쳐서 소초목(小草木)이 되니 그것이 작은 모양이 있는 것은 곧 이 물건을 보는 까닭인데 눈동자를 겹으로 있게 한다면 각각 한 가지 작은 모양으로 비쳐질 것이니 한 가지 물건이 두 개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것은 알기 쉬운 이치이다. 즉, 우순(虞舜)⁷⁾과 항적(項籍)⁸⁾의 눈도 또한 반드시 겹 눈동자는 아닐 것이다. 과연 그들이 겹눈동자라면 물건을 보는 것이 어지럽고 뒤섞이어 숫자(數字)와 초목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니 한 사람의 폐인(廢人)⁹⁾이 될 뿐이다.

重瞳辨

濟州妓萬德 捐貲振恤 請見金剛山 驛召至漢陽 萬德自言厥目重瞳 公卿轉相傳噪 余爲招至 問汝目重瞳 有之乎 曰然 曰凡宮室樓臺草本人物 於汝視一皆成兩乎 曰不然 曰然則汝非重瞳矣 逼視之 其黑白睛瞳 了不異人 然而重瞳之說 竟行不熄 人之樂誕自愚如此 大抵瞳之有童 人以人面照之也 樓臺照爲小樓臺 草本照爲小草木 其有小樣 卽所以視此物也 令瞳重設則一瞳各照一小樣 一物不成兩視乎 此易知之理也 卽虞舜項

7) 우순(虞舜) : 상고(上古)의 성군(聖君). 성은 요(姚), 이름은 중화(重華)이며, ‘虞’는 그의 조상이 봉(封)해진 나라 이름. 효성이 극진하였고, 요(堯)임금으로부터 왕위를 선양(禪讓)받아 포판(蒲阪)에 도읍하였으며, 남쪽을 순시(巡視)하다가 창오(蒼梧)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함. 재위(在位) 18년.

8) 항적(項籍) : 진(秦) 말기 초(楚)의 장수. 자는 우(羽). 숙부 양(梁)과 함께 기병하여 진의 군사를 쳐서 함양(咸陽)을 불사르고 그 임금 자영(子嬰)을 죽인 뒤 자립하여 서초 패왕(西楚霸王)이 됨.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과 천하 제패를 다투다가 해하(垓下)에서 패하여 오강(烏江)에 투신 자살함. 항우(項羽).

9) 폐인(廢人)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

正所以生大患也。吁可畏也。

剖脇產子辨

嘉慶十一年春。嶺南之民。有產子剖右脇而生者。無恥僧徒。以爲生佛出世。供香獻食。老少奔波。余竊爲之一笑也。昔老聃剖左腋而生。釋迦剖右脇而生。楚之先陸終之子六人。皆拆剖而生。彭祖其一也。外史又云。修己背拆而生。禹。簡狄胸剖而生。契。此皆傳會崇飾之說。不足信。然其中容有一真。非無理也。魏黃初五年。汝南屈雍妻王氏生男。從右脇下水腹上出。而平和自若。數月創合。母子無恙。載之正史。傳于文獻。然屈雍之子。未聞得道如老聃。成佛如釋迦。枯項黃誠。寥寥然與草木同腐。尙足奇哉。此不過人妖物異。往往而有之者。何愚俗之易驚也。皆譏尤南以爲非理也。而無之于實。以爲有理也。而存之。夫二子之論。皆不可闕。而于氏尤達焉。爲我告僧徒。無徒勞也。

鐵馬辨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辨

十九

召川之北。西山之西。有鐵馬在山脊。其小如鼠。故老傳之云。倭寇之難。有曉解風水者。謂山川秀麗。以此壓之而去。每里有疫癘。天札。民爲之煮菽與麥。祀之惟謹。因以名其里曰馬峴。余謂此野人之說也。使倭人而爲之。其肯謂我曰吾壓汝而去也乎。設我見其馬而猶知之。既已知其爲壓。又何不梓而去之。鍛之爲食刀乎。胡乃神而祠之。斷其糧。吾火而徵吾福乎。此其來久矣。非倭人之爲也。雖然。人而祭馬。豈祀也。古有馬祖之祀。祭其始養馬者。如始教蠶者之爲先蠶。非故奉馬爲神而祭之也。里民之祀鐵馬大愚也。或曰。物舊則神。彼雖鐵鑄乎。其來久矣。久則有神。惡能祭其祀哉。曰。有生之物。遞生遞化。無生之物。無非舊也。苟以舊而祀之。子將不勝祀矣。

重腫辨

濟州妓萬德。捐貲振恤。請見金剛山。驛召至漢陽。萬德自言。厥目重腫。公卿轉相傳喚。余爲招至。問汝目重腫。有之乎。曰然。曰。凡宮室樓臺草木人

與猶堂全書 一集 卷十二

物。於汝視一皆成兩乎。曰不然。曰。然則汝非重腫矣。遍視之。其黑白睛。瞳了不異。人然而重腫之說。竟行不熄。人之樂誕自愚如此。大抵腫之有童。人以人而照之也。樓臺照爲小樓臺。草木照爲小草木。其有小樣。即所以視此物也。令腫重設則一腫各照一小樣。一物不成兩視乎。此易知之理也。即虞舜項籍之目。亦必非重腫。令果重也。視物迷錯。不辨數目。一廢人矣。

押海政丞墓辨

羅州押海。有政丞墓。其上有丁政丞墓。墓前有碑曰。大相丁公之墓。古記云。丁公諱德盛。唐宣宗時。仕至丞相。因事謫新羅海島。遂配于押海。歿而不歸。而旅葬斯其所以有政丞墓也。余攷句麗百濟之亡。始以李世勣管西方。劉仁願鎮南方。然未幾皆散還。唯於西方置安東都督府。以脩其財利。然所謂安東都督府。始在平壤。後徙遼東。又徙遼西。曰。豈以遼下連天寶之亂。遂棄不顧。新羅遂得混一。不復爲內地。夫流竄大臣。必於內地。不知何罪。流之於蕃國之海中哉。況丞相者。漢官也。政丞大相者。東語也。唐其有丞相。政丞大相耶。由是言之。丁公之爲唐人。未可知也。或係東方大臣。而此時直唐宣宗也。余讀宋人徐兢使高麗錄。謂國法凡重罪謫配黑山海中。是或新羅之故常。押海亦黑山海中一島也。然新羅之世。丁氏未顯。其必有大官。亦未可定也。要之押海者。丁氏之大本也。墓中大夫丁氏之大祖也。事蹟都混。悲夫。今人略於古事。不復置疑。余書其所嘗思者。以待後之君子。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辨

二十

石岬山丁氏六塚。辨。大將軍墓。曰。檢校大將軍丁公。墓。字畫頗均正。刻亦稍精。而碑身之出於趺上者。比之碑根。厚減二分。明是刮磨而改刻者。碑陰記字畫。故斜刻。法若樵童之用鎌尖而亂畫之者。文則鬼怪不成理。所記皆古美爵。○丁杵墓。石屏。左面曰。大觀元年十二月。大相丁杵。葬。唯十丁葬三字。大書深刻。黃苔已肥。明是古跡。其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2 중등변(重腫辨)

籍之目 亦必非重瞳 令果重也 視物迷錯 不辨數目 一廢人矣

정약용(丁若鏞)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題耽羅妓萬德所得摺紳大夫贈別詩卷)」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4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摺紳大夫)¹⁰⁾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

을묘년(乙卯年)¹¹⁾에 탐라에 기근이 들어 만덕이 재물을 내놓아 이를 진
휼하였다. 그 소원을 물으니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임금이
명령을 내려 그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였다.

병진년(丙辰年)¹²⁾ 가을에 탐라의 기생 만덕이 역마(驛馬)로 서울에 불러
왔고, 이듬해 봄에 만덕이 금강산에서 돌아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적에 좌승상(左丞相)¹³⁾ 채공(蔡公)¹⁴⁾이 그를 위해 소전(小傳)¹⁵⁾을 지어 매
우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므로 나는 덧붙이지 않는다. 나는 만덕에게는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기적(妓籍)¹⁶⁾에 실린

10) 진신대부(摺紳大夫) : ‘진신(摺紳)’은 홀(笏)을 큰 띠에 꽂는다는 뜻. 곧 선비나 사대부를 가리킴.

11)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12) 병진년(丙辰年) : 1796년(정조 20).

13) 좌승상(左丞相) : ‘승상’은 임금을 보좌하는 최고의 벼슬. 곧 좌의정.

14) 채공(蔡公) : 채제공(蔡濟恭)

15) 소전(小傳) : 사람의 일생을 간략하게 기록한 전기. 곧 「만덕전(萬德傳)」을 가리킴

16) 기적(妓籍) : 기녀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대장. 《(宋史) 407 「楊簡傳」 移文首罷妓籍 尊敬賢士)

몸으로서 과부로 수절한 것이 한 가지 기특함이고, 많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것이 두 가지 기특함이고, 바다의 섬에 살면서 산을 좋아함이 세 가지 기특함이다. 그리고 여자로서 중동(重瞳)¹⁷⁾이고 종의 신분으로서 역마의 부름을 받았고, 기생으로서 중(僧)을 시켜 가마를 메게 하였고, 외진 섬사람으로 내전(內殿)¹⁸⁾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이 네 가지 희귀함이다.

아, 보잘 것 없는 일개 여자로서 이러한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을 지녔으니, 이 또한 하나의 대단히 기특한 일이다.

題耽羅妓萬德所得摺紳大夫贈別詩卷

乙卯耽羅饑 萬德捐振之 詢其願 金剛山也 有聖旨令如願

丙辰秋 耽羅妓萬德 驛至京 越明年春 萬德回自金剛 將還其鄉 左丞相蔡公爲立小傳 叙述頗詳 余不贅 余論萬德 有三奇四稀 妓籍守寡 一奇也 高貲樂施 二奇也 海居樂山 三奇也 女而重瞳子 婢而被驛召 妓而令僧肩輿 絕島而受內殿寵錫 四稀也 嗟以一眇小女子 負此三奇四稀 又一大奇也

17) 중동(重瞳) : 겹눈동자. 겹으로 된 눈동자. 또는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 순(舜)임금이나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 함.

18) 내전(內殿) : 왕비(王妃)의 존칭.

乃毛奇齡者。援拾古人之零言。以掩朱子之大功。其心術固已不公矣。而又於古人言議之外。自擬子母易之名。以顯萃升二。成恒損益三。大過大畜无妄二。等十卦。命之爲子母易卦。以爲諸卦之母。則於是乎十二辟推移之義。大晦大亂。而世之不誣本不誣原者。遂改推移之大義矣。奇齡不知爻變。而求易詞之合於象。則左右牽掣。上下橫決。傳會支離。靡不用極。而猶不能以詞合象。於是乎子母卦之說生焉。然六爻不無則離十卦之外。復增十卦。易詞易象。終不可以吻合矣。何苦作安心妄烙。以亂三聖之舊義哉。

題藏上人屏風

避風如爰居。避雨如穴蟻。避暑如吳牛。亦是遠吾所厭。嗜書如甘蔗。嗜琴如橄欖。嗜詩如昌歆。無非從吾所好。月明池明月。暗池暗明。斯照影。暗斯歸息。自然與物無競。潮來魚來。潮去魚去。來斯漁之。斯勿追。亦足供此所樂。吹竹彈絲。哦詩描畫。似有不容。似莊不莊。豈非澹泊生涯。詩花

與猶堂全書

第一集詩文集題

四十一

種菜洗竹焙茶。道閒非閒。道忙非忙。真是清涼世界。晴廳藥几。燒簞得香。點小龍岡。好看陳詹公福壽全書。淺雪筠菴。戴鳥角巾。含金絲烟。流觀。鄺道元水經新注。

題江陵崔君詩卷

夏日閑居。從弟公權寄詩一卷。且曰。是唯江陵崔君之作。嚮得而評品也。余閱人詩卷。以百數。將毀之。耶人厭之。則毀之。耶亦吾厭之。故凡遇此。輒已縹緲乎麝毛豎矣。乃徐取卷微視之。及讀數篇。始平而目大開。不知喉嚨之聲出而指爪之跳動。欣欣然若讀凌雲之賦。而思相如之爲人也。於是亟問其所館。躬駕而往見之。君方與諸生會。會者皆都雅粹麗。而有一人破笠敝褐。疎落魄訥之果君也。既與之交。歸而書其卷以歸之。

題毗羅妓萬德所得指紳大夫贈別詩卷。丙辰秋。毗羅妓萬德。驛至京。越明年春。萬德回自金剛。將還其鄉。左丞相公爲立小傳。敘述頗詳。余不贅。余論萬德。有三奇四稀。妓籍守寡。一奇

與猶堂全書 一集卷十四

也。高貨樂施。二奇也。海居樂山。三奇也。女而重瞳子。婢而被驛召。妓而令僧。肩輿絕島而受。內殿寵錫。四稀也。嗟以一小女子。負此三奇四稀。又一大奇也。

題兼濟院節目後

余昔以翰林謫海美。十日而蒙。官。時近縣令長。皆歸米肉。湖中復多故舊。日。摺酒相過。訪花隨柳。或歌笙雜陳。然十日之間。以憂愁得邑者。蓋八九日。則懷土思親。情之所不能寬。矧編戶之氓。離文法投畀者。載日暮。羣鳥皆棲。而無門可投。日出池魚仰食。而無人問飢。四鄰父母兄弟妻子。譁然叫喚相樂也。而無所親。或盛寒永日。疾病呻吟。而曾不如僮隸之有養。天下之苦。於斯爲甚。況其罪案。未必皆深中法意。或因鄉黨構陷。或因官長微惱。又滔滔耳。余嘗感焉。及任谷山。適編管至者八九人。俗令里正計家傳餐。如踐更然。有當者。同與招則窮矣。已矣。有以是慰者。爲之惻然。召里正詰之。反訴以苦。蓋主客俱困也。既又招邑中父老。詢其糗探

與猶堂全書

第一集詩文集題

四十二

其惡。瓶齋濟院以稱之。兼濟者。主客兼濟也。約條數十。余爲之也。既與之約。書其意如此。

題姜豹菴桃花源圖

武陵南越之一郡。與零陵桂陽相接。則桃花源在南蠻獠峒之地。非中國之地也。陶元亮是南渡後人。故所聞習於南土。且陶侃嘗爲廣州刺史。廣南民聞之。說必有所傳聞者。非全爲寓言也。昔南越王尉佗。本亦真定世族。避秦之南。遂爲越人。即桃源之民。安知非尉佗者流乎。獠獠之地。重嶺疊嶂。千回萬曲。其中有桃花源。非異事也。元亮之記。寓意則存。其亦孔子欲居九夷之意也歟。

題家藏太極圖說考正本

太極圖說。程邵諸先生未有稱述。乾道間。朱子始付剞劂。而當時圖史周濂溪本傳中。已載太極圖說原文。而多自爲二字。爲史官所增。又按附錄。子遇洪容齊于玉山。語及圖說。以自爲二字。爲史官所增。又按附錄。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4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

【지은이】

정약용(丁若鏞). 1762(영조 38)~1836년(헌종 2). 자는 미용(美鏞). 호는 다산(茶山)·사암(俟菴)·여유당(與猶堂)·채산(菜山). 근기(近畿, 경기도 광주) 남인 가문 출신으로, 정조(正祖) 연간에 문신으로 사환(仕宦)했으나, 청년기에 접했던 서학(西學)으로 인해 장기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아버지는 진주목사 재원(載遠)이며, 어머니는 해남 윤씨(海南尹氏)로 두서(斗緒)의 손녀이다. 4남 2녀 중 4남으로, 15세 때 풍천 홍씨(豐川洪氏)를 취하여 6남 3녀를 두었으나 4남 2녀는 요절하고 학연(學淵)·학유(學遊)와 서랑 윤창모(尹昌謨)가 있을 뿐이다.

그의 일생은 대체로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제1기는 벼슬살이하던 득의의 시절이요, 제2기는 귀양살이하던 환난시절이요, 제3기는 향리로 돌아와 유유자적하던 시절이다. 제1기는 22세 때 경의진사(經義進士)가 되어 줄곧 정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시절로서 암행어사·참의·좌우부승지 등을 거쳤으나, 한때 금정찰방·곡산부사 등 외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1800년 6월에 정조가 죽자, 그를 둘러싼 화기(禍機)가 무르익어 1801년 2월 책룡사건(冊籠事件)으로 체포·투옥되었다가 1801년 2월 27일 출옥과 동시에 경상북도 포항 근처 장기로 유배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전라남도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그는 이 기간에 『경세유표』(1817)·『목민심서』(1818) 등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1818년 귀양이 풀리자 고향으로 돌아와 『흠흠신서』와 『상서고훈』 등을 저술하였다.

【해제】

『여유당전서』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의 저술을 총정리

한 문집이다. 여유당(與猶堂)이란 저자의 당호(堂號)이다. 전서의 내용을 편집의 순위에 따라 설명하면 모두 7집으로 분류되는데, 제1집은 25권 12책으로 시문집, 제2집은 48권 24책으로 경집(經集), 제3집은 24권 12책으로 예집(禮集), 제4집은 4권 2책으로서 악집(樂集), 제5집은 39권 19책으로 정법집(政法集), 제6집은 8권 4책으로 지리집(地理集), 제7집은 6권 3책으로 의학집(醫學集)이다. 제1집은 시문집과 잡찬집(雜纂集)으로 되어 있는데, 시문집에는 부·시·문(文)·원(原)·설·계·장·논·변·잠·명·송·찬·서(序)·기·발·제(題)·서(序)·묘지명·묘갈명·묘표·비명·제문·뇌(誄)·유사·행장·전(傳)·기사(紀事)·증언(贈言)·가계(家誡)·서(書) 그리고 「서암강학기(西巖講學記)」·「도산사숙록(陶山私淑錄)」·「잡문(雜文)」·「여문(儷文)」·「잡평」·「산수심원기(山水尋源記)」 등이 수록되었으며, 잡찬집에는 「문헌비고간오(文獻備考刊誤)」·「아언각비」·「이담속찬」·「소학주관(小學珠串)」이 수록되었다.

이 중 「중동변」은 『여유당전서』 권12의 ‘변’에 수록되었다. 만덕의 중동을 가지고 그의 중동에 대한 생각을 펼치고 있다. 겹눈동자라고 한다면 모든 사물이 두 개로 보여야하는데 만덕은 그리 하지 않으므로 중동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겹눈동자의 대표적 인물로 전해지는 우순(虞舜)과 항적(項籍)도 결코 겹눈동자는 아닐 것이라고 하여 그의 겹눈동자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었다.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는 『여유당전서』 권14의 ‘제’에 수록되었다. 이 글에서 특이한 것은 만덕에게는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기적(妓籍)에

실린 몸으로서 과부로 수절한 것, 많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것, 바다의 섬에 살면서 산을 좋아함이 세 가지 기특함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여자로서 중동(重瞳)이고 종의 신분으로서 역마의 부름을 받았고, 기생으로서 중(僧)을 시켜 가마를 메게 하였고, 외진 섬사람으로 내전(內殿)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이 네 가지 희귀함이라고 하였다.

이재채(李載采) 「만덕전(萬德傳)」

『오원집(五園集)』

만덕전

만덕(萬德)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¹⁾의 과부이다. 머나먼 남해에 있는 제주는 옛날의 탐라국(耽羅國)이다. 정조 갑인년(甲寅年)²⁾과 을묘년(乙卯年)³⁾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제주도에도 거둬 기근이 들어 조정에서 배로 곡식을 실어다가 구휼하였지만, 굶어 죽는 시체가 이어졌다. 만덕은 수백 섬의 곡식을 저축하였는데, 이때 곡식을 풀어 구휼하여 목숨을 구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이 일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조정에서 탐라 목사에게 만덕의 소원을 묻게 하였다. 만덕은, “다른 소원은 없지만, 한 번 궁궐에 가서 임금님의 용안을 우러러 뵈고, 금강산에 들어가 비로봉(毗盧峯)⁴⁾ 정상에 올라 일만 이천 봉⁵⁾을 모두 구경한 뒤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자, 임금께서 이를 기특하게 여겼다.

병진년(丙辰年)⁶⁾ 가을 만덕에게 역마를 타고 올라오게 하여 대궐에 와

1) 제주목(濟州牧) : 조선조 때 제주도의 행정구역을 셋으로 나누었는데, 한라산 북쪽을 제주목(濟州牧)이라 하고 산 남쪽을 동서로 나누어 서쪽을 대정현(大靜縣), 동쪽을 정의현(旌義縣)이라 했음.

2) 갑인년(甲寅年) : 1794년(정조 18).

3)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4) 비로봉(毗盧峯) : 강원도 고성군 장전읍(長箭邑)과 회양군 내금강면(內金剛面) 사이에 있는 금강산의 최고봉. 높이 1,638m.

5) 일만 이천 봉 : 실제 금강산의 봉우리가 일만 이천 봉우리인 것은 아니며, 일만 이천 봉은 불경에서 유래된 말로 그만큼 봉우리가 많다는 것을 강조한 말임.

6) 병진년(丙辰年) : 1796년(정조 20).

서 내의원(內醫院)⁷⁾에서 하교를 기다리게 하였는데, 소관(小官)으로 대접하였다. 이듬해 정사년(丁巳年)⁸⁾ 봄에 음식과 역마를 제공하여 금강산을 유람하고 몇 달 후에 서울로 돌아왔다. 이로 인해 만덕의 이름이 사방에 알려지게 되었다. 만덕이 이윽고 제주로 돌아가겠다고 청하니, 또 역마를 타고 내려가 제주로 돌아가게 하였다.

처음 만덕이 서울에 왔을 적에 윤상국(尹相國)의 소부(小婦)⁹⁾가 사는 처소에서 묵었다. 한 달쯤 지나 만덕이 돈 천오백을 싸들고 가서 소부에게 감사의 마음이나마 전하려고 하였다.

“이제 거처를 정했습니다. 댁에서 고맙게도 오랫동안 편안히 머물렀기에 성의나마 표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답을 바라는 대접했겠나?” 소부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니, 만덕이 그냥 돈을 싸 가지고 갔다. 며칠 뒤에 만덕이 길을 지나다가 소부에게 들러 문안인사를 하자, 소부가 조용히 만덕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 노복들이 ‘만덕이 돈을 싸들고 왔는데 아씨께서 사양하였다고 하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들과 온종일 즐기며 돈을 다 써버려야 하잖아. 누가 만덕을 여자 의협(義俠)¹⁰⁾이라 하는가?’ 하였네.”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지요. 더구나 돈 천여 꿍미가 밥 한 그릇에 비길 바이겠습니까.”

7) 내의원(內醫院) : 조선 때 삼의사(三醫司)의 하나. 대궐에서 소요되는 의약(醫藥)을 맡아보던 관청.

8) 정사년(丁巳年) : 1797년(정조 21).

9) 소부(小婦) : 첩. 『(漢書)「元后傳」(王) 鳳知其小婦弟張美人嘗已適人』

10) 의협(義俠) : 정의를 위하여 강자에 맞서서 약자를 도움. 또는 그런 사람.

서울의 악소(惡少)¹¹⁾중에 만덕이 재물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접근하려는 자가 있었다. 만덕은 단호히 거절하였다.

“내 나이 쉰 살이다. 저들은 내 얼굴을 예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물이 탐나서 그런 것이다. 굶주린 사람들을 구휼하기에도 부족한데, 어느 겨를에 탕자(蕩子)¹²⁾를 살찌우겠는가.”

万德傳

万德 全羅道濟州牧寡女也 州在極南海中 古毛羅國也 今上甲寅乙卯歲大侵 州民荐饑 朝家雖船粟就哺 餓殍相枕 万德預居 積數百斛 至是出而賙之 所全活甚多 事聞于朝 命下毛羅守臣問万德所欲願 万德對 無所願 願一登天陛 仰觀聖人 因入金剛登毘盧絕頂 周覽万二千峰而歸 上奇之 丙辰秋 命乘傳詣闕 待教內醫院 視斗食 翌年丁巳春 給廚傳 遊金剛 凡數易月 還到京師 於是 万德名聞四方矣 已而乞歸 又乘傳還毛羅 初万德入京師 客尹相國小婦所 月餘 以錢千五百往謝曰 今則定館他所 願受惠宅上 久矣 敢布鄙誠 小婦笑曰 吾豈食女望報邪 万德因齋去 後值過 候小婦 小婦從容言曰 聞門下僕使輩謂女既齋錢入門 小君固不受 獨不可與吾曹一日虞飲罷也 誰謂万德女義俠 万德謝曰 善用財者 簞食亦能濟餓人命 否則糞土也 錢千餘 又豈特簞食也哉 京師惡少 聞万德財雄 欲褻狎之 万德曰 吾年五十餘矣 彼非艷我貌也 艷我財也 吾方且顛連

11) 악소(惡少) : 행실이 좋지 못한 젊은이. 악자(惡子). 『荀子』 「脩身」 無廉恥而嗜 乎飲食 則可謂惡小者矣)

12) 탕자(蕩子) : 방탕한 사람.

之周恤不贍 奚暇 肥蕩子乎 拒絕之

【지은이】

이재채(李載采). 자는 채부(采夫)이고, 호는 오원(五園)이다. 염계(剡溪) 이잠(李潛)의 증손이고, 정산(貞山) 이병휴(李秉休)의 손자이며, 이명환(李鳴煥)의 아들이다. 그의 문집인 『오원집(五遠集)』에 실린 글을 통해서 보면 그가 대체로 정조·순조 연간에 활동했으며, 그가 학생을 가르치던 숙사(塾師)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내용 중에 평양과 공주를 여행한 사실이 보인다.

【해제】

『오원집』은 조선 후기의 학자 이재채(李載采)의 시문집이다.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자 및 편집경위를 알 수 없다. 시 48수, 전(傳) 1편, 소(疏) 1편, 서(序) 5편, 기(記) 5편, 명(銘)·제문·행장·잡고·서(書) 각 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덕전(万德傳)」은 1794년(정조 18) 제주에 흉년이 들자 국가에서 곡식을 운송하여 구휼하였으나 기아를 면하지 못하는데 만덕이 곡식을 내놓아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그 일이 조정에 알려져 그의 소원대로 금강산과 대궐을 구경하였다는 기록이다. 특히 심노숭(沈魯崇)이 만덕을 위선적인 여자라고 묘사한 반면 이재채는 이 작품에서 전문(傳聞)에 의하여 의협(義俠) 여성상으로 그려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罪陳

万德傳

万德全羅道濟州牧寡女也州在極南海中
古毛羅國也令上甲寅乙卯歲大侵州民
荐饑朝家雖船粟哺餓殍相枕万德預
居積數百斛至是出而賑之而全活甚多事
聞于朝命下毛羅守臣問万德所欲願万
德對無所願一登天陞仰觀聖人因入
金剛金毘盧龍頂周覽万二千峰而歸上
奇之內辰秋命來傳請闕待教內醫院

視斗會翌年丁巳春給厨傳述金剛凡數易
月遂到京師於是万德名聞四方矣已而乞
歸又乘傳還毛羅初万德入京師客尹相國
小婦所月餘以錢千五百往謝曰今則定館
他所願受惠宅上又笑取布鄒談小婦笑曰
吾望會女望報邪万德因齋去後值過候小
婦小婦從容言曰閨門下僕使輩謂女既齋
錢入門小若固不受獨不可与吾曹一日虞
飲罷也誰謂万德女義俠万德謝曰吾用財
者軍倉亦能濟饑人命若則真上也錢千餘

又豈特軍倉也哉京師惡少聞万德財雄欲
褻押之万德曰吾年五十餘矣彼非貌我貌
也豈我財也吾方且顯達之周恤不勝美暇
肥蕩子乎非紀之

外吏氏曰凡島國務身生殖畜產之字北者
登陸有禁刻茲人明眸皓齒舉理沒雲海万
德龍天門歷名山將亦杖藜之雄也已

題三守軒八景
遊蜂交蝶關曉三連日青山雲紫霞堪喜王
人強健在去半看到是年花

西風折葦花疎消戎旅灘在下魚數点松

明人語處依稀認得禿山漫

油黃胸格滾紅潮睡起茶烟細

農商無廢務衣來政兩又晴朝

紫閣峰頭五把烽百年開應禁門

老知春候龍咆嗚時雖木目慵

晴峰寐紀燕南春盡遊絲盡荷葉堪笑元

和子子詠一生塵土未知嵐

遙三蘭若紀人蹤魚不多謝獨聞鐘靜夜東

風將雨候讀書床畔隱蒼容

이재채(李載采)『오원집(五園集)』「만덕전(万德傳)」

심노승(沈魯崇) 「계섬전(桂織傳)」

『효전산고(孝田散稿)』 권7

계섬전

(전략) 지난해¹⁾ 제주 기녀 만덕이 곡식을 내어 진흥하니 조정에서는 그녀를 예국(隸局)²⁾의 우두머리 종으로 삼고 금강산 유람까지 시켜주면서 말과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조정의 학사(學士)³⁾들로 하여금 그의 전(傳)까지 짓도록 명하여 규장각(奎章閣)⁴⁾의 여러 학사들을 시험하였다. 지난날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다. 만덕은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다하면 떠나는데, 그 남자가 입은 바지저고리까지 빼앗으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남자의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 되었다. 매번 쪽 늘어놓고 햇볕에 말릴 때면, 군(郡)의 기녀들조차도 침을 뱉고 욕하였다. 육지에서 온 상인이 만덕으로 인해 패가망신하는 이가 잇달았더니 이리하여 그녀는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 형제 가운데 음식을 구하는 이가 있었는데 돌아보지도 아니하다가 도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치고는 서울과 금강산 구경을 원한 것인데, 그녀의 말이 웅대하여 불만하다고 여겨 여러 학사들은 전을 지어 많

1) 지난해 : 1796년(정조 20), 병진년(丙辰年).

2) 예국(隸局) : 내의원(內醫院)을 낮춰부른 말.

3) 학사(學士) : 학식 있는 사람. 학자.

4) 규장각(奎章閣) : 조선 정조(正祖) 원년(1776)에 설치하여 역대(歷代) 임금의 저술(著述)·필적(筆跡)·고명(顧命)·유교(遺敎)·선보(璿譜)·보감(寶鑑) 및 정조의 어진(御眞)을 보관하던 관아.

이 칭송하였다.

내가 「계섬전(桂織傳)⁵⁾」을 짓고 나서 다시 만덕의 일을 이와 같이 덧붙인다. 무릇 세상의 명(名)과 실(實)이 어긋나는 것이 이러한 것이 많음을 혼자 슬퍼하나니 계섬의 이른바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 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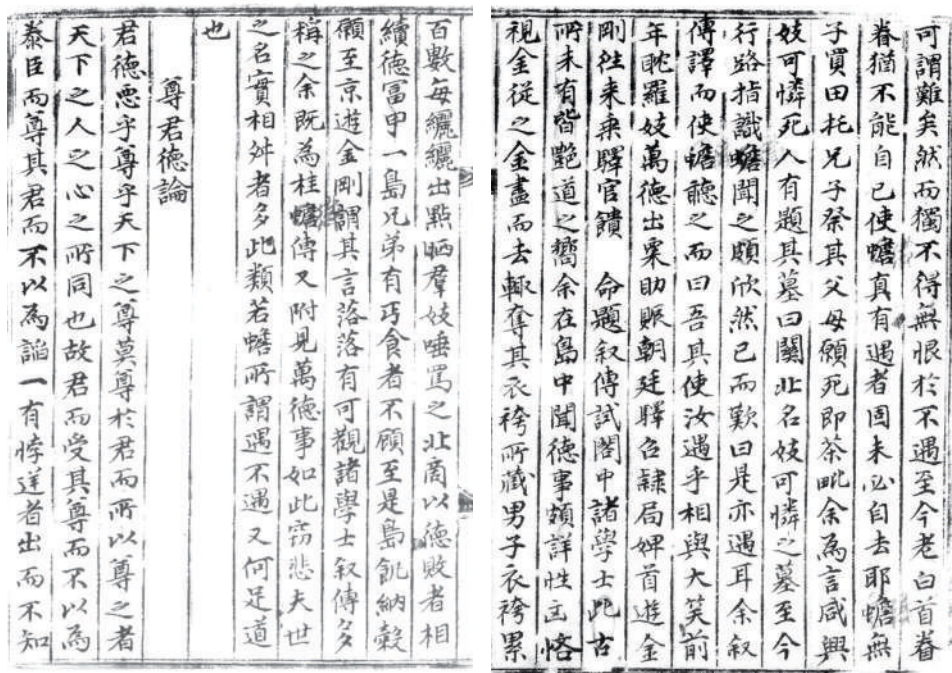
桂織傳

(전략) 前年耽羅妓萬德出粟助賑 朝廷驛召隸局婢首 遊金剛往來 乘驛官饋 命題敍傳 試閣中諸學士 此古所未有皆艷道之 嚮余在島中 聞德事頗祥 性凶悞 視金從之 金盡而去 輒奪其衣袴 所贓男子衣袴累百數 每纚纚出點晒 郡妓唾罵之 北商以德敗者相續 德富甲一島 兄弟有丐食者不顧 至是 島飢納穀 願至京遊金剛 謂其言落落有可觀 諸學士敍傳多稱之 余既爲桂織傳 又附見萬德事如此 竊悲夫世之名實相舛者多此類 若織所謂遇不 遇又何足道也

【지은이】

심노승(沈魯崇). 1762(영조 38)~1837년(순조 3).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이다. 본관은 청송으로 자는 태등(泰登)이며, 호는 몽산거사(夢山居士)·효

5) 계섬전(桂織傳) : 이 작품은 심노승(沈魯崇)이 가가(歌妓) 계섬의 불우한 인생 유전(流轉)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녀를 위로해 주기 위해 지은 작품. 계섬은 18세기에 활약한 유명한 예인(藝人) 집단인 이세춘(李世春) 그룹의 일원으로 알려진 인물임. 만덕 이야기는 이 「계섬전」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음.



심노승(沈魯崇) 『효전산고(孝田散稿)』 권7 「계심전(桂織傳)」

전(孝田)이다. 제주목사를 역임한 심낙수(沈樂洙)와 한산 이씨 사이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낸 만사(晩沙) 심지원(沈之源)의 7대손이다.

1786년(정조 10)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고, 1790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797년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으로 기용되었고, 이듬해 사도시봉사(司導寺奉事)로 옮겼다. 1801년 (순조 1) 당쟁에 휘말려 기장현(機張縣)에 유배되었다가 5년 만에 풀려났다. 1807년 다시 서용되어 의금부도사·형조정랑·임천군수(林川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나 편저로는 문집 『효전산고(孝田散稿)』 · 『적선세가(積善世家)』 · 『대동패림(大東稗林)』 등이 있다.

【해제】

『효전산고』는 조선 후기의 학자이며 문신인 심노숭(沈魯崇)의 시문집으로 38책으로 되어 있다. 1책부터 5책까지는 시, 6책부터 12책까지는 잡저(雜著), 13책부터 15책은 지사록(志事錄), 16책은 문(文), 17책부터 20책은 술선지(述先志), 21책은 포빙여통집(抱氷餘痛集), 22·23책은 자저기년(自著紀年), 27책부터 29책은 주묵여간(朱墨餘間), 30책은 이후록(貽後錄), 31책은 문, 32책은 악몽록(噩夢錄), 33·34책은 자저실기(自著實紀), 35책은 문(文), 36·37책은 문시일록(問寺日錄), 38책은 성교일록(城郊日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만덕의 이야기는 권귀(權貴)에 맞서 진정한 예술과 자아를 찾고자 했던 한 기생의 불우한 인생 역정을 기술한 작품인 「계섬전」의 후반부에 서술되었다. 이 「계섬전」에 수록된 만덕 이야기는 만덕을 부정적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만덕은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서 남자들의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다하면 떠날 정도여서 남자들로부터 빼앗은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 되었다. 특히 육지에서 온 상인들은 만덕으로 패가망신하는 이가 여럿이었고 그로 인해 만덕은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은 다른 「만덕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사항이다.

조수삼(趙秀三) 「만덕(萬德)」

『추재집(秋齋集)』 권7

만덕

만덕은 제주 기생이다. 집안에 재산이 많았으며 한 쪽 눈이 겹눈동자¹⁾이었다. 정조 임금 임자년(壬子年)²⁾에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만덕은 수천 석의 곡식과 수천 께미의 돈을 내어, 한 고을의 백성을 진휼(賑恤)하여 살려내었다. 임금께서 그것을 매우 가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소원을 묻게 하였다. 대답하기를, “저는 여자이며 천인이옵니다. 다른 소원은 없사옵고 단지 한 번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을 보고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말했다. 마침내 역참에 명하여 말을 내어 상경케 하고는 약원 내의녀(內醫女)³⁾의 행수(行首)⁴⁾로 귀속시켰다. 명하여 노자를 주어 금강산에 가서 구경케 하였다.

1) 겹눈동자 : 중동(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 또는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 순(舜)임금이나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 함.

2) 임자년(壬子年) : 1792년(정조 16).

3) 내의녀(內醫女) : 내의원(內醫院)에 소속되어 있는 의녀(醫女). 『(朝鮮宣祖實錄)』 33년 6월 辛丑條, 以備忘記傳于政院曰 側聞內醫女愛鍾 乃淫媚之甚者 本不可近 於內殿之側)

4) 행수(行首) : 동급의 품계나 신분을 가진 여러사람 중에서의 우두머리. 『(朝鮮太祖實錄)』 3』 2년 3월 丙辰條, 憲司上言 殿下曾下教 奴婢爭訟 一皆永斷 刑曹都官不體上意 巧飾啓聞 欲起爭訟之端 請將知曹事張演議郎張羽 正郎趙謙佐郎尹莘等 皆 罷職不敘 敎罷行首張演掌務尹莘老職)

회청대(懷淸臺)⁵⁾를 을나(乙那)⁶⁾의 고향에 지어 놓고
 곡식 쌓은 것이 산처럼 높아 마곡 고을에 쌓았네.
 네게 겹눈동자 내어주신 것 진실로 저버리지 않아
 아침에 궁궐 보고 저녁에 금강산 구경하였네.

萬德

萬德 濟州妓也 家貲鉅萬 一雙眼重瞳 正宗壬子 州大歉 萬德出數千斛
 穀 數千緡錢 賑活一邑之民 上大嘉之 使問其所願 曰 萬德 女子賤人也
 無他願 惟願一瞻天陛 一見金剛 遂命騎駟上京 屬之藥院內醫女行首 仍
 令廚傳 往遊金剛
 懷淸臺築乙那鄉 積粟山高馬谷量 賦汝重瞳眞不負 朝瞻玉階暮 金剛

【지은이】

조수삼(趙秀三). 1762(영조 38)~1849년(헌종 15). 조선 후기의 여항시인
 (閭巷詩人)으로 본관은 한양(漢陽)이며, 초명은 경유(景濂), 자는 지원(芝園)
 또는 자익(子翼), 호는 추재(秋齋) 또는 경원(經畹)이다. 가선대부 한성부좌

5) 회청대(懷淸臺) : 여회청대(女懷淸臺)의 고사(故事). 지금의 사천성 장수현(四川 省長壽縣) 남쪽에 있는 대(臺)의 이름. 『史記』 「貨殖傳」에 “파(巴)의 과부(寡婦) 청(淸)은, 그 선조가 단혈(丹穴)을 얻어, 그 이익을 여러 세대에 걸쳐 독점하였으며 집이 또한 어렵할 수 없이 부유하였음. 청(淸)은 과부인데도, 잘 그 가업을 지키고, 용재(用財)를 자위(自衛)하여 침범을 보지 못하였음. 진시황이 정부(貞婦) 라고 하여 객(客)으로 대접하고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지어 주었다.”고 한다.

6) 을나(乙那) : 흔히 제주민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고을나(高乙那)·양을나(良乙 那)·부를나(夫乙那).

秋齋集

卷七 詩

十一

萬德

德萬出德 數濟千州 斛技也 數家千貨 續鉅一 變一 邑重之 民正 上宗 大壬 嘉子 之州 便大 同數 其萬

遂所命開 驕曰 朝萬上德 京女 屬子之 驕人院也 內無 醫仙 女顏 行惟 首顯 仍一 令嫌 厨 傳天 往 遊一 金見 隔金 隔

懷清臺築乙那鄉。積粟山高馬谷量。賦汝重瞳真不負。朝瞻玉階暮金

剛。

統營童

童秋夜營 泣厥 雨不 目知 替姓 託名 及自 父呼 母曰 俱統 殘營 乃重 行重 乞鼓 漏一 子足 八十 省歲 驚時 或失 逢其 其弟

庚弟 宜目 驕作 是百 驕鳥 頸誦 長如 宜目 捕驚 校善 歡宜 羽姿 族有 能古 言紀 宜官 婢底 聽還 衣

鶯歌鶯語選姬囊。三百飛禽總紀官。唱斷鵲鴿雙下淚。弟兄何日更相看。

金氏子

則金 揚氏 手子 擲病 足心 大脾 登心 嘆之 疾所 慶欲 呼言 日不 如能 此斯 如須 此藏 常忍 好若 一忍 諄到 餘一 一刻

日杯 好酒 日而 登亦 四不 隨能 皆自 歸諱

平生一語不留中。證盜呼奸也至公。天下人人皆似許。琉璃世界水晶宮。

劉雲台

失劉 明雲 疑合 能鳳 龜山 尋宿 十八 三也 誦七 越歲 書失 讀明 易自 而六 有歲 悟已 曉實 力史 於紀 先作 後古 天體 之時

來臨 決大 疑通 事於 者卜 慨空 隨百 而無 隨一 其失 幸逢 悅鳴 忠子 信之 閱中 故自 世號 以日 爲鳳 有兩 嚴先 君生 平人 之有

也鳳

滔滔講易決河源。折草觀梅返古魂。爲子爲臣忠及孝。丁寧記取倚龜言。

윤겸위도총부부총관(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에 추증된 원문(元文)의 아들이며, 여항시인 경렴(景濂)의 동생이고, 조선 말기의 화원(畫員)인 중묵(重默)은 그의 손자이다. 아들 4형제가 있고 손자·증손이 다수이다. 88세로 세상을 떠났다.

신분의 제한으로 1844년(헌종 10) 83세의 나이로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니 고급관원들이 몸소 와서 축하하는 이가 수십 인이나 되었다.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의 핵심적인 인물로 활동하였으며, 정이조(丁彝祚)·이단전(李亶佃)·강진(姜濬)·조희룡(趙熙龍)·김낙서(金洛瑞)·장혼(張混)·박운묵(朴允默) 등 여항시인과 사귀었으며, 김정희(金正喜)·김명희(金命喜)·조인영(趙寅永)·조만영(趙萬永)·한치원(韓致元)·남상교(南尙敎)·이만용(李晩用) 등 당시의 쟁쟁한 사대부들과도 친밀히 지냈다.

풍채가 아름답고 연하(煙霞)의 기운이 있었으며, 문(文)과 시(詩)는 크고 넓었으며 시에 가장 뛰어났다. 여섯 번이나 중국을 유람하여 사해내(四海內)의 시인들과 교류하였으니 그의 시파는 오로지 압록강의 동쪽에만 있지 않았다. 세상이 말하기를, “추재(秋齋)가 학문이나 지식을 많이 쌓은 것이 무릇 열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그 중에 한 가지만 얻는다면 일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첫째는 풍도(風度), 둘째는 시문(詩文), 셋째는 공령(功令), 넷째는 의학(醫學), 다섯째는 바둑, 여섯째는 글씨와 그림, 일곱째는 기억력, 여덟째는 담론(談論), 아홉째는 복택(福澤), 열째는 장수(長壽)이다. 처음에 중원(中原)에 유람할 때에 길에서 강남사람을 만나 같이 한 수레를 타고 가는 사이에 그 말을 다 배워서 중국 도성의 사람들과 말하는데 붓이나 남의 통역을 빌지 않았다고 한다. 한 중국 사람과 사귀어 우정이 두텁더니, 그 뒤 몇 해에 그 삶은 죽고 그

의 아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요계(遼蘄) 사이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옛일을 회상하니 감회가 일어나서 가진 돈을 다 털어 그에게 주었다.

시문 약간 권이 있는데 운석(雲石) 조인영(趙寅永)이 출판하였다.

【해제】

『추재집』은 조선 후기 여항시인(閭巷詩人) 조수삼(趙秀三)의 8권 4책의 시문집이다. 권1로부터 6은 시, 권7은 고려궁사·추재기이·외 이죽지사(外夷竹枝詞)·공령시(功令詩), 권8은 서(序)·기(記)·전(傳)·제문(祭文)·상량문(上樑文)·전(箋)·계(啓)·서(書)·찬(贊)·명(銘)·발(跋)·지(識)·서후(書後)·잡저(雜著)·부(賦)·세시기(歲時記), 부록은 추재선생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은 조수삼의 『추재집』 권의 『추재기이』 중 ‘시(詩)’편에 수록되었다. 『추재기이』는 조선 후기 도시 하층서민들의 시정생활을 그려낸 것으로 그 구성방식이 특이한데, 우선 제목 아래 간단한 인물중심의 일화를 적고, 그 내용을 다시 칠언절구로 압축하였다. 마찬가지로 만덕의 이야기도 앞부분은 만덕에 대한 대강의 이야기를 서술하였고, 뒷부분은 만덕에 대한 칠언절구 한시가 한 수 수록되었다. 전반부의 만덕에 대한 대강의 이야기는 극도로 축약된 형태인데, 특이한 것은 만덕의 눈동자를 중동(重瞳)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후반부의 한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로서 채제공의 「만덕전」에도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이희발(李羲發) 「만덕전(萬德傳)」

『운곡선생문집(雲谷先生文集)』 권8

만덕전(萬德傳)

이 아래로 규장각(奎章閣)¹⁾에서 강제(講製)²⁾할 때 교지(教旨)³⁾를 받들어 지어 올린 것이다.

내가 방장산(方丈山)⁴⁾에 올라 동남쪽의 큰 바다를 굽어보니, 그 가운데 대개 탐라도(耽羅島)가 있다고 한다. 섬의 땅은 지방(地方)⁵⁾이 8백 리이니, 조화(造化)⁶⁾가 융결(融結)⁷⁾한 곳ियो, 정독(亭毒)⁸⁾하여 종륜(鍾毓)⁹⁾한 것이

- 1) 규장각(奎章閣) : 조선 정조(正祖) 원년(1776)에 설치하여 역대(歷代) 임금의 저술(著述)·필적(筆跡)·고명(顧命)·유교(遺敎)·선보(璿譜)·보감(寶鑑) 및 정조의 어진(御眞)을 보관하던 관아.
- 2) 강제(講製) : 초계문신제도는 우수한 문신을 재교육하여 학풍을 진흥하고 기강을 확립할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며, 경전류를 강론하는 시강(試講)과 강을 받은 뒤 그것을 기반으로 제술문(製述文)을 짓는 시제(試製)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정조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자세한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 3) 교지(教旨) :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자격·시호·토지·노비 등을 내려 주는 문서.
- 4) 방장산(方丈山) : 전설상의 바다에 있다는 신선이 사는 산. 여기서는 지리산(智異山).
- 5) 지방(地方) : 영역(領域). 땅의 사방 둘레. 『管子』(「地勢」) 桀紂貴爲天子 富有四海 地方甚大
- 6) 조화(造化) : 천지 만물의 창조자. 자연(自然). 만물을 창조하고 화육(化育)함.
- 7) 융결(融結) : 녹아서 풀어지고 엉겨서 뭉침. (元好問, 「遊黃華山詩」 輕明圓轉不相礙 變見融結誰爲雄)
- 8) 정독(亭毒) : 길러서 자라게 함. 양육(養育)함. 정(亭)은 형(形)을 부여(賦與)하고 구별(區別)하는 것. 독(毒)은 질(質)을 형성하는 것. 또 정(亭)은 평(平)이며, 독(毒)은 독(篤)으로, 평(平)은 이루다의 뜻이고, 독(篤)은 숙성한다는 뜻이라고도 함. 『老子』 長之育之亭之毒之養之覆之
- 9) 종륜(鍾毓) : 종영옥수(鍾靈毓秀). 좋은 풍토가 훌륭한 인물을 탄생시킴을 이르는 말. (林則徐, 「杭嘉湖三郡觀風告示」 江海之所涵濡 膏壤之所鍾毓)

다. 왕왕(往往)¹⁰⁾ 물화(物華)¹¹⁾와 인령(人靈)¹²⁾이 많으니 그 토지(土地)는 메마르고, 그 백성은 오래 살고, 그곳에서는 굴(橘)과 유자(柚子)가 많이 나고, 그곳에서는 좋은 말이 생산되니, 민풍(民風)과 토속(土俗)¹³⁾은 의연(依然)하게 넓고 큰 기상(氣象)이 있다.

만덕(萬德)이라는 자가 있으니 고을의 기생인데 나는 그 성씨(姓氏)를 잘 모르나 대개 이는 삼을나(三乙那)¹⁴⁾의 유손(遺孫)일 것이다. 용모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고, 성품이 가무(歌舞)를 좋아하지 않고, 홍불(紅拂)¹⁵⁾과 같이 아름답고 요야(妖冶)¹⁶⁾한 작태(作態)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대신에 촉(蜀)의 과부 청(淸)¹⁷⁾과도 비교할 만큼 의로운 일에 급히 나서고 벼풀기를 좋아하였으니, 옛날의 소위(所謂) 여협(女俠)¹⁸⁾이라는 자와 같은 부류가 아니겠는가?

10) 왕왕(往往) : 가끔. 때때로. 이따금.

11) 물화(物華) : 자연의 경치. 풍경. 여기서는 산물(產物)을 말함.

12) 인령(人靈) : 인간. 사람.

13) 민풍(民風)과 토속(土俗) : 그 지방의 특유한 풍속이나 관습(慣習).

14) 삼을나(三乙那) : 제주민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고을나(高乙那)·양을나(良乙那)·부를나(夫乙那)

15) 홍불(紅拂) : 수당(隋唐)시대의 여협(女俠) 장출진(張出塵)을 이르는 말. 수 말의 권상(權相) 양소(楊素)의 시기(侍妓)로, 양소를 찾아온 이정(李靖)에게 반하여 함께 달아남. 뒤에는 영웅을 알아보는 부녀자의 전형으로 쓰임.(許時泉, 「寫風情」 他若有阮步兵觀人的眼兒 衛叔寶待人的面皮 我便效紅拂謹相隨)

16) 요야(妖冶) : 요염하고 아리따움, 또는 그런 여자.

17) 촉(蜀)의 과부 청(淸) : 여회청대(女懷淸臺)의 고사(故事). 지금의 사천성 장수현(四川省長壽縣) 남쪽에 있는 대(臺)의 이름. 『史記』 「貨殖傳」 에, “파(巴)의 과 부(寡婦) 청(淸)은, 그 선조가 단혈(丹穴)을 얻어, 그 이익을 여러 세대에 걸쳐 독점하였으며 집이 또한 어렵할 수 없이 부유하였음. 청(淸)은 과부인데도, 잘 그 가업을 지키고, 용재(用財)를 자위(自衛)하여 침범을 보지 못하였음. 진시황이 정부(貞婦)라고 하여 객(客)으로 대접하고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지어 주었다.”고 한다.

18) 여협(女俠) : 의협심이 있는 걸출한 여자.

지난 알봉(閼逢)¹⁹⁾과 전몽(旃蒙)²⁰⁾의 해에, 고을에 큰 기근이 드니, 상(上)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아, 곧 대농(大農)²¹⁾에게 명하여 내탕전(內帑錢)²²⁾을 내어서 목사(牧使)와 방백(方伯)²³⁾에게 명하여 호남과 영남의 속선(粟船)²⁴⁾을 전운(轉運)²⁵⁾하여 싣고 가서 먹이도록 하라.”라고 하셨다. 이에 탐라 사람들은 주린 자는 배부르고 병든 자는 낫게 되었는데, 맹렬한 폭풍과 거센 파도 때문에 더러는 창고에 이어 대는 것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다.

만덕이 슬퍼하며 말하기를, “백성들이 바야흐로 붓도랑과 골짜기에 처박혀 죽게 되었는데, 나라에서 부지런히 구휼(救恤)하시는 것이 이와 같으니, 내가 감히 가지고 있는 것을 바닥내지 않을까보냐? 우리 굶주린 인구를 구제하여, 우러러 임금님 뜻의 만분의 일이라도 분담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곧 저축하였던 600곡(斛)²⁶⁾을 내놓아, 진휼(賑恤)하여 온 고을의 백성 열흘의 목숨을 연장시켰다. 고을에서 사실을 보고하니, 상(上)께서 이를 가상하다 하시고 고을에 명을 내리시어 그 공(功)에 대하여 소원대로 상을 주라고 하셨다. 만덕은 고개를 숙이고 사양하여 말하기를, “부역(賦役)

19) 알봉(閼逢) : 십간(十干)에서 갑(甲). 여기서는 갑인년(甲寅年)인 1794년(정조 18)을 말함.

20) 전몽(旃蒙) : 십간 가운데 을(乙)을 달리 이르는 말. 여기서는 을묘년(乙卯年)인 1795년(정조 19).

21) 대농(大農) : 고대에 농사일을 관장하던 벼슬. 여기서는 호조판서를 말하는 듯.

22) 내탕전(內帑錢) : 국고(國庫)의 돈.

23) 방백(方伯) : 지방 장관. 관찰사(觀察使).

24) 속선(粟船) : 곡식(穀食)을 운반하는 배.

25) 전운(轉運) : 물건이나 짐 따위를 실어 나름. 운송함.

26) 곡(斛) : 곡식의 단위. 1곡은 열 말.

을 덜어 주시는 것도 원치 않사오며, 상을 받는 것도 원치 않사옵니다. 저는 천인이며, 해도(海島)²⁷⁾에 태어나서, 왕도(王都)의 궁궐이 얼마나 굉장한지 성곽 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지 못하였고, 또 들으니 금강산(金剛山)은 명승으로 천하에 제일이라 신선들이 살며, 중국 사람들도 보기를 소원한다고 하니, 이 몸이 상경하여 유람하고, 발이 명승지를 밟아 보는 것이 저의 오랜 소원입니다.” 라고 하니, 임금의 이를 허락하라고 명하셨다.

이 해 겨울 11월에 만덕이 바다를 건너 서울에 오니, 상(上)께서 매우 칭찬하시고 행수의녀(行首醫女)²⁸⁾에 충당하시고 이어 명년(明年)²⁹⁾ 봄의 멋진 유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진휼청(賑恤廳)³⁰⁾의 돈과 쌀을 주고, 연로(沿路)³¹⁾에 신칙(申飭)³²⁾하여 필요한 양식을 주라고 명하시고, 또 신(臣) 등에게 명하시어 전기(傳記) 가운데 넣어 후인들에게 보이라고 하셨으니, 대개 특별한 은전(恩典)이었다.

대개 베풀기를 좋아하고 궁핍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남자도 어려운

27) 해도(海島) : 바다 가운데에 있는 섬.

28) 행수의녀(行首醫女) : 의녀(醫女) 가운데 우두머리.

29) 명년(明年) : 다음해.

30) 진휼청(賑恤廳) : 조선시대 진휼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 처음에는 흥년이 들었을 때마다 임시로 구휼청(救荒廳)을 설치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는데, 중종(中宗) 때에 진휼청을 설치하고 상설 기관으로 하였다가, 뒤에 상평창(常平倉)과 합하여 상진청(常賑廳)이라 하고, 평상시에는 곡가 조절 업무를, 흉년 시에는 진휼·진대 업무를 맡게 하였으며,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다시 상평창과 진휼청을 분리시킴. 광해군 즉위년(1608)에 선혜청(宣惠廳)이 설치되자, 진휼청은 다시 상평창과 합하였다가, 현종 2년(1661)에 다시 분리되어 비변사(備邊司)의 관리 아래 두었고, 숙종 12년(1686)에 선혜청에 소속되어오다가 갑오경장 때에 폐지됨.

31) 연로(沿路) : 큰 길과 인접한 지역.

32) 신칙(申飭) : 주의하여 바르고 엄숙하게 함. 타이르고 경계함.

일이며, 명승을 멋지게 관람하는 것도 또한 현달(賢達)³³⁾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쉽지 않은 것인데, 범씨(范氏)의 맥주(麥舟)³⁴⁾, 황공(黃公)의 조미(糶米), 용문(龍門)³⁵⁾의 명산대천(名山大川), 영빈(潁濱)³⁶⁾의 황하(黃河)·송악(嵩嶽)³⁷⁾은 천고(千古)에 듣기 어려운 것인데, 만덕은 해도(海島)의 창기(倡妓)라는 천한 신분으로 능히 이것을 겸하여 가졌으니, 모르거니와 태사씨(太史氏)³⁸⁾의 열전(列傳)에도 이러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는 전기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드디어 이 전기를 지었다.

萬德傳 此下 奎章閣講製時 奉教製進

余登方丈山 俯瞰東南大海 其中盖有耽羅島云 島之地 地方八百里 造化之所融結 亭毒之所鍾毓 往往多物華人靈 厥土磽 厥民壽 厥包橘柚 厥產騏驎 民風土俗 依然有鴻龐氣像焉 有萬德者 州妓也 余未詳其姓氏 盖是三乙那之遺裔也 貌不揚 性不喜歌舞 不作紅拂佳冶之態 而賞擬蜀清 有急義好施 與古所謂女 俠者流歟 粵在闕逢旃蒙之歲 州大饑 上曰 咨乃命大農 發內帑錢 申命牧伯 移湖嶺粟船 載往哺之 於是羅之人 飢者飽 病者蘇而颶風鯨濤 或未免繼廩失期 萬德慨然曰 民方溝壑 而國

33) 현달(賢達) : 현명하여 사물의 이치에 통달함. 재덕과 성망(聲望)이 있는 사람.

34) 맥주(麥舟) : 보리를 운반하는 배. 송(宋) 범중엄(范仲淹)의 아들 요부(堯夫)가 배로 보리를 운반하는 도중에 단양(丹陽)에서 만난 석만경(石曼卿)으로부터 장사지낼 비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리를 실은 배를 부의로 준 고사.

35) 용문(龍門) : 사마천(司馬遷)이 용문(龍門)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

36) 영빈(潁濱) : 소철(蘇轍)의 만년(晩年)의 호(號)

37) 송악(嵩嶽) : 오악(五嶽)의 하나인 중악(中岳). 하남성(河南省) 등봉현(登封縣) 북쪽에 있음.

38) 태사씨(太史氏) : 한(漢)의 사마천(司馬遷).

家之 勤恤若是 余敢不罄吾所有 濟我飢口 以仰體聖意之萬一乎 乃出所儲六百斛 以賑之 以延一州民旬日之命 州以事聞 上嘉之命下于州 賞其功惟所願 萬德稽首謝曰 蠲役非願也 受賞非願也 妾賤人也 生在海島 不見王都宮闕之壯 城郭人民之富 又聞金剛 以名勝甲天下 仙子之所居 華人之所願見也 身遊上京 足躡名區 是妾夙昔之願也 命許之 是年冬十一月 萬德涉海至京師 上亟加褒異 俾充行首醫女 仍語明春壯遊 命賑廳給錢米 飭沿路 賜資糧 而又命臣等 立傳以示後 盖殊典也 夫喜施濟窮 丈夫之所難 壯觀名勝 亦賢達之未易致者 如范氏之麥舟 黃公之糶米 龍門之名山大川 潁濱之黃河嵩嶽 千古罕聞 而萬德 以海島倡妓之賤 能兼而有之 則未知太史氏列傳 亦有是否 此不可 以無傳 遂爲之傳

雲谷集 目錄

雲谷先生文集卷之八

傳

萬德傳

山下 全章閣講製
時奉 教製進

余登方丈山俯瞰東南大海其中蓋有耽羅魯云魯之地地方八百里造化之所融結亭毒之所鍾毓往住多物華人靈厥土礪厥民壽厥包橘柚厥產騏驎民風土俗倏然有鴻龐氣像焉有萬德者州妓也余未詳其姓氏盒是三乙那之遺裔也貌不揚性不喜歌舞不作紅拂佳冶之態而賞擬蜀清有急義好施與古所謂女俠者流歟粵在閩逢旃蒙之歲州大饑

上曰咨乃命大農發內帑錢申 命牧伯移湖嶺果艤載往哺之於是羅之人飢者飽病者瘳而颶風鯨濤或未免繼慮失期萬德慨然曰民方瘡痍而國家之勤恤若是余敢不罄吾所有濟我飢口以仰體 聖意之萬一乎乃出所儲六百斛以賑之以迨一州民旬日之命州以事聞 上嘉之 命下于州賞其功惟所願萬德稽首謝曰獨役非願也受賞非願也妾賤人也生在海島不見 王都宮闕之壯城郭人民之富又聞金剛以名勝甲天下仙子之所居華人之所願見也身避上 京足躡名區是妾夙昔

之願也 命許之是年冬十一月萬德涉海至京師上亟加褒異俾充行首醫女仍語明春壯遊 命賑給錢米 飭沿路賜資糧而又 命臣等立傳以示後蓋 殊典也夫喜施濟窮丈夫之所難壯觀名勝亦賢達之未易致者如范氏之麥舟黃公之糶米龍門之名山大川瀕賓之黃河嵩嶽千古罕聞而萬德以海島倡妓之賤能兼而有之則未知太史氏列傳亦有是乎此不可以無傳遂為之傳

說

誠幾神說

李義發

이희발(李義發) 『운곡선생문집(雲谷先生文集)』 권8 「만덕전(萬德傳)」

【지은이】

이희발(李羲發). 1768(영조 44)~1849년(헌종 1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천(永川), 초명은 영발(英發), 자는 우문(又文), 호는 운곡(雲谷)으로 의성 출신이다. 덕방(德枋)의 손자로, 의명(宜明)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파평 윤씨 윤덕은(尹德殷)의 딸이다. 정동필(鄭東弼)의 문인이다.

1795년(정조 19)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된 뒤 규장각의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발탁되었으며, 그 뒤 승진하여 순조 때 대사간을 지내고 헌종 초에 승지가 되었다. 58세에 영해부사(寧海府使)직에 있을 때 양사재(養士齋)를 지어 교화하니 백성들은 선정비를 세웠다. 특히 1847년(헌종 13)에는 병조참판으로 있으면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외침에 대비하였고, 언로를 개방하여 하의가 상달되도록 주선하는 것과 아울러 근검절약하기를 힘쓰도록 하였다. 그 뒤 계속하여 승진하여 지중추부사를 거쳐 기로소에 들어가 『홍재전서』 편찬에 기여하고 국정쇄신의 상소를 올렸으며, 1849년에는 형조판서가 되었으나 곧 병이 들어 치사(致仕)하였다. 시호는 희정(僖靖)이다.

【해제】

『운곡선생문집(雲谷先生文集)』은 조선시대의 학자 이희발(李羲發)의 시문집으로 1899년에 간행되었다. 문집중 정조의 명을 받들어 쓴 「봉교제진태학은배시(奉敎製進太學銀杯詩)」 등 40여 편에 달하는 봉교제진(奉敎製進)시와 조정에 있을 때의 생활상을 회상한 「억구유삼십운(憶舊遊三十韻)」 등은 다른 문집에서는 보기 드문 시편들로서 임금을 그리는 구절로 가득하다.

이 책은 모두 21권으로 되어 있는데, 권1과 권2에는 시(詩), 권3과 권4에는 소(疏), 권5과 권6에는 서(書), 권7에는 서(序)·기(記)·발(跋), 권8에는 전(傳)·설(說)·찬(贊)·명(銘)·전(箋)·교(敎)·율부(律賦)·부(賦), 권9에는 행장(行狀), 권10에는 행장(行狀)·유사(遺事)·묘갈명(墓碣銘)·묘지(墓誌)·광가(曠記), 권11에는 상량문(上樑文)·축문(祝文), 권12에는 제문(祭文)·애사(哀辭), 권13부터 권16까지는 중용(中庸) 강의(講義), 권17에는 규장각고식절목(奎章閣故寔節目), 권18에는 주자대전고식(朱子大典故寔), 권20과 권21은 부록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만덕전」은 권8 전(傳)에 수록되었는데, 제주도 기생 출신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휼한 만덕에 대하여 교명을 받들어 썼다고 하고 있다. 이 작품은 다른 「만덕전」들과 그 내용이 비슷하나 도입 부분에서 탐라에 대한 지리·물산(物産)·민풍(民風)·토속(土俗) 등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색다르다. 또 한 끝부분에서도 만덕의 행적을 범씨(范氏)의 맥주(麥舟), 황공(黃公)의 조미(糴米), 용문(龍門)의 명산대천(名山大川), 영빈(潁濱)의 황하(黃河)와 숭악(嵩嶽)에 비교할 만큼 천고(千古)에 듣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면서 일찍이 태사씨(太史氏)의 열전(列傳)에도 없는 기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희락(金熙洛)「교지를 받들어 만덕전을 지어 올리다(奉敎製進萬德傳)」

『고식(故寔)』

교지(敎旨)¹⁾를 받들어 만덕전(萬德傳)을 지어 올리다

탐라(耽羅)는 바다의 섬이니 영주(瀛洲)²⁾라고도 부른다. 산에는 짐승이 많고 땅에는 풀이 좋아서 그 백성은 크게 번성하고 그 풍속은 남정(男丁)³⁾ 하나에 여인이 셋 꼴로 많아서 왕왕(往往) 항산(恒山)⁴⁾과 태산(泰山)⁵⁾의 풍모(風貌)가 있다.

갑인년(甲寅年)⁶⁾에 크게 흉년이 들자 조정에서는 배로 곡식을 보내어 먹여 주었는데, 이듬해인 을묘년(乙卯年)⁷⁾에 또 기근(饑饉)이 드니 왕께서는 내탕전(內帑錢)⁸⁾ 일만 냥(一萬兩)을 내어, 호남의 곡식을 사고 영남의 쌀을

1) 교지(敎旨) : 임금에게 관직·관작·자격·시호·토지·노비 등을 내려 주는 문서.

2) 영주(瀛洲)는 서한(西漢)의 동방삭(東方朔)이 쓴 <십주기>(十洲記)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데, 영주는 신선이 있는 곳이고 제주도는 중국의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영주라고 부른 것이다.

3) 남정(男丁) : 장정이 되었거나 결혼한 남자를 여자의 입장에서 일컫는 말.

4) 항산(恒山) : 중국의 오악(五嶽) 중의 북악(北嶽). 하북성(河北省) 곡양현(曲陽縣)의 서북쪽에 있음.

5) 태산(泰山) : 오악(五嶽)의 하나로, 산둥성(山東省) 중부에 있으며 주봉(主峰)은 옥황정(玉皇頂). 고대에 제왕이 봉선(封禪)하던 산.

6) 갑인년(甲寅年) : 1794년(정조 18).

7)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8) 내탕전(內帑錢) : 국고(國庫)의 돈. 을묘년은 정조의 모친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과 수원에 행행(行幸)할 때 사용할 비용((整理所 자금)을 먼저 제주도의 진홀에 1만 냥을 사용했다.

전운(轉運)⁹⁾하라고 목사(牧使)와 방백(方伯)¹⁰⁾에게 신칙(申飭)¹¹⁾하며 명하였다. 송(宋)나라 조정의 고사(故事)를 원용하여 문첩(文牒)¹²⁾을 주고 조곡(租穀)¹³⁾을 거두어 2, 3만 곡(斛)¹⁴⁾을 얻었다. 탐라 사람으로 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넉넉하지 못하여 풀잎의 끝과 나무 열매를 먹었고 한라산(漢拏山)에는 말이 거의 없어졌다.

고을의 기생으로 만덕(萬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마을 어느 집에서 났다. 용모는 날리지 못하였고 노래나 춤도 잘 못하였으나 성격은 활달하고 협기(俠氣)가 있었으며, 재물(財物)은 촉(蜀)나라 청(淸)¹⁵⁾에게 비교되었다. 한숨을 쉬며 말하기를, “탐라는 서울에서의 거리가 백사(百舍)¹⁶⁾이며, 바다에 둘러싸여 해마다 흉년이 드니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 성상(聖上)께서 자리에 편하게 앉지도 못하시고 근심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
- 9) 전운(轉運) : 물건이나 짐 따위를 실어 나름. 운송함.
 10) 방백(方伯) : 지방 장관. 관찰사(觀察使).
 11) 신칙(申飭) : 주의하여 바르고 엄숙하게 함. 타이르고 경계함.
 12) 문첩(文牒) : 공문서. 문서.
 13) 조곡(租穀) : 조세로 바치는 쌀. 『(後漢書)「梁商傳」每有飢饉輒載租穀於城門賑與貧餒』
 14) 곡(斛) : 곡식의 단위. 1곡은 열 말.
 15) 파촉(巴蜀)의 청(淸) : 빈궁한 가정에서 태어나 18세에 파촉(巴蜀: 지금의 四川)으로 시집와서 결혼한 지 4년 만에 과부가 된 청은 전국(戰國)시대 말기에서 진시황 시대에 단사(丹砂 혹은 朱砂) 광산개발 및 단약(丹藥) 제조 등으로 부를 축적한 중국 최초의 여성 기업인이다. 그녀는 파촉 6개 군(郡) 최고의 부자였으며, 기업 규모는 당시 세계 최고였다고 한다. 당시 파촉의 인구가 4, 5만 명인데 광산 노동자와 가족이 수 만 명에 달해 그녀의 기업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진시황은 과부 청을 ‘정부(貞婦)’에 책봉하였다. 청의 무덤을 현지인은 신선동(神仙洞)이라 부르며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복을 빈다고 한다. 사마천은 사기 ‘화식열전(貨殖列傳)’에서 과부 청의 탁월한 치부(治富)능력, 특히 재물로서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가에 공헌하는 재화운용방식((用財自衛人不敢侵)과 인간적인 기업경영관리(人性經營)방식을 높이 평가하면서 열전의 반열에 올렸다.
 16) 백사(百舍) : 3,000리. 사(舍)는 거리(距離)의 단위. 1 사(舍)는 30 리(里).

비록 천(賤)하나 그래도 조화옹(造化翁)¹⁷⁾이 만든 물건이니 임금님 땅에 살며, 임금님 땅에서 먹으니, 내가 외로운 섬 백성들을 먹이지 아니하면, 자손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600곡(斛)을 내어서 진휼(賑恤)하니 탐라의 백성들이 10일을 연명(延命)¹⁸⁾할 수 있었다. 왕이 가상히 여기시고 소원을 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니, 만덕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니, 관대하게 부역을 면해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요, 상을 받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은(聖恩)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한다면, 방기(邦畿)¹⁹⁾ 천리의 문물도회(文物都會)²⁰⁾와 금강산(金剛山) 일만 이천 봉을 구경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도 이 나라에 나기를 원했습니다. 감히 청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굳이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께서 이를 허락하시고, 물러서 용안(龍顏)²¹⁾을 뵈도록 하시고, 곧 행수의녀(行首醫女)에 충당하고 금강산에 재송(齎送)²²⁾하게 하셨다. 규장각

17) 조화옹(造化翁) : 만물을 창조하는 노인이라는 뜻으로, ‘조물주’를 이르는 말.

18) 연명(延命) : 목숨을 겨우 이어 살아감.

19) 방기(邦畿) : 왕성(王城) 근처의 땅. 왕성을 중심으로 한 사방 1,000리 이내의 지역 또는 국가.

20) 도회(都會) : 도회지(都會地)는 사람이 많고 상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통용된다. 조선시대 도회지는 어느 한 지역에서 특정한 행사를 하도록 지정한 것을 말한다. 과거 시기가 되면 국가는 특정지역에 도회지를 정해 의무적으로 수험생들을 보살피고 기숙할 수 있게 했다. 조선시대 때 강진과 해남, 영암은 1년씩 돌아가면서 제주도를 오가는 관리나 사신을 접대하는 도회지 역할을 맡았다. 도회를 맡은 곳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했고, 이동과정에서 필요한 생필품도 지원하였다.

21) 용안(龍顏) : 임금의 얼굴. 또는 임금을 말함.

22) 재송(齎送) : 주어서보냄. 『(漢書)』 「匈奴傳上」而漢俗屯戍從軍當發者其親豈不自奪溫厚肥美 齎送飲食行乎)

(奎章閣)²³⁾의 글 잘하는 신하에게 명하여 전기(傳記)를 짓도록 하여 이를 호강스럽게 하셨다.

태사공(太史公)²⁴⁾이 말하기를, 황승사(黃承事)가 만 곡(斛)을 진휼(賑恤)하여 자부(紫府)²⁵⁾의 진인(真人)²⁶⁾이 상좌(上座)에 모셨는데, 만덕은 한 여자로서 만 명의 굶주린 사람을 살리고, 서울구경을 하고, 봉래산(蓬萊山)²⁷⁾에 올랐으니, 어찌 여가섭(女迦葉)²⁸⁾과 더불어 놀며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티끌이 가득한 절구 속에서 싸우며, 작은 이해를 비교하며 머리 하나를 내놓지 못하며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면서 이 여인을 비웃을 것인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급히 달려가는 높은 의기(義氣)는 비록 협사전(俠士傳)²⁹⁾ 가운데 넣어 둔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奉敎製進萬德傳

耽羅在海島 稱瀛洲 山彌畜地靈草 厥民厥榛 厥俗一男三女 往往有恒岱

23) 규장각(奎章閣) : 정조(正祖) 원년(1776)에 설치하여 역대(歷代) 임금의 저술(著述)·필적(筆跡)·고명(顧命)·유교(遺敎)·선보(璿譜)·보감(寶鑑) 및 정조의 어진(御眞)을 보관하던 관아.

24) 태사공(太史公) : 한(漢)의 사마천(司馬遷)

25) 자부(紫府) : 도가(道家)에서 신선이 사는 곳을 이르는 말. 『抱朴子』 「祛惑」 及到天上 先過紫府 金牀玉几)

26) 진인(真人) : 도교에서 본성(本性)을 보존하여 기른 사람. 또는 수도하여 도리를 깨달은 사람.

27) 봉래산(蓬萊山) : 신선이 산다고 하는 신령한 산. 여름철의 금강산의 다른 이름.

28) 여가섭(女迦葉) : 여자 가섭(迦葉). ‘가섭’은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의 한 사람. 석가의 뒤를 이어 불법을 전함. 선종(禪宗)에서는 제1대조로 받들고 있음.

29) 협사전(俠士傳) : 의협심(義俠心)이 있는 사람들의 전기(傳記).

賑六百斛 羅民得延一句 王嘉之 惟其願聽 萬德曰 否否 此其常 貰免非
所願 爵賞非所願 聖恩如弗可負 邦畿千里 文物都會 金剛萬二千峯 華人
亦願生 不敢請固所願 王許之 召接賜顏 直充行 首醫女 齎送金剛 命奎
閣詞臣 作傳以侈之

太史公曰 黃承事 賑萬斛 紫府真人 延之上座 萬德 以一女 活萬飢 觀京
師 陟蓬萊 豈與女迦葉遊 慈悲衆生乎 世人役塵白 較銖不能出一頭 行
一步得無爲 此女所笑耶 急人高義 雖置俠士傳中 無愧色矣

【지은이】

김희락(金熙洛). 1761(영조 37)~1803년(순조 3).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
관은 의성이며, 자는 숙명(淑明)이다. 아버지는 사후에 이조참의로 추증되
었던 두동(斗東)이며, 어머니는 전주 유씨로 세원(世源)의 딸이다. 이상정
(李象靖)의 문인이다.

1792년(정조 16) 사마시에 합격, 몇 달 뒤에 도산(陶山) 응제(應製)에서
자원하였다. 1794년 규장각 강제문신(講製文臣)으로 뽑혀 그의 족형인 희
주(熙周)와 함께 궁중을 출입하며 여러 가지 과제(課製)에서 자주 장원하
였다. 1794년에서 1800년 사이에 삼조(三曹)의 낭관(郎官)과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언을 지내는 동안 춘추관기사관을 겸하였다. 말년에는 노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흥양현감(興陽縣監)을 자원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문장과 학식이 뛰어나 정조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
았고 많은 강제문과 응제문을 지어 올렸으며, 『해동인물고(海東人物攷)』·
『홍재전서(弘齋全書)』 등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해제】

『고식』은 조선 후기의 문신인 김희락(金熙洛)의 시문집으로 5권 3책으로 되어 있다. 1878년(고종 15) 그의 손자 철수(詰銖)가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총서(總序)가 있고 권말에 권여하(權泳夏)와 철수의 발문이 있다.

권1에는 「주자대전강의십조차자(朱子大全講義十條筵子)」·「어비십조별유(御批十條別諭)」·「국조고사강의(國朝故事講義)」, 권2에는 「중용강의(中庸講義)」·「어제조문신희락대(御製條問臣熙洛對)」, 권3에는 설(說)·제(題)·책(策), 권4에는 시(詩)·율부(律賦)·찬(贊)·전문(箋文)·의(義)·서(序)·전(傳)·상량문(上樑文), 권5에는 전교(傳敎)·행록(行錄)·잡저(雜著)·서(書)·제문(祭文), 부록에는 행장(行狀)·만뢰(挽誄) 등이 수록되었다.

이 가운데 만덕 이야기는 권4의 전에 「봉교제진만덕전(奉敎製進萬德傳)」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이 작품도 이희발의 「만덕전」처럼 처음 도입 부분에서 탐라의 물산·풍속·형승(形勝) 등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남정(男丁) 하나에 여인이 셋 꼴로 여다(女多)의 섬임과 더불어 섬의 풍모가 항산(恒山)이나 태산(泰山)과 비슷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끝부분에서도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 여가섭(女迦葉)에 비유하여 만덕의 행적을 미화하고 있다.

이면승(李勉昇) 「만덕전(萬德傳)」

『감은편(感恩編)』 권3

만덕전(萬德傳)

만덕(萬德)이라고 하는 사람은 탐라(耽羅)의 기생으로서 성은 김 씨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사(公私)간에 천한 사람은 성씨도 쓰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냥 만덕이라는 이름만 불렀다. 본래는 양가집의 딸이었으나 십여 세가 되었을 때 부모를 여의고 창가(娼家)¹⁾에 고용되었다. 자색(姿色)²⁾이 있어 부(府)에 속한 기생으로 뽑혔고 기예(技藝)³⁾를 배울 때 무엇이나 다 잘했다. 또한 성격이 활달하여 장한 기상이 있었다. 배를 만들고 다스리는 일에 능통하여 다른 곳의 쌀과 양곡을 사다가 점포를 차려 놓고 판매를 한 덕에 삿갓과 말갈기(驤)⁴⁾가 쌓여 돈이 많았고 풍족하였다. 을묘년(乙卯年)⁵⁾에 섬에 심각한 흉년이 닥쳐 백성들이 기아에 허덕이자 임금님이 그들을 가엾게 여겨 내탕전(內帑錢)⁶⁾의 돈을 풀어 연해(沿海)⁷⁾에서 쌀을 사다가 구제해 주었다. 이에 만덕이 탄식하여 하는 말이, “이 세상사람 모두가 다 나의 동포이거늘 하물며 한 섬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랴? 또한 재물이란 몸밖의 물건이라 벌 때와 쓸 때를 알아야 하거늘 내 어찌

1) 창가(娼家) : 창기(娼妓)의 집. 기루(妓樓).

2) 자색(姿色) : 여자의 얼굴과 맵시.

3) 기예(技藝) : 기술에 관한 재주와 솜씨.

4) 말갈기(驤) : 말의 목덜미에서 등까지 난 긴 털.

5)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6) 내탕전(內帑錢) : 국고(國庫)의 돈.

7) 연해(沿海) :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땅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守錢虜)⁸⁾가 되어 내 눈앞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고 구제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돈을 풀어 쌀을 사다가 수천 명의 목숨을 살렸다. 관원이 이 일을 상소하자 임금님께서 그 공덕을 치하하시고 부역을 면제하라 명하시니 그녀는 분에 넘치는 일이라 사양하고, 상을 내리려 해도 사양하는 바람에 혹시 무슨 특별한 요구라도 있나 하여 그녀가 굳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하도록 했다. 그녀가 하는 말이, “첩의 몸이 비록 천하지만 역시 우리 임금님의 적자(赤子)이옵니다. 적자로서 부모님의 용안(龍顏)⁹⁾을 뵈지 않아서야 될 일이옵니까? 중국 사람이 시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려 땅에 태어나서 금강산을 한 번 구경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다’라고 할 만큼 금강산의 절경이 천하에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 제가 행복하게도 이 나라에 태어나서 나이가 순하고 여덟 살을 더 먹은 늙은이가 마지막까지 금강산 구경을 못해보고 죽었다면 중국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궁궐들의 장엄한 모습을 구경하고 새의 깃과 짐승들의 꼬리로 장식한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본 다음 동쪽으로 일 만 이천 봉을 두루 밟아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동네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낼 수 있다면 첩의 소원은 풀릴 것이옵니다.”라고 하였다.

나라의 법에 탐라의 여인들은 바다를 건널 수 없었다.¹⁰⁾ 이것은 마치

8) 수전노(守錢虜) : 돈을 지나치게 아끼는 인색한 사람.

9) 용안(龍顏) : 임금님의 얼굴.

10) 월해금법(越海禁法) : 제주를 살기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지로 떠나면서 군역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조 7년(1629)에 제주도민의 출륙을 엄금한다는 명이 떨어졌다. <濟州居民流移陸邑, 三邑軍額減縮. 備局請嚴禁島民之出入, 上從之> 그중에서도 특히 여자들은 월해금법(越海禁法)이라고 해서 바다를 건너 나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의 남자와 혼인을 해서 그곳으로 옮겨가 사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만덕의 발언은 국법을 어기는 것이자 금기를 깨뜨리는 행위였던 것이다.

암말을 가둬 놓고 못나가게 하는 것과도 같았다. 만덕의 이 소원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감히 마음대로 행할 수 없었다. 임금께서 그 말을 기특하게 여기시어 그녀의 소원을 허락하셨다.

이에 말린 양식을 마련하고 말도 갖추고 시종도 딸려서 바다를 건너게 했다. 북쪽으로 유람을 하는 도중 서울에 이르러서는 관저(官邸)¹¹⁾에 묵었는데 재상같은 대신들이 임금의 뜻에 따라 진휼청(賑恤廳)¹²⁾에 명하여 쌀과 돈을 넉넉히 주어 그녀로 하여금 궁색함이 없도록 잘 우대해 주었으며 그녀가 다녀 갈 연도(沿道)¹³⁾의 관아에서는 말을 대주고 식량을 공급하도록 했으며, 또한 특별히 여의수(女醫首)¹⁴⁾를 삼아 차비문(差備門)¹⁵⁾에 대령케 하였다. 기생으로 뽑힌 자 가운데서 영화를 누렸거나 자질이 뛰어난 자 외에도 사씨(史氏)¹⁶⁾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녀들 중 한 가지가 빼어나 이름을 날린 자가 많다. 술 잘 마시기로는 단산(丹山)의 두향(杜香)이 있고, 시 잘 짓기로는 함관(咸關)¹⁷⁾의 가련(可憐)과 밀양(密陽)의 운심(雲心)이 있고, 칼춤으로는 장성(長城)의 노아(蘆兒)가 있고, 노래로는 연(然)이라고 하는 자가 있으나 모두 다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다할만한 인

11) 관저(官邸) : 고급 관리에게 제공되는 관사(館舍).

12) 진휼청(賑恤廳) : 조선시대 진휼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

13) 연도(沿道) : 큰 길과 인접한 지역.

14) 여의수(女醫首) : 조선시대 여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두었던 혜민서(惠民署) 소속의 여자 의원 가운데 우두머리.

15) 차비문(差備門) : 임금이 거처하는 편전(便殿)의 앞문을 이르는말. 『(朝鮮世祖 實錄』 36 11년 8월 庚子條, 既而政府政院堂上 就差備門外啓 震知張米豆 潛授僕夫 臣等未及知之 稽緩啓達 請待罪)

16) 사씨(史氏) : 사관(史官). 사가(史家).

17) 함관(咸關) : 함관령(咸關嶺). 함경도 함주군(咸州郡) 덕산면(德山面)과 홍원군(洪原郡) 운학면(雲鶴面) 사이에 있는 고개. 조선 태조가 오랑캐 나하추(納哈出)를 크게 무찌른 곳.

물이 있는가? 하지만 유독 진양(晉陽)¹⁸⁾의 논개(論介) 만큼은 왜놈의 우두머리가 하도 꼴사납게 놀자 거짓으로 순응하는 척하여 그자의 환심을 사고, 또한 그자와 같이 춤을 추다가 몸을 허공으로 날리면서 왜놈을 끌어안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으니 그 절개와 의지가 밝게 빛나기에 지금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것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만덕과 같은 여인은 태평세대에 태어났으므로 그 기개와 의지를 펼 데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뜻을 감안하면 험난한 삶에서도 어디에 구애됨이 없이 오히려 지분(脂粉)¹⁹⁾의 따분한 모습을 말끔히 씻어버렸으니 논개와 처지를 바꾸어 놓는다 해도 그 아름다움에 아무런 손색이 없지 않을까? 재산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함이 유응지(劉凝之)²⁰⁾가 돈을 흠뜨릴 때와도 같았고, 바다를 건너 서울을 마음껏 구경했으니 소자유(蘇子由)²¹⁾의 유람과 같다. 이어서 봉래(蓬萊)²²⁾로 들어가 사영운(謝靈運)²³⁾처럼 명산을 올랐으니 일개 천한 기생으로서 세 가지 아름다움을 모

18) 진양(晉陽) : 경상남도 진주.

19) 지분(脂粉) : 연지와 분. 여성. 부녀.

20) 유응지(劉凝之) : 만조 송(南朝宋) 지강(枝江) 사람. 자는 지안(志安). 아명(兒名)은 장년(長年). 조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처자를 데리고 형산(衡山)에서 은거함. 『宋書93』, 『南史75』)

21) 소자유(蘇子由) : 송(宋) 소철(蘇轍)의 자에 성을 붙여 이르는 말. 고문에 뛰어나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힘.

22) 봉래(蓬萊) : 봉래산(蓬萊山). 신선이 산다고 하는 신령한 산. 여름철의 금강산의 판 이름.

23) 사영운(謝靈運) : 남조송(南朝宋) 진군(陳君) 양하(陽夏) 사람. 일명 객아(客兒)·사객(謝客)·사강락(謝康樂). 연(玄)의 손자로 문벌 귀족의 집안에 태어났으나, 종숙 혼(混)이 송무제(宋武帝)에게 죽임을 당한 뒤 불우하게 살다 모반죄를 뒤집어쓰고 피살됨. 시인으로 유명하여 안연지(顏延之)와 함께 안사(顏事)라 불리었는데, 정치적 불만을 산수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중국 문학에 산수시의 새로운 길을 열었음. 명대(明代)에 편집한 『사강락집(謝康樂集)』 이전함. 『宋書 67』, 『南史 19』)

두 다 한 몸에 지냈기에 이 어찌 옛사람들이 숭상하던 이른바 여협(女俠)이 아니리오? 위대하도다.

萬德傳

萬德者 耽羅妓 金姓也 我國公私 賤不用姓 故以萬德名 本以良家女 十余歲失怙恃爲娼家傭賃 有姿色 仍選隸府妓 學技藝盡善性 又不拘 有丈夫氣 善治產造船 而貿遷米 設舖而販賣 驟積貲 頗饒 乙卯歲 大侵島民飢 上憫之發內帑錢 輸沿海粟以賑之 萬德喟然曰 四海皆吾同 況一島乎 且財外物也 聚散有時 吾肯爲守錢虜 立視飢且死而不之恤乎 於是傾貲易米 所全活者數千人 守臣以聞 上嘉其功 命贖役以非分辭 欲賞之又辭 蓋非有意於希覬者 强其所欲 妾身雖賤 亦吾王之赤子也 赤子而不見父母之顏可乎 中州人 詩曰 願生高麗國一見金剛山 然則金剛之勝聞天下矣 妾幸生於是國 年今五十有八老且死矣 而終未之 見得不爲中州人笑乎 覽城闕之壯 瞻羽旄之美 東躡萬二千峰 歸訖鄉里 則妾之願畢矣 國典耽羅女毋得越海 如牝馬之不許出 萬德之有是願 蓋不敢 自由也 奇其言而許之 迺備糗糧具馬僕渡海 而北旅寓京邸 相臣以啓命賑恤廳 優給米錢俾無窘待 其東遊使道臣給馬助糧 又特置女醫首 待令於差備 於選妓中所處榮 而所資厚外 史氏曰 我國娼妓以一節稱者多矣 於酒有丹山之杜香 於詩有咸關之可憐 密陽之雲心 以劍名長城之蘆兒 以歌名然皆不出綺羅圈套中何足道哉 獨晉陽論介 當倭酋猖獗之日僞服而得其歡與之舞翻身抱墜崖死 節義炳烺 至今有凜人毛髮者 如萬德者 生升平之世 無所施其氣義 然觀其意 汎濫不局 洗却脂粉態色使 與論介易地 則

白宮同調待月之暗香浮動黃昏驚期不嫌水小之投窵效女
羅之附繫年不羨高用紫魏之姝芳臭味相符要得米陳之結
約難點霜髮莫若老人之替酒淺春光或恐暴客之折盡米對
下體高也自驕美中心好之絕已天然何曾塗米而傅粉新昏
宴爾非欲倚幸而假紅笑曰竹夫人之易疎亦有花君子之不
渠望樹木猶人愛悅已為登期松柏於歲寒與子偕老年月日
西湖處士林逋拜

傳

萬德者既羅妓金姓也我國公私賤不用姓故以萬德名本以
良家女十餘歲失怙恃為娼家傭賃有姿色仍選隸府妓學校
藝盡善性又不拘有丈夫氣善治產造船而買運米穀設舖而

販賣臺驤積貲頗饒乙卯歲大使島民飢上憫之發內帑錢
輸沿海粟以賑之萬德冒熱曰四海皆吾同胞况一島乎且財
外物也聚散有時吾肯為守錢虜立視飢且歎而不之恤乎於
是傾貲易米所全活者數千人守臣以聞上嘉其功命贈役
以非分辭欲賞之又辭蓋非有意於希覲者強其所欲曰妾身
雖賤亦吾王之赤子也赤子而不見父母之顏可乎中州人
詩曰願生萬壽國一見金剛山然則金剛之勝聞天下矣妾幸
生於是國年今五十有八老且歎矣而終未之見得不痛中州
人哭才覽城闕之壯瞻羽旄之美東隣萬二千峯歸詭鄉里則
莫之顧畢矣國典耽羅女世得趙海如北馬之不許出萬德之
有是顧益不敢自由也奇其言而許之延福樓糧具而僕渡海
而北旅寓京師相臣以啓命縣愜願優給米錢俾無窘迫其

東遊使適臣給馬助糧又持置女瑩首待令於差備於遊妓中
所處榮而所資厚外史氏曰我國娼妓以一節稱者多矣於酒
有丹山之杜香於詩有咸陽之可憐密陽之雲心以劍名長城
之盧兒以歌名然皆不出綺羅陶套中何足道哉獨晉陽論介
當使南陽徽之日偏服而得其歡與之舞翻身抱隊屋收節義
炳煥至今有凜人毛髮者如萬德者生升平之世無所施其氣
義然觀其竟泥濘不局洗却脂粉態已使輿論介易地則何遽
讓其義哉於戲捐貲賑民劉表之散錢也涉大海遊京師賴
子由之盡觀也遂入蓬萊謝靈運之登山也一賊妓而三義具
豈古所謂女俠者耶傳載

鄉飲酒記

上即作之二十一年歲丁巳月正元日漢發繪音先之以廣歌
因本之道中之以老老及人之義仍又蒙賜鄉飲儀武頒告中
外俾各遵而行之於休戚咸益是禮也訪於周其人實主介俱
其儀登降辭受其時春秋其地房戶同其牲狗其龜選豎其樂
工笙其詩白華華泰南陔賓主介僚序位齒也登降辭受敬尊
讓也春秋習之也房戶同尊之也牲用狗取其擇人也選豎取
其潔也工笙導其和也白華華泰南陔勸其孝也君子習其文
小人知其義于以明養賊而辨尊卑禁邪偏而勸忠孝此成周
之世所以數賦化而析永命者也漢唐以來往往有行之者而
未有定制是禮遠廢焉遠大我朝世宗大王命集賢儒臣
詳定五禮儀具載鄉飲酒儀註頒示八方期有成效又未之竟
付此紙承流宣化者之罪也夫國不徒治俗義而後治俗不徒

何遽讓其美哉 於戲捐財賑 民劉凝之之散錢也 涉大海遊京師 蘇子由之
盡觀也 遂入蓬萊謝靈 運之登山也 一賤妓而三美具 豈古所謂女俠者耶
偉哉

【지은이】

이면승(李勉昇). 1766(영조 42)~1835년(헌종 1).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계래(季來)이다. 성순(性淳)의 아들이며, 판서
면금(勉兢)의 아우이다.

1794년(정조 18) 진사로서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98년 홍문
관에서 처음 벼슬을 한 뒤 사헌부지평이 되었다. 이면승은 초계문신(抄啓
文臣) 갑인선(甲寅選, 1794) 22인 중의 한사람으로 정조가 서거하던 해인
1800년까지 규장각의 초계문신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초계문신은 참상
(參上)·참하(參下)의 당하문신(堂下文臣)중에서 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
書館)·성균관(成均館)의 박사 추천이 된 37세 이하의 사람을 의정부에서
뽑아 규장각에서 일종의 위탁교육을 시키다가 40세가 되면 면허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1808년에는 전라도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전라도 각 지역
수령들의 업무수행 상황을 조사, 국가재정의 핵심적 문제였던 환곡·민고
(民庫)·군정(軍政) 등 지방행정업무의 퇴폐상을 극론하여, 그 결과 전라지
역의 환곡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그 뒤 우부승지로 있다가 1815
년 2월에는 황해도관찰사, 1818년에는 대사성·대사간, 1820년에는 함경
도관찰사, 1825년에는 사헌·형조판서를 지냈고, 같은 해 11월 동지사로
서 부사 이석우(李錫祐), 서장관 박종학(朴宗學) 등을 대동하고 연경에 다
녀오기도 했다. 1829년에는 경상도관찰사가 되었고, 그 뒤 이조판서·공

조판서·대사헌·예문관 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해제】

『감은편』은 이면승이 정조대에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활동하는 동안 지은 글을 수록한 책으로 1책의 필사본이다. 수록내용은 대부분이 이면승이 1800년까지 초계문신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내용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책이 만들어진 시기는 1800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책은 「감은편 의례」로 시작하여 「은강록(銀賡錄)」·「은사록(恩賜錄)」·「은과록(恩課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인 「은강록」은 어제시에 이면승이 갠운한 것을 기록한 내용으로 그가 초계문신으로 선발된 이듬해인 1795년(정조 19) 3월 7일의 기록으로 시작하여 1796년(정조 20) 11월 29일의 어제시에 갠운한 것을 끝으로 하고 있다. 총 10편의 어제와 그에 이은 10편의 갠운이 수록되었다.

책의 두 번째 부분인 「은사록」은 1783년(정조 7)부터 1800년(정조 24) 사이에 임금에게 하사받은 물건의 품목과 날짜를 적어 놓은 것으로 그 품목을 받은 연월일과 세부품목 등을 기록해 놓았다.

책의 세 번째 부분 「은과록」은 초계문신으로 활동하는 동안 강제한 것을 모은 것이다. 수록된 것으로는 오언고시·칠언고시·오언절구·칠언절구·오언율시·칠언율시·오언배율·칠언배율 등의 시와 가(歌)·사(詞)·치사(致詞)·부(賦)·부율(賦律)·표(表)·전(箋)·의(擬)·상량문(上樑文)·계(啓)·교서(敎書)·명(銘)·혼례(婚禮)·전(傳)·기(記)·서(序)·설(說)·의(義)·책(策)·문(問) 등 문체 전반에 걸쳐 여러 종류의 글이 있다.

이 중 「만덕전」은 ‘전(傳)’에 수록되었다. 이 「만덕전」의 내용 중에서

특이한 사향은 만덕을 우리나라 이름난 기생들과 비교하고 있는 점이다. 술 잘 마시기로 유명한 단산(丹山)의 두향(杜香), 시 잘 짓기로 이름난 함관(咸關)의 가련(可憐)과 밀양(密陽)의 운심(雲心), 칼춤으로 유명한 장성(長城)의 노아(蘆兒), 노래로 유명한 연(然), 왜놈을 끌어안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음으로서 그 절개와 의지가 밝게 빛나는 진양(晉陽)의 논개(論介) 등이 그들이다. 그런 가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덕의 삶을 재산을 풀어 백성을 구제한 유응지(劉凝之), 유람을 즐긴 소자유(蘇子由), 명산에 올랐던 사영운(謝靈運)에 비유하여 일개 천한 기생으로서 세 가지 아름다움을 모두 다 한 몸에 지닌 여협(女俠)이라고 찬탄하고 있다.

유재건(劉在建) 「만덕(萬德)」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

만덕(萬德)

만덕의 성은 김씨이니 탐라(耽羅)¹⁾에 사는 양가집 딸이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돌아가서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생의 집에 의탁하여 살았다. 조금 자라나자 관가에서 만덕의 이름을 기안(妓案)²⁾에 올렸다. 만덕이 비록 머리를 숙이고 기생 노릇을 하였으나 그 자신은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

나이 이십 여 세 되었을 때 그 사정을 울며 관가에 하소연하니 관가에서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기안에서 그의 이름을 없애고 다시금 양민으로 되돌려 주었다. 만덕은 비록 집에 거하면서 탐라의 사내들을 머슴으로 거느리기는 했으나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재화를 늘리는 데에 재능이 있어서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어 팔거나 쌓아 놓거나 했다. 그런지 몇 십 년 만에 제법 부자로 이름이 드높았다. 우리 임금 19년 을묘년(乙卯年)³⁾에 탐라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의 죽은 시신이 더미로 쌓였다. 임금이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구제하기를 명령했다. 바닷길 팔백 리에 바람 편에 오가는 돛대가 북⁴⁾처럼 재빨랐

1) 탐라(耽羅) : 탐모라국(耽牟羅國)·섭라(涉羅)·담라(儋羅)·탁라(毛羅)라고도 표기되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 및 조선 초기까지 오랫동안 불려졌던 칭호이다.

2) 기안(妓案) : 관아(官衙)에서 기생의 이름을 기록하여 둔 책.

3)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4) 북 : 피륙을 잘 때 씨실의 꾸리를 넣는, 베틀 부속품의 하나.

으나 오히려 미치지 못했다.

이에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육지에서 사들였다. 모든 고을의 사공들이 때맞춰 이르면 만덕은 그 중 십분의 일을 취하여 그의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어 날랐다. 그리하여 부황(浮黃)⁵⁾난 자가 그 소문을 듣고 관청마당에 모여 들기를 마치 구름 같았다. 관가에서는 그 완급(緩急)⁶⁾을 조정하여 나누어 주었다. 그들 남녀는 모두 만덕의 은혜를 찬송하여, “우리를 살린 이는 만덕이네.”라고 했다. 진홀이 끝난 뒤에 목사가 그 일을 조정에 올리니 임금의 기이하게 여겨서, “만덕이 만일 소원이 있다면 쉽고 어려움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돌보아 주겠다.”하고 회유(回諭)했다. 목사는 그제야 만덕을 불러서 임금의 말씀대로, “너는 무슨 소원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만덕은, “별다른 소원은 없습니다만 다만 한 번 서울에 가서 임금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이내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 이천 봉⁷⁾을 구경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라고 했다. 대개 탐라의 여인들은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오르지 못하게 함이 나라의 법이었다. 목사가 또 그의 소원을 올리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그의 소원대로 하라하여 관가에서 노수(路需)⁸⁾와 역마(驛馬)⁹⁾를 주고, 음식을 번갈아서 제공케 했다.

만덕은 드디어 배를 타고 만경의 푸른 바다를 건너서 병진년(丙辰年)¹⁰⁾

5) 부황(浮黃) : 오랫동안 굶주려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6) 완급(緩急) : 위급함의 느낌과 빠름

7) 일만 이천 봉 : 실제 금강산의 봉우리가 일만 이천 봉우리인 것은 아니며, 일만 이천 봉은 불경에서 유래된 말로 그만큼 봉우리가 많다는 것을 강조한 말임.

8) 노수(路需) : 노자(路資). 여비.

9) 역마(驛馬) : 역참에 준비되어 있는 말.

10) 병진년(丙辰年) : 1796년(정조 20).

가을에 서울에 들어와서 채상국(蔡相國)¹¹⁾을 한두 번 만났다. 상국은 그 사실을 임금께 여쭙어서 선혜청(宣惠廳)¹²⁾에 명령하여 달마다 식량을 대주었다. 그런지 며칠 만에 그로써 내의원(內醫院)¹³⁾ 의녀(醫女)¹⁴⁾를 삼아서 모든 의녀의 반수(班首)¹⁵⁾에 두었다. 만덕은 이전에 있던 사례에 의하여 궁궐 안에 있는 문 안에 들어가 문안을 드렸다. 왕비와 궁에서 각기 여시(女侍)¹⁶⁾로 하여금 말씀을 내렸다.

“네, 한 개 여자로서 의기(義氣)¹⁷⁾를 내어서 주린 백성 천여 명을 구제했으니 가룩한 일이로다.”

그리고 상사(賞賜)¹⁸⁾한 것이 많았다. 그런지 반 년만인 정사년(丁巳年)¹⁹⁾ 삼월에 금강산에 들어가 만폭동(萬瀑洞)²⁰⁾·중향성(衆香城)²¹⁾의 기이한 경치를 다 구경하였다. 금불(金佛)을 만나서는 반드시 절하고 공양 드려 그 정성을 극진히 했다. 이는 대체로 불법이 탐라국에는 들어오지 않은 까닭에 만덕이 나이가 신여덟이었으나 이제 처음 절과 부처를 구경했던 것

11) 채상국(蔡相國) :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상국’은 영의정 및 좌·우의정의 총칭.

12) 선혜청(宣惠廳) : 조선 때 대동법(大同法)이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 처음 시행되면서 이의 관리를 위하여 두었던 관청.

13) 내의원(內醫院) : 조선 때 삼의사(三醫司)의 하나. 대궐에서 소요되는 의약(醫藥)을 맡아보던 관청.

14) 의녀(醫女) : 조선 때 부인들의 질병을 구호, 진료하던 여자 의원(醫員).

15) 반수(班首) : 우두머리.

16) 여시(女侍) : 궁궐 안에서 대전(大殿)·내전(內殿)을 가까이 모시는 내명부의 총칭.

17) 의기(義氣) : 의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기개.

18) 상사(賞賜) : 공로·선행(善行)을 기려서 금품을 내려 줌.

19) 정사년(丁巳年) : 1797년(정조 21).

20) 만폭동(萬瀑洞) : 금강대 아래 원통골에서 내륙 깊숙이 마하연이 있는 백운동 입구로부터 약 17km에 이르는 구간. 수많은 담소와 폭포 그리고 기암괴석이 즐비하게 늘어서 금강산의 계곡미를 대표하는 곳으로 유명함.

21) 중향성(衆香城) : 내금강(內金剛)의 영랑봉(永郎峰) 동남쪽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하얀 바위섬.

이다.

그는 마침내 안문령(雁門嶺)²²⁾를 넘어서 유점사(楡岾寺)²³⁾를 거쳐 고성(高城)²⁴⁾으로 내려가 삼일포(三日浦)²⁵⁾에서 배를 타고 통천(通川)²⁶⁾ 총석정(叢石亭)²⁷⁾에 올라 천하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구경을 한 뒤로 서울로 다시금 돌아와서 며칠을 머무르고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내원(內院)²⁸⁾에 들어가서 물러감을 고했다. 왕비와 궁에서 각기 앞서와 같이 상을 내렸다.

이때엔 만덕의 이름이 서울 안에 가득하여 공경대부(公卿大夫)²⁹⁾와 사(士)³⁰⁾ 모두 한번 만덕의 얼굴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 없었다. 만덕이 떠날 때에 채상국을 보고 목메인 소리로, “이승에선 다시금 대감의 얼굴을 뵈

22) 안문령(雁門嶺) : 내금강에서 외금강으로 넘어오는 고개.

23) 유점사(楡岾寺) : 외금강의 구룡연(九龍淵)을 지나 청룡산과 남산 사이에 있음. 임진왜란 때에는 서산대사(西山大師)와 사명당(四溟堂), 그리고 처영대사(處英大師)가 승병을 일으켰던 근거지이기도 하며, 유명한 금강 53불이 봉안되어 있기도 함.

24) 고성(高城) : 강원도 동북부에 위치한 지금의 고성군. 북은 통천군, 동은 동해, 남은 양양, 서는 회양, 서북부는 태백산맥이 뻗어 험준한 산지, 동남부는 완경사를 이룬다. 이 지역에 외금강, 신금강, 해금강 등의 경승지 및 온정리 온천과 명승 고적이 많음.

25) 삼일포(三日浦) :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호수. 둘레는 8km, 물 깊이는 9~13m에 이른다. 사선정(四仙亭)·단서암(丹書巖) 등이 있고, 호수 풍경으로는 전국적으로 으뜸가는 곳으로 꼽힘.

26) 통천(通川) : 강원도 북동부에 위치.

27) 총석정(叢石亭) : 관동 8경의 하나이며, 약 1천 미터 구간에 6각(혹은 8각, 4각, 5각) 모가 반듯하고 곧게 선 돌기둥의 무리임. 바위에 구멍이 뚫린 천도를 비롯하여 입총(立叢, 서 있는 것)·좌총(坐叢, 앉은 것)·와총(臥叢, 누운 것) 등의 기암괴석이 무수함. 입총 가운데 큰 것은 높이가 12~20m에 이른다.

28) 내원(內院) : 비빈(妃嬪)들이 거처하는 궁궐 안의 궁실(宮室).

29) 공경대부(公卿大夫) : 벼슬이 높은 사람들.

30) 사(士) : 문벌이 높은 사람.

올 수 없겠습니다.” 하고 이내 산연(潸然)³¹⁾히 눈물을 흘렸다.

채상국은 “옛날 진시황(秦始皇)³²⁾과 한무제(漢武帝)³³⁾는 모두들 ‘해외에 삼신산(三神山)³⁴⁾이 있다’하였고, 또 세상에서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한라산은 곧 그들이 이른바 영주산(瀛洲山)³⁵⁾이요, 금강산은 곧 그들이 이른바 봉래산(蓬萊山)³⁶⁾이 아닌가. 넌 이미 탐라에 자라나서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白鹿潭)³⁷⁾의 물을 떠내고, 이제 또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였으니, 이는 삼신산 중에서 그 둘은 벌써 너에게 점령되었지 않은가. 온 천하 수많은 사내 중에서 이런 복을 누린 자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직을 당해서 도리어 아녀자의 가련한 태도를 짓는 것은 무슨 까닭이나.” 하고 위안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일을 서술하여 만덕전(萬德傳)을 써서 한번 웃으며 그에게 주었다. 『번암집(樊巖集)』

31) 산연(潸然) : 눈물을 흘리는 모양.

32) 진시황(秦始皇) : 진(秦)의 초대 황제. 육국(六國)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하여 중앙 집권적 왕조를 건설하고 스스로 시황제(始皇帝)라 함. 함양(咸陽)으로 도읍을 옮기고 봉건제(封建制)를 폐지, 처음으로 군현제(郡縣制)를 실시하였으며, 화폐·도량형(度量衡)·문자·물품의 규격을 통일함. 이사(李斯)의 의견을 듣고 분서갱유(焚書坑儒)를 하고 장성(長城)을 쌓았음.

33) 한무제(漢武帝) : 한 경제(漢景帝)의 아들로 이름은 철(徹). 재위 54년 동안 유학(儒學)을 숭상하였으며, 군사를 일으켜 판도(版圖)를 크게 넓혔음.

34) 삼신산(三神山) : 신선이 살고 있다는 세 산. 봉래산(蓬萊山)·방장산(方丈山)·영주산(瀛洲山)으로 각각 금강산(金剛山)·지리산(智異山)·한라산(漢拏山)을 가리킴.

35) 영주산(瀛洲山) : 원래는 동해 가운데 있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의 하나. 여기서는 한라산을 가리킴.

36) 봉래산(蓬萊山) : 신선이 산다고 하는 신령한 산. 여름철의 금강산의 다른 이름.

37) 백록담(白鹿潭) : 이원진의 『탐라지』에 의하면 한라산의 명칭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악(釜岳)이라고도 하는데 물을 저장하는 그릇과 비슷하기 때문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커다란 분화구가 술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흰사슴(白鹿)이 이곳에 떼를 지어서 놀면서 물을 마셨다는 데서 백록담(白鹿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그리고 옛날 신선들이 백록주(白鹿酒)를 마시고 놀았다는 전설에서 백록담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만덕이 서울에 왔을 때 기생 홍도(紅桃)³⁸⁾가 다음과 같이 시를 주었다
 여의(女醫) 행수(行首)³⁹⁾ 탐라 기녀가
 만 리 물결에 바람 두려워하지 않았네.
 또 금강산 깊은 곳 향해 가니
 향기로운 이름 교방(敎坊)⁴⁰⁾에 남으리.
 『범곡기문(凡谷記聞)⁴¹⁾』

萬德

萬德者 姓金 耽羅良家女也 幼失母 無所歸依 托妓女爲生 稍長官府籍
 萬德名妓案 萬德雖屈首妓於役 其自待不以妓也 年二十餘 以其情泣訴
 於官 官矜之 除妓案 復歸之良 萬德雖家居乎 庸奴耽羅丈夫 不迎夫 其
 才長於殖貨 能時物之貴賤 以廢以居 至數十年 頗以積著名 聖上十九年
 乙卯 耽羅大饑 民相枕死 上命 般粟往哺 鯨海八百里 風檣來往如梭 猶
 有未及時者 於是 萬德捐千金 買米陸地諸郡縣 棹夫以時至 萬德取十之
 一 以活親族 其餘盡輸之官 浮黃者聞之 集官庭如雲 官劑其緩急 分與
 之有差 南若女 出而頌萬德之恩 咸以爲活我者萬德 賑訖 牧臣上其事于

38) 홍도(紅桃) : 홍도 최계옥(1778-1822)은 사서에 능하여 문인들과 어울린 재색을 겸비한 예인이다. 경주 부운 유한모가 추천하여 궁궐 상의원에 들어갔다. 그는 어려운 삶속에서도 경주의 악공과 후학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45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전부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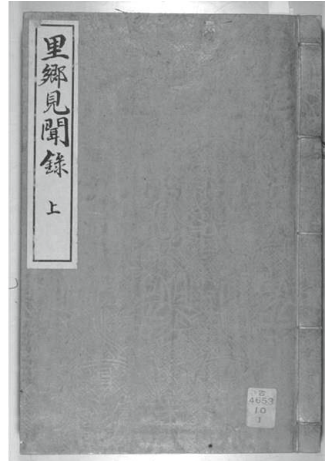
39) 여의행수(女醫行首) : 조선시대 여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두었던 혜민서(惠民署) 소속의 여자 의원 가운데 우두머리.

40) 교방(敎坊) : 기루(妓樓). 기생집.(吳昌齡, 「東坡夢」 眞箇是天香偏出衆 國色獨 超羣 可知道敎坊爲第一 花內牡丹尊)

41) 범곡기문(凡谷記聞) : 전해지지 않음.

朝上大奇之 回諭曰 萬德如有願 無問難與易 特施之 牧臣招萬德 以上諭諭之曰 若有何願 萬德對曰 無所願 願一入京都 瞻望聖人在處 仍入金剛山 觀萬二千峯 死無恨矣 盖耽羅女人之禁 不得越海而陸 國法也 牧臣又以其願上 上命如其願 官給舖馬 遞供饋 萬德一帆蹕雲海萬頃 以丙辰秋 入京師 一再見蔡相國 相國以其狀白 上命宣惠廳 月給糧 居數日 命爲內醫院醫女 俾居諸醫女班首 依例詣內閣門問 問安殿宮 各以女侍傳教 曰 爾以一女子 出義氣 救饑餓千百名 奇哉 賞賜甚厚 居半載用丁巳暮春 入金剛山 歷探萬瀑衆皆奇勝 遇金佛 輒頂禮 供養盡其誠 盖佛法不入耽羅國 萬德時年五十八 始見有梵宇佛像也 卒乃逾雁門嶺 由榆帖 下高城 泛舟三日浦 登通川之叢石亭 以盡天下瑰觀然後 還入京 留若干日 將歸故國 詣內院 告以歸 殿宮 皆賞賜如前 當是時 萬德名滿王城 公卿大夫士 無不願一見 萬德面 萬德臨行 辭蔡相國 哽咽曰 此生不可復瞻相公顏貌 仍潸然泣下 相國曰 秦皇漢武 皆稱 海外有三神山 世言 我國之漢拏 卽所謂瀛洲 金剛卽所謂蓬萊 若生長耽羅 登漢拏*白鹿潭水 今又踏盡金剛 三神之中其二 皆爲若所句攬 天下億兆之男子 有能是者否 今臨別 乃反有兒女子刺刺態 何也 於是 叙其事 爲萬德傳 笑而與之 『樊巖集』

萬德入京時 妓紅桃有詩曰 女醫行首耽羅妓 萬里層溟不畏風 又向金剛山裡去 香名留在教坊中 『凡谷記聞』



皆族黨所為父莫之禁亦與之越父非有謀可恕也
 今吾提署主服將以身代王卽以此服而出如免吾
 父也士人大感傷夜將半門外衆燈齊明出提攝入
 士人以女服校髮蒙而躍出疾走抵官門叩關邑倅
 得其面折多發校卒馳赴賊既殺女而知其謀未散
 而官捕已迫無得脫者報上司盡殺之獨女之父得
 免噫此女為其主遠其忠為其夫死其烈為其父盡
 其孝一舉而三綱具矣本邑立碑旌焉青陵師
 萬德
 萬德者姓金號羅良家女也幼失母無所歸依杜姓

女為空擗長官所籍萬德名姓案萬德雖居首妓於
 役其貞待不以妓也年二十餘以其情泣訴於官
 補之除妓案復歸之良萬德雖家居千盾奴耽耽文
 夫不恤失其才長於班貨能時物之貴賤以處以居
 至數十年類以積著名 聖上十九年己卯耽羅大
 饑民相枕死 上命船粟往哺賑海八百里晏檣來
 往如故獨有未及時者於是萬德捐千金買米陸地
 諸郡賑貸夫以時至萬德取十之一以活親族其餘
 盡輸之官俾買者聞之集官庭如雲官制其饒急分
 與之有差男若女出而頌萬德之恩咸以為治我者

萬德雖託收臣上其事于朝 上大奇之因諭曰萬
 德如有願無問難與易將施之朕臣招萬德以 上
 諭之曰若有何願萬德對曰無所願一入京都
 瞻望 聖人在處仍入金明山觀萬二千峯死無恨
 矣蓋恥羅女之登不得越海而達國法也收臣又
 以其願上 上命如其願官給鋪馬遞供饋萬德一
 帆蹄實海萬頃以丙辰秋入京師一再見恭相國相
 國以其狀白 上命宣惠廳月給糧居數日命為內
 醫院醫女俾居諸醫女班首依例詣內閣問安
 殿宮各以女侍待故曰甬以一女子出義氣壯飢餓

【지은이】

유재건(劉在建). 1793(정조 17)~1880년(고종 17). 조선 말기의 학자로 본관은 강릉(江陵)이며, 자는 덕초(德初)이고, 호는 겸산(兼山)이다.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 창(敞)의 후손이었으나 중세에 가세가 몰락하여 서리(胥吏) 계급으로 떨어졌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시문에 능하고 특히

千百名奇哉賞賜甚厚居半載用丁巳暮春入金剛
山居探萬瀑泉寺奇勝遇金佛額頂禮供養盡其誠
蓋佛法不入耽羅國萬德時年五十八始見有梵宇
佛像也卒乃逾鴈門嶺由榆岾下高城延舟三日浦
登通川之蒙石亭以盡天下觀觀然後還入京留若
干日將歸故國詣內院告以歸殿官皆賞賜如前
嘗是時萬德名滿王城公卿大夫士無不顧一見
萬德而萬德臨外舞臺相國更咽曰此生不可復曉相
公顏貌仍潛然泣下相國曰秦皇漢武皆稱海外有
三神山世言我國之漢寧即所謂瀛洲金剛即所謂

蓬萊若生長耽羅登漢寧鮮白麻潭水今又端坐金
剛三神之中其二皆為若所已獲天下億兆之男子
有能是者否今臨別乃反有兒女子刺之態何也於
是叙其事為萬德傳笑而與之別
萬德入京時妓紅排有詩曰女醫針背耽羅妓萬里
層樓不畏風又向金剛山裡去音名留在教坊中
附記

蓬紅

蓬紅初名雲娘嘉山妓也嘉慶辛未冬清北土寇洪
景來稱兵犯嘉山郡守鄭公著被執不屈死之守之

유재건(劉在建)「만덕(萬德)」『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

전서(篆書)·해서(楷書)에 뛰어났다. 오랫동안 서리로 규장각에 봉직하면서
『열성어제(列聖御製)』를 편찬하는 데 힘썼으므로 나라에서는 특별히 은
전을 베풀어 그에게 상호군(上護軍)의 관직을 내렸다. 또한 당나라 이후의
근체시 가운데 해와 달, 꽃과 새 등의 소재로 지은 명시를 가려 『고금영
물근체(古今詠物近體)』라는 이름으로 펴내었는데, 7,000수가 넘는 방대
한 양의 시를 수록하였다. 이 책에서는 조선시대 시인 613명 중 370명을
위향시인에서 선정하여 위향문학의 융성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법어(法語)』, 『풍요삼선(風謠三選)』, 『겸산필기(兼山筆記)』,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 등의 편저가 있다.

【해제】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은 유재건(劉在建)이 펴낸 조선조의 중인·서
리 등의 하층계급 출신으로 각 방면에서 뛰어난 308명의 인물들의 행적

을 모은 전기집(傳記集)이다. 총 10권 3책으로 나누어지는데 1권은 학생(學行), 2권은 충효(忠孝), 3권은 지모(智謀), 4권은 열녀(烈女), 5권부터 7권까지는 문학(文學), 8권은 서화(書畵), 9권은 의학(醫學)과 잡예(雜藝), 10권은 승려(僧侶)와 도류(道流)의 순서로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인물 중 전대인의 전기에 전이 실린 것은 채택하여 편집하고, 전이 없는 인물은 스스로 전을 지어 실었으므로 인용된 책이 52종에 달한다.

이 중 만덕 이야기는 4권의 열녀편에 스물여덟 번째로 수록되었는데, 『번암집(樊巖集)』에서 재수록한 채제공의 「만덕전」과 『범곡 기문(凡谷記聞)』에서 인용한 기생 홍도(紅桃)가 만덕에 써 준 칠언 절구의 한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채제공의 「만덕전」의 경우 두 군데에서 글자의 차이가 나타난다. 즉, ‘만폭동·중향성의 기이한 경치를 다 구경하였다(歷探萬瀑衆香奇勝)’와 ‘마침내 안문령을 넘어서(卒乃踰雁門嶺)’가 『이향견문록』에서는 각각 ‘歷探萬瀑衆皆奇勝’과 ‘卒乃逾雁門嶺’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만덕전」의 맨 끝부분 ‘이때는 우리 임금 21년 정사년 하지였다. 번암 채상국의 나이가 일흔 여덟에 이 글을 충간의담헌에서 쓰다. (聖上二十一年丁巳夏至日 樊巖蔡相國七十八 書于忠肝義膽軒)’ 부분도 『이향견문록』에서는 빠져있다.

이원조(李源祚) 「의기만덕(義妓萬德)」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권2

의기 만덕(義妓萬德)

의기 만덕은 양가(良家)¹⁾의 딸로서 기적(妓籍)²⁾에 올랐는데, 생신(生身)³⁾을 잘 다스려 수천 금을 이루었다. 갑인년(甲寅年)⁴⁾에 크게 흉년이 들매 재산을 내어놓아 굶주리는 사람들을 진휼하였다. 정조임금께서 들으시고 가상히 여겨 목사에게 소원을 묻도록 하였는데, 소원이 왕도(王都)⁵⁾와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식량과 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가 하면, 서울로 도착하자 내의녀(內醫女)⁶⁾로 삼아 차비문(差備門)⁷⁾밖에서 친히 보시고 상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역말을 타고 아침저녁으로 날라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금강산을 유람하고 도로 서울에 이르렀다가 본토(本土)⁸⁾로 돌아 왔다. 상국(相國)⁹⁾ 채제공(蔡濟恭)이 그녀의 전기를 지어

1) 양가(良家) : 문벌이 좋은 집안. 세가(世家).

2) 기적(妓籍) : 기녀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대장. 『(宋史)』 407 「楊簡傳」 移文首罷妓籍 尊敬賢士)

3) 생신(生身) : 자신의 몸. 『(列子)』 「楊朱」 雖全生身 不可有其身)

4) 갑인년(甲寅年) : 1794년(정조 18).

5) 왕도(王都) : 왕궁(王宮)이 있는 도성.

6) 내의녀(內醫女) : 내의원(內醫院)에 소속되어 있는 의녀(醫女). 『(朝鮮宣祖實錄)』 33년 6월 辛丑條, 以備忘記 傳于政院曰 側聞內醫女愛鍾 乃淫娼之甚者 本不可近於內殿之側)

7) 차비문(差備門) : 임금이 거처하는 편전(便殿)의 앞문을 이르는 말. 『(朝鮮世祖實錄)』 36 11년 8월 庚子條, 既而政府政院堂上 就差備門外啓 震知張米豆 潛授僕夫臣等未及知之 稽緩啓達 請待罪)

8) 본토(本土) : 태어나 자란 곳. 여기서는 제주인 ‘탐라’를 말함.

9) 상국(相國) : 영의정 및 좌·우의정의 총칭. 여기서는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을 가리킴.

제주로 보내주었다.

義妓萬德

義妓萬德 以良家女 托名妓籍 善治生身 致累千金 當甲寅大歉 盡散其財 賑飢民 正廟聞而嘉之 命守臣 問所願 願一見王都及 金剛山 命給馬 上送入京 卽付內醫女 招見差備門外 賞賜甚厚 乘駟傳食往 遊金剛 還到京歸本土 蔡相國濟恭作傳 以遺之

【지은이】

이원조(李源祚). 1792(정조 16)~1872년(고종 8).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로, 본관은 성산(星山)이고, 초명은 영조(永祚)이며, 자는 주현(周賢), 호는 취송(鷺松)·나고(懶高)·호우(毫宇)·응와(凝窩)·만귀산인(晩歸山人) 등이다.

1792년(정조 16) 2월 경상북도 성주(星州) 대포리(大浦里)에서 성균관 진사 형진(亨鎭)과 함양 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5세에 두 살 연상인 풍양 조씨(豐壤趙氏)와 혼인하였다.

1809년(순조 9)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837년(헌종 3) 정언으로서 기강이 문란하여져 사족(士族)들의 사치가 극도로 달하여 민중들의 간고함이 형언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쇄신책을 실시할 것을 간하였다. 그 후 1850년(철종 1) 경상도의 경주부윤에 오르고, 1854년 대사간에 이어 공조판서를 지냈다.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의 문하생이다.

1841년(헌종 7년) 정월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신축년 가을에 흥년으로

其夫死竭力營葬始役之時使穿兩穴托其子女於穴先自縊死同穴洪名史州吏金昌旭妻其
 自縊有真良人金昌白妻年二十一孀居其母憐之梁氏夫病
 先死願以身代夫死之朴台史州吏孫處權妻夫得暴疾
 祝天願以身代夫死之朴台史州吏孫處權妻夫得暴疾
 日杜門絕粒其夫同穴朴台史州吏孫處權妻夫得暴疾
 金氏夫死之日托子於朴氏孝
 朴氏之婢戚其主苦節終身
 事主正廟甲寅命旌孝烈三回義妓萬德以良家女托
 生身致累千金當甲寅大欽盡散其財賑飢民正廟聞而嘉
 之命守臣問所願之一見王都及金剛山命給馬士送入京耶
 村內醫女招見差備門外賞賜甚厚乘驛傳食往遊
 金剛還到京歸本土蔡相國濟恭作傳以遺之

科宦

이원조(李源祚)『탐라지초본』 권2 「의기만덕(義妓萬德)」

제주에 기근이 들자 호남의 연읍(沿邑)의 창고 쌀 2,500섬을 요청하여 실어온 뒤 굶주리는 제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재임 기간 동안 우도와 가파도에 들어가 밭으로 갈아먹도록 허가를 내려 주면서 세금을 사복시(司僕寺)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정동계(鄭桐溪) 적려유허비(謫廬遺墟碑)’를 세우고 향현사(鄉賢祠)를 굴림서원 곁에 세워 고득중(高得宗)을 제사하도록 하였다.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을 편찬하였다.

【해제】

『탐라지초본』은 이원조가 제주목사로 있을 때 편찬한 책으로 모두 4권으로 되어 있다. 권1에는 건치연혁(建置沿革)·읍호고증(邑號攷證)·산천·도서(島嶼)·물산·토속·관직·씨족·방리(坊里)·호구(戶口)·도로·교량·성지(城池)·단묘(壇廟)·학교, 권2에는 공해(公廨)·누관(樓觀)·진보(鎭堡)·봉수(烽燧)·목양(牧養)·과원(果園)·공헌(貢獻)·전결(田結)·대동(大同)·봉름(俸廩)·요역(徭役)·조적(糶糴)·창고·군액(軍額)·노비·공장(工匠)·인물·과환(科宦)·형승·제영(題詠)·고적(古蹟), 권3에는 제주로 기문(奇聞)·변정(邊情)·전수(戰守)·이선(異船)·표류(漂流)·구례(舊禮)·은휙(恩恤)·조진(調賑)·견탕(蠲蕩)·은전(恩典)·관안(官案)·판관(判官), 권4에는 정의(旌義)와 대정(大靜)으로 나누어서 각기 건치연혁·산천·도서·물산·토속·씨족·방리·호구·도로·교량·성지·단묘·학교·공해·누관·진보·봉수·목양·과원·공헌·전결·대동·봉름·요역·조적·창고·군액·노비·인물·과환·형승·고적·관안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 중 만덕에 대한 기록은 권2 인물편에 기록되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만덕의 행적이다.

미상 「의기만덕(義妓萬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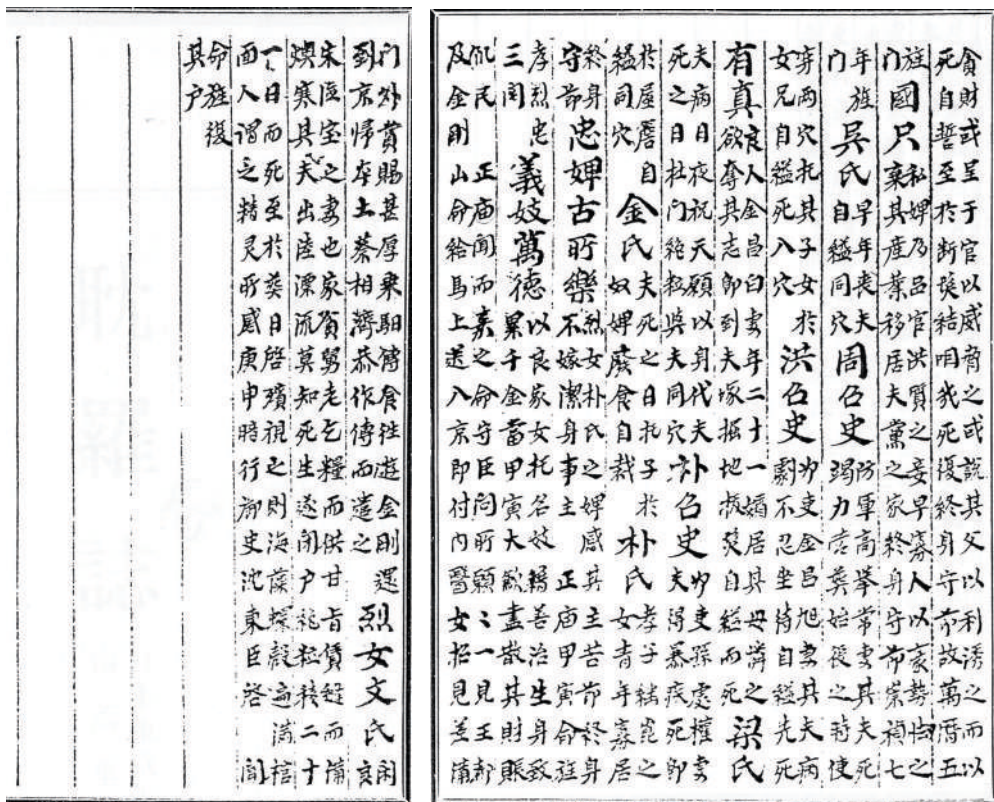
『탐라지(耽羅誌)』(日本東京大學所藏本) 권1

의기 만덕(義妓萬德)

의기 만덕은 양가(良家)의 딸로서 기적(妓籍)에 올랐는데, 생신(生身)을 잘 다스려 수천 금을 이루었다. 갑인년(甲寅年)에 크게 흉년이 들매 재산을 내어놓아 굶주리는 사람들을 진휼하였다. 정조 임금께서 들으시고 가상히 여겨, 목사에게 소원을 묻도록 하였는데, 소원이 왕도(王都)와 금강산을 한번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식량과 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가 하면, 서울에 도착하자 내의녀(內醫女)로 삼아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친히 보시고 상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역말을 타고 아침저녁으로 날라주는 음식을 먹으며 금강산을 유람하고 서울에 이르렀다가 본토(本土)로 돌아왔다. 상국(相國) 채제공(蔡濟恭)이 그녀의 전기를 지어 제주로 보내주었다.

義妓萬德

義妓萬德 以良家女 托名妓籍 善治生身 致累千金 當甲寅大歉 盡散其財 賑飢民 正廟聞而嘉之 命守臣 問所願 願一見王都及 金剛山 命給馬上送入京 卽付內醫女 招見差備門外 賞賜甚厚 乘駟傳食往 遊金剛 還到京歸本土 蔡相濟恭作傳 而遣之



『탐라지』(日本東京大學所藏本) 권1 「의기만덕(義妓萬德)」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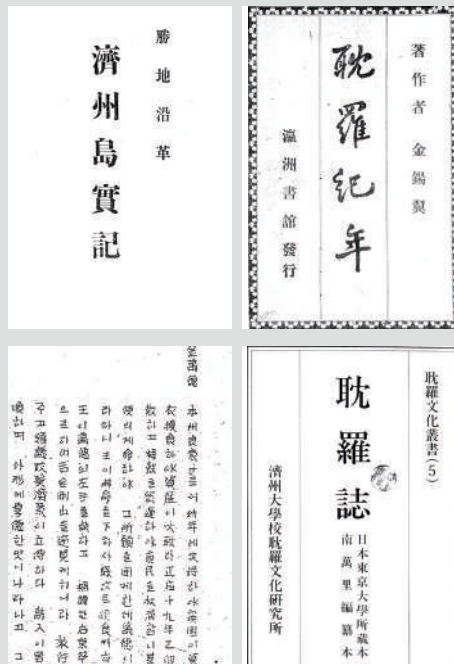
지은이 미상의 일본동경대학 소장본의 『탐라지』는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록조(先生錄條)에 이의식(李宜植) 목사까지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체임(遞任) 시기인 1848년(헌종 14) 3월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권1에는 제주로 건치연혁(建置沿革)·진관(鎭管)·관원(官員)·읍명(邑名)·읍호고증(邑號攷證)·성씨(姓氏)·풍속·형승(形勝)·산천·도서(島嶼)·교량(橋梁)·토산·전결(田結)·대동(大同)·봉림(奉廩)·요역(徭役)·성곽·방리(坊里)·호구(戶口)·도로·방호소(防護所)·수전소(水戰所)·봉수(烽燧)

· 궁실(宮室) · 공해(公*) · 누정(樓亭) · 창고(倉庫) · 조적(糶糴) · 학교 · 단묘(壇廟) · 불우(佛宇) · 장관(將官) · 군병 · 공장(工匠) · 노비 · 과원(果園) · 목양(牧養) · 의약(醫藥) · 공헌(貢獻) · 고적(古蹟) · 선생록(先生錄) · 과환(科宦) · 인물, 권 2에는 제영(題詠) · 기문(奇聞) · 이견(異見) · 변정(邊情) · 구례(舊禮) · 은휙(恩恤)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만덕 이야기는 권1의 인물편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탐라지초본』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끝부분의 두어 자만 다르다(蔡相國濟恭作傳以遣之, 蔡相濟恭作傳 而遣之).

제3부

제주도 근대 김만덕 관련 자료



김석익(金錫翼) 「행수 김만덕(行首金萬德)」

『탐라기년(耽羅紀年)』 권3

행수 김만덕

행수(行首)¹⁾ 김만덕은 본주(本州)²⁾ 양가(良家)의 딸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독하게 가난과 고생으로 자랐는데 살결이 곱고 아름다우므로 교방(敎坊)³⁾에 의탁한 바 있었는데 근검하여 큰 재산을 이루었다. 이 해 봄에 도내에 큰 기근이 일매, 만덕은 재산을 내놓아 곡식을 운반하여다가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다. 목사는 이어진 일을 아뢰니, 왕은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었다. 대답하여 가로되, “번화한 서울과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할 따름입니다.” 하므로 특명으로 고을과 고을을 이어가며 돌보게 하고 내의녀(內醫女)⁴⁾ 삼아 편전(便殿)⁵⁾에 불러 은총을 베풀었고, 포마(鋪馬)⁶⁾를 주어 금강산을 편람(遍覽)⁷⁾하게 하고, 또 그가 돌아올

1) 행수(行首): 동급의 품계나 신분을 가진 여러 사람중에서의 우두머리. 『(朝鮮太 祖實錄 3』 2년 3월 丙辰條, 憲司上言 殿下曾下敎 奴婢爭訟 一皆永斷 刑曹都官不 體上意 巧飾啓聞 欲起爭訟之端 請將知曹事張演議郎張羽 正郎趙謙佐郎尹莘等 皆 罷職不敘 敎罷行首張演掌務尹莘老職)

2) 본주(本州): 그 고을. 해당 고을. 여기서는 제주목(濟州牧)을 가리킴.

3) 교방(敎坊): 기루(妓樓). 기생집. (吳昌齡, 「東坡夢」 眞箇是天香偏出衆 國色獨超羣 可知道敎坊爲第一 花內牡丹尊)

4) 내의녀(內醫女): 내의원(內醫院)에 소속되어 있는 의녀(醫女). 『(朝鮮宣祖實錄』 33년 6월 辛丑條, 以備忘記 傳于政院曰 側聞內醫女愛鍾 乃淫娼之甚者 本不可近於內殿之側)

5) 편전(便殿): 임금이 평상시에 휴식하는 별전(別殿).

6) 포마(鋪馬): 포마(鋪馬). 역참에 준비되어 있는 말. 역마(驛馬).

7) 편람(遍覽): 두루 유람함. (王羣, 「甲申雜記」 御筆親制置一圖 出元豐尙書省是也 既成親幸便覽 悉如初旨)

때는 경대부(卿大夫)⁸⁾들 모두가 신장(驢章)⁹⁾을 지어 행차를 빛내어 주었다. 만덕은 칠순이나 용모가 보살을 방불케 하였으며, 눈은 겹눈동자¹⁰⁾로 환히 맑았다.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만덕을 위하여 전기를 썼다.

行首金萬德 本州良家女也 幼而失恃 零丁貧苦長 而靡蔓托跡 教坊 縮衣損食 貲產致大 是年春 島內大飢 萬德傾財 運穀濟活 甚衆 牧使賢之以聞 王問何欲 對曰 願見京華金剛之勝而已 特 命縣次續食充 內醫女寵頒便蕃 因給鋪馬 遍覽金剛山 及其還朝之 卿大夫皆驢章侈行 七旬顏髮 彷彿仙釋 重瞳瑩澈 蔡相濟 恭 爲之立傳

【지은이】

김석익(金錫翼). 1885(고종 22)~1956년. 일제강점기의 한학자이며 향토사학자로, 본관은 광산이며, 초명은 석조(錫祚), 자는 윤경(允敬), 호는 심재(心齋)·일소도인(一笑道人)·해상질사(海上佚史)이다.

제주시 이도동 동광양에서 태어났으며, 의병 참모 김석운(金錫允)의 아우이다. 이용호(李容鎬)와 안병택(安秉宅)에 수학하였고, 경사에 능통하였다. 1918년 『탐라기년』을 간행하였다.

8) 경대부(卿大夫):경과대부,고급관리를 이름. 『(史記)』「汲鄭傳」至黜七世世爲卿大夫
 9) 신장(驢章): 전송하는 글.
 10) 겹눈동자: 중동(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 또는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 순(舜)임금이나항우(項羽)는 눈동자가둘이었다고함. 『(史記)』「項羽本紀論」 吾聞之周生曰舜目蓋重瞳子 又聞項羽亦重瞳子)



김석익의 『탐라기년』 행수 김만덕(行首金萬德)」

【해제】

『탐라기년(耽羅紀年)』은 1918년 김석익(金錫翼)이 편찬한 4권의 책으로 고려 936년(태조 21)부터 1906년(광무 10)까지의 사실을 편년체로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의 앞머리에는 외서(外書)로서 제사서(諸史書)를 참고하여 수록하고 있다. 권1은 탐라의 성주왕자(高麗縣令·副使·牧使·萬戶·元招討使·達魯花赤·按撫使), 권2는 제주의 성주왕자(左右都知官·만호안무사·절제사·목사·판관)·정의(현감)·대정(현감), 권3에는 제주(목사·판관)·정의(현감)·대정(현감), 권4에는 제주(목사·판관·觀察使參事官·목사·군수)·정의(현감·군수)·대정(현감·군수)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만덕 이야기는 권3의 후반부에 수록되었는데, 일반적인 만덕의 행적을 기술하였다.

김두봉(金斗奉)「女子中 特異한 人物」

『제주도실기(濟州島實記)』

여자 중 특이한 인물

자선심(慈善心)¹⁾이 풍부하고 빈민(貧民)을 많이 구제한 행수(行首) 내의녀(內醫女) 김만덕(金萬德) 사실(事實)

김만덕의 본관은 김해이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고생하고 자랐으나 장성한 뒤에 더욱 의탁할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몸을 교방(敎坊)에 의지하고 생활하였다. 그러나 근검 절약으로 재산을 점점 늘렸다. 제주에는 연이어 갑인년(甲寅年)²⁾ 같은 흉년이 들어 개국 404년 정조 19년(1795) 봄에는 제주도민이 모두 굶주려 죽게 되었다. 이때에 김만덕은 큰술 돌을 걸어놓고 콩죽을 쑤어 한 사람에게 한 그릇씩 나누어 주며 많은 재물을 풀어서 사방의 곡식을 사들여 정월부터 4월까지 한결같이 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제하였다. 그 때문에 섬 안은 큰 기근을 면하고 살았으므로 당시 목사와 대중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이 사실을 나라에 주달(奏達)³⁾하자 성상(聖上)⁴⁾께서 들으시고 아름답게 여겨 목사로 하여금 그의 소원을 묻게 하였더니, “첩은 여자라 별 소원이 없고 성상이 계신 서울과 조선의 명승지인 금강산 구경이 소원입니다.”하였다. 목사가 이 대답을 주달하니 특명을 내려 각현(各縣)으로 하여금 그

1) 자선심(慈善心) : 인자하고 선량한 마음.

2) 갑인년(甲寅年) : 1794년(정조 18).

3) 주달(奏達) : 임금께 아뢰.

4) 성상(聖上) : 임금에 대한 높임말.

를 접대하게 하고 서울에 도착한 뒤에 내의녀(內醫女)에 임명하였다.

임금께서 친히 만덕의 왼손을 잡으시고 칭찬하기를 네가 백성을 많이 구황(救荒)⁵⁾하였다 하니 참으로 자선(慈善)한 사람이라 하고 서울을 구경 시킨 뒤 역말을 주어 도백(道伯)⁶⁾으로 하여금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을 낚 낚이 구경시켰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향대부(鄉大夫)⁷⁾들이 별장(別章)⁸⁾을 지어주고 영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전기를 지었다.

이러한 출신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 이는 옛날의 어진 부인들 중에도 보지 못한 일이었다.

사람됨은 몸이 비대하고 키가 크며 말씨가 유순하고 후덕한 분위기가 나타났고 눈은 겹눈동자⁹⁾였다. 칠순이 되도록 성상(聖上)이 잡으셨던 왼손목을 비단으로 감싸서 살빛을 감추었고 흰머리와 얼굴빛은 희어서 부 처라 불렀다.

5) 구황(救荒) : 기근 때 빈민을 구제함.

6) 도백(道伯) : 관찰사의 다른 이름. 도주(道主).

7) 향대부(鄉大夫) : 주대(周代)에 왕기(王畿)의 여섯 향(鄉) 중 한 향(鄉)의 정교(政敎)와 금령(禁令)을 맡아보던 경(卿)을 이르는말.『(周禮)』「地官,序官」鄉大夫 每鄉卿一人)

8) 별장(別章) : 이별을 읊은 시문.

9) 겹눈동자 : 중동(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 또는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 순(舜)임금이나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 함.『(史記)』「項羽本紀論」吾聞之周生曰舜目蓋重瞳子 又聞項羽亦重瞳子)

탐라로 돌아가는 만덕을 송별하다

금대 이가환

만덕은 뛰어난 제주 여인
예순 나이 마흔쯤으로 보이네.
귀한 돈 내어 쌀 사서 백성을 구제하고
한 번 바다를 건너 궁궐에 조회하였네.
오직 소원은 금강산 유람
산은 동북쪽 연무에 싸여있네.
임금께서 빠른 역마 내리시니
천 리 넘어 빛 광채 관동(關東)에 진동했네.
높이 올라 굽어보며 마음 눈 크게 열고
표현히 손을 저으며 바다로 돌아가네.
탐라는 고부량(高夫良)¹⁰⁾ 삼성(三聖)이래
제주 여인으로 처음 서울 구경했네.
우레 같이 왔다 고니처럼 날아가니
높은 기풍 오래 머물러 세상을 맑게 하리.
인생살이 이처럼 이름을 드날리니
옛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어찌 부러워하리.

10) 고부량(高夫良) : 제주민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삼을나(三乙那). 즉, 고을나(高乙那)·
부을나(夫乙那)·양을나(良乙那).

女子中 特異한 人物

慈善心이 豊富하고 貧民을 만히 救生한 行首 內醫女 金萬德 事實

金萬德의 本은 金海라. 幼時에 父母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업시, 苦生하고 자랐스나, 長成한 後, 더욱 의탁할 곳이 업섯다. 할 수 업시, 몸을 敎坊에 의지하고, 生活을 經營하나, 그러나, 勤儉과 節約을 爲主하여, 資產이 漸漸 致大하더니, 이리구러, 濟州島는 연하여, 甲寅年 갖흔 凶年이 드러, 開國 四百四年 正廟朝 十九年 乙卯 봄에는, 濟州島 貧民이, 모다 飢死地境을 당하였다. 세에 金萬德은, 大鼎二座를 거리노코 콩죽을 쑤어서, 每一人에게 하로 한 그릇식 주며, 만흔 財物을 풀어서, 四方 穀食을 貿來하며, 正月부터 四月까지, 한갈갓치 數萬 生命을 救濟하였다. 그로 因하여, 島內가 大飢를 면하고 살엇스니 當時 牧使와 大衆은 稱誦이 藉藉하였다. 牧使 李禹鉉은 이 事實을 나라에 奏達하였더니, 聖上이 들으시고 아름다히 역이사 牧使로 하여곰 그 所願을 못게 하신대, 萬德이 엇자오데 「妾은 女子라, 別所願이 업고, 聖上 계옵신 京華와 朝鮮에 名勝地 되는 金剛山 求景이 所願으로소이다」 하였다. 牧使는 그 對答을 奏達하니, 상이 特令을 나리사, 各縣次로 持對케 하시고, 京城에 이른 후에 內醫女에 充하시다.

상이 친히 萬德의 左手를 잡으시고, 못내 칭찬하시되, 네가 百姓을 만히 구활하였다 하니, 참 慈善한 사람이라 하시고, 京華를 求景식하신 후, 인하여 舖馬를 주사, 道伯으로 하여곰, 金剛山 一萬二千峰을 낫낫치 求景식하시니라. 旅行을 맞치고 도라오게 됴에, 鄉大夫들이 別章을 지어주고, 領議政 蔡濟恭이 傳을 세웠다. 이러한 出身으로 이러한 事業은 古賢

媛中에도, 보지 못하든 特異한 일이다.

爲人은 몸이 부대하고 키가 크며 言語가 柔順하였고, 外形에 厚德한
빛이 나타나며, 눈은 重瞳이었다. 老年七旬까지, 聖上이 잡으시든 左手
는 綢緞으로 감어서, 살빛을 감추었고, 白髮과 額光은 瑩澈하야, 釋佛이
라 稱하였다.

送萬德還耽羅 錦帶李家煥

萬德瀛州之奇女 六十顏如四十許 千金糴米救黔首 一航浮海朝紫禦
但願一見金剛山 山在東北烟霧間 至尊頷肯賜飛驛 千里光輝動江關 登
高望遠壯心目 飄然揮手還海曲 耽羅遠自高夫良 女子今始觀上國 來如
雷喧遊鵠舉 長留古風灑寰宇 人生立名有如此 女懷清臺安足數

【지은이】

김두봉(金斗奉). 1887년(고종 24)~? 일제강점기의 향토사가로 호는 신천
(信天)이다. 제주시 일도리에 거주하였다. 성내교회 신자로서 1925년 12월
신재홍(申才弘)·고창현(高昌炫)·김대봉(金大奉) 등과 함께 제주기독교청년회
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한문에도 조예가 깊어 영주음사(瀛州吟社) 회원
으로 한시를 잘 지었고, 제주 향토에 관한 한문 문적 발굴에 힘썼다. 1932
년 『제주도실기(濟州島實記)』를 지어 제주 향토사 발전에 기여하였다.

濟州島實記

女子中特異人物

國只

國只宅村人이나品官洪實의妻이라 早寡獨居하니 人이나食財檢色하여 豪勢로 初코지하기로 國只宅의家로移去하여 終是守節하니라。仁祖甲戌에 事聞旌閣하와

文氏

文氏의本은南平이요 宋德實의妻라 夫出海하엿다가 漂沒하야오지안는지라、文氏痛哭하고 사를을 葬하야 金美士언고 海魚鹽味等을 不食하며 一年을지나後에 門을닫고 나지아니한지 十四日 만에 죽은지라。出殯하엿더니 棺面에 海藻와 螺殼等이 遍生하엿거늘 사람이 덕을 異當하엿으니라 나마에서들으시고 烈女旌門을세우게하니 只今에도 旌門이 著名하단다。

高氏

高氏는康士諱의妻라 夫고기남기위하야바다에갓다가 漂沒하야오지아니하니라。高氏數日痛哭하며 부르지지다가늘아오지아니함에 죽은줄알고 自己의衣服을내어 갖추아엿고、 露葬하엿고 下에 가서 淨水하고 죽을때에 죽으니 忽然 夫屍가 岩樹下에 올은지라、 世人이 그 烈에 못기여 呼喚하거의 엿고 古代支那사 諸傳說에 비하더니 後日에 官이 高氏를위하야 節婦岩이라稱하고 隣里사람에게 그 烈을追慕하며 一年一次式祭香케하니 至今에도 祭香하야 그 烈을追慕하거니라

女子中特異人物

慈善心이 豐富하고 貧民을 救助한 行首內醫女金萬德事實

金萬德의本은金海라。幼時에父母를 잃고, 의지할곳이 없시, 苦生하고자 못스나, 長成後, 母의 遺言을 잊지 않었다. 飢寒을 忍忍, 衣食을 救拔에 의지하고, 生活를 經營하니, 그리나, 勤儉과 節約을 爲主하야, 賁産이 漸々致大하더니, 이력구려, 濟州島는 年하야, 甲寅年 己未 凶年이 드려, 閭閻四百四年 正廟 十九年 乙卯 凶년에는, 濟州島實民이, 모다 飢死 地境을 달하엿다. 卽에 金萬德은, 大廟二座를 거리노고, 公倉을 두어서, 每一人에 개개히 粟을 그릇씩 주며, 飢民의 財物을 出하여, 四方 穀食을 買來하야, 正月부터 四月까지, 한갓가지 數萬生命을 救濟하엿다. 그로 인하야, 島內가 大飢를 면하고 생겼스니 當時敎使와 大衆을 稱頌이 藉々하엿다. 敎使李萬鎭은 이事實을 나마에 奏達하엿더니 聖上이 들으시고 卽에 下히엿사 敎使로 하야 公 所願을 副케 하신대, 萬德이 엿자오래 妻은 女子라, 別所願이 업고, 聖上께 肅進京華와 朝鮮에 召歸되니 金剛山 來景이 所願으로 소이디다 하엿다. 敎使는 그 對答을 奏達하니, 聖이 特俞을 내디사, 各縣 次로 持對케 하시고, 京城에 이든후에 內醫女에 充하시디다.

聖이 친히 萬德의 左手를 받으시고, 勸進 慈心하사시며, 卽에 自任을 맡히구 稱하엿다 하니, 慈善한 사람이라 하시고, 京華를 求索하히 전후, 任하야 舖馬를 주사, 道伯으로 하야 公, 金剛山一萬二千峰을 나사 치求景하히시니라. 旅行을 하엿치고 도마오게 되니, 鄭大夫들이 別章을 지어 주고, 領議政 蔣濟基이 稱을 세웠다. 이리 출出身으로 이리한 事業을 古賢媛中에도, 모지 못하 特異한 일이다.

爲人은 溫이 무대하고 기고며 言語가 柔順하엿고, 外形에 厚德한 빛이 나라니, 眞은 重疊이 엿다. 老年七旬까지 聖上이 작으시든 左手는 細緻으로 감아서, 掌明을 주시엿고, 白髮과 額光을 疊疊하야 釋佛이라 稱하엿다.

女子中特異人物

八九

主 題

九〇

送萬德還耽羅

錦帶 李家 煥

萬德歸國之奇女

但願一見金剛山

至尊領首賜靈輝

六十顏如四十許

一航浮海制繁縟

千里光輝動江關

登萬德還壯心日

耽羅還自高夫良

來如常喧遊鶴舉

飄然揮手還海曲

女子今始觀上國

長留高風濯寰宇

女子今始觀上國

長留高風濯寰宇

女懷清嘉安足數

洪義女墓文

洪義女鄭氏處貞女 正宗丁酉余以罪置耽羅 義女時 出入余祠 辛丑壬子 欲携余 以義女作 何殺機 隨哭 血肉狼籍 義女曰公之生在我一死 既不服又難逃而殉 潤五之十五日也 後三十二年 余蒙 恩以防禦來 鎮 茲方象設祭道系 以詩曰

埋玉埋香幾幾年 誰將閨怨訴蒼天 黃泉路遠歸何賴 碧血腥深死亦緣 千古芳名衝社稷 一門高節弟兄賢 烏頭雙關今難作 青草應生馬廐前

濟州牧使兼金羅道防禦使趙貞詰書

高麗宣宗二十三年冬 土服良守等 作亂하야 守宰을 逐하엿거늘, 王이 崔陟卿으로 耽羅令을 拜하야 보내엿드니, 賊徒가 良守及그黨五人을 斬하야 自來降服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第二十八章 土 擾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金土服領石 頑守等이, 作亂하니 按撫使張允文, 李唐績이 頑石等을 斬하니 亂이 平하단다.

【해제】

이 책은 김두봉이 1932년에 간행한 책으로 총 32장의 ‘제주도실기(濟州島實記)’와 6장의 ‘탐라지보유(耽羅誌補遺)’로 되어 있다. 먼저 제주도실기는 제1장 건치연혁(建置沿革), 제2장 지리하천, 제3장 기상(氣象), 제4장 교통 및 통신, 제5장 성내연혁(城內沿革), 제6장 종교연혁, 제7장 교육상황, 제8장 농산(農産)의 유래와 발전된 종류, 제9장 농사를 권장하는春耕(春耕)굿 풍속, 제10장 축산의 발전, 제11장 삼림(森林)과 조림(造林)의 흥미, 제12장 무진장의 보고 제주도 해안, 제13장 고래(古來)의 유풍(遺風), 제14장 김녕당 전설, 제15장 풍속적 연등신(燃燈神), 제16장 한라산기역(漢拏山記譯), 제17장 영주십경가, 제18장 용연야범가(龍淵夜帆歌), 제19장 농부가, 제20장 부두에서 본 감상, 제21장 약수폭포(藥水瀑布), 제22장 한라산 별곡, 제23장 선시(鮮詩), 제24장 조어가(釣魚歌), 제25장 고대인물, 제26장 효자, 제27장 열녀, 제28장 토요(土擾), 제29장 부록, 제30장 성주왕자전(星主王子傳), 제31장 이조의 문치(文治), 제32장 총론 등으로 되어 있다. 탐라지보유는 제1장 윤음(綸音), 제2장 기문(記文), 제3장 상량문, 제4장 한시, 제5장 과학(科宦), 제6장 선생안(先生案)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만덕 이야기는 제주도실기의 제27장 열녀편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만덕의 행적을 기록한 전반부와 이가환의 송별시인 후반부로 되어 있다.

담수계(淡水契) 「김만덕(金萬德)」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김만덕

본주(本州)의 양가집 딸로서 어린 나이에 의지할 데를 잃어 빈곤이 막심하더니 자라서 교방(敎坊)에 적(籍)¹⁾을 의탁하여 옷을 줄이고 음식을 덜어 재산이 커지게 되었다. 정조19년 봄 섬안에 크게 기근이 들었는데 만덕이 가산을 전부 내놓아 양곡을 사서 운반하여 빈민을 구제한 것이 매우 많았다.

목사가 기특히 여겨 아뢰니, 왕이 목사에게 명하여 그 소원을 아뢰게 하였다. 만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서울과 금강산을 구경함이 소원입니다.” 하니 왕이 특명을 내려 현차속식(縣次續食)²⁾하게 하고 서울에 도착한 다음에는 내의녀(內醫女)를 맡겼다. 왕이 만덕의 원손을 붙들고 칭찬한 후 변화한 서울을 다 구경시켜 주고 포마(鋪馬)를 주어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금강산을 두루 보게 하였다. 여행을 마치고 조정에 돌아오니 경대부(卿大夫)들이 모두 이별의 시문(詩文)을 주고 영의정 채제공(蔡濟恭)이 다음과 같이 전기를 썼다.

“사람됨이 몸은 크고 뚱뚱하여 키가 매우 크다. 말은 유순하며 외형은 후덕한 맛이 나타나고, 그 눈은 겹눈동자가 밝고 투명하다. 칠십 늙은 나

1) 적(籍) : 명부에 올림.

2) 현차속식(縣次續食) : 지나는 길의 각 현에서 차례로 음식물을 공급함. 『(漢書)』 「武帝紀」 徵吏民有明當世之務 習先聖之術者 縣次續食 令與計偕)

이에 얼굴과 머리가 신선이나 부처를 방불케 한다.”

이가환의 송별시

만덕은 뛰어난 제주 여인
예순 나이 마흔쯤으로 보이네.

귀한 돈 내어 쌀 사서 백성을 구제하고
한 번 바다를 건너 궁궐에 조회하였네.
오직 소원은 금강산 유람
산은 동북쪽 연무에 싸여있네.

임금께서 빠른 역마 내리시니
천 리 넘어 빛 광채 관동(關東)에 진동했네.
높이 올라 굽어보며 마음 눈 크게 열고
표현히 손을 저으며 바다로 돌아가네.

탐라는 고부량(高夫良) 삼성(三聖)이래
제주 여인으로 처음 서울 구경했네.
우레 같이 왔다 고니처럼 날아가니
높은 기풍 오래 머물러 세상을 맑게 하리.
인생살이 이처럼 이름을 드날리니
옛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어찌 부러워하리.

金萬德

本州良家女로서 幼년에 失恃하여 貧困이 莫甚하더니 及長에 敎坊에 托籍하야 縮衣損食하야 資産이 大致라. 正廟 十九年 乙卯春에 道內가 大飢어늘 萬德이 家産을 盡散하고 糧穀을 賈運하야 貧民을 救濟함이 甚多라. 牧使 奇히 하야 以聞하니, 王이 牧使의게 命하야 그 所願을 聞케 한데, 萬德이 對曰 王都와 金剛山을 求京함이 所願이라 하니 王이 特命을 下하사 縣次로 續食케하고 京城에 至한 後에는 內醫女에 充하다. 王이 萬德의 左手를 執하고 稱讚한 後 京華를 다 求景케 하고 馬를 給하야 道伯으로 하여금 金剛山을 遍覽케 하니라. 旅行을 마치고 還朝하니 卿大夫가 다 別章을 주고 領議政 蔡濟恭이 立傳하다. 爲人이 몸이 富大하고 키가 長大하야 言語가 柔順하며 外形에 厚德한 맛이 나타나고 그 눈은 重瞳이 瑩澈하야 老年七旬에 顔髮이 仙釋에 彷彿하다.

李家煥送別詩 萬德瀛州之奇女 六十顏如四十許 千金糴米救黔首 一航浮海朝紫禦 但願一見金剛山 山在東北烟霧間 至尊頷肯賜飛驒 千里光輝動江關 登高望遠壯心目 飄然揮手還海曲 耽羅遠自高夫良 女子今始觀上國 來如雷喧遊鵲舉 長留古風灑寰宇 人生立名有如此 女懷清臺安足數

【지은이】

담수계(淡水契)는 일제강점기 때 식민정책에 의해 말살된 민족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광복 직후 제주도내 석학인 김석익(金錫翼)·김창희(金昌禧)·김경중(金景鐘)·김범준(金範俊)·김문희(金汶熙)·김석호·백용석(白庸錫) 등 12명이 결성한 지식인 그룹이다.

二義女

본주(本州)의 선녀(仙女)로써 幼年에 父母를 잃고 孤獨히 生長한 바 及長에 敏妙히 批翰하여 綰衣機食하여 遠遊하여 大政(大正)十九年乙卯에 歸國하여 大飢에 遇金剛山의 家産을 盡散하고 補給을 領受하여 貧民을 救濟함이 甚多함 故에 褒賞하여 以 旌(旌)하니 王이 敎授의 命을 하얏다 그 所領을 聞에 한대 萬能히 처치하여 三都와 金剛山을 求果함이 所發이라 하니 王이 許命을 下하시 殿次로 領受케 하고 東城에 召見한 바 內匡女에 克하다 王이 萬能히 左手를 執하고 稱讚한 右京學를 다 求果케 하고 歸國을 命하여 以 道伯으로 하여금 金剛山을 遊覽케 하니라 旅行을 마치고 還朝하니 帝大夫人이 到幸을 주고 領藏(領藏)을 演說케 하니 立傳하다 鳥入이 爲大하고 其가 長大하여 以 金龜가 未曉하며 外形에 萬能한 것이 나다 하고 그 年은 金龜의 望微함이 老年七旬에 發髮이 仙釋이 得得하다 善友(善友)를 送別詩 萬能(萬能)通州(通州)之 奇女 六十頌(頌)如四十許(如四十許)金

【해제】

김석익 등 12명이 공동 편찬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는 크게 17개 항목으로 분류한 다음 각기 하위 항목을 설정하고 각기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17개 항목은 1. 지리, 2. 연혁, 3. 기상(氣象), 4. 풍속, 5. 구획(區劃), 6. 관공서, 7. 교통, 8. 통신, 9. 교육, 10. 종교, 11. 산업, 12. 언론기관, 13. 사회단체, 14. 산업기관, 15. 금융기관, 16. 인물, 17. 관풍안(觀風安)

洪允受 濟州府內人이라 正祖朝에 趙貞結이 本島에 顯居되였는데 允受가 貞結의 人格을 慕하고 그 所에 出仕한 지라 當時 牧使 朴自等이 從允受를 殺害한 지라 貞結이 有한 지라 此는 奇貨로 하여 允受를 가인 朴某로 轉回하였으나 允受가 不然함을 辨明하였다 專刑之下에 勢無奈何하고 드디어 趙貞結을 死한 지라 貞結이 表其墓曰 求義女는 鄭受處 鄭女라 正宗丁酉에 余이 以罪로 遺賊羅라 貞女時出入 象論이라니 丑에 土入이 故構余以 義女 依歸하여 設機壁矣 血肉이 綴幅의 義女라 曰 公大生이 在我一處라 하고 終不服에 又 趙繼而 殉하니 國之十五日也 然後三十一년에 余이 敬恩하여 以 移家로 來 餘玆方하고 象設臺道하고 象以詩曰 庭玉煙香幾幾年 誰將 國恩訪 迢迢 吳東路 遠故 何 頑 碧血藏深死 亦緣 千古 參石 衛社 烈 一門 雙節 弟 兄 貞 爲 頭 受 而 多 難 作 青 草 應 生 焉 亂 前 (貞兄이 亦有節而 雙受故로 第三十四冊에 及다)

總米故 黔直。一航涉海朝紫峯 但銀一見金鳳山 山在東北烟霧間 空傳靑
賜龍驤 千里光輝野江關 晉島望遠壯心昌 飄然揚手還海曲 耽羅遠自高夫良
女子令世覺上國 來如雷直遊謁寧 長留高風瀝長宇 人生立名齊如此 女戎
清白安足數

案) 등이다. 1. 지리는 '산천·천지(泉池)·사수(沙藪)·도로·도서(島嶼)·명승 고적, 2. 연혁은 기문 전설(奇聞傳說)·제영(題詠)·구례(舊禮), 16. 인물은 과학(科宦)·진사(進士)·문학·재유(才猷)·필원(筆苑)·효자·의사(義士)·효부·열녀·절부(節婦)·의녀(義女)·충비(忠婢)·의술(醫術)·천문(天文)·지리·부호(富豪)·골계(滑稽)·승려·기타 등으로 나누었다.

이 중 만덕 이야기는 16. 인물의 의녀편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제주도실기』처럼 크게 만덕의 행적을 기술한 전반부와 이가환의 송별시인 후반부로 되어 있다.

진성기(秦聖麒) 「만덕할망」

『남국의전설』, 『제주도전설』

만덕할망

만덕의 본은 김해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고생하다가 장성하여서는 교방(敎坊)에 몸 붙이고 살았는데, 본래 자비심이 두터웠고 근면 절약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래서 갑인년(조선 정조 18년) 흉년에는 아사지경에 이른 수많은 제주 빈민을 구제하기도 하였고 또 미리 곡식을 사들였다가 영세민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이런 일로 해서 당시의 제주 목사 이우현은 만덕 할망의 마음씨를 높이 칭송하고 이 사실을 임금님께 여쭙었다. 임금님이 들으시고 지극히 아리답게 여겨 목사로 하여금 할망의 소원을 묻게 하였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몸이라 별소원은 없습니다. 다만 조선의 명승인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임금님은 할망의 겸손에 더욱 감탄하였다. 임금님은 여러 편의와 안내자를 정하여 주어 할머니로 하여금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게 하였다.

만덕 할망이 유람에서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은 별장을 지어 주었고, 영의정 채제공(蔡濟恭)이 만덕 할망의 전을 지어 지금까지 전해 온다.

【지은이】

진성기(秦聖麒). 1936~ . 민속학자로, 본관은 풍기(豊基), 호는 한집이며, 제주 출생이다. 제주민속박물관에서 50여년간 수집한 민속유물과 고서화, 출판물 등 박물관 소장품을 제주대학교에 무상 기증했다. 『제주도전설』·『남국의 신화』 등 20여 권의 제주민속서를 저술하였다.

【해제】

이는 구전되는 전설을 채록한 것으로 진성기의 전설 자료집 『남국의 전설』과 『제주도전설』에 동시에 수록되었다. 만덕에 대한 전설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이 희귀하여 채록된 각편이 몹시 드문 편이다.

제4부

김만덕 관련 유적 및 현양



김응열 묘비문 (金應悅 墓碑文)

원비(原碑)¹⁾

가의대부 김공지묘

공의 휘는 응열(應悅)이다. 강희 신축년(1721) 8월 초 8일에 태어나고 건륭 무인년(1758) 정월 12일에 돌아가서 같은 해 10월 21일 인시에 신산지(神山) 처 강씨의 묘 왼쪽 오작지원(午作之原)에 합장했다.

진주강씨(晉州姜氏)는 강희 정유년(1717) 5월 17일에 태어나고, 건륭 신미년 (1751) 5월 초 3일에 돌아가서 같은 해 10월 21일 오른쪽 원(原)으로 장사지냈다.

장남은 금석(今碩)인데, 뒤에 탐라고씨에게 장가 들어 2남 1녀를 낳았다. 다음은 만석(萬碩), 다음은 딸 만덕(萬德), 다음은 아들 만재(萬才)이다.

嘉義大夫 金公之墓

公諱應悅 生於康熙辛丑八月初八日 終於乾隆 戊寅正月十二日 同年十月二十一日寅時 附葬于 神山旨妻姜氏之墓左午作之原 而晉州姜氏 生於康熙丁卯五月十七日 終於乾隆辛未五月初三日 同 年十月二十一日 葬于右原 生長子今碩 後娶耽羅 高氏 生二男一女 次萬碩 次女萬德 次子萬才

1) 원비(原碑) : •재질: 현무암 •규격: 가로 33~37.5cm × 세로 99cm × 두께 8~9cm
•건립시기: 18세기 후반 •소재지: 제주도 구좌읍 덕천리 563
•생몰년: 1721년(경종 1)~1758년(영조 34) •관계: 김만덕 부친



김만덕 부친 가의대부 김응열 · 정부인 탐라고씨묘와 원비



김만덕 부친 가의대부 김응열 원비((原碑) 탁본

개비(改碑)²⁾

가의대부 김공 응열 정부인 탐라고씨묘

공은 성 김(金), 휘 응열(應悅), 본 김해(金海), 입도 시조 휘 성순(性淳)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휘 영세(永世)이다. 배는 탐라고씨로 2남 1녀를 낳았다. 아들 만석(萬碩), 만재(萬才)는 일찍 죽었고, 손자는 성집(聲集)이다. 딸 만덕(萬德)은 도민 유공자이다.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공은 정월 12일에 돌아갔고, 배는 6월 3일에 돌아갔다. 묘는 덕천(德泉) 지경 어대악 아래 덕발 산림 입구 북향 쌍봉으로, 배는 왼쪽이다.

서기 1972년 임자 8월 1일 8대손 재흥 재길 삼가 세움.

嘉義大夫 金公應悅 貞夫人 耽羅高氏之墓
公姓金 諱應悅 本金海 入島始祖諱性淳之孫
也 考諱永世 配耽羅高氏 生二男一女 男萬碩
萬才夭 孫聲集 女萬德道民有功者 余不記 公
正月十二日卒 配六月三日卒 墓在德泉경 어
대岳下 덕발山林入口 北 向双封 配左
西紀一九七二年壬子 八月一日 八代孫才興
才吉 謹豎



2) 김응열 개비(改碑): •재질: 조면암 •규격: 가로 1.5~33.5cm×세로 80cm×두께 13~14cm
•건립시기: 1972년 •소재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563
•생몰년: 1721년(경종 1)~1758년(영조 34) •관계: 김만덕 부친

김만석 묘비문 (金萬碩 墓碑文)¹⁾

가선대부 김만석지묘

공은 김해인(金海人)이다. 영조 무신년(1728) 9월 20일에 태어나고, 같은 임금 무진년(1748) 12월 16일에 돌아가시니, 광양(廣壤) 삼성혈(三姓穴) 정(頂) 병좌지원(丙坐之原)에 장사 지내니, 같은 달 27일이다. 제주부씨에게 장가 들어 1남 1녀를 낳았다. 아들은 성집(聲集)이다. 모두 일찍 죽었다. 또 서녀 둘이 있다. 성집에게 아들 하나가 있으니 시채(時采)이다. 시채에게 2남 2녀가 있으니, 장남은 종백(鍾伯), 다음은 종계(鍾季)이며, 딸은 모두 어리다.

서기 1964년 4월 26일 어대악(御帶岳) 손좌(巽坐)로 이장했다. 8대손 연식(淵植), 7대손 재흥(才興) 재길(才吉) 재생(才生)

嘉善大夫 金萬碩之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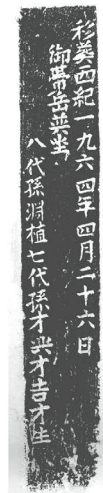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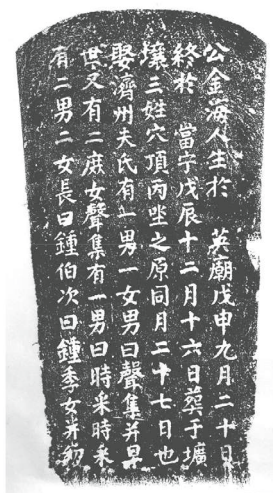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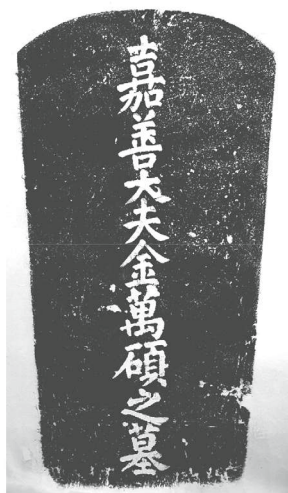
公金海人 生於英廟戊申九月二十日 終於當宁戊辰十二月十六日 葬于廣壤三姓穴頂丙坐之原 同月二十七日也 娶濟州夫氏 有一男一女 男曰聲集 并早世 又有二庶女 聲集有一男曰時采 時采有二男二女 長曰鍾伯 次曰鍾季 女并幼

1) 김만석 묘비문 : •재질: 조면암 •규격: 가로 33~40.5cm×세로 78cm×두께 10~11cm • 건립시기: 19세기•소재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563•생몰년: ?~1748년(영조 24)•관계: 김만덕의 오빠 *김만덕의 아버지 김응열과 나이 차이를 고려하면, 비문에 새겨진 김만석의 생년 갑자(甲子)에 오류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생년을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단, 역문(譯文)은 비문에 새겨진 갑자에 따라 풀이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만덕 관련 출생지 연구. 2021. 김만덕기념관》 참조.

移葬 西紀一九六四年四月二十六日 御帶岳巽坐 八代孫淵植 七代孫才
興才吉才生



김만석 구묘(구좌읍 덕천리 대억발 인근)



김만덕 오빠 가선대부 김만석 묘비 탁본

김만덕 묘비문(金萬德 墓碑文)¹⁾

행수내의녀 김만덕지묘

김만덕은 본관이 김해(金海)로, 곧 탐라 양가(良家)의 딸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영락(零落)하여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이 가난으로 고생하였으며, 자라서는 어여빠서 교방(敎坊)에 의탁하였는데,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줄여서 재산이 불어나 커졌다.

정조 을묘년(1795) 제주 섬사람들이 크게 굶주릴 때 능히 재산을 모아서 (육지에서) 곡식을 실어와 살린 목숨이 아주 많았다. 목사가 이를 어질게 여겨 조정에 보고하였다. 임금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으니 답하기를, 서울과 금강산의 빼어난 경치를 보기 원할 뿐이라고 하였다.

특명을 내려 고을마다 차례로 음식을 잇게 하고, 내의녀(內醫女)에 충원하여 베푼 은혜가 아주 많았으니, 이로 인하여 역말을 내어주어 1만 2천 봉우리를 두루 구경하게 하였다.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경대부들 모두가 전별하는 글을 지어 전해지게 하였으니, 비록 옛날 현숙했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일찍이 없었던 일일 것이다. 칠순에도 얼굴빛과 머리털은 신선과 부처를 방불케 하였고, 중동(重腫)은 밝고 맑았다.

다만 하늘의 도가 무심하여 애석하게도 아이가 없었다. 하지만 양손(養孫) 시채(時采)가 동기(同氣)로부터 나와 능히 유지(遺志)를 좇으면서 영원

1) 김만덕 묘비 : •재질: 조면암•규격: 가로 43~48cm×세로 97cm×두께 13~13.5cm

•건립시기: 1812년 •소재지: 제주시 건입동 397-4

•생몰년: 1739년(영조 15)~1812년(순조 12)

히 향화(香火)를 받들게 되었으니, 또한 다시 무엇을 한할 것인가?

원릉 기미년(1739)에 태어나서 지금 임금님 임신년(1812) 10월 22일에 돌아갔다. 다음해 병원지(並園旨) 갑좌지원(甲坐之原)으로 장사지냈다.

임금님 즉위 12년(1812) 11월 21일

行首內醫女 金萬德之墓²⁾

金萬德 本金海 卽耽羅良家女也 幼而失恃 零丁貧苦長 而靡曼 托跡敎坊 縮衣損食 貲產滋大 歲在 正宗朝乙卯 島人大飢 能傾財運穀 活命甚衆 牧伯賢之以聞 上問何所欲 對曰 願見京華金剛之勝 而已特命縣次續食 充內醫女寵頒便蕃 因舖馬便覽萬二千峯 及其還 卿大夫 皆驢章立傳 雖古賢媛 盖未嘗 七旬顏髮彷彿仙釋 重瞳炯澈 但天道無心 惜乎無兒 然養孫時采 出自同氣 克遵遺志 永香火亦復奚憾 生于元陵己未 終于當寧壬申 十月二二日 以翌月窆于並園旨 甲坐之原 上之卽位十二年 十一月二十一日立

2) 김만덕묘비: 1812년 11월 21일에 세운 김만덕 묘비문은 크게 만덕의 생몰시기, 출신, 성장 과정, 재산 형성, 진휼 과정, 상경과 금강산 유람, 용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조가 내린 특명의 내용과 서울의 많은 공경대부들이 그녀에 관한 글과 전기를 작성했음을 밝혀놓고 있다. 생몰시기와 양손(養孫) 시채(時采)에 대한 이야기, ㄹㅇㄴㅇㄹㅇ(並園旨)에 장사를 지냈다는 이야기는 다른 자료에는 없는 내용들이다.



김만덕 구묘(김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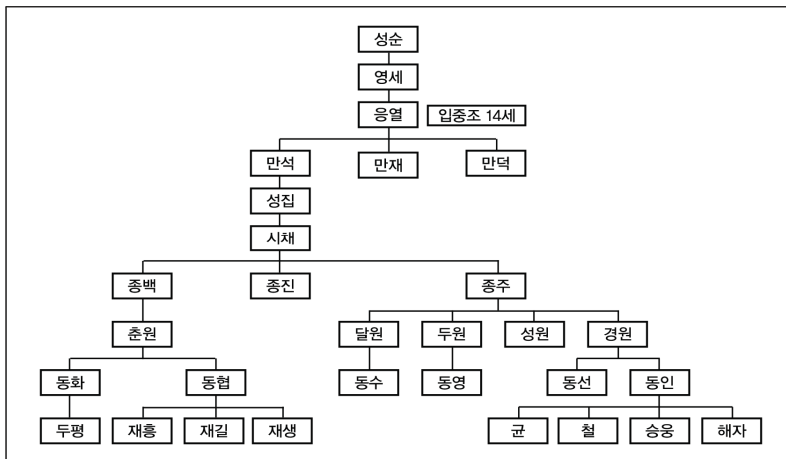
김만덕 묘비 탁본

족보로 본 김만덕 가계도¹⁾

김만덕 일가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가족관계, 묘의 위치, 자녀의 나이 등이다. 분석 대상 족보는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후찬 계보(金海 金氏左政承公派厚瓚系譜)이다.

김만덕 일가 족보에 따르면 만덕 증조부의 옛 묘는 제주시 이도동 지경(濟州市 二徒洞 東山員 墓失傳)에 있었으나 실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부의 옛 묘도 실묘(墓失傳)되었고, 위치도 미상으로 적혀 있다. 김응열의 옛 묘는 제주시 일도동(一徒洞 九重員)에 있었으나 현재의 묘역인 덕천리 지경으로 옮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만덕의 오빠 김만석과 동생 김만재의 옛 묘는 모두 제주시 동광양



<그림 6> 족보로 본 김만덕 가계도

1) 족보로 본 김만덕 가계도 : 《김만덕 관련 출생지 연구. 2020. 김만덕기념관》 참조.

일대(만석 : 二徒洞 東廣壤, 만재 : 二徒洞 東廣壤)에 있었으나 지금의 덕천리 지경으로 옮긴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족보에는 만덕 부친은 1750년에 사망했으며, 큰오빠 만석은 1728년에 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만재의 출생연도는 기록에 없으며 만덕은 1739년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 족보에 따르면 부친 사망 당시 큰오빠는 23세이고 만덕은 12세였다.
- 김응열 원비에는 1758년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근거하면 만덕은 20세이다.
- 김만석 묘비를 보면 1728년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부친 김응열이 1721년생이므로 이는 비문 작성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김만덕묘의 관리는 사라봉 묘역에 안장되기 이전까지는 김두평 씨가 관리하였으며, 그의 사후(1946년)에는 아내인 한계월이 관리했다.

김만덕의 의례 주관자에 대해서는 김만덕 묘비문에 기록되어 있다.

“다만 하늘의 도가 애석하게도 아이가 없었다. 하지만 양손 시체가 동기로부터 나와 능히 유지를 좇으면서 영원히 향화(香火)를 받들게 되었으니, 또한 무엇을 한할 것인가.”로 적혀 있다. 또한 ‘동기로부터 나와’라는 구절은 양자로 입적했음을 밝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만덕의 묘비에 새겨진 ‘영원히 향화(香火)를 받들게 되었으니’라는 구절은 그 당시 사회 저변에 존재하고 있던 사후봉양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족의 위계와 주요 사실을 기록하는 족보에서는 양손 시체가 양자로 입적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결국 족보에 나타난 김만덕 일가의 옛 묘는 만덕을 포함한 증조부까지는 제주시 동지역(일도동, 이도동, 건입동) 인근에 있었다. 묘의 관리 측면에

서 살펴본다면 최소한 증조부까지는 제주성 내외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만덕 출생지에 대한 단서²⁾

김만덕의 출생지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 묘지와 금석문, 족보 등이 있다. 김만덕 일가 족보에는 김응열(김만덕 부친)은 제주 입도 14세로 기록되어 있다. 김응열의 부친 김성순 묘지는 제주시 이도동에 있으며, 김응열 무덤은 동문 밖 동산원(제주시 일도동 구동원)에 있었는데, 도시계획에 따라 덕천리로 이묘했다. 김만덕의 오빠인 김만석의 무덤은 동광양에 있었으며,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덕천리로 이묘했다. (제주시 이도동과 삼도동의 공동묘지는 옛 제주농업고등학교 자리이다.)

원래 김응열과 그 후손들의 묘지는 제주시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아라동 등지에 있었다. 김상수의 조부(둘째)인 김재길은 일본에 거주했는데(1968년 경 도일), 1975년 경 제주도에 와서 조상묘를 찾아서 덕천리 공동묘지로 이묘하였다. (김재길은 조상들의 묘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김응열 후손 중에 구좌읍 덕천리로 거주지를 옮기게 이유는 두 가지로 전해 온다. 첫째는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간(조천 거주자와 김응열 후손들)에 갈등이 있었고, 그에 따라 김춘원(김성순 기준 8세, 족보 기준 19세) 등이 덕천으로 이주하였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제주도에 민란이 있었는데, 그 난리를 피해서 김종백이 덕천리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그 후에 김종백의 후손들이 덕천리에 거주하게 되었다.

2) 《김만덕 관련 출생지 연구. 2020. 김만덕기념관》 참조.

김종백의 후손인 김동화 소유의 토지가 덕천리와 김녕리에 많았고, 그 일부가 덕천리 가족공동묘지로 조성되었다.

김춘원(김종백의 자)이 덕천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면서 그 후손들은 덕천리가 생활권이 되었다. 1960년대 제주시 동지역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김응열, 김만석 등 선조들의 무덤을 구좌읍 덕천리 가족공동묘지(일명 대억밭)로 이묘하였다. 이후 김만덕 가계의 공동묘지를 조성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김만덕 가계의 무덤 위치로 보아 김만덕의 출생지는 제주시 성안(일도리 일대)으로 봐도 무방하며, 거주지에서 장사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김시채의 아들은 김종백, 김종진, 김종주 등 3명인데 그 중에 김종주가 추사 김정희와 교류가 있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생활 중에 <은광연세> 편액을 써서 김종주에게 주었다. 이 편액은 김종주→김경원→김동인→김균으로 전해 내려왔다. 김균이 <은광연세> 편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0년 김만덕기념사업회에 기증했다.

김만덕 후손들과의 면담 결과 김만덕의 출생지가 제주시 성내(일도동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백의 장남인 김춘원 자녀는 김동화와 김동협이다. 김동화의 장남 김두평이 김만덕 묘지를 관리했으며, 그의 손자인 김영호로 이어졌다. 김동협의 후손으로 김상철, 김상돈, 김상수, 김상백 등이 있으며, 이들이 현재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후찬계’의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김만덕묘의 이묘 당시 상황

김만덕묘를 이묘할 때 김만덕 후손도 참여하였는데 2020년 4월 면담시에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계월(김두평의 아내)의 장손인 김영호(1945년생)와 고창월의 손자인 김상수(1948년생)가 참석했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묘하는 날까지 사라봉에 있는 한 사찰에서 며칠간 기도를 드렸다.

『구원의 여인상 김만덕』(김봉옥 편, 제주도, 1989)에는 김만덕묘의 이묘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구묘 주변에 자동차정비공장(제주시 건입동 소재 안전공업사 터)이 들어서고 주택이 늘어나면서 김만덕묘를 이장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1971년 10월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조직되어 사라봉과 산천단(제주시 아라동) 등지로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1976년 5월 <충력안보 제주도협의회>의 주관 하에 모충사를 건립함에 따라 김만덕묘 이장도 동의를 얻었다.

따라서 1977년 1월 3일 사라봉(제주시 건입동 소재)으로 이묘해서 묘탑을 세웠다. 김만덕묘탑 왼쪽에 유공자 기념탑 2기가 있다. 그 당시에 여성인 김만덕 묘탑을 중앙에 세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위치에 세워졌다.

김봉옥이 『제주개발』 1977. 2·3월호)에 투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77년 1월 25일 <김만덕 의인 기념탑>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여기에 참석한 한계월(韓桂月, 80세)은 김만덕의 7대 후손 며느리로 김만덕의 묘를 벌초하고 관리해 왔다. 한계월은 김두평(金斗平: 구좌면 덕천리 거주)의 아내이다. 그 아들 김연식(金連植: 당시 60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한계월은 맏손자인 김영호(金榮浩, 당시 32세; 구좌면 동김녕리 청수 마을)와 같이 살고 있다.

김상돈(1962년생)은 김만덕묘 이묘 당시 조모(고창월)와 함께 7일간 사찰에서 기도했다(사라봉에 있는 절). 그 당시 김만덕 후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고, 김만덕묘와 조상 묘는 친척들이 공동으로 관리했다.

김영호(1945년생)의 증언을 들어보면 김만덕 무덤을 파 보니 관 속에는 진흙과 붉은 물이 가득 차 있었다. 개판은 느티나무이고, 관은 비자나무로 되어 있어서 관은 온전히 그대로 있었다. 다만 시신은 다 녹아서 아무 것도 없었다. 새 관을 짜서 관 속에 있던 흙을 담고, 이묘했다. 현재 탑 밑에는 관이 묻혀 있다.

김만덕 묘지 관리주체

김만덕은 김성집(김만석의 아들)의 장자 김시채를 양손으로 삼았고, 김종주로 김만덕의 유지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추사 김정희는 김종주에게 <은광연세> 편액을 써 주면서 그 가문을 칭송했다. 김만덕의 유업은 김종주에서 그 아들 김경원으로 이어지고, 김동인을 거쳐 장자인 김균에게서 <은광연세>가 빛을 발하였다.

- 김종주는 철종부터 순조 때까지 제주 향리를 지냈다. 따라서 김만덕은 미혼으로 후사를 이은 자손은 없었으나 조카의 후손을 통해서 그 유지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후손들은 제주도를 떠나 있어서 김만덕묘지 관리는 방계 후손들이 담당하였다.

김균의 조부인 김경원묘는 김만덕묘와 같이 있었다. 김만덕묘를 사라

봉 모충사로 이묘하게 되면서 김경원묘는 덕천으로 이묘했는데, 이 시기는 1976년경이다.

김경원의 자손인 김동인이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부산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묘지 관리를 하지 못했다. 즉 김동인이 제주를 떠나 있어서 외가인 백씨 문중에서 김만덕묘와 김경원의 묘를 관리하고 벌초를 해 왔다.

이후 김두평(김춘원의 장손)이 김만덕묘를 관리하다가 그가 사망함에 따라 1960년대부터 1977년 1월 이묘할 당시까지는 김영호와 조모(한계월)가 김만덕묘지를 관리해 왔다.

김만덕 객주터¹⁾

객주(客主)는 ‘객상주인(客商主人)’의 준말로 객상들에게 거처할 곳을 제공하고 물건을 보관해주거나 거래를 알선하는 상인이다. 숙박을 전업으로 하는 보행객주(步行客主), 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환전객주(換錢客主), 위탁매매부터 숙박·금융·도매·창고·운반 등 주선의 전반적인 것을 모두 하는 물산객주(物産客主) 등이 있다.

거간(居間)은 객주에게 시장의 거래상황을 알려주고 매매자의 신용 정보 등을 조사해 주는 등 객주가 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구문(口文, 口錢)을 받는다. 객주의 자금에 자기의 자금을 투자



김만덕객주

- 1) 김만덕객주 시설현황 : •위치- 제주시 건입동 1297번지 일원. •부지 : 2,146㎡
•규모 - 초가 8동(만덕고가 4동 246㎡, 객주시설 4동 144㎡)
•개관 - 2015년 9월 •운영 - 건입동마을협동조합 •기타 - 김만덕객주는 200년 전 김만덕 객주의 모습을 재현한 현대판 객주터로, 객주 일부를 주막으로 운영하며 제주도 향토음식을 판매 •문의 : 064-727-8800

하거나 업무를 같이 보는 ‘동사거간(同事居間)’과 거래 알선만 담당하는 ‘노력거간(勞力居間)’, 쌀과 곡식거래에 관여하던 ‘미곡거간(米穀居間)’, 금전거래를 중개하던 환전거간(換錢居間) 등도 있었다.

여각(旅閣)은 조선시대 각 연안의 포구에 자리잡고, 지방에서 오는客商(客商)들을 위해 화물의 도매·위탁판매·보관·운송업 등과 금융업·여관업을 겸하던 상업기관. 특히 지방도시의 화물집산지 역할을 하였고 많은 자본을 가진 객주를 말한다. 여각은 대개 큰 창고를 보유하고 소와 말을 재울 수 있는 마당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하는 일이 객주와 유사하여 어염, 곡물, 수산물 등의 위탁판매 또는 매입 등을 생업으로 한다. 다만, 여각은 객주와 달리 곡물·어류·연초·소금 등 주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품을 취급하였고, 해산물을 주로 다루었다.

김만덕객주는 육지에서 들여온 곡식과 생필품과 제주도의 각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수집해서 제주성에 공급하고, 제주의 특산물인 양태, 수산물, 가축 등을 배편으로 내보내는 연안무역을 하는 물산 객주와 여각의 역할을 하여 부를 축적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객주 거래대장(국립민속박물관)

의녀반수 김만덕 의인묘(醫女班首 金萬德 義人墓)

모충사 건립사업이 구체화되던 무렵 건입동 사라봉 오거리 부근 ㄴ의니마루(竝園旨) 도로변에 있던 김만덕묘를 1976-1977년 모충사¹⁾로 이묘하고 기념탑을 세웠다.

사라봉²⁾ 모충사에는 입구에서 좌측에 <순국지사 조봉호기념탑>, <의병항쟁기념탑>이 있으며 우측에 <의녀반수 김만덕 의인묘>가 있다.



의녀반수 김만덕 의인묘(醫女班首 金萬德 義人墓)

이곳에서는 매년 10월 김만덕의 기일에 가까운 일요일을 정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김만덕재단이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이 주관하는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을 봉행한다.

김만덕의 정신을 기리고 시대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해 1980년부터 거행한 만덕제는 도내에서 덕망있는 여성제관들이 제관의 직분에 따른 유

1) 묘충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426. 도민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사당이다.

2) 사라봉 : 제주시 동쪽 건입동에 위치한 봉우리로 일몰이 영주10경중 하나이다.

교식 묘제의 예절 등을 익히고 참여한다.

김만덕상은 김만덕 의녀의 숭고한 자주·근면·박애정신을 추모·계승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에 따라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한 모범여성을 발굴·시상한다. 봉사부문은 경제적·물질적 도움보다는 순수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봉사에 앞장서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과 경제인부문은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베픔의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시상하고 있다.

의인 묘탑 입구에는 김만덕묘비³⁾와 석물이 이전되어 있다.



김만덕 묘비와 석물

3) 김만덕묘비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4호. 모충사 경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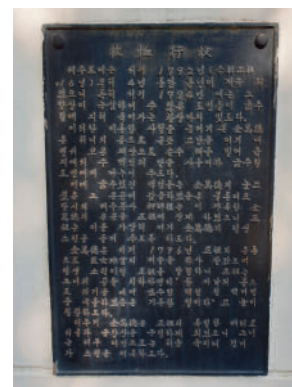
기념탑 정면



벽면 동판 : 송덕의 글



우측 벽면 동판 : <약력>



좌측 벽면 동판 : <구휼행장>



기념탑 뒷면 동판 : 정조 알현과 금강산 유람



기념탑 뒷면 동판 : 제주목사에게 쌀 기부

(구)만덕관

의녀반수김만덕의인묘탑 맞은편에 위치한 (구)만덕관에서는 김만덕 일대기 그림, 당시 생활용품, 김만덕영정 등을 전시하였다. 또한 당시 <萬德館> 현판은 이가원 박사의 휘호이다. 현재는 (구)만덕관에 있던 소장품을 김만덕기념관으로 이전하였으며, 김만덕기념관에서 김만덕 현양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만덕관과 당시 현판

김만덕기념관

2015년 5월 29일 개관한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은 대한민국 최초의 나눔문화전시관으로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고자 건립된 1종공립박물관이다. 김만덕의 삶과 정신을 소개하는 상설전시관과 나눔의 의미를 체험활동을 통해 배우는 나눔실천관, 그리고 열린 문화공간인 나눔문화관(만덕갤러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만덕 나눔·도전정신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문화소통공간’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단법인김만덕기념사업회(상임대표 고두심)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으며, 2021년 1월부터는 재단법인김만덕재단(이사장 양원찬)이 운영하고 있다.



현 김만덕기념관(2015.5.29 개관, 제주시 산지로 7)

김만덕일대기 그림¹⁾

2000년 김만덕 일대기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강부언 화백의 작품이다.

김만덕의 어린시절, 부모사별, 기적에 등재, 기녀 만덕, 기적에서 벗어나, 객주를 통해 거상이 된 만덕과 구휼활동, 정조 알현, 금강산 유람을 주제로 총8점으로 제작되었으며, 현재 김만덕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김만덕의 어린시절

1) 김만덕일대기 : 이 그림은 작가의 창작물로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다.



부모사별



기적에 등재



기녀 만덕



기적에서 벗어남



객주를 통해 거상이 된 만덕과 구휼활동



정조 알현



금강산 유람



김만덕 국가표준영정

크기 : 가로110cm, 세로 190cm

제작자 : 윤여환 화백

2009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와 김만덕기념사업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동상영정심의위원회에 김만덕 영정에 대한 심의를 의뢰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4차례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0년 7월 21일, 김만덕 영정을 ‘국가 지정 표준 영정 제82호’로 지정했다. 표준 영정은 우리 역사상 민족적으로 우리름을 받는 선현들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표준 영정에 실린 김만덕 영정의 용모는 친정 후손 얼굴의 특징과 김만덕상을 수상한 제주여성들의 공통된 특징을 채집 분석하고, 김만덕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김만덕의 용모 특징을 찾아내어 사업가적인 품격과 나눔 정신이 깃든 인자한 기상을 담아냈다.



김만덕 국가표준영정

김만덕 자료총서Ⅱ 개정판

인 쇄 2021년 2월 4일

발 행 2021년 2월 9일

발행인 양원찬

발행처 김만덕재단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0길 31, 2층

전 화 064-756-0805

팩 스 064-758-0805

교 정 김상훈, 곽 민, 김현주, 김옥선

제 작 도서출판 비지아이

ISBN 978-89-92360-55-5 비매품

copyright ©2021 김만덕재단